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하게 자란 나무, 나무기둥 사이로 도사린 어둠 그리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검은색 제단.

김이림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여행조차 영상시청으로 대리만족하는 집순이였지만 이 우중충한 숲이 어딘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수백 번을 들락거린 장소였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말이다.

버려진 제단 '슬레인'

일주일 전 출시한 모바일 롤플레잉게임 "언아더"의 시작 스테이지.

공개된 4개의 시나리오 중 첫 번째였고, 공식 카페에서 공략도 친절하게 올려준 일명 튜토리얼 맵이었다.

남들은 이틀이면 다 깬다는 걸 일주일이나 걸려 깼으니 모를 수가 없었다.

다만, 잘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숲 속, 그것도 게임 속 장소라면 누구나 잠깐은 넋이 나간다는 거였다.

헐? 하고 입을 벌렸던 그대로 한참을 굳어 있던 김이림은 돌연 경기를 일으킬 것처럼 몸을 떨다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아!”

깔린 게 축축한 흙인데 넘어진 곳이 하필이면 돌출된 나무뿌리 위였다.

꼬리뼈를 타고 올라오는 얼얼함에 눈물이 찔끔 났다. 그리고 아프다는 사실에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파? 왜 아파? 아프면 안 되는데?

“아, 제발...”

눈을 질끈 감자 고여 있던 눈물이 주룩 흘렀다. 울고 있는데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느 날 이었다. 어쩌다보니 친구가 된 SNS 이웃이 대화를 걸어왔다.

"혹시 핸드폰으로 게임 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대답 못할 질문도 아니라서 곧바로 답장했다.

"네"

너무 단답인가. 보내놓고 나니 신경이 쓰여서 이모티콘이라도 붙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어떤 게임이요? 얼마나 해요? 모험이나 싸우는 게임 좋아해요?"

"쿠런이요. 손 심심할 때 하고요. 모험, 전투는 별로..."

"자업자득 님: 이런"

" 왜요??"

"자업자득 님: 사실 제가 이번에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베타기간 없이 바로 오픈하게 돼서 다른 누군가 플레이해보고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캐릭터 생성, 종족, 직업 설정도 다 해서 줄 거고 선물까지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싫다고 거절하기도 뭐해서 알겠다고 대답했다.

캐릭터는 어떻게 커스텀 해주면 되겠냐고 묻기에 흑발, 흑안이고 귀여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종족은 뭐로 해줄까요?"라는 질문에는 곰이라고 했다. 마침 보고 있던 영상에 곰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웃은 며칠 후 게임링크와 함께 아이디, 비밀번호를 같이 보내왔다.

"자득님! 캐릭터 너무 예뻐요!"

"으악 곰돌이 진짜 졸귀ㅠㅠㅠㅠㅠ"

그런데 조작이 너무 어려워요… 저 5분 째 나무기둥 사이에 갇혀 있어요"

처음해보는 3D게임은 멀쩡하게 걷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나무인형을 힘차게 때려야 하는데 그 인형한테 가는 것부터가 이미 퀘스트였다.

그래서 그 때까지만 해도 이 게임, "언아더"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변신캐릭터인 새카만 아기곰이 너무 귀여워서 참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만큼 한 게 아까워져서 했다. 나중에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 현질을 한 후였다.

게임을 시작한 지 일주일. 남들은 이틀이면 전직한다는데 현질을 했는데도 7일이나 걸렸다. 캐릭터 정보가 초보자에서 전사로 바뀐 걸 보니 그저 감동이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였다. 혼자 또 좋아서 몸을 꿈틀대다가 침대 밑으로 핸드폰을 떨어트리고 말았다. 그리고 떨어트린 김에 좀 쉬고 싶었다.

일주일 간 게임에 빠져서 식욕, 수면욕을 등한시하고 살았더니 몸이 파업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 전사됐잖아. 나도 이제 낮잠 잘 자격이 있어.

사실은 겨우 두 번째 시나리오인 "흔들리는 신성국'화이트'"를 시작하나 했더니 스토리 진행모드가 끝난 후 또다시'슬레인'에 관련된 퀘스트가 나와서 좀 지겨워진 참이었다.

어떻게 벗어났는데 또 거길 가라고 할 수가... 전사도 됐겠다, 그만 둘까. 그런데 곰돌이랑 설기가...

그게 잠들기 전 마지막 기억이었던 것 같다.

윙 위잉

귓가를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아직도 모기가 있다고? 이 추운 날씨에? 에이씨.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면서 팔을 뻗었다. 이불을 뒤집어 쓸 생각이었다. 그런데 손끝 감각이 이상했다.

“...?”

왜 이렇게 딱딱해?

누운 자리가 딱딱하다는 걸 깨닫자마자 돌바닥에 베긴 몸이 아파왔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침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불편함이었다.

잠버릇이랄 게 없는데 어쩌다 바닥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완전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꽉 막힌 천장이 아니라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었다.

“으응…?”

눈을 몇 번 더 깜박이고, 부비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보이는 게 달라지진 않았다.

“꿈?”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 표정마저 오래가지 못했다.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털었다. 손등 위로 느껴졌던 불쾌한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양팔로 몸을 감싸고 주변을 살폈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는 하늘마저 가렸고, 나무기둥 사이로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누워있던 곳은 땅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새카만 대리석 위였다.

그 위를 흙이 한 번 덮고, 땅을 뚫고 나온 나무뿌리들이 휘감아서 땅바닥이라고 착각했던 거였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다. 처음에는 말이다. 그런데 숲을 보면 볼수록 자꾸 생각나는 게 있었다.

어두운 숲. 까만 바닥. 흙이 쌓여있고, 깨졌고, 엉망인 대리석.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숲. 대리석. 까맣고, 정오각형인, 제단. 버려진 제단'슬레인'!

“헐.”

깨닫고 나자 왜 몰랐나싶을 만큼 낯이 익었다. 하지만 왜? 왜 0과 1의 세계가 눈앞에 있는 건데?

눈을 깜박일 때마다 미지의 공포도 같이 부피를 키워갔다.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일이었다. 으아아악! 제대로 비명도 못 지르고 몸을 떨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하필이면 평평한 바닥이 아니라 나무뿌리에 꼬리뼈가 제대로 찍혀서 그대로 눈물이 핑 돌았다.

아파? 왜 아파? 아프면 안 되는데?

“아, 제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질끈 감자 고였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뺨을 세게 때렸다. 잠에서 깨고 싶었는데 오히려 정신만 번쩍 들 뿐이었다.

얼얼한 뺨을 붙잡고 훌쩍훌쩍 울다가 이상한 느낌에 볼을 주물렀다. 말랑했다. 내 볼이 아니었다.

화들짝 놀라 손을 내리자 새하얗고 길쭉한 손가락이 보여다. 내 손도 아니었다. 구부러지는 검지는 분명 내 뜻대로 움직인 게 맞았지만 어쨌든 내 손이 아니었다. 아닌데. 왜.

불가사의는 소수에게는 모험욕구를 다수에게는 공포를 선물했다. 그리고 나는 후자에 속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에 기어코 시야가 핑 도는 순간이었다.

퐁!

실제인지 모를 앙증맞은 효과음이 들렸던 것 같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시야가 달라져 있었다.

“그응? ...그으응!?”

놀라서 벌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상하기 보단 그러니까 짐승 같은. 에이 설마!

“그으응!”

에이 설마라고 중얼거렸는데 나오는 건 목울음이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 번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 아니,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볼 사이도 없이 머리가 뒤로 넘어갔다. 꼬리뼈에 이어 뒤통수도 얼얼했으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발라당 뒤로 넘어가는 와중에 보게 된 내 몸이었다.

팔이 있어야 할 공간은 텅 비고 대신 원래 팔 길이에 훨씬 못 미치는 까만 앞발이 자리했다. 누운 상태로도 보이는 볼록한 아랫배 역시 까맣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굳는다고 하더니 진짜였다.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얼어있는데 귀가 쫑긋하고 움직였다. 사람 귀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쫑긋할 수는 있어도 진짜 쫑긋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내 귀가 진짜 쫑긋하고 섰다.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우니 조금만 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마냥 더 큰 아수라장을 향해 달렸다.

또다시 부스럭 소리가 나고, 그래서 또 귀가 쫑긋했을 때 꽉 들어차 비좁다 생각했던 나무기둥 사이에서 외국인이 튀어나왔다.

“얼레? 웬 곰 새끼여?”

곰...?

“아무리 버려진 제단이라지만 진짜 개나 소나 다 올라가네.”

갑자기 나타나서 떠들어대는 외국인은 갈색머리에 갈색 눈을 하고키도 농구선수처럼 컸다.

“어쨌든 잘 됐네. 저걸 미끼로 쓰면 될 거 같고... 저거 잡으려면 이 새끼부터 좀 묶어놓고...”

외국인이 주변을 살피느라 몸을 틀자 그 뒤에 또 다른 외국인이 있었다. 아주 잠깐 모든 상황도 잊었을 만큼 대단한 미남자였다.

어떻게 앞에 있던 갈색머리 남자에게 가려졌던 걸까 싶을 만큼 훤칠한 신체도, 우중충한 숲에서도 자체발광 하며 빛을 뿌리는 금발도, 투명하게 보이는 시린 벽안도 대단했지만 그 중 가장 대단한 건 그 모든 걸 조화롭게 소화해내는 이목구비였다.

금욕과 성욕의 공존은 창작물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의 남자가 그런 내 어리석음을 꾸짖듯 얼굴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순간이지만 넋을 놓고 봤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갈색머리 남자가 움직이는 순간 바로 정신을 차리긴 했다.

시야가 낮아지고 나서 아까보다 더 넓어진 것 같은 검은색 제단을 갈색머리 남자는 몇 걸음 만에 가로질러 왔다. 코앞까지 다가온 남자는 양손에 굵은 밧줄을 들고 히죽 웃었다.

“쉬, 쉬. 곰탱아. 착하지?”

“그응!”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다치니까 거기 가만 있자.”

그가 다시 한 걸음 좁히는 순간 허리춤에 걸린 칼이 번쩍였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뒤로 몸을 뺐다. 그 모습에 더 즐거워하며 천천히 따라오는 남자는 공포 그 자체였다.

어느 순간 손바닥이 허공을 짚었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바닥은 없고 시야가 낮아진 이후 부쩍 무거워진 머리는 당연하다는 듯 제일 먼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앙!”

쿵 소리가 나고 곧 머리를 비롯해 온몸이 아팠다. 진짜 너무 아파서 참을 새도 없이 눈물이 났다.

“쀼잉쀼잉”

아니, 시발?

“쀼이잉!”

입으로 소리 내서 울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울음소리가. 쀼, 아니 그러니까 쀼

“쀼잉쀼잉”

세상에. 울음소리가 쀼잉이라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픈 게 대수랴. 수치스러워 죽고 싶었다. 그때였다.

서걱

“컥!”

단발마의 비명이 이렇게 소름끼치기는 처음이었다. 비명과 함께 풀썩하고 쓰러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숨을 죽이고 위를 올려다봤다. 뚜벅뚜벅 발소리를 뒤따라 온 것처럼 비릿한 피 냄새가 훅 풍겼다.

머리 위로 그늘이 졌다. 안 그래도 어두웠는데 정말로 시야가 까맣게 변했다. 앞에 보이는 거라곤 꼭 밤에 만난 고양이 눈처럼 빛나는 벽안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이었다.

하늘을 축소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눈동자였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날 내려다보던 남자가 아래로 가볍게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날 향해 손을 뻗었다.

죽는다! 하지만 남자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다.

“귀엽네.”

감정이 깃들지 않았으니 로봇마냥 건조해야 할 목소리인데 이상하게도 야한 느낌이었다. 숨 쉬는 것도 멈추고 남자를 올려다봤다. 잘생긴 얼굴이 지나치게 가까웠다.

남자는 날 죽이는 대신 한 팔로 안아들었다. 꼭 곰 인형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슬레인'은 마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복인 탐욕의 마왕 펜치(PENCH)의 제단이에요.

하지만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제단이 오염되고 그 기능을 잃었다는군요.

제물 대신 사도들의 피가 흩뿌려졌고, 그 핏자국이 다 지워질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된 곳인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곳에서 불온한 기운이 느껴져요.

스스로를 이세계의 사람으로 칭하는 자여.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대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곳으로 가서 수상한 게 없는지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우중충하던 숲은 해가 지자 완전히 어둠에 잠겨버렸다. 밤이 되자 풀벌레보다 우짖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고, 공기는 무거웠다.

장마 때보다 습하고 축축한데 동시에 초겨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공기가 찼다. 몸이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았다면 분명 추워서 덜덜 떨었을 날씨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과 살인 목격. 연달아 벌어진 일들에 머리는 생각을 멈췄다. 영화든 소설이든 만화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빽빽 울기만 하는 등장인물을 보면 민폐라고 욕했는데 그러면 안 됐다.

“쀼잉, 크앙! 쀼이잉…!”

지금의 상황이 황당하고 무서워서 울면‘쀼잉’하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가 났다. 성질이 뻗쳐서 욱하면‘크앙’이었다. 우는 것마저 내 뜻대로 안 되니 미치고 팔짝뛰다 더 우는 악숙환이 반복됐다.

“왜 자꾸 울어.”

“쀼…, 크아앙!”

“배가 고픈 건가.”

울다가 화냈다가 다시 울었다. 그래봤자 하찮은 울음이지만 더는 무시할 수 없었는지 계속 날 안고 이동하던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코앞의 사물마저 분간이 안가는 어둠 속에서도 남자의 벽안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달처럼 환하고, 도깨비불처럼 요사스러웠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쁏…!”

울음을 삼키며 지그시 내려다보는 벽안을 피했다. 고개를 처박은 곳이 남자의 옆구리인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얼굴이 안보이니 한결 나았다.

실상 지금 울음 멈추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남자 때문이었다.

몇 시간 전 제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가 남자의 품에 안기고 난 직후, 살면서 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것을 목격했다. 죽은 시체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있던 갈색머리 남자는 허리가 반쯤 갈린 채 눈을 부릅뜨고 절명해 있었다. 갈라진 허리, 흘러나온 내장, 까만 대리석보다 더 짙은 피 웅덩이.

충격이 지나치니 눈을 감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다. 경악으로 굳어 있는 사이 남자는 제단 위로 올라갔다.

그나마 시체와 있던 거리감은 순식간에 좁혀지고,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발끝으로 남자의 시신을 뒤지는 모습을 보자,

“아앙!”

억눌린 비명과 함께 울음이 터져버린 거였다.

속이 역해져서 토를 했더니 남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손길로 등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자 위장이 뒤틀렸다.

이미 충분히 혼돈의 카오스요, 아수라장의 한복판인데 폭주한 차는 멈출 생각도 없이 계속 달렸다. 그랬다. 불행이 여전히 이어졌다는 뜻이었다.

시체를 뒤져 몇 가지를 챙긴 남자가 나까지도 챙기고 말았다. 처음에는 곰 인형처럼 안고 다녔지만 낯설면서도 낯익은 존재들이 튀어나오자 나는 남자의 가슴팍에서 옆구리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키에엑!

몬스터의 등장이었다. 오염된 홉고블린, 저주받은 우차라족의 오크병사, 변종 초록슬라임.

게임할 때도 징그러웠던 몬스터는 실제로 보자 더 별로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 몬스터들도 남자의 칼 아래 죽어나간다는 거였다.

물론 죽이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피가 다 깎여 죽는 게임처럼 말이다.

하지만 소형종인 홉고블린만 해도 성인의 허리춤을 훌쩍 넘었고, 오크는 성인남성을 훌쩍 웃돌았다.

사람만한 덩치의 것들이 피를 흩뿌리며 죽어나가니 나중에는 눈앞이 그냥 빨갰다. 진정하고 싶어도 자꾸 몬스터가 나타나고, 썰렸다. 그렇게 내리 비명을 지르며 울었더니 나중에는 손 하나도 꼼짝할 수 없었다.

축 늘어져 숨만 가쁘게 내쉬었다. 남자의 옆구리에 고개를 처박는 바람에 더 숨 쉬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남자는 멈춘 걸음을 다시 옮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날 죽이려는 건가. 겁에 질려 굳어있으려니 서늘한 낯짝과 똑같이 차가운 손이 내 뒷덜미를 잡아 들어올렸다.

“쀼우우!”

살려주세요! 질색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시린 벽안이 조금 찌푸려졌다. 버둥대다가 입을 틀어막고 히끅거리니 가벼운 한숨과 함께 처음처럼 날 안아들었다.

곰돌이인형처럼 남자 품에 안겨서도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다시 걸으려던 남자는 그런 날 내려 보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쉴 만한 곳이 나오면 밥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만 보채.”

겁에 질린 와중에도 울컥했으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쀼잉...

시발.

“먹어.”

남자가 다시 한 번 육포를 내밀었다. 기름도 좔좔 흐르고 냄새도 좋았다. 객관적으로는 맛있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끝에 진한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다. 거기에 고기냄새가 더해지니 속만 더 울렁거렸다.

“아님 물?”

고개를 돌리자 남자도 더 권할 생각은 없는지 들고 있던 걸 그대로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망토 안을 한손으로 뒤적이는데, 불편하게 한손으로 그러지 말고 날 좀 내려놔줬으면 했다. 아무리 잘생겼다고 한들 이 남자는 사람을 죽였다. 선량한 일반인을 죽인 게 아니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반대로 내가 죽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 무서웠다.

그런데 남자는 제단에서 날 안은 이후 놓을 생각을 안했다. 몬스터를 잡을 때도, 공터를 발견해 불을 피울 때도, 바닥에 모포를 깔고 앉은 후에도 말이다. 당연한 것처럼 남자의 다리에 앉아 처음에는 바르작대며 벗어나려 애썼으나 금방 힘이 빠져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도 남자가 주는 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눈앞의 수통에서 찰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꼴꼴꼴꼴.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남자의 시선이 집요하게 따라붙었지만 무시했다.

…사실은 불빛에 아른 거리는 남자의 눈이 정말로 도깨비불 같아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타오르는 모닥불에 불그스름하게 물들었음에도 남자의 얼굴은 차고 서늘했다. 그런데 머리처럼 금빛인 속눈썹이 깜박일 때마다 시린 벽안에 불꽃이 새겨지며 시선을 뗄 수 없어지는 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하게 매혹적인 남자의 얼굴은 아름답다 못해 무서웠다. 사람의 낯을 한 괴물 같았다.

물을 다 마시고 슬그머니 고개를 처박았지만 남자의 손에 잡혀 고개가 들려야 했다. 요사스러운 벽안에 홀리고 싶지는 않아 눈을 내리깔자 매듭을 느슨하게 푼 옷깃 사이로 희고 곧은 목과 툭 튀어나온 울대가 보였다.

“너...”

울대가 움직였다. 힐끔 시선을 들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정체가 뭐냐.”

다소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얘기였다.

아까의 장소가 '슬레인'이 확실하다면 검은 털로 뒤덮인 앞발과 볼록한 아랫배, 그리고 힘껏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 새하얀 털로도 유추 가능한 게 있다.

허리는 구부려지는데 목이 짧아 고개는 원하는 만큼 못 숙이지만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가슴의 하얀 털은 하트모양을 그리고 있을 거였다.

내 게임캐릭터의 수인화가 반달대신 하트를 품은 새까만 아기 곰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게임 속에 들어오고, 게임 캐릭터가 돼?

판타지는 인간의 창작물 정도로 여기며 살았던 현대인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게 당장 나한테 닥친 일인데도. 끙끙 앓으며 소화해 낼 수도, 하는 것도 싫은 사실에 괴로워하는데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말 알아듣지?”

그렇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시치미를 떼야 할까. 하지만 고민한 게 무색하게 그 다음 순간 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알아듣는군.”

“...”

“그런데 여전히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스트윙'에 사는 곰 수인은 그리즐리밖에 없을 텐데.”

'이스트윙'이라니...

암흑기를 이겨내지 못한 대륙이 마침내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여신이 현신하여 날개를 활짝 펼치고 대륙을 들어올렸다. 그 이후부터 대륙은 날개 모양을 하게 됐는데 그중 오른쪽 날개 부분이 바로 '이스트윙'이었다.

"언아더"를 시작할 때 나오는 세계관이다. 인간들의 땅 '이스트윙', 미지의 땅 '웨스트윙'.

눈으로 본 것에 이어서 결정적인 얘기까지 들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은 바라지도 않았다. 반쯤 체념했으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쯤이면 하던 작은 희망마저 부서졌다.

지독한 현기증에 눈을 질끈 감았다. 스스로를 무슨 일에도 무던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멘탈이 연약한 편이었나 보다. 정말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남자는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자지 마라.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

몸을 흔드는 손은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머리가 휙휙 꺾였다. 그래도 눈을 꾹 감고 버티자 이내 남자의 손이 떨어져 나갔다.

차라리 자자. 잠들어서 다시는 눈을 안 떠도 좋고, 다시 내 방 침대 위에서 눈을 뜬다면 지금 이 모든 건 악몽으로 끝날 거였다. 그래도 너무 무서웠으니까 "언아더"를, 아니 핸드폰을 갖다 버리자.

현실도피인건 알지만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견뎌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크앙!”

몸을 더듬는 손길에 눈이 부릅 떠졌다. 남자는 커다란 손으로 쫑긋거리던 귀, 주둥이, 통통한 아랫배를 거침없이 주물러댔다.

“몸이 말랑한 걸 봐서는 진짜 새끼인 거 같기는 한데.”

“그으응! 그응!”

“마법기운도 이 천 가방에서만 느껴지고.”

“크! 아앙?”

남자가 툭 하고 옆구리, 정확히는 옆구리에 달려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시선을 내리자 윤기가 흐르는 새카만 털과 비슷한 색을 한 곰돌이 가방이 보였다.

"언아더" 오픈기념 선물 중 하나인‘인벤토리+5’이었다. 종족마다 디자인이 달랐고 난 블랙하트 베어라 까만 곰돌이 얼굴모양 가방을 받았다. 곰돌이가 곰돌이 가방을 맸다고 귀여워했던 터라 더 기억에 남았다.

남자는 자신의 손바닥보다 작은 손가방을 신중하게 살폈다. 남자가 허리를 숙이느라 자연스럽게 품에 더 파묻혔지만 가방에 정신이 팔려 그것도 몰랐다.

길쭉하지만 자세히 보면 마디마다 굳은살이 박힌 손이 간신히 자신의 새끼손톱보다도 작은 금속지퍼를 잡았다. 하지만 아무리 잡아당겨도 열리지를 않았다.

높낮이 없던 남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락(lock)?”

어이없는 모양이었다. 사실 나도 그랬다. 남자가 조금만 힘줘도 종이 찢듯 찢어질 것 같은 천 가방이 생각보다 엄청 튼튼했다.

이림이 발톱을 걸 수 없는 지퍼에 아쉬워하고 있을 때, 남자는 그런 이림을 내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손가방은 듬성한 곳 없이 견고하게 짜인 직물로 짜인 상천으로 만들었고, 마법까지 걸려 있다. 그걸 맨 게 사람이라면 하등 이상할 게 없는데, 가방의 주인은 사람 말을 이해하는 새끼 곰이다.

이스트윙에는 불곰밖에 없다. 야생동물보단 몬스터 정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으나, 곰은 예외였다. 소형몬스터 정도는 간식거리로 삼는 상위포식자였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인 곰이 아니라면 이스트윙 북단에 사는 곰 수인족 그리즐리도 있긴 했다. 하지만 그들은 수인화 했을 때 회갈색을 띄고 있어서 북방의 바위라는 별명도 있었다.

이스트윙에 있는 곰은 그게 전부였다. 털이 전부 까맣고 가슴 부근만 하얗다는 곰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웨스트윙'에 있는 개체인가’

어린 새끼가 왜 혼자서 '슬레인'에 남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윤기가 흐르는 털이나 마법가방을 보면 주인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어떻게든 돈이 되겠군. 남자는 작고 동그란 머리통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찾아온 주인에게 대가를 받든 빚을 지우든 할 수 있다. 이스트윙에서는 없는 희귀한 개체니 시장에 팔아도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날 때부터 금관을 머리에 쓰고,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으며 자랐다. 그러니 돈이 부족한 적은 없다.

다만, 치레와 명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의 정점에 있는 것과 다르게 실리와 합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살아 남기위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향이었으나 나쁘지 않다.

좀 더 지켜보다 영 찾는 이가 없으면 펫 시장에 파는 걸로 최종결론을 내렸을 때였다.

“끄응”

생각에 빠져있던 남자의 시선이 조금 더 아래로 향했다. 새끼곰이 몸을 동그랗게 만 채 꼼지락대는 게 보였다.

“...?”

상체를 조금 숙였다. 새끼곰은 악을 쓰고 우는 와중에도 내내 그를 경계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집중한 건지 뚫어져라 보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끄으응”

새끼곰이 다시 한 번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한 남자의 무표정에 작게 금이 갔다.

어려서인지 발톱조차 물렁한 새끼곰은 그 발톱으로 지퍼를 열어보겠다고 집중한 상태였다.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말이다.

하...

어두컴컴한 숲이었지만 그래도 아침과 밤은 구분할 수 있다. 잠에서 깼을 때 눈을 뜨기도 전에 여전히 게임 속 세상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가 아늑하게 꾸며놓은 내 방이라면 햇살과 바깥공기를 느낄 수 없어야 했다.

눈을 뜨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나갔다. 일정한 간격으로 흔들리고 있으니 이동 중이란 뜻이고, 배와 허리를 조이는 손길은 옆구리에 들려있는 거였다.

"언아더". 이스트윙. 슬레인. 게임캐릭터. 수인화. 살인. 몬스터. 남자.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다 마지막에 떠오른 장면에 감고 있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동물들이 왜 그렇게 침을 줄줄 흘리나 했는데 깨달았다. 주둥이를 아무리 앙다물고 있어도 침이 샜다. 어젯밤 지퍼 여는데 집중해 침을 그렇게 많이 흘리고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대로 남자 손에 씻겨 지는데 침과 함께 있는 줄도 몰랐던 인간의 존엄성이 씻겨 나갔다. 수치스러움에 부들부들 떠는데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침 냄새가 아직도 나는데’

한바가지 쯤 흘린 침이 그대로 볼록한 아랫배까지 적신 탓이었다. 꼼짝없이 배까지 내어주게 되자 커다랗게 조각난 멘탈이 마침내 가루로 바스러졌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도피행으로 잠을 택했고,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가 눈을 뜬 게 지금이다.

하늘 높이 해가 떴어도 숲속은 새소리 대신 정체모를 존재의 우짖는 소리만 들렸고, 변함없이 우중충했다.

하룻밤 사이 부쩍 연약해진 멘탈이 눈물을 글썽였고 자존심은 또 다시 쀼잉거리기 싫다며 버텼다. 일어난 티도 안내고 조용히 있었는데 어떻게 안 건지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일어났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거는 바람에 놀라서 움찔하고 떨었지만 그뿐이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

“...”

“마시고 싶으면 말해라.”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여전히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는 안 나는데 그렇다고 마냥 현실도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또 그렇다. 현실도피를 안 한다고 한들 뭘 어떻게 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건 소설에서나 봤던, 아!

“그응!”

“물 줘?”

내밀어진 수통을 피하며 눈을 부릅떴다.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시간 때우기로 종종 봤던 소설들을 떠올려봤다. 그리고 곧 절망했다.

독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좋은 곳을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자정에 습작될...

좋은 제안이 들어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식연재를 통해 완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o월 o일부터 oo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완결까지 본 게 하나도 없었다. 항상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글만 봤고, 봤던 건 전부 스토리가 막 깊어지려할 때 연재처를 옮겼다.

옮긴 연재처로 쫓아갈 만큼 부지런하지 못했고, 애정도 얕았다. 그래서 봤던 소설들의 결말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크앙!”

욕을 했는데 나오는 건 짐승의 울부짖음이다. 약해진 멘탈은 쉽게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눈물을 쏟을 것을 종용했다.

“쀼잉쀼잉”

“...?”

“쀼이잉”

서럽게 울자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니 이상하게 여길 만한데도 내 몸통을 들어 올린 남자의 눈은 고요했다.

왜라고 묻는 대신 조용히 쳐다만 보는 남자를 노려봤다. 괜한 짓인 걸 알면서도 원망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얼마안가 그마저도 부질없다는 생각에 꺽꺽대며 울었다.

한참 울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기절했던 건지, 눈을 뜨자 해가 져 있었다. 어둠에 먹힌 숲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오늘은 나무 사이로 밤하늘이 잘 보인다는 거였다.

숲은 이렇게나 음습한데 밤하늘은 별세계였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뾰족한 걸로 찔러 구멍을 내면 그 틈으로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푸엣취!”

발작적으로 기침이 터졌다. 온몸으로 하는 기침이었다. 기침을 하고 나서야 내가 남자의 품에 폭 안겨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물부터 마셔.”

고개를 들자 오늘은 불꽃대신 달과 별빛에 물들어 요요하게 빛나는 벽안과 마주쳤다.

목이 탔지만 겨우 정신만 차렸을 뿐이지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행히 남자는 그런 내 상태를 알아챈 것처럼 수통을 주둥이에 대주는 건 물론 기울여 주기까지 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자 멍하기만 하던 정신이 조금씩 깨끗해졌다. 숨을 고르고 있으니 입가에 노란빛을 띄는 과육이 닿았다. 단내가 났지만 먹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려는데 어제와 달리 남자는 억지로 내 주둥이를 벌리고 과일을 먹였다.

“그으응”

“먹어.”

뱉지도 못하게 주둥이를 잡고 있는 손은 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

단내가 나던 것에 비해 먹으면 먹을수록 맹맹하고 비렸다. 헛구역질을 하자 물을 마시게 했고 그렇게 남은 과일을 다 먹어야만 했다.

과일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니 헛배가 불렀다. 지쳐서 늘어져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몸을 주물러댔다. 싫다고 소리를 내도 손은 떨어질 생각을 안 했다.

지치고 힘든데 짜증까지 나자 순간적으로 치미는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그대로 남자의 손을 물었는데 막상 손을 물린 남자는 태연하기만 했다.

“아직도 몸이 뜨거운데.”

“...”

“무는 것도 힘이 없잖아. 더 세게 물어봐.”

확 김이 샜다. 손을 뱉자 남자가 자신의 로브로 날 둘둘 만 후 힘주어 안았다.

“여기선 약초를 구할 수 없다. 나으려면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한다.”

“...”

“아. 아니면 병들어서 주인한테 버림받은 건가?”

“그응?”

무슨 주인? 알 수 없는 말에 고개를 기울였다. 그뿐인데 남자는 꼭 내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대답했다.

“네 주인 말이다.”

“그으응?”

“주인이 없어?”

당연히 없다. 이건 내 게임캐릭터 ‘2lim’이었다. 굳이 주인을 따지자면 그건 내 자신. 하지만 ‘이건 내 게임캐릭터요’라고 했다가는 바로 미친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다. 말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고개를 젓자 남자의 눈매가 좁아졌다.

“주인이 없다고?”

“그응”

“슬슬 인간형으로 변해보지 그래. 대화 좀 하자고.”

그게 자유자재로 됐다면 진즉에 변해서 도망쳤지. 게임할 때는 단축버튼 누르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지 감도 안 잡혔다.

“설마 변신 조절을 못하나? 원래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아파서 안 돼는 거야?”

아. 그런가.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변신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처음 눈떴을 때는 분명 사람이었고 멀쩡했는데 왜 곰이 된 거지?

고민에 빠져있는데 머리 위에서 이상한 말이 들렸다.

“이러면 생각했던 것 보다 가격이 떨어지겠는데...”

“그으응?”

가격? 팔게? 날? 왜 들고 다니나 했더니 팔려고 했다고? 눈을 홉뜨고 뚫어져라 남자를 쳐다봤다. 시선이 느껴질 텐데도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다.

“지금부터 맞으면 고개 끄덕이고 아니면 저어라.”

“그응?”

“주인이 확실하게 없어?”

차라리 있다고 할까. 있다고 하면 함부로 못 팔지 않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남자가 “머리 굴리지 마라. 다 보이니까”라고 했다. 요요하게 빛나는 벽안은 여전히 사람 눈 같지 않아서 정말로 속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주인이 없나본데, 그럼 슬레인에는 네 뜻으로 왔나?”

이번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병은? 병에 걸렸어?”

또 고개를 저으려다 멈칫했다. 그렇다고 하면 찝찝해서라도 버리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버림받으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결국 얌전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화는 아예 못해?”

“그으응”

그건 나도 잘. 로브에 돌돌 말린 어깨를 으쓱하고 들었다.

“하는 걸 보면 인간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

“됐다. 나머지는 나중에 물을 테니 그만 자라.”

말하면서 로브 안으로 머리를 누르는 손은 별로였지만, 막상 고개를 넣고 나니 훨씬 따뜻하긴 했다.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고 못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대로 울고만 있다가 언제 어디로 팔려나갈지 몰랐다.

인…정하자. 여기는 지구가, 내 방이 아니다. 사람이 곰이 될 수 있고, 여신이 있고, 몬스터에 마왕도 있는 판타지 세계인 거였다.

순간 칼에 베여 죽은 갈색머리 남자가 떠올라 따뜻하던 품이 갑자기 소름끼쳤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사람의 밧줄에 내가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몸의 떨림은 금방 멎었다.

내가 왜 게임 속에 들어온 건지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올 리 없다지만, 앞으로 뭘 해야 할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했다.

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에어컨도 보일러도 펑펑 틀 수 있는 9평짜리 원룸. 날짜와 시간마저 잊게 되는 정적이고 평화로운 나의 동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걸까.

막연하게 떠오르는 건 ‘게임을 끝까지 깨면 되지 않을까?’였다.

기억을 더듬어 "언아더"의 프롤로그를 떠올렸다. 그래픽이 예뻐서 넘기지 않고 다 본 게 천만다행이었다.

시작은 대륙에 찾아온 암흑기와 가라앉기 시작한 대륙이었다. 여신이 자신을 희생해 대륙을 구했고,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을 때 '슬레인'에 탐욕의 마왕 펜치의 사도들이 모였다.

마왕 소환이 시작됐다. 잔잔하나 불길하게 흐르던 음악은 갑자기 극적으로 변한다. 곧이어 들리는 날카로운 처절한 비명. 의식은 실패로 돌아가고 사도들을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슬레인은 어둠의 힘에 물들고 말았다.

화면은 다시 밝아지고 제단은 여전히 흉흉한 기운을 뿜고 있지만 엉망이 됐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런 제단 위에서 눈을 뜨는 게임 캐릭터.

'으윽...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게임이 시작된다. 흔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탐욕의 왕을 막아라!"인 건 확실하게 주입시켜주니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나는... 하.

“쀼이잉!”

마왕을 막으라고? 마와앙? 진지하게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눈물샘이 활짝 열리다 못해 문이 아예 뜯겼나보다. 참을 새도 없이 눈물이 주륵주륵 흘렀다. 이건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났기 때문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우니 머리 위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너 아직 열난다. 울지 마.”

“쁏! 쀼읏!”

“그쳐. 그치라니까.”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닌데, 그치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더 쏟아졌다. 별다른 말이 없던 남자의 손이 등에 닿은 건 조금 시간이 흐른 후였다.

토닥이지도 않고, 쓰다듬지도 않았지만 손의 무게는 생각보다 든든했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바로 부정하겠지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날이 밝자 남자는 불씨만 남은 모닥불을 흙으로 덮었다. 몸이 흔들려서 잠에서 깨긴 했는데 어제도 울다 지쳐 잠든 탓에 눈만 깜박이는 게 전부였다.

기운 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금세 내가 깬 걸 눈치 챈 남자는 가타부타 말없이 주둥이에 수통을 물려줬다. 그런데 물이 없었다.

“이런.”

혀를 찬 남자가 주변을 살피다가 잠깐 표정을 찌푸렸다.

“이거부터 먼저 먹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미는 게 어제 그 과일이었다. 다 먹었던 게 아니었어? 인상을 구겼지만 이번에는 순순히 입을 벌렸다.

이렇게 힘없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얌전히 주둥이를 벌리자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남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서렸던 것 같다.

“그윽!”

억지로 먹기는 하는데 여전히 맛은 끔직했다. 어제는 물이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으니 헛구역질이 심해졌다.

“그렇게 맛없어?”

남자도 더는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남은 반은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걸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먹는 게 신기했다.

첫날은 수시로 몬스터들이 튀어나왔는데 오늘은 잠잠했다. 어제도 이랬나? 어제는 너무 잠깐 깨어있었던 느낌이라 모르겠다.

정신이 자꾸 흐려지려는 걸 눈에 힘을 주며 버텼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벤토리에 피로회복포션도 있다. 그런데 인벤토리는 어떻게 열지? 아니, 열 수는 있나? 엄한 사람을 게임 속에 처박아 놨으면 그 정도는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으응! 그응! 그으응! 그응!”

인벤토리! 가방! 열려라! 오픈! 생각나는 대로 전부 내뱉어 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한테 주둥이만 잡혔을 뿐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으응”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엉뚱한데 힘 빼지 마.”

내용만 보자면 비꼬는 말 같지만, 목소리나 얼굴은 지극히 건조했다. 나도 괜한데 힘 뺐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반발도 들지 않았다.

가만히 있자 곧 주둥이에서 손이 떨어졌다. 완전히 떨어지기 전 가볍게 턱을 긁는 손길에 다시 위를 올려다봤지만 턱밖에 보이지 않았다.

정말 인벤토리 안 열려? 너무한다. 정확히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몰라서 게임을 원망했다. 이럴 거면 포션은 왜 있는 건데?

"언아더"에는 3종류의 포션이 있다. 체력을 채워주는 거,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 그리고 각종 효과포션. 마력은 쿨타임만 기다리면 알아서 찼기 때문에 따로 없었다.

말했다시피 남들 이틀이면 다 깬다는 맵도 일주일이 걸렸다. 심지어 현질을 해서 일주일.

손이 아니라 발로 조작한다는 발컨 중의 발컨. 그러니 몬스터를 잡을 때 회피는 머나먼 이웃 나라 이야기였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무게 제한이 있는 인벤토리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체력포션이고, 그 다음이 피로회복포션이다. 효과포션은 '슬레인'의 최종 보스인 로니를 잡을 때 간신히 자리를 만들고 사...

아, 로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존재가 떠올랐다. 고개를 팍 드는데 그에 맞춰 남자의 걸음이 멈췄다. 앞을 보자 졸졸졸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물 자체는 투명했지만, 투명하게 비추는 바닥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돌과 이끼사이를 누비고 있는 것은 광택이 도는 새카만 것들이었다. 다리도 없고, 눈도 없지만 꿈틀대는 그 무언가.

내가 여태껏 먹었던 게...

원효대사가 어떻게 해골물을 달게 마실 수 있었는지 알겠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몰라서 저걸 아무생각 없이 마셨다. 하지만 깨달은 지금은?

“궤에엑”

먹은 것도 없는 빈속이라 노란 위액을 토해냈다.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나는 곰의 위액도 노랗다는 걸 알게 됐다.

입안에 있는 침마저 다 뱉어내고 나니 남자가 언제 물을 채웠는지 수통을 내밀었다. 고개를 돌렸지만 남자의 손에 잡혀 다시 원위치 시켜야했다.

“깨끗한 물이다.”

“파하”

“콧방귀도 뀔 줄 아는군.”

기가 막히게도 남자는 이상한데서 놀랍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화내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정화마법이 걸린 수통이다. 봐라. 나도 마시잖나.”

수질보단 물속에서 봤던 무언가가 문제였다.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지만...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올챙이. 그래, 올챙이였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이 통제를 잃고 물줄기로 향했다.

…올챙이는 무슨!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매번 신기하게도 남자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짚어냈다.

“벌레는 무시해.”

“크앙!”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벌레까지 안 들어 갔,”

“크아앙!”

“후우... 숲을 나가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 때까지만 참아.”

남자를 보다가 툭 고개를 떨궜다. 과일이 맛은 그래도 수분은 많았지... 아무리 맛이 별로여도 벌레보다 낫지 않을까.

남자가 다시 수통을 내미려고 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앞발을 허우적대며 먹었던 과일모양을 묘사했다. 눈가를 좁히고 집중하던 남자는 금방 무얼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까 먹은 과일?”

“그응”

“역해서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잖아.”

“그으응”

“그거로는 목축임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안 된다. 차라리 목이 마를 때로 말라 눈에 뵈는 게 없어져야 했다. 고집스레 입을 다물자 남자는 좋을 대로 하라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 보니...”

바로 움직일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번쩍 올렸다. 순식간에 자신의 눈높이까지 날 올리더니 한다는 말이,

“아무리 울었다지만 3일 째 용변 볼 생각을 안 하는군.”

“...?”

“안 마려?”

그걸 네가 왜 궁금해 하냐고 물어야 하는데 듣고 보니 그랬다. 하지만 안 마려운 걸 어떡해?

...그보다 그렇게 묻는 이 남자는 언제 일을 본 거지? 나 잘 때? 설마 그때도 날 들고 있지는 않았겠지?

“그으응”

안 그래도 속 복잡한데 더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 힘없이 고개를 젓는데 남자가 자꾸 집요하게 굴었다.

“일을 볼 거면 여기가 낫다.”

“그으응”

“나중에 내 옷이 지리면,”

“그응!”

안 마렵다니까! 점점 이 주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게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 해도 절대 남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니다!

“왜 부끄러워하는 거지? 새끼들도 영역표시를 하지 않나?”

환장하겠네. 결국 참지 못하고 앞발을 휘둘렀다. 남자는 굽히고 있는 팔을 펴는 걸로 간단히 내 공격을 피해냈다.

“사람 손을 탄 건가.”

“크앙!”

“주인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얼굴에 옅게 짜증이 서려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짜증난 건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만 입을 닥쳐줬음 할 뿐이다.

말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누구의 손을 탔냐고 물어댔다. 짜증이 나서 같이 왁왁 짖다가 그마저도 얼마 못하고 금세 지쳐버렸다.

“쯧.”

늘어져서 숨을 가쁘게 내쉬자 남자가 혀를 찼다. 이게 누구 때문인데. 울컥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시종일관 차갑던 얼굴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자라.”

“...”

“더 힘 빠지기 전에 자.”

그러고는 옆구리가 아닌 가슴 깊숙이 껴안았다. 생긴 것만큼이나 체온도 낮은 사람인데도 맞닿은 부분에서 서서히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적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싶지는 않았지만 몸은 지쳤고, 사람의 체온은 따뜻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깜박 잠들었다가 눈을 떴다.

왜 깬 거지... 느릿하게 눈을 깜박이며 초점을 잡았다. 시야가 완전히 돌아오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밝다, 였다.

슬레인은 한낮에도 해질녘처럼 어두운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사이로 투과한 햇빛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있었다.

잠깐. 땅이 말랐다고?

아무생각 없이 쳐다보던 땅을 다시 봤다. 시선은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나무는 바짝 마른 채 죽어있고, 나뭇가지는 덩굴처럼 얽혀 있지만 앙상한 빈가지라 하늘을 가리지 못했다.

습한데다 괴기스러울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슬레인'과 딴판이었지만, 사실 여기도 '슬레인'의 일부가 맞았다. 게임하는 동안 숱하게 들락거린 장소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다.

로니... 아까 충격적인 물의 실체 때문에 까맣게 잊고 말았던 생각이 마저 이어졌다.

첫 번째 시나리오, 버려진 제단 슬레인의 유일한 인간 NPC 외로운 노인 로니.

깡말랐지만 선한 얼굴을 한 노인은 몇 년에 만에 보는 사람이라며 플레이어를 반겼다. NPC답게 이것저것 유용한 정보를 주는가 하면, 부탁 좀 들어주지 않겠냐며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리고 이 선량한 노인은 마지막 부탁이라며 말한다.

'마왕님의 제물이 되어주게'

그는 버려진 제단 슬레인의 최종보스, 숨어사는 탐욕의 마왕 펜치(PENCH)의 사도였다.

심장을 숨긴 리치, 로니를 처치하고 살아남으십시오!

수 십 번 넘게 도전하는 동안 완전히 눈에 익어버린 퀘스트 문구가 환청이 돼 귓가를 울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어쨌든 목표는 게임의 엔딩. 막 튜토리얼을 끝내고 초보자 딱지를 뗀 전사지만 그래도 "언아더"의 최종목표는 알고 있다. 게임 시작화면에 친절하게 문구를 띄어주기 때문이다.

"탐욕의 왕을 막아라!"

이 허무맹랑한 말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억울해서 펑펑 울었지만 다른 뾰족한 수도 없다.

게임처럼 로니를 잡아야... 말이 좋아 ‘잡는’거지, 이건 게임이면서도 게임이 아니잖나? 로니를 잡는 다는 말은 곧 ‘죽여’야 한다는 거잖아.

깊숙이 봉인해뒀으나 여전히 갈색머리 남자의 시체는 사진보다 더 생생했다. 작게 진저리를 치자 남자의 걸음이 바로 멈췄다.

“왜?”

할 수만 있다면 그 질문을 내가 되돌리고 싶었다. 왜 여기로 왔는데? 정말 로니를 찾고 있었던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 남자가 숲을 헤매던 게 로니를 찾기 위해서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그응…”

왜? 도대체 왜? 답답한 마음에 남자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남자는 발톱이 박혀 구멍이 뚫린 옷을 보는 대신 내 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으응, 그으응”

남자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지만 사람인 그가 곰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다.

“뭘 불안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

눈치가 빠른 사람답게 내 기분은 금세 알아차렸지만 그뿐이었다. 꼭 믿음을 주려는 것처럼 날 안고 있던 팔에 아프지 않게 힘이 들어갔지만, 반대로 절망감만 더 커졌다.

나는 지금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새끼곰이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어린 짐승.

과연 다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까. 이렇게 비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아는데도 기분이 가라앉았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여전히 셔츠에 걸려있는 발톱이 보였다.

사람 손이라면 발톱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일도 없다. 신경질적으로 발톱을 빼내려 할 때였다.

“캉!”

끔찍한 아픔에 비명이 터졌다. 셔츠에 걸린 발톱이 확 들렸기 때문이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자 피까지 비치고 있었다.

“캉! 크아앙!”

“가만히 있어.”

“카앙!”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도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런데 사람의 손발톱보다도 작은 발톱 하나가 들린 것뿐인데 얼마나 아픈지 자꾸만 앞발이 덜덜 떨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남자가 최대한 조심스러운 손길로 발톱을 빼내려 했지만, 내 머리통을 한 손으로도 으깰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손이었다. 아무리 힘 조절을 한다고 해도 섬세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카아앙!”

건들지 마! 진짜 너무 아팠다. 울음을 터트리자 남자의 손이 바로 떨어져 나갔다.

찌이익. 무슨 수를 쓴 건지 남자는 맨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의 일부분을 찢었다. 덕분에 고통은 좀 줄었지만 셔츠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칼로 자를 테니까 가만히 있어.”

“쀼...”

안돼. 이따가 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남자는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진물이 나면 옷이 붙어서 더 힘들다. 지금 하는 게 나.”

“쀼우…”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아프겠지? 벌벌 떨면서도 앞발을 내밀었다. 남자는 말없이 내 눈가만 한 번 쓸어주고는 칼을 빼들었다.

스르릉하고 쇠붙이의 차가운 울림이 유독 크게 귓가를 울렸다.

“그응...”

긴장감에 침을 삼키자 남자가 날 쳐다봤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위로는 아까 눈물 닦아준 게 전부인 모양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칼을 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아주 잠깐만 참으면 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생각했지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찾아온 고통에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돌연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다.

“카아앙!”

남자의 품에 파묻히면서 무방비하게 내밀고 있던 앞발도 같이 끼었다. 정말로 순간 시야가 노랗게 변했다.

“누구냐.”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상황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고통에 바르작대자 남자의 팔에 힘이 더 들어가서 발톱이 더 세게 눌렸다.

이러다가는 진짜로 발톱 빠진다…!

“카캉! 카아앙! 캉!”

애당초 어떻게 셔츠에 박혔는지도 모를만큼 말랑한 발톱이었다. 필사적으로 우는데 내 울음에 반응한 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사정은 모르지만 그러다 새끼의 숨이 넘어가겠소.”

“...”

“갑자기 튀어나온 건 미안하게 생각하오. 누가 또 길을 잃었나 하고...”

“…너. 네가 콰일이 말한 숨은 놈이군.”

허를 찔린 것처럼 급하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도 진짜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콰악!

남자의 팔뚝에 이를 박았다. 하도 딱딱한 몸이라 이빨도 제대로 안 박혔지만, 목적은 이뤘다. 남자의 시선이 내게 향한 것이다.

“카아앙, 캉! 캉캉캉!”

“...?”

“캉캉캉!”

“뭐?”

“캉캉캉캉캉캉카카카캉카캉!”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미친 듯이 짖자 무표정하던 얼굴에 당황이 깃들었다.

“왜 그러는 건데.”

“캉캉캉캉캉!”

팔에 힘 빼! 다른 때는 잘만 알아들으면서 지금은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아파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말이요.”

낯선 이의 말에 남자가 눈매를 좁혔다. 바로 단단하던 팔에서 힘이 빠졌지만 이미 눈물이 핑 돈 후였다.

아픈 앞발을 다른 발로 꾹 눌렀다. 결국 발톱이 빠졌다. 들리다 못해 빠져버렸다. 목소리도 안 나올 만큼 아팠다. 부들부들 떨며 괴로워하자 남자의 표정이 더 안 좋아졌다.

“치료가 필요해보이는데... 날 따라오시오.”

“...”

“콰일의 이름을 아는 걸 보면 나한테 볼일이 있어 찾아온 손님 같은데.”

“위협을 하러 찾아온 건 아니지만... 허튼 짓은 안하는 게 좋을 거다.”

서늘한 경고에도 낯선 이는 순순히 알겠다며 대답했다. 경계심을 지우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이의 뒤를 쫓으면서도 남자의 시선은 내게 고정돼 있었다.

미안하다. 남자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지만 쳐다보는 벽안도, 눈물을 훔치는 손길도 입을 대신해 사과를 해오는 것만 같았다.

“여기가 내 집이오.”

앞서 걷던 사람은 금방 걸음을 멈췄다. 시름시름 앓다가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충격이 강타했다.

우중충한 슬레인의 색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녹색로브를 걸친 왜소한 노인은 누가 봐도 선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

로니.

품에 안겨 있던 새끼곰이 또다시 부르르 떨었다. 순간 경련을 일으킨 건줄 알고 표정을 굳혔지만, 그건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태가 좋다는 것도 아니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보다 조금 큰 새카만 털뭉치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소리가 거칠었다.

남자, 해로인은 앞서 가던 노인의 등에서 시선을 떼고 품안의 어린 것을 내려다봤다.

“그으응…”

분명 말 못하는 짐승인데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 무슨 얘길 하고 싶은 건지 대충 알 수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빽빽 울던 녀석은 겁에 질려 있었다.

생각해보면 제단이 있는 숲 중심부와 다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말라버린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바르작댔다.

눈을 크게 뜬 체 노인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걸 보면 무엇 때문에 겁에 질렸는지는 알 수 있다.

…왜?

저 노인이 과거 위험인물인 건 맞지만 지금은 수도 빈민촌에서 찾아낸 콰일만큼이나 아무 힘없는 늙은이일텐데.

해로인은 떨고 있는 이림을 무의식중에 더 깊게 끌어안으며 노인, 로니를 살폈다. 여전히 아무 힘도 없는 노인네란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마음을 놓는 대신 경계심을 높였다.

알고 보니 이 어린 것이 저 노인을 알고 있다거나, 또는 그는 느끼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동물의 본능으로 감지해내고 있다거나.

그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싫어했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뒤에서 한 마리와 한 인간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로니가 얼마 안가 걸음을 멈췄다.

“저기가 내 집이오.”

로니가 가리킨 건 성인 셋이 활짝 팔을 벌려야 끌어안을 수 있을 거 같은 커다란 나무였다. 그 나무 역시 바짝 말라 죽었지만 이파리를 다 떨어트리고도 그 크기나 위용이 엄청났다.

마른 갈대를 헤치며 나무 앞까지 가자 나무 밑동에 난 구멍이 보였다. 그것까지도 게임에서 본 그대로라 이림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 구멍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로니의 거처가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은 두 번째 마왕의 제단도 있다. 게임 속에서 로니가 최종보스가 되는 것도 그 제단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입구가 당신한테는 조금 좁을 것 같은데... 아, 그 곰을 내가 들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소?”

로니의 말에 이림이 아픈 것도 잊고 해로인을 붙잡으려고 했고, 망각의 대가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제대로 비명도 못 지르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게 된 해로인의 표정이 굳었다.

워낙에 표정이 없는 얼굴이라 안겨있던 이림조차 몰랐지만그럴 정신도 없긴 했다, 싸늘한 낯에 스쳐간 건 분명 당황이었다.

그가 제단에서 새카만 곰을 주운 이유는 돈이 될 거 같아서였다. 그런데 막상 줍고 보니 손이 너무 많이 갔다. 어린 새끼는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물까지 가렸고, 열은 떨어질 생각을 안했다.

평소의 그라면 주운 것이 다 죽어가는 빈사상태였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처박았을 것이다. 일을 다 끝낼 때까지 살아 있다면 그때 치료해주면 됐고, 그 전에 죽는다면 그대로 숲에 버리면 그만이었다. 애초에 필요해서 주웠던 게 아니니 아쉬울 것도 없다.

그런데 며칠 째 그러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

해로인은 자신이 지금 평소와 다르게 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알면서도 원래의 그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새까만 눈동자가 재밌고, 말랑하고 부들부들한 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문득 어렸을 때 마지막으로 갖고 놀았던 인형이 생각났다. 두 눈은 루비였고 실크로 만든 파란 리본을 매고 있던 곰 인형.

자려고 누웠던 어느 밤, 방문하겠다는 기별도 없이 계모가 찾아왔고,

어머, 루비가 굉장히 예쁘구나. 인형 눈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마침 두 개이고 하니 장신구로 만들어서 네 누나랑 하나씩 나누면 될 거 같네

그가 보는 앞에서 인형을 갈가리 찢었다. 피 대신 몽글한 솜을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버린 인형. 어렸을 때의 그는 인형이 망가진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인형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이 새끼 곰은 지금 솜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반쯤 죽어가는 중이었다.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공간과 저주받은 땅 '슬레인'에서 어린 것을 치료할 약초를 구할 확률. 흐르는 물마저도 오염된 숲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됐다.

혹시라도 앞발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린 것을 가슴에 매단 해로인이 고갯짓을 했다.

“먼저 들어가.”

그렇게 말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이림은 울면서도 남자의 행동이 날강도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로니는 칼을 빼든 모습에 겁을 먹지도 않았고, 언짢아하지도 않았다. 어색하게 웃으며 순순히 구멍 안으로 사라졌다.

나무 밑동에 난 구멍은 굵직한 뿌리 몇 개가 땅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였다. 게임 할 때는 별 생각 구멍이 지금 다시 보니 입을 벌린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여전히 아픔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림을 힐끔 내려다본 해로인이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구멍 안으로 머리를 넣자 벽에 붙여놓은 사다리가 보였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전 해로인은 한 번 더 아래의 기척을 살폈다.

먼저 내려간 노인 말고는 다른 인기척도 없고, 수상한 것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여전히 뒷덜미가 서늘했기 때문이다.

‘분명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알 수 없다. 기감을 최대한 넓게 퍼트리며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다.

“카앙...”

몸이 흔들리면서 충격이 온 건지 어린 것이 힘없이 울었다. 자신의 실수에 혀를 차며 딛고 선 공간을 빠르게 살폈다. 생각보다 안이 넓었다.

노인의 거처는 나무뿌리가 품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뿌리들에 촘촘하게 쌓여 있었다. 들쥐의 아늑한 동굴 같기도 했다.

침대, 장식장, 책상, 의자. 직접 만든 건지 모양은 투박했지만 가구도 그럴싸하게 갖춰져 있었다.

“일단 거기에 눕히겠소?”

로니는 장식장에서 이것저것 꺼내며 턱짓으로 공간 가운데를 가리켰다. 짙은 색 천을 씌어놓은 사각형 단은 테이블로 쓰기에는 낮았지만 대신에 넓적했다.

해로인이 로니의 말대로 단 위에 이림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였다.

“그으응!”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도 이림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프지 않은 쪽 앞발로는 해로인의 셔츠까지 그러쥐었다.

“알겠다. 알겠으니까 힘 빼.”

이러다 다른 쪽 발까지 다치면 큰일이었다. 어린 것의 앞발을 떼어내며 노인을 보자 당황한 얼굴이었다.

“눕혀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들고 있겠다.”

“하지만 그럼 소독할 때 옷이 다 젖을…, 이런! 물이 다 떨어졌구려. 혹시 물을 가지고 있소?”

있긴 했지만 한 두 모금 마실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물부터 길어 와야겠구려. 꽤 필요할 거 같은데, 같이 움직이겠소?”

“그러지.”

“그 아이는 일단 거기에 눕혀놓고,”

로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린 것이 또 다시 버둥댔다. 이번에는 앞발이 옷자락을 쥐기 전에 잡아챌 수 있었다.

이러다 상처가 덧난다고 혼을 낼 생각이었는데 막상 입술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덜 딱딱했다.

“네 발톱 치료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그응, 그으응”

“금방... 금방 다녀오겠다.”

원래도 동글동글하던 까만 눈이 더 동그랗게 변했다. 끙끙 앓던 것도 잠깐 멈추고 뻔히 올려다보는 시선에 너무 솔직해서 잠깐 입가가 간지러웠던 것도 같다.

“아이가 주인을 엄청 따르는구려.”

하지만 로니가 말을 거는 순간 거짓말처럼 심장이 차게 식었다. 무방비하게 속을 내비치던 까만 눈에도 다시 경계심이 깃들었다.

실제로도 이림이 힘들어 죽겠는데 기절도 못하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로니 때문이었다.

로니가 이림을 눕히라고 하는 단이 문제였다. 지금은 천을 씌어놨지만 저걸 걷어내면 새카만 단이 나온다. 마지막 제물을 통해 완성될 두 번째 마왕의 제단이었다.

로니를 처치하는 마지막 퀘스트 직전에 스토리모드가 있다. 스토리 모드는 플레이어가 로니를 도와 짐을 옮겨주다가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는 걸로 시작한다.

'이런! 자네 괜찮나?'

'아으… 아뇨, 아파요'

'조심 좀 하지. 자, 내 손 잡고 일어나게'

로니가 손을 내밀었고, 플레이어는 그 손을 잡으며 다른 손으로는 옆에 있던 단을 짚는다. 그런데 그 순간 짙은 천 아래서 번쩍하고 붉은 빛이 터진다.

'우왁! 뭐, 뭐야?'

'...'

'로니. 로니도 방금 봤죠? 나 잘못 본 거 아니죠?'

플레이어가 호들갑을 떠는데도 로니는 계속 대답이 없다. 뒤늦게 이상함을 깨달은 플레이어가 뒤를 돌았다가 실핏줄이 오를 정도로 쳐다보고 있던 맹렬한 눈과 맞닥뜨렸다.

'드디어…, 드디어 제단을 완성시킬 마지막 제물을 찾았어…'

'네?'

'마지막으로 부탁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나?'

'갑자기요? 뭔데요?'

'마왕님의 제물이 되어주게'

즉, 저 제단에 닿았다가 빛이 터지기라도 하면 스토리모드처럼 로니가 최종보스로 변신하게 될 거였다.

들이쉬는 숨도, 내쉬는 숨도 뜨겁고 머리는 핑핑 돌았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시야가 뿌옇게 변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니 멀미까지 났다. 모든 게 몽롱한 가운데 발톱이 빠진 앞발은 얼얼하게 아팠다.

이림은 그 통증에 매달려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캉! 끄으응... 캉캉!”

로니의 치료는 필요 없어! 저 인간 언제 회까닥 할 줄 모르는 사이비라고! 도망치자!

제 딴에는 열심히 짖어대는데, 짖으면서도 끙끙 앓는다. 부들부들 떠는 몸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무심코 그렇게 물으려다 입을 다문 것과 로니의 침대를 발견한 건 거의 동시였다.

“침대에 눕히는 건? 시트랑 이불 전부 새로 구해주겠다.”

“그…, 생각을 못 했구려. 사다 줄 필요 없고, 그냥 눕히시오.”

로니의 목소리가 떨떠름하게 들리는 것은 진짜일까 의심에 의한 환청일까. 속으로 빈정거리던 이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역질을 시작했다.

다행인 건 먹은 게 없다는 거였고, 불행인 것도 먹은 게 없다는 거였다.

나올 게 없으니 속만 뒤틀렸다. 위액은커녕 침조차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손 써보기도 전에 상태가 나빠진 모습에 해로인과 로니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해로인이 축 늘어진 이림을 침대에 눕히는 것과 동시에 로니가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다. 인간과 곰의 진맥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다르지도 않았다.

“탈진상태인데 숨소리가 너무 가쁘구려.”

“약은?”

“약도 물이 있어야 넘길 수 있소.”

“한 두 모금 마실 정도는 있다. 그 걸로는 어떻게 안 되나?”

“충분하오!”

로니가 빠른 속도로 약초 몇 개를 약사발에 넣고 짓이겼다. 즙이 나오기 시작하자 거기에 물을 타고 거름망에 한 번 걸렀다. 수저로 34술 뜰 양밖에 안됐지만 어린 새끼에게는 적정량이었다.

약을 먹이자 얼마 안 있어 가쁘던 숨이 제 속도를 되찾았다. 이림이 안정을 찾자 물을 뜨러 나왔다. 발걸음이 급해지자 자연히 움직이는 소리도 커졌다. 그런데도 둘의 분위기는 고요하고, 팽팽했다.

대화의 물꼬가 터진 곳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거의 다 왔소. 집 근처는 전부 슬라임이 자리를 잡아서 멀더라도 여기까지 와야 하네.”

슬라임은 무기만 있다면 일반인도 잡을 수 있을만큼 약한데다 공격성도 없었다. 하지만 '슬레인'의 초록슬라임은 달랐다. 배로 크고, 공격적인데다 여러 마리가 몰려다녔다.

“게다가 산성도 심해서 군락지 근처 물은 전부 오염돼버렸지.”

이어진 로니의 말에 해로인이 조금 늦게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슬라임을 처리하지 그랬나. 충분히 가능 했을 텐데?”

“가능하기는! 한줌으로 녹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위대한 열두 명의 제사장 중 한 명이 말인가?”

앞서 걷던 로니의 걸음이 멈췄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천천히 뒤돌아선 노인은 곤란하다는 듯이 볼을 긁적였지만 눈빛은 침착했다.

“도대체 콰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것까지 알아낸 줄 모르겠소.”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군. 협박을 하고 알아낸 건 아니니까. 약을 살 돈을 주니 묻지 않은 것도 다 말해주더군.”

마왕 소환에 실패한 이후 사도들은 증발하듯 자취를 감춰버렸다. 간신히 세 명의 소재지를 파악했지만 그중 둘은 찾아갔을 때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 남은 하나가 약에 중독된 콰일이었다.

약의 부작용으로 썩기 시작한 발을 가지고 구걸하던 콰일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보여주자 자신이 아는 모든 걸 얘기했다.

숲에 숨어 사는 자신의 스승님이라던가, 그 스승님이 살아남은 두 명의 제사장 중 하나라던가.

해로인의 무심한 설명에 로니의 얼굴이 점차 씁쓸하게 변해갔다.

“그놈이 약쟁이가 됐다고...”

“오해가 풀렸나? 거듭 말하지만 피를 볼 생각은 없다. 내 질문에 답해주면 원하는 걸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게 뭘 줄 알고 그리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소.”

로니가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금 더 가자 단칼에 잘린 절단면처럼 매끈한 절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보였다. 수통을 대고 물을 받으며 이번에는 해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뭘 원하는 지 말이라도 해보지 그래.”

“도대체 뭘 묻고 싶어서 그러오?”

“별 거 아니다. 그냥 소환의식에 실패했던 날 제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면 된다.”

“세상에 다 알려진 일 아니오? 의식에 실패하고 역소환 반동으로 거기에 있던 사도들이 죽었소.”

“하지만 전부 다 죽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그쪽만 해도 살아남았고.”

로니가 알 수 없는 눈으로 해로인을 쳐다보다 작게 웃었다.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진이나 저주를 알려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돈을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겠다.”

“하하하... 주변을 둘러보시오. 여기서는 금화든 보석이든 저 돌맹이랑 똑같을 것 같지 않소?”

“그럼 뭘 원하지?”

“글쎄... 더 이상 아픈 과거를 들쑤시지 않는 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마다 끼어있는 것은 연륜이 아닌 절망과 고통이었다. 노인이 정색을 하는 순간 웃음에 가려졌던 것들이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을 내려 보는 걸 보니 귀하신 분 같은데,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어째서?”

“귀하신 분 인생에 흙탕물…, 내지는 피가 튈 수도 있으니 말이오.”

“역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맞군.”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일이 말이다.

세간에 알려진 건 의식 중에 사도 하나가 겁에 질려 자리를 이탈하면서 의식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였다.

해로인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황제의 탄신일 연회 때 그의 계모, 록시티르 황후가 보인 반응 때문이었다.

순간이었지만 우연히 언급된 주제에 분명 황후의 눈동자가 떨렸다. 착각일지도 몰랐으나 황후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다 좋았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파고 들면 파고들수록 수상했다. 가장 이상한 건 소문이 무성하지 않단 거였다. 절망과 공포의 상징인 마왕의 일이었다. 온갖 루머가 돌아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똑같은 소문을 알고 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낸 것처럼.

“초면인 사람 목숨걱정도 다 해주고... 마왕의 사도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일 줄은 예상 못했는데.”

“...”

“마음은 감사히 받지. 그래서 원하는 건 뭐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주겠다.”

그럴만한 권력도, 재력도 모두 있다. 이스트윙의 유일한 제국 루테의 황태자.

해로인 레 루테가 바로 그였다.

“...마왕의 부활, 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대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읊조리는 로니의 목소리도, 거기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해로인의 목소리도 차가웠다.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

“나와 루테에만 피해가 없다면 무엇이든 구해다주겠다.”

“인간…제물이 필요하다면?”

“노예를 사다주면 되나?”

“마왕이 현신해 다른 나라, 특히 신성국을 불지옥으로 만든다고 해도 말이오?”

“말했을 텐데. 나와 루테에만 피해가 없으면 된다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로니가 당황한 듯 멈칫했다가 이내 웃음을 터트렸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진심으로 즐거워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하하하... 좋소. 기회를 드리겠소.”

“기회?”

“노예는 필요 없소. 그냥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되오. 그러면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 대답해드리리다.”

손끝이 따끔하며 아픈 순간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다. 눈에 점점 초점이 잡히고 가장 먼저 보인 건 온화하게 웃고 있는 로니였다.

“카아앙!”

“아이쿠. 진정하렴. 치료 중이란다.”

버둥대자 시야 밖에서 불쑥 커다란 손이 끼어들었다. 아프지 않게 어깨를 붙잡은 손의 주인은 남자였다.

“사람 손을 엄청 가리는구려.”

“...”

“이제 붕대만 감으면 되오. 부목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잡고 있어주시오.”

나한테 뭔 짓한 건 아니겠지? 로니 뒤로 보이는 약병들이 전부 수상해보였지만 이미 치료가 끝나 후였다.

찝찝한 기분으로 자그마한 앞발에 감기는 붕대를 보다가 치료가 끝나자마자 손을 빼고 남자에게 매달렸다.

“하하하. 그냥 내가 싫은 것이냐?”

내 행동에 로니는 그저 귀엽다는 얼굴로 웃었다. 다행히 남자는 나를 다시 눕히는 게 아니라 안아들었다.

“부탁이 뭐지?”

“쉽지 않을 거요.”

무슨 부탁? 따라갈 수 없는 대화에 눈을 깜박이다가 이어진 로니의 말에 표정을 구겼다.

“알다시피 여기 슬레인에 있는 몬스터들은 하나같이 난폭해서 생활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지.”

낯익은 서사였다. 게임에서 로니가 퀘스트를 줄 때 꼭 저런 식으로 밑밥을 깔았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날 힘들 게 하는 놈들이 있소. 날 죽이려고 혈안인 오크들이오.”

“오크가 딱 집어서 특정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오. 이렇게 초록슬라임 군락지에 숨어 사는 것도 오크들 때문이라오.”

"언아더"에서 퀘스트 줄 때랑 아주 똑같았다. 이다음 무슨 말을 할지도 알겠다.

“그래서 말인데 오크놈들 우두머리를 죽여주시오. 증거는… 그래, 그놈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면 되오.”

와, 이 자식. 같은 세계 사람한테도 퀘스트 아니, 수작을 부리고 있다. 나도 모르게 콧김을 뿜다가 남자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캉!”

“으응? 아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

“캉캉캉! 캉캉캉캉캉!”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치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득음이라도 한 것처럼 소리가 나왔다. 또다시 로니의 손바닥에서 놀아나 줄 수 없었다.

“캉캉캉! 캉캉켁!”

사납게 짖다가 주둥이가 잡혔다. 위를 올려다보자 남자가 인상을 쓰고 있었다.

“힘 빼지 마.”

“켁! 켁켁!”

“가만히 있어. 목걸이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소.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요. 아주 강한 놈이니까. 안될 것 같으면 그대로 도망가시오. 놈들은 숲 밖으로 나가면 쫒아가지 못하거든.”

도망가라는 말에 콧방귀를 끼었다. 슬레인은 이스트윙과 웨스트윙을 나누는 스파인 산맥 중턱에 있었다. 분명 산인데도 평지처럼 땅이 평평한데다 광활했다. "언아더"에서 세계 지도를 켰을 때 작은 왕국보다 더 클 정도였다.

로니가 말한 오크 우두머리는 이런 드넓은 숲 정중앙에 있다. 참고로 놈의 스킬은 손도끼 날리기였다. 거리를 벌리려고 하면 손도끼를 던지는데 10번 8번 확률로 크리티컬이 터졌다.

즉 도망가란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였다.

게임에서야 크리티컬이 뜨고 죽어도 부활하면 그만이지만, 여기서는 죽으면 끝 아닌가?

게임이야 부활하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죽으면…?

“놈은 어디 있지?”

내가 부르르 떨자 남자는 로브를 들춰 날 돌돌 말았다. 속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짖으려하자 다시 주둥이가 잡히고 말았다.

“위치는 출발할 때 설명해주겠소.”

“지금 바로 가겠다.”

“뭐, 상관은 없소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다시 말하지만 오크 우두머리는 정말 강한 놈이오.”

남자의 벽안이 잠깐 침대를 향한 것도 같다. 놓고 갈 생각 말라고 하고 싶지만 주둥이는 잡혀 있고, 양 발은 로브에 갇혔다.

“그으응!”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자 남자가 아예 턱까지 감싸 쥐며 힘을 줬다.

“너까지 신경 쓰면서 사냥하기 귀찮다. 여기 있어.”

와씨. 빈말로라도 위험하니까 여기 있으라고는... 아니, 이게 아니지. 진심으로 성가셔 하는 얼굴에 울컥 했지만 그렇다고 로니랑 단둘이 있는 건 더 안 될 말이다.

너 없는 동안 쟤가 나 제단에 올려보면 어떻게? 그런데 빛이 번쩍하면? 어? 애절하게 올려다보자 남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금방 오겠다.”

도리도리.

“왜? 여기가 싫어?”

“그으응!”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아이가 사람 말을 이해하는 거요?”

로니가 불쑥 치고 들어왔다. 흥미로워하는 게 역력한 목소리였다. ‘특별한 곰"마왕님의 제물’이란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아직 회까닥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섭냐.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감이 엄청났다.

“수인족이요? 아니면 키메라?”

“...”

“아니, 아니. 마법생물은 아닌데. 희귀한 걸 데리고 있소, 그래? 좀 살펴봐도 되겠소?”

로니의 말이 끝나자 엉덩이를 받치고 있던 남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떼어 내려는 줄 알고 기겁했지만 자신의 가슴에 내가 얼굴을 묻게 하고 그대로 꽉 끌어안았다.

“그만.”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잠깐 보기만 하면 되오.”

“남의 손 타게 할 생각 없다.”

“그냥 보기만 하겠소. 어차피 그대를 주인으로 인식한 짐승 아니오?”

“같은 말 계속 하게 할 건가? 남의 손 타게 할 생각 없다고 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부숴버리고 말지.”

기승전 부수겠다고? 뜬금없는 진심 가득한 개소리에 갑작스럽게 현타가 찾아왔다.

광신도랑 미친놈이랑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난 이미 남자의 품에 갇힌 상태였다.

“오크들은 제단 근처에 터를 잡고 있소.”

“제단 근처라고? 그 주변은 다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단 근처가 맞소. 정 못 찾겠거든 정찰을 도는 오크병사 뒤를 쫓으면 될 거요.”

로니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숲으로 돌아왔다. 흑백의 구분처럼 메마른 땅과 축축한 땅의 경계는 확실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축축하면서 불쾌한 공기가 전신을 휘감았다. 그래도 이 공기가 로니보다는 훨씬 나았다.

사람을 짓누르는 음습함과 발이 푹푹 빠지는 젖은 땅에서 남자의 걸음은 평온했다. 무표정한 얼굴을 힐끔 올려다보며 고민에 빠졌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인성이 아닌데... 공짜로 뭘 해줄 성격도 절대 아니었다. 기절했던 사이에 무슨 대화를 나눴기에 로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한 걸까.

“그응...”

“왜?”

“그으응...”

“아파?”

아프냐고 묻지만, 목소리만 놓고 보자면 걱정 하는 게 아니라 성가셔서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런데 또 날 안아 든 품은 너무 따뜻했다.

아니라는 뜻으로 고개를 젓고 남자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집순이로 방구석에 박혀 살 때는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면 됐다. 돈으로 행복은 못 산다지만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날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간신히 하나에 적응할라치면 다른 무언가 튀어나와서 숨통을 조였다.

과연 나는 어디까지 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소화해 낼 것인가.

혹은, 견뎌낼 수 있을까.

'인간… 널 저주한다… 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 저주한다…

자신들 욕심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악한 존재들…

내가 죽으면 수하들도, 내 아이들도 무참히 죽겠지...

인간에게 또다시 그런 수모를 당할 순 없다.

내가… 차라리 내 손으로…

로니의 부탁 " 안전한 산책을 위하여

오크를 찾는 동안 해가 저물고, 또 다시 사위가 새까맣게 물드는 밤이 찾아왔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수색을 포기하고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엑!”

“없어. 거미 없다고.”

“그으응”

“네가 봐. 없잖아. 조용히 좀 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무 위는 벌레천국이었다. 특히나 거미가 엄청났다. 차라리 땅에만 있었으면 어두워서 못 봤을텐데 나무 위로 올라오자 달빛에 조금씩 주변이 보였다.

내가 기겁하자 처음에는 시끄럽다며 주둥이가 잡혔지만, 버둥거림이 계속되자 남자가 이유를 물어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앞발로 사방의 벌레들을 가리키자 한숨을 내쉬며 치워주기도 했다.

그런데도 자꾸 거미가 주르륵 내려와서!

“크아앙!”

바로 눈앞에 주륵 내려왔던 거미가 순식간에 날라 갔다.

“너...”

“그응”

감정 표현이 적었던 남자 얼굴은 누가 봐도 짜증이 가득했다. 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사나워서 바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자라.”

“그응?”

“평소엔 잘만 자더니 왜 안자냐고. 자.”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이어진 말이 의외였다. 남자의 비위를 맞추려면 자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겠지만,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잠도 오지 않았다.

“그으응”

작게 고개를 젓자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못 본 척 시선을 내리며 남자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잘라낸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맨살 때문에 보는 내가 더 추웠다.

그 틈을 막듯 몸을 찰싹 붙이고, 잠깐 아래를 살폈다. 올라온 지 꽤 됐지만 여전히 오크는커녕 다른 몬스터, 야생동물도 보이지 않았다.

저번에도 얼핏 생각한 거긴 하지만 게임세계에 떨어진 첫날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몬스터를 본 적이 없다.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레인'은 초보자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튜토리얼이었다. 한입거리인 슬라임, 무더기로 나타나 잡템밖에 안주는 놀, 유일하게 무기를 떨구는 오크. 나무 반 몬스터 반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가득하던 애들이 지금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다. 차라리 잘 된 일이었다. 이대로 남자가 포기하고 슬레인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오크 우두머리, 저주받은 우차라족의 족장은 울창하게 자란 거목만큼이나 커다란 대형몬스터였다. 귀여운 것 말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새끼 곰인 상태로 오크족장과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다.

오크족장은 슬레인의 중간보스였다. 로니의 퀘스트를 받아야만 지도에 오크마을이 표시되는데, 막상 가보면 황량한 공터밖에 없었다.

“…그으으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거 같아. 이 남자를 열배는 뻥튀기해야 오크족장만한 덩치가 나올 것 같았다.

살랑살랑 고개를 젓는데 남자의 손이 불쑥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개를 빼고 남자를 쳐다봤지만 벽안은 캄캄한 숲속을 살피는 중이었다.

“마을로 가면 수인족부터 찾아보겠다.”

“그으응?”

“같은 수인족이라면 네가 왜 인간화를 못하는지 알겠지.”

“그응”

“그러니까 말은 그때 해라. 지금은 네가 뭐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언제는 팔겠다더니. 말이랑 행동이 자꾸만 달라서 알 수 없는 남자다.

결국 동이 틀 때까지 우리는 우크를 볼 수 없었다. 밤새 나뭇가지 위에 있었으니 힘들고 피곤한 거야 말할 것도 없었다.

사실 나야 남자한테 안겨 있었으니 딱딱하긴 했어도 딱히 몸이 힘들 건 없었는데, 문제는 벌레였다.

잠이 들었다가도 몸을 스치는 작은 감촉에 화들짝 놀라 깼다. 그걸 밤새 반복하니 잔 것 같지도 않았다.

처음 몇 번은 “아무 것도 아니다. 바람이야”라든가 “개미다, 잡았어”라고 말해주던 남자도 나중에는 “제발 좀 자”라고 하며 날 자신의 품에 파묻었다.

딱딱한 복근에 얼굴을 박았다가 옷을 타고 오르는 거미를 보고 기겁을 하자 여태껏 들었던 것 중 가장 크게 한숨을 쉬었다.

밑으로 내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을 터는 거였다. 밤새 스멀스멀한 느낌에 시달렸더니 구석구석 안 간지러운 데가 없었다.

두 번이나 구부러지는 사람의 손가락과 다르게 곰발바닥이란 귀엽지만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쓸어내리는 걸 포기하고 툭툭 치고만 있자 남자의 커다란 손이 내려왔다.

털을 쓸어내리는 손은 커다랬지만 곰 발바닥보다야 섬세했다. 기꺼이 그 손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남자가 날 안아 들려고 하자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으응”

“…내 옷도 털라고?”

“그응”

투명한 벽안에 명백한 짜증이 서렸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러고는 바로 복수를 해왔다.

“먹어.”

“그으으…”

눈앞에 내밀어진 건 수통이었다.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새카만 무언가에 진저리를 쳤더니 픽,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날카롭게 노려보자 언제 웃었냐는 듯 무표정했다.

“이건 깨끗한 물이다.”

“그으응…”

“그때 거기서 뜬 물이 아니야.”

알게 뭐야. 삐딱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언제까지고 물을 안 마실 수도 없었다.

믿는다, 너?

남자를 쳐다보며 천천히 주둥이를 벌렸다. 한 모금 간신히 삼키고 나니 이번에는 꼭 두릅을 말려놓은 것 같은 풀떼기를 내밀었다.

“약이니까 먹어.”

“...”

“먹여줘?”

어떻게든 먹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다. 결국 풀떼기까지 다 먹이고 나서야 남자는 걸음을 옮겼다.

두릅처럼 생긴 풀은 의외로 맛이 괜찮았다. 향긋한 나물 내음에 입맛을 다시며 오랜만에 식욕이 돋는 걸 느꼈다.

자취하던 오피스텔 앞에 있는 시장에 반찬가게가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추천글을 보고 갔다가 단골이 됐다.

한 팩에 7,000원이던 칼칼한 김치찌개, 매콤하게 무친 오도독한 무말랭이, 아몬드가 들어간 바삭한 멸치볶음.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밑반찬들인데, 조금만 늦게 가도 다 팔려서 못 살 정도로 맛있다.

본격적으로 먹을 걸 떠올리니 배가 고팠다. 흰쌀밥에 보리차만 말아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한 번도 내 입맛이 토종 한국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다 한식이었다.

“뭘 그렇게 생각해.”

“그응?”

“배고파?”

“그으응”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의 손이 배를 토닥였다. 착각인지는 몰라도 볼록하던 아랫배가 좀 홀쭉해졌다고 느꼈는데, 남자 역시 같은 말을 했다.

“살이 빠졌어.”

“그응”

“오늘 중으로 일을 끝내고 마을로 가겠다.”

“그으응”

그건 좀... 그러지말고 그냥 마을로 가는 건 어때?

알아듣지 못할 걸 알면서도 끙끙 울어대는 중이었다. 갑자기 쿵! 하고 심장이 떨어졌다.

“크앙!?”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남자가 칼을 뽑았다. 쿵쿵 하고 땅이 울렸다. 심장이 떨어 진 게 아니라 숲이 울리고 있었다.

남자한테 안겨있는데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땅을 흔드는 울림은 대단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썩은 내였다.

도망가거나 대비를 할 시간도 없었다. 안 그래도 어둡던 숲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다. 휙 뒤돌아서자 그곳에는 허리춤까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 서 있었다.

나무기둥처럼 두껍고 거친 다리를 나무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던 건 창백한 빛이 도는 푸른 피부색 때문이었다. 고개를 힘껏 젖혀도 가슴께 위로는 볼 수 없었다.

기가 질려 멍청하게 거인을 보다가 천둥처럼 떨어지는 목소리에 기겁하며 몸을 말았다.

“학살자... 숲을 술렁이게 만든 게 네놈이구나.”

품에 파고드는 날 단단하게 안아들며 남자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크?”

오크? 어디? 저게? 저 거인이 오크...아!

섬광처럼 깨달음이 스쳐지나갔다. 슬레인의 중간보스, 저주받은 우차라족의 오크족장! 게임을 할 때도 핸드폰 화면의 반을 꽉 채우던 덩치였다. 실제로 보니 없던 전투의욕마저 팍 꺾일만큼 엄청났다.

“인간. 학살자여도 상관없다. 죽이겠다. 인간은 다 죽인다.”

갑자기 콰광하고 나타나더니, 죽이겠다고 한다. 저게 어떻게 초보자가 잡는 중간보스야? 이건 말도 안 됐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오크족장은 덩치와 다르게 날쌨다. 거기에 피하면 손도끼를 던졌다. 공략하려면 무조건 바짝 달라붙어서 싸워야...

“그으응!”

그건 게임공략이고!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

절망적으로 울부짖다가 남자가 조금씩 뒤로 몸을 빼고 있음을 눈치 챘다. 도망은 안 돼, 손도끼는 무조건 크리티컬이라고!

“그, 그으응!”

열심히 고개를 저으며 남자를 말렸다. 난동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시끄럽게 굴자 남자뿐만 아니라 오크족장까지 나를 쳐다봤다.

“아니다? 인간이 학살자 아니다?”

킁, 킁 하고 냄새를 맡는 소리도 울림통이 남다르다보니 바람소리가 엄청났다.

“학살자…? 새끼가…? 새끼가 학살자?”

오크족장이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오크가 말하는 새끼가 욕이 아닌 이상에야 나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다.

“그응?”

학살자...

지독한 오크 학살자!

슬레인에서 오크 1,000마리를 잡고 받은 칭호였다. 업적 창에도 따로 없다고 달성하고 나서야 나타난 칭호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다.

“인간 아니지만 동족의 원수다. 다 죽이겠다.”

잠깐 당황했던 오크의 목소리가 살기로 물들었다.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다. 해제! 칭호해제! 안 해! 안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 목소리는 마우스 버튼이 아니었고, 눈앞에 게임 상태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놓는 대로 달려라. 최대한 멀리 가.”

남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팔에 힘을 풀었다. 잡을 틈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둔탁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아파할 겨를도 없었다. 날 놓음과 동시에 남자가 앞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칼을 휘두르는 남자의 머리위로 성인과 비슷한 크기의 몽둥이가 내리꽂혔다. 소설을 보면 종종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랬다.

못 막는다. 저건 절대 못 막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움직였다. 네발로 필사적으로 땅을 박차며 남자의 곁으로 달렸다.

그리 멀지 않은데도 천릿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남자가 막으려는 것처럼 칼을 들었고, 몽둥이는 상관없다며 곧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남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몽둥이가 그를 으깰 것만 같았다. 안 돼! 라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었다.

지이익

어디선가 지퍼 열리는 소리가 나고,

컹! 컹컹컹!

새하얗고 커다란 진돗개가 튀어나와 나를 제치고 오크족장과 남자 사이로 뛰어들었다. 곧 눈이 멀 만큼 강렬한 새하얀 빛이 퍼졌다가 오래가지 않아 사그라졌다.

새하얗게 점멸됐던 눈에서 생리적인 눈물이 흘렀다. 몇 번이고 눈을 깜박이고 나서야 시야가 되돌아왔다.

“이게 무슨...”

“...?”

가장 먼저 보인 건 빈손이 된 오크족장과 남자였다. 황망한 얼굴로 둘은 자신들의 발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있는 건

헥헥, 헥헥헥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를 보며 반갑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 새하얀 강아지였다.

“멍!”

“…그응?”

설기야? 반신반의하면서도 알고 있는 이름을 불렀다. 그래봤자 곰이 그응 하고 우는 소리일텐데 강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달려왔다.

“멍멍!”

“그으응?”

진짜 설기야? 몸통박치기라고 해도 좋을만큼 힘차게 뛰어든 강아지를 껴안고 바닥을 굴렀다. 얼굴을 싹싹 핥아대는 통에 정신이 없다가 앞발을 뻗어 와락 껴안았다.

설기다. 진짜 백설기야!

"언아더"의 게임펫이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좋다고 온몸으로 외치는 강아지를 거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으응!”

“멍멍!”

“그응!”

“멍멍멍멍!”

개와 곰은 과가 달라서 일까 의사소통이 되는 기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반갑다는 건 알 수 있다. 잠시 상황도 잊고 좋다고 웃다가 부지불식간 몸이 들렸다.

“캉?”

“왈!”

잡힌 건 나뿐만 아니라 설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뒷덜미를 낚아챈 남자는 그대로 전력질주했다. 볼을 스치고 가는 바람이 얼얼할 정도로 엄청난 빠르기였다.

순식간에 오크족장과 거리가 벌어졌다. 다리통밖에 안보이던 거대한 몸은 이제 머리까지 전부 보였다.

게임할 때는 그냥 사람 몸 위에 돼지머리가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사람이 분장처럼 돼지귀와 코를 붙여놓은 것만 같았다.

푸르고 창백한 피부 때문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표정은 달랐다. 부리부리하고 짙은 눈초리에는 힘이 쫙 빠져 있고 사람 머리통은 한입에 삼킬 것처럼 커다란 입은 쩍 벌어졌다.

교과서에서 봤던 원시인 그림처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은 커다란 거인은 넋이 나간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멀어지는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쉼 없이 달린 남자가 멈춰선 곳은 숲과 메마른 땅의 경계지점이었다. 몇 발자국만 더 걸어가면 모든 게 바싹 말라 죽어있고 더불어 로니의 거처도 있는 땅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헉, 허억, 헉

남자는 당장 토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뿐만 아니라 온몸을 들썩이는 남자의 몸짓을 따라 굵직한 땀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얼굴뿐만 아니라 발갛게 달아올랐고 핏대도 새파랗게 서 있다.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건, 순전히 그의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었다.

흐르는 땀도, 뜨끈뜨근한 몸의 열기도 다른 사람이었다면 부대끼기 싫은 불쾌함 이었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항상 서늘한 낯을 하고 있던 남자의 열기는 나까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야했다. 힘들어 하는 얼굴이 어째서 야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답도 저 잘난 얼굴에 있을 터였다.

내가 힐끔대며 남자의 얼굴을 보는 사이, 마찬가지로 날 보는 시선이 있었다. 조금 늦게 그 사실을 눈치 채고 고개를 내리니 똘망똘망한 눈이 반짝였다.

“멍!”

꼭 웃는 것처럼 양옆으로 올라간 입꼬리도, 쫑긋거리는 뾰족한 귀도, 허공에 대롱거리는 두툼한 발도 어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앞발을 뻗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는데 남자가 우리 사이의 간격을 휙 벌렸다. 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설기를 팽개치듯 땅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으응!”

애기 다치잖아! 거칠게 항의했지만 되돌아 온 건 빨갛게 익은 얼굴과 다르게 새파랗게 얼어있는 벽안이었다.

“그…으응…?”

뭐, 뭐? 왜? 단번에 기가 죽어 눈치를 보자 설기가 밑에서 왕, 왕 하고 짖어댔다. 남자는 그런 설기를 파리 쫒듯 발로 밀어내며 물었다.

“이거. 뭐야?”

설기는 게임 시작할 때 친구한테 받은 선물이었다.

"언아더"는 게임 내에서 유저들끼리 전혀 소통할 수 없었다. 대화창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사냥 기능도 없었다.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다가, 뒤늦게 게임에 빠져서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가입한 게임 공식카페에서 주워들은 지식들이었다.

유저들은 "언아더"가 배짱장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채팅, 반복사냥, 이벤트 등등 관리가 필요한 건 전부 생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하는 것과 별개로 게임은 계속했다. 내가 게임을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와 비슷했다.

처음에는 그래픽이, 캐릭터가 너무 예뻐서 나중에는 한 게 아까워서. 게다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보이니 그게 또 사람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게다가 키울 수 있는 건 자신의 캐릭터뿐만이 아니었다. 게임펫도 마찬가지였다.

설기는 그런 게임펫들 중에서도 귀한 ‘전설’급 펫이었다. 아이템줍기나 사냥보조 같은 기본능력은 물론 성견이 되면 "절대방어(성공확률33.3%/ 단, 기술사용 후 새끼 때로 되돌아감)"라는 엄청난 스킬도 쓸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절대방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펫이 자동으로 쓰는 스킬인데.

…나 아까 목숨이 위험했어?

남자가 오크 몽둥이에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내가 슥삭 됐을 건가?

그럴싸한 가정에 몸을 한차례 떨었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전해지는 느낌이 꼭 언제까지 딴청을 피우는지 지켜보겠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뭐냐고 물어도...

“그으응”

내 말 알아들을 수는 있는감? 그응 아니면 캉 뿐인데?

말은 못 알아들어도 눈치는 귀신같은 남자였다. 빤히 올려다보기만 했는데도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혀를 찼다.

“말도 못하는 애 붙잡고 뭐 하는 건지...”

“그응”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남자의 턱짓을 따라 시선을 내리자 바지 밑단을 물어뜯고 있던 설기가 낑, 낑 앓으며 우는 소리를 냈다.

앞발을 애타게 뻗어보았지만 반대로 몸이 더 높게 들렸을 뿐이었다.

왕! 왕! 왕!

항의하듯 설기가 앙칼지게 짖었다. 잠깐 사이에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다시 물어뜯으려고 해서 얼른 고개를 젓자 시무룩하게 자리에 주저앉는데...

“그으으응!”

귀여워! 귀엽다고! 으아아! 귀엽다!

“자꾸 한 눈 팔 거냐.”

“그응”

“저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딱히 간지럽지는 않았지만 머리통을 긁적였다. 남자도 대답듣기를 포기한 건지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날 훑었다.

“이 가방... 네가 연 건가?”

“그응?”

남자의 말대로 손가방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지퍼 열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고?

어린아이나 메고 다닐 법한 곰돌이 가방이었지만, 인벤토리 공간을 늘려주는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게임을 끄면 설기는 인벤토리 안에 있는 개집에 들어갔다.

즉, 갑자기 튀어나온 설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묻는다면 이 가방일 확률이 크다는 거였다.

반신반의하며 가방 안에 앞발을 넣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하는 걸 보고 마찬가지로 손을 넣었던 남자도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가방을 벗겨내려고도 해봤지만, 별 소용없었다. 꼭 의지를 가진 무생물처럼 가방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왠지 내가 하면 벗겨질 거 같은데 또 그러기는 싫었다. 벗으면 그대로 가방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싫다고 몸을 빼자 가방 대신 날 꽉 잡으며 물었다.

“이 개. 가방에서 나온 건가?”

“그으응?”

아마도?

“어떻게? 네가 불렀어?”

부른 적은 없지만, 내 목숨이 위험했으니 나왔겠지? 어깨를 으쓱이며 설기를 쳐다봤다. 곧장 마주치는 까만 눈동자는 계속 한눈팔지 않고 나만 보고 있었단 뜻이었다. 지금은 강아지이지만 막 튀어나왔을 때는 분명 커다란 진돗개였다.

“동물? 개?”

“아니면 키메라?”

“네 거냐?”

키메라냐는 질문 빼고는 전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고민하는 눈치이던 남자가 잠시 후 내 앞발을 잡아 가방에 넣게 했다.

“그응?”

“이 가방 안에 넣어둔 것 중에 하나를 떠올려봐.”

“그으응?”

“락에 이공간마법까지 걸려있어. 빈 가방이 아닐 거다.”

단호한 목소리에 귀가 팔랑였다. 정말로? 반신반의 하면서도 설기를 쳐다보며 꺼내고 싶은 걸 떠올렸다.

“그응!”

거짓말처럼 앞발에 무언가 느껴졌다. 사람 손처럼 물건을 움켜쥘 수가 없어서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가 대신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

남자가 꺼낸 건 펫 간식 중에서도 제일 비싼 바비큐맛 뼈다귀였다. 앉아있던 설기는 뼈다귀를 꺼내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줄 생각이 없어보여서 보다 못해 남자의 손을 툭 쳤다.

“…다른 건 없나.”

황당해하는 시선을 외면하며 머리를 굴렸다. 다른 거? 뼈다귀 다음에 떠오른 건 게임 돈인 골드였다. 한 번 해봤다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동그란 금속이 만져졌다.

내친 김에 체력포션과 어째서인지 같이 생각난 잡템도 하나씩 꺼내봤다. 몇 개 없는데도 작은 가방은 금세 빵빵하게 부풀었다.

“잠깐만.”

남자가 날 말리며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잡템은 그저 잡았을 뿐이데 딱 소리를 내며 두 동강났다. 당황한 남자의 손에서 반지를 털어내 주자 내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란 걸 알았는지 그 다음 걸 꺼내다가 또 멈칫했다.

“성수?”

고개를 저었다. 그냥 체력포션인데. 아이주먹보다 조금 더 크고 동그란 병에는 맑은 다홍빛 액체가 찰랑이고 있었다. 골드까지 마저 확인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남자는 말끝을 흐리다가 체력포션(중)의 뚜껑을 열었다. 달짝지근한 시럽향이 났다.

“진짜 성수가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고개를 저었지만 몇 방울 손등에 떨어뜨려 맛은 본 남자가 “성수 맞잖아”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으응?”

그럴 리가 없는데. 체력포션인데…?

“일단 입부터 벌려라.”

말은 벌리라고 했으면서 손은 이미 턱을 잡아 벌리는 중이었다. 시럽향이 난다 싶더니 어렸을 때 먹던 해열제 시럽이랑 맛도 똑같았다. 텁텁하게 남은 단맛에 인상을 쓰는데 붕대를 감아놨던 앞발이 갑자기 홧홧했다.

“그으응!?”

놀라서 앞발을 들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붕대를 풀어냈다. 짓이긴 약초가 엉겨 엉망이라 바로는 못 알아봤지만 빠졌던 발톱이 차올라 있었다.

“남은 건 내가 마시겠다.”

눈도 잘 깜박이지 않고 발톱만 보다가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인벤토리에 넘치는 게 포션이었다. 그보다는 어디 다친 데가 있나 싶어서 매의 눈으로 남자를 살폈다. 설기한테 정신이 팔려 잠깐 잊었지만 남자는 오크족장과 정면으로 부딪힐 뻔 했었다.

“...다친 데 없다. 체력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볼수록 신기한 남자였다. 진짜 어떻게 아는 걸까? 신기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요한 벽안을 의심스럽게 봤지만, 동그란 눈동자가 갑자기 세모로 변하는 일은 없었다. 헛짓거리인 걸 알아서 뒤늦게 시선을 내리다가 옆구리에 구멍 난 셔츠가 보였다.

…인벤토리에 갑옷도 몇 개 있을 텐데...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고민했다. 허름한? 질긴? 아. 투박한…이다. "초보자를 위한 투박한 셔츠"!

떠올리기가 무섭게 가방 밖으로 빠져나온 셔츠는 겨울옷처럼 두껍고, 내 털처럼 새카맸다.

“그으응”

“나 입으라고?”

“그응”

남자는 내가 내민 셔츠를 말없이 쳐다봤다.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었지만, 설기 앞에 날 내려놓는 손은 조심스러웠다.

“멍!”

뼈다귀를 뜯다말고 달려든 설기한테 열정적으로 침질을 당하다가 자꾸만 품에 파고드는 걸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콩, 하고 머리를 찧기가 무섭게 날 안아든 남자가 뒤통수를 더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셔츠 단추를 마저 잠갔다.

“왈!”

아주 잠깐 맛만 보다가 날 뺏긴 설기가 짖었다. 남자는 개가 짖든 말든 하는 태도로 무시하며 걸음을 옮겼다.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란 뼈다귀를 야무지게 물고 쫓아오는 설기는 귀여웠다. 참지 못하고 그응그응 앓는 사이 어느새 평평한 바위 위에 앉혀져 있었다.

날 바위에 올려두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처럼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도 서늘한 낯이 유난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학살자.”

“그응?!”

“오크가 왜 그렇게 불렀는지 알고 있는 거군.”

아무 생각 없이 끼고 있던 칭호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게임할 때는 별생각 없었는데 오크한테 대놓고 동족의 원수란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그랬다.

불편해하는 내 반응에서 어떤 대답을 읽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곧 이상한 질문을 해왔다.

“너는 내 곁에 있고 싶나?”

“그응?”

“아니면 여전히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나?”

“...”

귀신같은 놈. 하도 연달아 일이 터져서 도망칠 생각은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방에 도대체 뭐가 더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흐리며 남자가 팔을 뻗었다. 위협할 생각이 없다는 듯 천천히 손가방에 도달한 손은, 금세 태도를 바꾸더니 순식간에 지퍼를 잠가버렸다.

“팔지 않고 잘 돌봐 줄 테니까 얌전히 있어라.”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안고 다녔을 때랑 달랐다. 정확히 뭐가 다르다고 짚어낼 순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남자는 강압적이고, 무서웠다.

“잘 생각해. 넌 이스트윙에서는 유일한 개체의 수인족이다.”

“...?”

“거기에 가방에서는 성수에 금화에 심지어 살아있는 개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작 넌 약해 빠졌지. 잡아 팔면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돈값어치가 있는 게 바로 너다.”

말수가 적던 남자가 오늘은 작정한 것처럼 얘기를 길게 했다.

“뭐, 애완동물로 팔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건 운이 좋은 경우고 보통은 우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될 거다. 그런데 그 역시도 대우가 괜찮은 편일거야. 왜냐하면 마법사한테 팔리는 순간 실험체가 될 테니까 말이다.”

“그으응…”

게임을 끝내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다. 지금 들은 얘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듣다보니 너무 그럴싸해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만해. 안 그래도 나쁜 일밖에 없는데 거기에 더 얹어주지 말란 말이야.

“쀼...”

한 번 눈물이 터지면 참기가 힘들었다. 소리 내기도 싫어서 끅끅 대는데 남자가 기어코 쐐기를 박았다.

“무섭지?”

“...”

“그러니까 가방 이용해서 도망갈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라. 그럼 말했던 일 같은 건 없을,”

“쀼이잉! 쀼잉…”

가방 열리고 아무 생각도 안했는데... 지 추울까봐 걱정해서 갑옷까지 꺼내줬는데...

서러웠다. 더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바위에 엎드렸다. 엉엉 우는 동안 남자가 뭐라 말한 것도 같고, 설기가 애타게 짖은 것도 같지만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 후 몸이 들렸다. 얼굴도 보기 싫어서 몸을 말자 남자는 억지로 눈을 마주치는 대신 어색하게 등을 쓸어내렸다.

“울지 마.”

“...”

“더 이상 무섭게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퓨이”

새끼곰의 울음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해로인은 한손에 다 가려지는 작은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어린 것의 상태를 확인했다. 얼굴을 온통 눈물로 적신 채 잠들어있었다.

쌕, 쌕 거친 호흡소리를 확인한 해로인의 표정이 굳었다. 성수를 먹인 보람도 없이 도로 상태가 나빠져 버렸다.

아주 조금 겁만 줄 생각이었다. 울릴 생각은 없었다. 변명처럼 그리 생각하다가 결국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그의 잘못이었다.

‘가방은 놔둘 걸 그랬나’

평범한 가방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금화와 성수는 물론 남성셔츠까지 나왔다. 뭘 더 가지고 있을지 짐작도 안 되는데 그대로 가방을 열어두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어린 것의 상태가 나빠지자마자 바로 후회가 들었다. 성수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가방을 만질 수 없게 앞발을 묶어두는 편이...

그리 생각하며 무심코 내려다 본 앞발이 너무 짧았다. 털 때문에 부피가 있어보여도 막상 손으로 쥐면 한줌도 안 되는 두께였다. 무심코 부드러운 실크를 떠올렸으나 이 숲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왕! 왕왕!

발목에서 느껴지는 둔통에 밑을 봤다. 어린것의 애완 개는 자신의 이빨로 가죽장화를 뚫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있는 힘껏 몸통박치기를 해대고 있었다.

잠깐 사이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덜해진 바짓단과 사납게 짖는 개를 번갈아 봤다. 이림이 도깨비불 같다고 했던 벽안이 싸늘하게 빛났다.

으르르르

개라고하기도 민망한 어린새끼였지만 이를 드러내고 위협하는 기세가 제법 흉흉했다. 어린 것이 뭘 하든 어설픈 것과는 달랐다.

‘이것도 처음보는 종이었지’

찰나였으나 분명 자신과 오크 사이에 끼어들었던 건 커다란 개였다. 귀와 주둥이가 뾰족했고 다리가 길었다.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드는 기세가 꼭 사냥개 같았지만, 사냥개라기에는 덩치가 좀 작았다.

처음 보는 종의 개가 이상한 힘으로 오크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고 새끼로 변했다. 저걸 들고 가면 황녀의 편으로 넘어간 마법사들 중 몇은 다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탐구에 미친 자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찜찜해’

그러려면 최소 궁으로 갈 때까지는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그 사이 또다시 알 수 없는 힘을 쓴다면 그대로 어린 것을 뺏길 것만 같았다.

한주먹보다 조금 큰 강아지를 보고 하기에는 과한 생각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짐승의 본능처럼 잘 맞는 편이었다.

기절하듯 잠든 어린 것이 쉽게 잠에서 깰 것 같지는 않았다. 결정이 서자 행동에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는 순식간에 강아지의 뒷덜미를 낚아채 들어올렸다. 강아지가 아무리 용맹해봤자 어린새끼였고, 그는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검을 잡은 사람이었다.

왕! 왕!

강아지가 버둥대며 몸부림을 쳤지만 해로인의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로니를 따라 물을 받으러 갔던 절벽으로 향했다.

절벽 아래는 수풀이 무성했고, 생각보다 얕았지만 어린새끼가 추락사하기에는 딱 적당한 높이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허공에서 강아지의 뒷덜미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다. 단발마의 비명처럼 깽, 하고 우는 소리가 났으나 그마저도 금세 축축하고 무거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절벽아래를 무감하게 내려다보며 어린 것에 할 말을 정리했다.

‘물을 마시러 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되겠군’

그가 절벽 위에서 손에 힘을 풀었다는 얘기만 제외하고 말이다.

해로인은 온 김에 물을 새로 받아 새끼곰에게 먹이고, 약초로 지저분해진 앞발도 씻겼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앞발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털이 젖자 그의 셔츠로 꾹꾹 눌러 물기를 닦아냈다.

덕분에 이림은 깨끗해지고 반대로 해로인은 너저분해졌지만, 그가 신경 쓰는 건 혹시라도 털이 젖어 어린 것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배 부분은 다 젖었기 때문에 가슴 위에 새끼곰을 올리고 로브로 덮은 후 꼬옥 끌어안았다.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숨이 뜨거운 것은 몸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뜻이라 신경이 쓰였지만, 그와 별개로 푸푸 내쉬는 숨소리가 귀여웠다.

어딜 만져도 말랑한 몸의 촉감도, 생물난로처럼 따끈한 온기도 좋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감정을 다채롭게 담아내는 까만 눈동자였다. 사람의 얘기를 이해하지만 말은 못하는 짐승. 그가 없다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연약함마저도 마음에 들었다.

마을로 내려가면 바로 수인족을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그의 어린 것은 귀엽게도 여전히 도망칠 궁리를 했다. 몸이 아프니 지금은 포기한 것 같지만 사람이 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 다시 벗어나려 들 것이다.

‘궁으로 돌아가면 가방부터 벗겨야겠군’

마법이 걸린 가방이니 마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가방을 뺏고, 잘 먹이고 신경 써 돌본다면 나중에는 도망칠 생각을 포기하고 그를 주인으로 여길 것이다. 그 후에 선물을 주는 것처럼 수인족을 불러도 늦지 않다.

마음을 정한 해로인은 주변을 살폈다.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어린 것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해가 잘 드는 걸 보면 여기에는 숲속보다 먹을 만 한 게 더 많을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가.

“...”

하지만 한 시간 후, 해로인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먹을 만 한 게 없다. 아니, 그보다는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맞았다.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물뿐이었다.

숲으로 돌아가며 해로인은 가라앉은 시선으로 바짝 말라죽은 나무들을 살폈다. 슬라임이 자리 잡았다고 하니 땅이 이리 말라 죽은 건 이해됐다. 그가 지금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건 거목의 뿌리 안에 살고 있는 노인, 로니였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노인은 고립된 이곳에서 어떻게 약초를 구한 걸까. 식량은커녕 풀 한 포기조차 없는 땅인데.

하지만 그 고민도 오래 할 수는 없었다.

부웅

해로인은 여유롭게 몸을 틀었고, 그가 발을 뺀 빈 공간을 곡괭이가 내리찍었다. 몬스터의 등장이었다.

기습을 실패한 고블린이 다시 무기를 휘두르려고 했지만 해로인이 더 빨랐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도록 단칼에 목을 베어내자 숨어 있던 다른 놈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새끼곰이 기절하든 잠에 들든 의식을 잃으면 벌어지는 일이었다. 몬스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척을 드러냈고 그와 어린 것을 죽이려 들었다. 어린 것을 주운 첫날 이후 항상 반복된 일이었다.

당연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당장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궁으로 돌아가면 부하에게 조사를 시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짐작가는데가 생겼다.

‘학살자, 라고 했지’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자연스러운 이 상황의 원인은 어린 것일 확률이 커졌다.

크!

딴생각을 하면서도 해로인은 착실하게 고블린이 울부짖기 전에 목을 벴다. 이제 생각은 이런 고블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던 오크 우두머리에게로 향했다.

덩치는 오우거보다 2배는 더 크고, 속도는 고블린보다도 빨랐다. 힘과 속도를 전부 갖춘 데다 말을 하고 생각도 할 줄 아니 힘과 속도, 지능까지 다 갖춘 까다로운 실로 까다로운 사냥감이었다.

‘귀찮게 됐어’

어쩐지 일이 너무 잘 풀린다했다. 콰일이 돈 몇 푼에 줄줄 입을 열었던 건 그의 스승인 노인이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해로인은 그에게 남은 날짜를 계산해봤다. 열흘. 열흘 안에는 궁으로 복귀해야 했다.

제국 루테의 특권층 계급은 성인식을 치룬 후 매년 의무적으로 구휼활동을 해야 했다. 신분이 높을수록 지는 책임 또한 무거워야 한다는 여신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현재 그는 대외적으로는 황족으로서 백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구휼활동 중이었다.

금년의 파견 지역은 두 군데였다.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는 서쪽과 야만족과 계속 시비가 붙고 있는 북쪽.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변방을 수호하는 시랭후작이 있는 북쪽으로 가는 게 나았다. 후작은 아직 중도파인 인물로 포섭 대상 중 하나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해로인은 정치적으로 밀리는 척 하며 마리화나 레 루테 황녀에게 북쪽을 넘겼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니?’

물론 해로인의 배다른 누나는 그 정도 수작질에 속지 않았다.

‘모른다니 다행이군. 날이 갈수록 누님의 간자들이 감쪽같이 굴어서 조마조마 했거든’

‘어머. 네 간자들은 아닌 것처럼 말한다? 어쨌든 뭘까? 서쪽에 뭐가 있길래 시랭후작도 포기하고 그리로 가는 걸까’

‘혹시 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람 붙일 생각 마. 소용없으니까’

‘혼자 다닐 생각인가 보구나? 그럼 간자가 아니라 암살자를 준비 해야겠네’

‘조심하도록 하지. 아아. 누님도 최대한 굶는 게 좋을 거야. 난 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칼과 칼을 혓바닥에 박고 날 선 대화를 짧게 나눈 이복남매는 깔끔하게 뒤돌아섰다. 태어나면서부터 후계싸움을 해온 만큼 상대가 쉽게 약점을 흘릴 머저리가 아님을 잘 알았다.

마리화나 레 루테.

남성 위정자들로 가득 찬 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권력의 꼭대기를 차지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런 황녀를 제치고 황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가 정실인 황후의 소생이고, 마리화나는 황비의 소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태자란 이름은 고귀하기만 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허울이었다. 록시티르가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황후가 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다.

록시티르 감마 레 루테는 황녀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동시에 그녀를 무너뜨릴 유일한 약점이었다. 철두철미한 누님과는 여러모로 달랐으므로.

그래서 해로인은 시랭후작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왔다. 의미심장하게 구는 로니를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도 했다.

오크를 잡았을 때, 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집중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나았다.

‘마을을 내려갔다 와야겠군’

지금 들고 있는 싸구려 검으로는 오크 우두머리를 공격하기는커녕, 그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질 게 뻔했다. 검을 비롯해 제대로 무장을 하고...

그의 어린 것에게 제대로 된 먹이와 그토록 싫어하는 벌레가 나오지 않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경계심만 높은 새끼곰은 절대 그걸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잠들면 수면마법으로 푹 재워놓고 그 사이 빠르게 일을 해결하면 됐다. 어린 것이 잠에서 깰 때 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곁에 있을 것이다.

쓸데없이 힘 빼는 걸 막기 위해 몬스터를 피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을에 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정면 돌파가 더 효율적이었다. 해로인은 마을로 가는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숲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몬스터들은 몸을 납작 낮췄고, 벌레와 날짐승들은 우는 걸 멈췄다. 뒤늦게 이변을 알아차린 해로인의 벽안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가 낭패감을 느끼기를 기다렸다는 듯 땅이 울렸다.

쿵.

쿵 쿵

쿵.

쿵 쿵

도대체 어떻게 숨기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이었다. 굉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가까워졌다. 이 숲에서 모든 걸 다 밀어버리며 일직선으로 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었다.

곧장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하지만 숲이 그의 발목을 걸고, 앞을 가로막았다. 그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대자연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마침내 발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닿을락 말락 드리웠을 때, 해로인은 어린 것을 단단히 안으며 검을 세웠다. 그리고 시체가 썩는 지독한 냄새에 불쾌해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드득, 이를 갈았다.

“…그냥 죽였어야 했는데.”

절벽에서 떨어트릴 게 아니라.

왕! 왕왕! 왕!

오크 우두머리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맹렬하게 짖는 새하얀 강아지가 있었다.

적대감을 내비치는 숲과 존재감을 숨길 생각도 없는 오크 우두머리. 그러나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운 벽안이 향한 곳은 오크의 손톱크기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강아지였다.

그의 느낌이 맞았다. 저게 어린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아는데도, 짜증이 치밀었다. 절벽에서 던질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놨어야 했다.

어떻게 멀쩡한 건지, 무슨 수로 몬스터를 끌고 온 건지, 숲이 왜 저것들을 돕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했다. 머릿속이 복잡한 중에도 눈은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오크가 입을 열었다.

“학살자 넘겨라.”

“…뭐?”

“학살자 넘긴다 너 살려준다.”

몬스터가 거래를 제안해왔다.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보람도 없게 손에 물 대신 피를 묻히며 살았던 인생이다. 온갖 일을 목격하고, 겪으며 살아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었다. 해로인은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웃고는 바로 정색했다.

“헛소리.”

“그럼 죽는다?”

“대답할 가치도 없군.”

강하게 나갔지만 상황이 나빴다.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그의 행동은 객기에 불과했다. 품에 안고 있는 것은 황제의 관도 아니고 그의 약점도 아니었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다.

이대로 어린 것을 넘기고 마을로 가서 제대로 준비를 갖춰 돌아오면 된다. 오크를 죽인 후 그 때 다시 되찾아 와도 늦지 않았다.

자기 것이 남의 손을 타는 걸 끔찍이 싫어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지 않나. 오히려 그가 어린 것에게 미안해야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새끼곰이 버티지 못한다면? 죽어버린다면? 이상한 힘을 쓰는 개가 있긴 하지만, 몇 시간 전 오크는 어린 것을 학살자라고 부르며 살기를 내비췄다.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자꾸만 그의 냉정을 무너뜨리려 들었다.

아르르 왈왈왈!

“마지막 묻는다. 넘긴다? 아니면 죽는다?”

강아지는 시끄럽게 짖고, 오크는 선택을 재촉했다. 해로인은 말없이 칼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일촉즉발을 끝낸 건 설기도, 오크 우두머리도, 해로인도 아니었다. 불현 듯 움찔하며 잠에서 깬 이림이었다.

“…그으응…?”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찢어지기 직전이었던 공기에 새끼곰의 작은 울음이 녹아들었다.

이상한 꿈을 꿨다. "미안해"라고 적힌 메시지가 자꾸 와서 발밑에 쌓이기 시작했다. 버몬이 해리의 호그와트 입학편지를 무시했다가 올빼미들한테 편지폭탄을 맞았던 것처럼 메시지가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그러자 메시지는 종이비행기가 돼서 쫓아왔다.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순간 발밑이 휑했다. 아래를 보자 감히 깊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짙푸른 바다가 있었다.

‘떨, 어진다아아악!’

그러고 잠에서 깼다. 이 나이 먹고 추락하는 꿈이라니.

…아. 혹시 지금 새끼곰이라 그런가. 키 크려고?

속으로 투덜대다가 갑자기 콧구멍을 쑤시는 지독한 악취에 잠에서 확 깼다. 이게 무슨 냄새야? 확인을 위해 고개를 돌렸더니 거기에는 오크족장이 있었습니다.

“...!?”

YOU DIE. 머릿속에 새빨간 문구가 떠올랐는데, 그걸 새하얀 강아지가 지우개처럼 지워냈다.

멍!

“…그으응?…”

설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도 설기가 있는 곳은 오크족장의 손바닥 위였다.

“학살자.”

그러다가 공간이 얼얼하게 울리도록 날 부르는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남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런 나를 밑으로 내려 가슴에 매달리게 한 남자가 말했다.

“보다시피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

“차라리 나도 데려가라. 얌전히 따라 가주지.”

오크족장이 앞장서 길을 걸었다. 손바닥에서 내려온 설기는 적당히 거리를 벌린 채 오크를 따라가고 있는 남자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걸으며 중간, 중간 뒤를 돌아봤다.

쳐다보는 눈빛이 꼭 ‘잘 따라오고 있지?’라고 묻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손을 흔들다가, 설기가 다시 앞을 보고 걸으면 힘없이 몸을 늘어뜨렸다.

퓨후

무심코 한숨을 흘렸더니 남자도, 설기도 단번에 시선을 보내왔다.

“그으응!”

아무것도 아니야. 손짓으로 설기는 달랬는데 남자의 벽안은 떨어져나갈 생각을 안했다.

“왜?”

“…그으으응”

진짜 몰라서 물어? 어이없어할 기운도 안 났다.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지 했는데, 이 남자 때문이었다. 뜬금없이 협박을 남자 때문에 서러움이 폭발해서 엉엉 울다 지쳐 잠들었다.

거기까지 기억나자 눈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야 하는데 곰은 그런 게 안 되네? 후우.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 왜 잠만 잤다하면 상황이 확확 변해있지? 이쯤되자 잠들기가 무서워질 지경이다.

‘동족의 원수’

몇 시간 전의 오크족장은 분명 그렇게 말하며 날 죽이려고 했다.

‘학살자 넘겨라’

조금 전 날 넘기라고 했을 때, 넘겨받아 죽이려는 건 줄 알았다.

‘따라와라’

그런데 죽이지 않는다. 게다가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다. 어쩐지 목적지는 제단 근처에 있는 저주받은 우차라족의 마을일 것 같다. 하지만 왜? 이상한 건 또 있다.

‘멍멍멍!’

설기가 내려가고 싶어 하자 오크족장이 무릎을 꿇었다. 손등을 땅에 부쳐서 작은 강아지가 무리 없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진짜 이상했다.

하긴 제일 이상한 걸로 치면 게임 속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지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남자의 손에 의해 고개가 젖혀졌다. 첫날 힘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내 고개를 휙휙 흔들리게 했던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이었다.

“아파도 참아라. 정신 놓지 말고 버텨.”

말은 부드럽지 못했지만.

“저 몬스터가 볼일이 있는 건 너다.”

“그응응…”

“나한테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응”

고개를 끄덕이고 싶은데 여전히 목이 잡혀 있어서 입으로 대답했다. 날 버리려고 해도 악착같이 붙어있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궁에 갔을 때 목줄을 채워놓겠다.”

이 자식이 또... 잠깐, 궁? 왕궁할 때의 그 궁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면 달리 뭐가 있지? 심지어 눈앞의 남자는 왕자가 아니라 왕이라고 해도 바로 납득이 갈 만큼 그 자리에 잘 어울렸다.

게임이 판타지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왕자나 공주가 있어도 이상할 건 없지만...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곰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했다.

“진짜 목줄 채워서 우리에 넣을 거다.”

혹시라도 남자한테 생각이 읽힐까봐 눈을 꿈 감으며 다짐했다. 기필코 그 전에 도망가야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듯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꿋꿋이 무시했다.

그러는 사이 오크족장이 걸음을 멈췄다. 워낙 걸을 때마다 쿵쿵 울리니 안보고도 멈춰 섰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저주받은 우차라족 마을이었다. 게임화면으로 봤을 때도 황량하다고 생각했던 마을은 실제로 보니 더했다. 게임 맵에만 "마을"이라고 표시됐을 뿐이지 방치된 공사장도 이보단 덜 황량할 것 같았다.

공터의 가장자리를 따라 얕게 파둔 구덩이가 늘어져 있는데, 그게 전부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주변을 둘러싼 숲이 그렇게 울창한데 공터에는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았다. 로니의 거처가 있는 곳은 비록 죽은 거지만 나무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것조차 없이 텅 비었다.

오크족장은 그런 공터의 중앙으로 가 앉고는 우리보고도 앉으라고 했다.

“앉아라.”

“...”

“인간 너 서서 된다. 학살자 내려놔라.”

나는 내려두란 말에 남자는 바로 땅바닥에 앉았다. 물론 날 내려놓지도 않았다. 남자가 앉자마자 설기가 옆으로 바짝 달라붙었다. 앞발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헥헥헥

잠들었던 사이에 꼬질꼬질하게 변한 설기의 털을 슥슥 쓰다듬었다. 뭉툭한 앞발로 마른 진흙이나 나뭇잎 같은 것도 털어줬다. 그럴수록 옆통수가 점점 따가워졌다. 눈빛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다면 오크족장의 시선에 난도질당해 죽을 것 같았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학살자”하고 날 부르는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피의 복수를 외칠 것만 같았다.

“나 힐타 숲지기 으라차다.”

피의 복수가…, 뭐?

“여신의 전사 우차라들 족장이다.”

…게임에서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여신의 전사? 힐타? 숲지기? 으라차? 으라차가 설마 이름이야? 물음표 가득한 날 대신해 남자가 물었다.

“힐타라니... '슬레인'의 숲지기라고?”

“슬레인 아니다!”

별안간 오크족장이 언성을 높였다. 천둥이 바로 코앞에서 내리친 것처럼 귀가 얼얼했다. 앞발을 들어 귀를 문질렀다. 설기도 놀란 건지 자리에서 일어나 오크족장을 쳐다봤다.

“여기 힐타다. 사악한 인간무리 만들다. 마왕의 제단 슬레인이다.”

“슬레인의 원래 지명이 힐타였다는 건 안다. 하지만 몬스터가 숲지기라고? 여신의 전사?”

“인간. 우리 몬스터 부른다. 우리 몬스터? 그러면 인간 몬스터다. 우리 형제다. 형제 다르지 못한다. 우리 인정 안한다. 인간 우리 형제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전개이죠?

“이 땅 모든 것 다 같은 어머니 자식이다. 어머니 잠들다. 인간 잊었다.”

“…여신을 말하는 건가?”

“맞다. 우리 어머니. 위대한 자연. 숭고한 영웅.”

유저한테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언아더". 그 명성이 어디로 갈 리가 없다. 이제 겨우 게임 속 세상인 걸 인정했는데 거기에 적응할 시간도 안주고 바로 새로운 얘기를 투척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놓고 퀘스트를 내라.

…말은 씨가 되는 법이란 걸 잠깐 잊었다.

“인간 여신 배신했다. 형제 죽였다. 용서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크족장이 아무리 바닥에 앉았다고 해도 커다란 덩치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었다. 십미터는 떨어져 앉으면 모를까 이 정도 거리로는 아무리 고개를 젖혀도 거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없었지만.

눈알도 그만큼 커서 그럴까. 시선을 모른 척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느껴졌다.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푹푹 꽂히는 시선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동족의 원수. 형제 살해자. 학살자 원래라면 바로 죽였다.”

“…그으응…”

“왜 신의사자 학살자 선택했다? 이해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이다. 그리고 우차라 마지막 예언자 말했다.”

“그응…?”

“신의사자 데려온다. 우리 저주 풀어줄 존재. 그거 학살자다.”

잠깐만. 이 서사는…?

“마왕의 제단 슬레인 부순다. 우리의 저주 풀어준다. 힐타 정화해줘라.”

지금 이거 그거 맞지? 띠링라이트? 게임에서 퀘스트 받을 때마다 나던 그 띠링? 쟤 지금 나한테 퀘스트 준 거지?

너무하다. 적어도 게임에서는 수락하기/거부하기가 있다. 거부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긴 선택지가 없다. 거부하겠다고 말한 언어능력도 없고, 거부했다가는 후환이 있을지도 몰랐다.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뭐 때문에 떠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화나서 인 것 같다. 알고 있는 모든 심한욕을 "언아더"앞에 붙였다. 이런

“잠깐.”

그러다 불쑥 남자가 입술을 뗐다.

“신의사자라니... 설마 이 개새끼를 가리키는 건가?”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크족장의 그림자에서 머리통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다.

“방금 신의 사자 개새끼 했다?”

의문문이되 질문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흉흉했기 때문이었다. 느낌 탓인지 몰라도 주변 기온도 뚝 떨어진 것만 같다.

오크족장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이러다가 베드엔딩보다 더 끔찍한 사망엔딩을 맞게 생겼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 벌떡 일어나려 할 때였다.

“가만있어.”

“그으응!”

“나한테서 떨어지면 목줄 채운다고,”

“그으응!”

이런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말하는 남자를 퍽퍽 때렸다. 설기도 얌전히 있는데 왜 자기가 개소리를 하냐고! 하지만 남자는 때리는 대로 다 맞아주면서도 놔줄 생각을 안했다.

헉헉

몸 상태가 별로라 그 잠깐 힘을 썼다고 숨이 찼다. 결국 벗어나는 걸 포기하고 남자의 몸에 기댄 채 앞발을 허우적댔다.

처음에는 커다란 사각형, 그 다음에는 앞발을 모아 내리쳤다. 그러고는 앞발을 관자놀이에 댄 후 갸우뚱. 이 세 동작을 계속 반복했지만 남자도, 오크족장도 입을 열 생각을 안했다.

“그으응!”

아아니! 제단을 어떻게 부수냐고!

짜증을 냈더니 가만히 있던 설기가 폴짝 뛰어 얼굴을 핥아댔다.

멍!

누나 화 내지 마? 설기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앞발을 뻗어 설기를 껴안으려는데 남자가 설기를 주욱 밀어내며 말했다.

“맨 처음 동작이 제단을 말하는 거냐?”

“그응”

“두 번째는 부수는 거?”

“그응!”

“그런데 마지막은 도대체 뭐냐?”

응? 몰라? 여기에는 이런 뜻의 몸짓이 없나?

고개를 기울이자 남자의 눈매가 조금 좁아졌다.

“설마 궁금하다, 뭐 그런 뜻?”

“그으응!”

“...”

지그시 쳐다보는 시선이 어이없음을 담고 있었지만, 눈빛이 아니라 남자의 눈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밤이 어둑하게 내려앉고 있는데 땅에 먼저 달이 먼저 떠올랐다. 창백한 빛깔의 벽안을 보며 순수하게 감탄했다. 어떻게 눈이 이렇게 예쁘지?

물론 이러다가도 완전히 밤이 되면 또 도깨비불처럼 번쩍번쩍 하겠지만 말이다.

멍하니 올려보는 내 머리를 슥슥 쓰담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제단은 어떻게 부수냐고 물어보고 있군.”

“언제? 언제 물어봤다?”

흉흉하게 굴던 것도 잊고, 오크족장이 혼란스러워했다. 설기는 갑자기 뭐가 신난 건지 앞발로 땅을 탁탁 짚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흐뭇한 기분으로 그걸 보는데 오크족장의 떨떠름한 목소리가 들렸다.

“'슬레인' 마왕의 힘이다. 힘 못 부순다. 어머니의 곡괭이 필요하다.”

“...곡괭이?”

“맞다. 어머니 힐타 만들 때 썼다.”

곡괭이라는 말에 떠오르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다. 설마설마 하는 기분으로 오크족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곡괭이 없다. 홉고블린 같이 숲 지켰다. 그런데 사악한 힘 때문에 나빠졌다. 곡괭이 훔쳤다.”

진짜 생각하는 게 맞았다. 가짜 곡괭이 말이다. 오염된 홉고블린은 팔지도 못할 온갖 잡템을 다줘서 인벤토리 대주주란 별명이 붙은 몬스터였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는 게 "가짜 곡괭이"였다.

저주받은 오크. 오염된 홉고블린. 멋으로 붙여놓은 이름인 줄 알았다. 팔지도 못하는 잡템이었다. 게임하면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던 것들의 아귀가 척척 들어맞아갔다. 이렇게 탄탄하게 설정돼 있는데 왜 게임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을까?

“우선 곡괭이 찾는다.”

“숲지기도 못 찾는 걸 무슨 수로?”

“아니다. 찾았다. 알고 있다. 하지만 형제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거기 갈 수 없다.”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너는 못 간다는 건가?”

잠깐 딴 생각에 빠진 사이에도 얘기는 척척 진행되고 있었다. 남자는 내 대변인처럼 핵심을 짚고,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맞다.”

“그 곡괭이를 찾는 과정에서 고블린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고?”

“안 죽이면 좋겠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어쩔 수 없다면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무거웠다. 괴로워하는 모습에 문득 안쓰러움이 차올랐다. 생각해보면 게임 할 때도 로니 때문에 이유 없이 죽어야했던 몬스터였다.

생각할수록 나쁘네? 오크족장이 말하는 사악한 인간이 바로 마왕의 사도인 로니였다. 저주를 받은 것도 로니 때문이고 말이다.

“그응!”

배를 감싸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고 흔들며 가방을 가리켰다. 열어달라는 시늉을 해보이자 남자가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무시한다 이거지? 몸을 숙여 깨물려고 했더니 보지도 않고 손을 피했다.

“그으응! 그응! 그으퓨에치! 컥컥!”

열어달라고 외치다가 사레가 들렸다. 요란스럽게 기침을 해대니 등을 토닥이면서 수통을 대줬다. 결국은 포기한 건지 가방을 잡는데 지퍼를 열기 전 설기를 쳐다보는 얼굴이 싸늘했다.

왜 애꿎은 설기한테 그래? 깜짝 놀라서 끙끙 울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차갑던 시선은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남자는 지퍼를 열어주고, 좀 갑갑하다 싶을 만큼 세게 날 끌어안았다. 불편해서 몸을 빼려 해도 소용없었다. 포기하고 가방에 앞발을 넣었다.

곡괭이, 곡괭이... 주문처럼 되뇌며 앞발을 빼자 지퍼사이로 나무막대기가 팟 솟아났다.

“...이건 또 무슨.”

남자가 황당해하면서 내 손짓에 따라 막대기를 뽑아냈다. 절대 가방에서 나왔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다란 곡괭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벤토리에 몇 개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어서 계속 곡괭이를 떠올렸다.

마흔 개쯤 꺼내고 나니 속으로 떠올려도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었다.

“이제 더…, 없냐.”

남자를 올려다보자 기가 막힌다는 얼굴이었다.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은 기분을 숨길 생각도 없어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보자 수북이 쌓인 곡괭이들이 보였다.

저 중에 "가짜 곡괭이"가 아니라 "진짜 곡괭이"가 있지도 않을까. 하지만 허리를 숙여 곡괭이들을 살피던 오크족장이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이중에 없다. 어머니의 곡괭이 이거보다 더 크다.”

“퓨휴”

“이거 다 고블린 거다. 고블린 자기 물건 남 안준다. 학살자 고블린 많이 죽였다.”

“...그으응”

잡템 때문에 귀찮아서 오크보단 덜 잡았지만, 그래도 많이 잡긴 했지... 슬쩍 고개를 돌려 시선을 외면했는데 하필이면 설기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땡글땡글한 까만 눈을 보자 양심이 콕콕 찔렸다.

난 쓰레기였어... 우울하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들렸다. 날 번쩍 든 남자가 물었다.

“도와주려고?”

“그응”

안 도와주고 싶어도 그랬다가 그럼 죽어라! 하면서 바로 사망엔딩이니 돕는 게 나았다. 또, 오크족장의 부탁은 마왕의 강림을 막겠다는 내 목표와도 맞아 떨어졌다.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무언가 고민하듯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금빛 속눈썹이 차양막처럼 길게 내려앉았다가 잠시 후 부드럽게 걷혔다.

“도와주면 대가로 뭘 줄 거지?”

“신의사자 선택받았다. 당연히 할 일이다.”

“그건 너네들 기준이지 않나? 무리한 요구는 안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그것만 넘겨라.”

퀘스트를 받는 건 난데 보상은 왜 지가 정해? 이게 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어이없어하며 쳐다보자 남자는 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지금 당장 네가 곡괭이 가져 올 수 있어?”

“그…응”

“곡괭이로 제단을 부술 수는?”

“...”

입을 다물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 사이 고민을 끝낸 오크족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마왕의 제단 부수면 준다.”

“약속 지켜라.”

“여신의 전사 우차라의 으라차다. 내 말 꼭 지킨다.”

거래를 끝낸 남자가 내 앞발을 잡아 가방에 넣었다. 왜? 멀뚱히 올려다보자 “성수 더 있으면 꺼내”란다. 물론 있기야 한데, 기분이 어째... 떨떠름한 기분으로 체력포션을 꺼내자마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퍼를 잠가버렸다.

“그응!”

가방을 열고 다니게 해주진 않을 거 같았지만 이렇게 바로 닫을 줄이야. 불만스럽게 쳐다보다가 이어진 남자의 행동에 결국 제대로 짜증을 냈다. 무작정 포션을 먹이려 들었기 때문이었다.

“캉!”

“먹어.”

“캉캉캉!”

먹을 때 먹더라도 내 손으로 먹을 거거든? 놔? 안 놔?

주둥이를 잡으려는 손을 피해 고개를 젓는데, 불쑥 오크족장이 끼어들었다.

“학살자 여신의 피 마시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그응!?”

“학살자 형제들 해쳤다. 어머니 그래서 화났다. 여신의 피 아픈데 치료 해준다. 그런데 저주 받는다.”

“무슨 저주?”

“음... 보통 생명 잃는다.”

챙강! 포션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졌다. 내가 놀란 만큼 남자도 놀란 것 같았다. 무섭도록 굳은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한순간에 ‘보험’이 멀리 날아가 버렸다. 포션을 못 먹는 전사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여신의 피 마시고 싶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나?”

“용서 받는다. 그러면 된다.”

“어떻게 용서를 받아?”

“용서 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고?”

“용서 받아줄 때까지 구한다.”

아아... 또다시 띠링라이트가 울린다. 여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서브퀘스트: 여신의 용서"쯤이 아닐까.

“...크아앙!”

억울해! 칭호해제 못하게 하는 건 이 게임이잖아! 칭호해제 하게 해달란 말이야! 그냥 이 게임을 하면 안 됐다. 안 됐다고!

“쀼이잉!”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너무 화가 나면 우는 성격이었던 거다. 그 동안 몰랐는데 게임 속에 들어와서 알게 됐다. 이걸 좋아 해야 돼? 어?

“쀼잉!”

분노를 담아 빽빽 울자 남자가 다급하게 날 달랬다.

“울지 마. 힘 빠진다. 성수도 못 마시는데 여기서 더 힘 빼면 어쩌자는,”

“쀼이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로 내려가면 바로 의사한테 가면 된다. 응?”

설기도 옆에서 끙끙 앓으며 동그랗게 몸을 만 내 빈공간 사이로 파고들려 했다. 달래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운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이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울던 게 나중에서 서러워서 울었다. 한바탕 울고 나니 기분은 확실하게 풀렸는데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 와중에도 추워서 몸을 부르르 떨자 남자가 벌떡 일어나 남자가 땔감을 모아 불을 지폈다. 불가에 앉자마자 품으로 파고든 설기가 온기를 나눠주는 것처럼 따끈하게 열을 냈다.

“저리 꺼,”

“그으응…”

“...”

설기를 치우려던 남자는 내 만족스러운 한숨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싸늘하게 굳은 얼굴을 보니 혹시 개를 싫어하는 편인가 싶어서 좀 눈치가 보였다.

설기 싫으면 나 바닥에 내려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눈빛을 보냈더니 눈가를 덮으며 “자라”하고 말할 뿐이었다.

“학살자 다 울었다? 왜 울었다?”

“보면 모르나.”

“모른다. 너는 안다?”

하아. 남자가 피곤해하며 입을 다물었다. 악의는 없는 거 같은데 자꾸 왜 울었냐는 소리를 들으니 점점 수치스러워졌다.

“그보다 곡괭이는 어디 있지.”

“학살자 왜 울,”

“곡괭이.”

“인간 화났다?”

오크족장은 눈새였다.

오크족장이 뭐라 하던 남자는 “곡괭이”라는 말밖에 안했다. 겨우 포기한 건지 오크족장이 원하던 대답을 뱉었다.

“산장 있다. 숲지기 산장이다.”

“숲에 산장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있다. 그런데 사악한 힘 못 가게 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자 오크족장이 침음을 흘렸다. 고민하는 건지 손가락으로 땅을 툭툭 두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흙이 퍽퍽 패였다.

“산장 힐타 입구 있다. 그런데 사악한 힘 사악한 가시덤불 만들다. 고블린 갈 수 있다. 우리 가면 공격한다.”

“가시정원을 얘기하는 건가?”

“모른다. 숲 입구 있다.”

“그럼 거기가 맞군.”

슬레인에 가시가 많은 맵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었다. 하긴 생각해보면 이 숲이 이렇게 넓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게임 속에서 허락해준 사냥터밖에 없었다.

“어딘지는 알겠다. 어쨌든 마을에는 다녀와야겠군.”

“인간 너만?”

“아니. 전부.”

“안된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크족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 거짓말 한다. 안 믿는다.”

“아까랑 말이 다른데. 자신이 한 말은 지킨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목걸이 준다 얘기다. 이거 다르다.”

“나는 그 목걸이가 필요하니, 다시 올 거다.”

“안 믿는다. 인간 거짓말 잘 한다. 마왕의 제단. 거짓말 했다 만들다. 그래서 못 믿는다.”

바늘하나도 안 들어갈 만큼 단호한 태도였다. 남자도 그걸 느꼈는지 말이 길어졌다.

“난 무기가 필요하고, 네가 학살자라 부르는 새끼곰은 치료가 필요하다. 정 못 믿겠다면 이 개를 남겨놓고 가겠다.”

“...”

“이 개가 신의 사자라며. 이만하면 훌륭한 인질 아닌가?”

“신의사자 인질 아니다. 그리고 인간 이미 한 번 신의사자 버렸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믿지 못할 말에 설기와 남자, 그리고 오크족장을 번갈아 봤다. 마지막으로 남자를 쳐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시선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순식간에 배신감이 차올랐다.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미운 정이라도 들었던 걸까? 배신감 다음에 뒤따라 온 건 속상함이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 위해 버둥대자 안겨있던 설기가 옆으로 비켜줬다. 남자는 여전히 나를 보지도 않으면서 손을 펼쳐 내 배를 감싸더니 끌어안았다.

“그으응! 그응!”

아예 몸부림을 칠 수 없도록 몸을 압박하는 힘에 이를 악물었다. 까드 이가 갈리자 다른 손이 주둥이를 잡으려 하길래 그대로 물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버릴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무리 개가 싫어도…, 설기가 내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면서. 내가 설기를 아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버렸다는 거다. 그렁그렁 고인 눈물이 결국 툭 떨어지며 남자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미안하다.”

남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의 말이 나왔다. 그동안 눈빛이나 행동으로는 표현해도 절대 소리 내서 말한 적은 없었다. 여전히 손을 문 채 고개를 들자 내내 시선을 피하던 벽안이 있었다.

“저 개가 널 빼돌릴 것 같았다.”

“...”

“그리고 실제로도 오크를 데리고 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지.”

“캉!”

손을 뱉고 사납게 짖자 남자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래. 처음부터 안 버렸으면 되는 일이지.”

“캉캉캉!”

“다시는 네가 모르게 저걸 버리거나 죽이지는 않겠다.”

사람이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할까. 오크족장이 못 믿겠다고 한 게 당연했다. 불신의 눈초리로 노려보자 남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신의…,날개에 맹세하겠다.”

그게 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비장한 태도에 콧잔등만 찌푸리고 있는데 남자가 내 앞발을 들어 그 끝에 짧게 입술을 댔다. 거기에 한 번 놀라고, 선명하게 찍힌 이발자국 사이로 핏방울이 맺힌 거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맹세는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의 영혼이 날개 사이로 떨어져 무저갱을 떠돌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남자는 오크족장한테도 여신의 날개에 맹세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맹세라는 단어는 마법처럼 단호하던 오크족장의 대답도 바꾸었다.

오크족장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진짜로 숲에 일직선으로 길이 생겼다.

나무와 수풀들은 양옆으로 벌어졌고, 발목을 붙들던 나무뿌리와 넝쿨은 자취를 감췄다. 하늘마저 활짝 열려서 달과 별들이 길을 밝혔다.

슬레인 아니, 힐타를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땅의 경사가 가팔라졌다. 작은 강아지인 설기가 헤쳐 나가기에는 무리인 곳이었다. 혼자 걷겠다고 고집 부리던 설기도 경사에서 3번 쯤 구른 후에는 얌전히 품에 안겼다.

나나 설기나 어린새끼의 모습을 하고 있다지만 어쨌든 짐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자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빠르게 산을 내려갔다. 어둑한 밤이라는 건 남자한테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짧게, 짧게 졸기는 했지만 제대로 잠들지는 못했다. 몸은 힘든데 잠들라치면 갑자기 심장이 쿵쾅대며 뛰었다. 자고 일어났는데 또 상황이 달라져 있으면 어떡해? 우스갯소리처럼 트라우마 생기겠네, 생각했는데 진짜로 트라우마가 된 모양이었다.

졸린데 자질 못하니 산을 다 내려왔을 즘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뻑뻑한 눈으로 정신을 놓고 있자 처음에는 제발 좀 자라고 한소리 하던 남자가 나중에는 엉덩이를 토닥이며 재우려고 애썼다.

산을 완전히 내려왔을 때는 해는 안 떴지만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멀리 커다란 성문과 높게 쌓아올린 성벽이 보였다. 남자는 옆구리에 구멍이 난 셔츠를 꺼내 날 돌돌 말았다. 그 사이 잠에서 깬 설기가 먼저 성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웬 강아지가…, 정지! 멈춰서 신분패를 꺼내, 아니, 보여주십시오.”

성문을 지키던 병사가 말투를 고쳤다. 남자의 외모나 분위기가 워낙 비범하다보니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초소에 1대장 나와 있나?”

“그렇긴 한데 누구신지...”

“1대장을 불러와라. 내 신분은 오닉경이 확인해 줄 거다.”

병사가 망설이다가 다른 동료에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좀 전의 병사와 허리춤에 칼 두 자루를 찬 호리호리한 기사가 같이 나왔다.

“다녀오셨습니까?”

마른 사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였다.

“그런데 품에 안고 계신 거랑 저 강아지는 뭡니까?”

“일단 걸으면서 얘기하지.”

“아, 예. 이분의 신원은 내가 보증하겠다. 수고해.”

예, 하는 우렁찬 외침을 뒤로 하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특이하게 성벽 안에 해자가 파져있고, 다리 너머에는 성벽이 또 있었다.

“가셨던 일은 잘 되신 겁니까?”

“아직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뭘 들고 계신 겁니까?”

“산에서 주웠다.”

남자가 오닉경이라 부른 기사는 잠깐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로보에선 몬스터 외 품목은 안 팔립니다. 암시장에서도 노예면 모를까 펫은 아예 취급을 안 해서 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네? 팔려는,”

“아니라고.”

착각일수도 있지만 어쩐지 이를 악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럼 설마 그 작은 애들을 드시려는 겁니까? 별미입니까?”

절대 이 남자가 키울 거란 생각은 안 드나봐. 남자가 닥치고 꺼지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웃겨서 속으로 웃고 말았다.

오닉경을 쫓아내고 남자가 조금 더 걸어 도착한 곳은 마당에 화단과 티 테이블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은은하게 불씨가 살아있는 벽난로와 푹신해 보이는 양털 러그였다.

“불앞에서 자려고?”

홀린 듯이 러그를 보고 있다가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돌돌 말고 있던 셔츠를 푸른 후 러그 위에 날 눕힌 남자가 담요를 들고 와 덮어줬다. 방안을 둘러보던 설기가 기다렸다는 듯 담요 안으로 들어와 품에 파고들었다.

설기를 껴안고 남자를 불렀다. 일어나려다가 왜 부르냐는 듯 쳐다봐서 앞발로 붙잡았다.

“그으응, 그응”

“…옆에서 자라고 바닥을 치는 거냐?”

“그응”

빈말로도 착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숨을 쉬면서도 순순히 앉는 모습에 눈을 감았다. 담요 위로 토닥이는 손길에 점점 의식이 내려앉는데 남자의 손길이 사라졌다.

“…그응…”

억지로 눈을 뜨려하자 남자가 다시 토닥이며 말했다.

“옆에서 잘 테니까 그만 자.”

움찔.

갑자기 찾아온 요의에 몸을 부르르 떨다가 눈을 떴다.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쉬가 마려운 거였다.

얼마나 잔건지 머리가 띵했다. 그러다가 문득 본 창문 너머로 노을이 깔린 걸 보고 하루 종일 잤다는 걸 깨달았다. 동이트기 전 마을에 도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잔 거였다.

일어나다 한 번 휘청거리긴 했지만 똑바로 섰다. 잠결에 옆에서 자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남자는 정말로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잠들 때는 표정이 풀려서 무방비해보여야 하는데, 이 남자는 자는 모습마저 빈틈이 없어보였다. 자면서도 잘생긴 얼굴을 구경하다가 화장실을 찾았다. 슬슬 급했다.

주방과 거실, 침실이 모두 트여있는 구조라 현관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 두 개 중 하나가 화장실일 게 분명했다. 다행히 문은 두 개 조금씩 열려 있었다.

주방 쪽에 나 있던 문을 열자 창고가 나왔다. 그렇담 저기가 화장실인가봐, 라면서 가구 옆에 있는 문을 밀었는데 욕조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응?”

뭐야? 왜 집에 화장실이 없어? 슬슬 다리가 꼬이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와서 다시 창고로 가자 먼저 깨서 혼자 놀고 있던 설기가 뒤를 졸졸 따라왔다. 그리고 설기를 보다가 깨달았다.

헥 헥헥

내가 왜 힘들게 두발로만 걷고 있었을까. 곰은 발이 네 개인데! 이족보행을 포기하고 사족보행으로 방을 샅샅이 훑고 다니다가 침대 옆에서 뚜껑이 달린 단지를 발견했다. 양동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느낌이 꼭 요강 같았다.

그런데 커도 너무 컸다. 두 발로 서도 어깨까지 오는 단지에다 일을 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바닥에 엎드려 끙끙 앓으며 요의를 참을 때였다. 대참사가 벌어졌다.

멍! 멍멍!

자신한테 관심을 안 주자 흥미를 잃고 떠났던 설기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문제는 차라리 나한테 왔으면 됐는데 방향조절을 잘못해 단지에다 몸을 박았다는 거였다.

“...!”

모든 건 순식간이었다. 단지는 잡을 틈도 없이 쓰러지고, 뚜껑이 날아가면서 안에 들어있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허억, 하고 숨을 삼키다가 설기가 바닥에 고인 물에 주둥이를 대는 순간 내가 해놓고도 믿기지 않을 반사속도로 설기를 붙잡았다.

“그으응!”

지지야! 설기를 붙잡고 보니 물웅덩이를 딛고 서 있었다. 젖어드는 발바닥에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다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린내가 안 난다? 엉덩이를 엉거주춤하게 허리를 빼며 좀 더 몸을 숙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물이었다.

“퓨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잡혀있던 설기는 답답했는지 앞발에 힘을 줘 머리를 빼내더니 또 다시 바닥에 고인 물을 마시려 했다.

목이 마르나? 하지만 아무리 물이라도 이건 좀 찝찝한데? 마음이 급해져서 한쪽 앞발로는 설기를 말리고, 다른 앞발로는 침대 시트를 당겼다. 끙끙 대며 당기다가 뒤에서 설기가 달려든 탓에 바닥을 굴렀다.

멍! 멍! 멍!

엎어진 몸 위로 올라타서 침질을 해대는 설기와 얼얼한 엉덩이. 그리고 우당탕…탕…하며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침대 옆 협탁에 있던 게 다 떨어졌다.

“...”

잠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엉망이 된 침대 주변을 보며 멍하게 있는데 “하아”하고 깊은 한숨소리가 났다. 화들짝 놀라 설기를 껴안으며 뒤를 봤다.

상체를 일으킨 남자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피곤해보였다.

“제발 잠 좀 자자...”

잠은 아예 안자는 것보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게 더 피곤한 법이다. 그리고 해로인은 곯아떨어진 짐승 두 마리와 다르게 수시로 몸을 일으켜야 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한 성인남성이여도, 피로는 똑같이 쌓였다. 그 역시 저주받은 숲을 헤매며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다. 험하기로 유명한 스파인을 밤을 새워 내려왔으니 피곤이 극에 달하는 게 당연했다.

어린 것의 잠자리를 봐주고 그도 바로 누우려고 했다. 숲에서는 같이 자는 게 당연했지만, 집에서도 짐승과 침대를 같이 쓸 생각은 없었다.

‘그응’

그런데 어린 것이 그를 붙잡았다. 자는 중에도 손만 떼면 잠투정을 했다. 피곤하니 자세가 점점 허물어졌다. 자신이 어떻게 있는지 인식했을 때는 이미 누운 후였다.

러그는 침대 못지않게 푹신했고, 벽난로의 열기는 방안 공기를 데웠다. 게다가 동물 특유의 높은 체온이 가슴께를 데우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 역시 곯아떨어지듯 잠이 들어 달게 자고 있을 때였다. 수시로 들이닥친 암살자 때문에 자더라도 항상 열려있던 귓가에 낑낑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기척이 아니니 무시하고 싶은데 소리는 끊길 줄을 몰랐다. 힘겹게 눈꺼풀을 들자 하얀 강아지가 문 앞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빌어먹을’

눈을 질끈 감았다 뜨는 걸로 짜증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러다가 집안에 실례를 하는 게 더 끔찍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문을 열어주자 쏜살같이 튀어나간 개를 보며 순간 그대로 문을 닫을까, 하는 거센 충동에 시달렸다.

“그…으응…”

하지만 그가 없어진 걸 깨닫고 잠투정을 하는 어린 것을 보며 참았다. 일어났을 때 저 강아지가 없으면 또 울지도 몰랐다.

그 사이 일을 다 보고 온 강아지가 돌아왔다. 어린 주인의 품에 파고들어 그를 힐끗 보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빌어먹을. 속으로 다시 한 번 욕한 뒤 그도 자리에 돌아가 누웠다.

어린 것을 몇 번 토닥이다가 금세 잠들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의식이 완전히 수면 아래에 묻히기 직전이었다. 또 다시 우는 소리가 들렸다.

‘...’

끙끙 거리는 게 빌어먹을 개였다면 들은 척도 안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의 어린 것이 울고 있었다.

아까 전과 달리 빠르게 눈이 떠졌다. 어려서 따뜻했다고 생각했던 몸이 실상은 불덩이처럼 열을 내고 있었다. 강아지는 제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어떻게든 깨우려고 하는 중이었다.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원을 찾아갔다.

점심 먹을 준비를 하다 끌려나온 의원이 떨떠름한 얼굴로 그와 포대기대신 로브에 말린 새끼곰을 봤다.

‘그러니까 치료해달라는 게 동물…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잘못 찾아오신 거 같습니다. 여기 말고 마시장으로 가보시면 수의사를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귀한 신분으로 보이는 남자가 부탁하니, 최대한 공손하게 답하는 거였다. 그게 아니었으면 진즉에 미친놈이라면서 내쫓았을 거였다.

그에 해로인은 대답대신 살기를 내비쳤다. 그제야 의원은 무시무시하게 잘 생긴 남자의 벽안이 새파랗게 타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히익, 아뇨! 거의 확실하게 타, 타, 탈진입니다’

의원은 어린아이한테 먹여도 될만큼 부작용이 미미한 약초들 위주로 약을 지어줬다. 치료소에서 응급조치를 해준 덕에 어린 것은 호흡은 한결 편해졌지만, 몸은 여전히 불덩이였다.

‘비, 빈속에는 먹이면 안 됩니다. 토하더라도 뭘 먹고…’

‘어떤 걸?’

‘그…, 간이 약하고 건더기가 없다시피 한 걸로..., 자, 잠시만 기다려 주…’

의원은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치료소 바로 옆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 당장 호박으로 스프를 끓여달라고 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말이에요?’

의원의 말에 난색을 표하던 주방장은 뒤따라 들어온 해로인이 내민 돈을 보고 도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솥 째로 스프를 산 해로인이 숙소로 돌아가자 남겨졌던 설기가 왕왕 짖어댔다. 그마저도 성가셨던 해로인은 스프를 줘서 입을 다물게 했다.

새끼곰의 주둥이에 한 스푼씩 스프를 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의원이 기도로 안 넘어가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약초까지 먹이고 나자 팔팔 끓던 열이 서서히 잡혀갔다. 겨우 한숨 돌리며 어린 것의 옆에 누우려는데 강아지가 또 문을 벅벅 긁으며 울었다.

‘빌어먹을!’

먹는 대로 싸는 놈이었다.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작불이 완전히 꺼지자 어린 곳이 또 춥다고 끙끙 앓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준비된 장작이 다 떨어져서 자다 말고 나무를 패야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졌다.

“그으응”

새끼곰이 움찔하며 눈을 떴을 때 그는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더는 눈 뜨고 싶지 않았다. 아장대며 움직이는 기척도 개가 시끄럽게 구는 것도 다 무시하며 버텼다. 하지만...

우당탕…탕…

하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린 것을 거둔 것도, 부록처럼 딸려온 강아지도 전부 그가 결정한 일이었다. 어디에도 풀지 못할 원망이 결국은 스스로를 향했다.

“제발 잠 좀 자자...”

육아라 쓰고 전쟁이라 불리는 악마가 입을 활짝 벌리고 웃었다. 해로인은 아직 자신이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었음을 몰랐다.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긴 남자가 몇 번이고 마른세수를 했다. 빠져나가려는 설기를 꽉 붙들고 눈치를 보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난 남자는 빠르게 사고의 뒷수습을 했다.

우선 나랑 설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볼일 볼 시간을 주고 그 사이 바닥에 고인 물을 닦아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노란 스프 두 그릇을 들고 왔다.

하나는 설기한테 던지다시피 주고, 다른 하나는 내 앞에 놨다. 달고 고소한 향에 침이 고였다. 그릇을 비우자 이번에는 녹차처럼 연둣빛이 도는 차를 가져와서 내밀었다. 진하게 올라오는 생강향에 고개를 저었다가, 붙잡혀서 강제로 다 마셔야했다.

남자는 나랑 설기를 데리고 한 번 더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는데 안 마려도 일을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급하면 저기에 싸라.”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준 후 러그에 누웠다. 아침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남자가 옆자리를 툭툭치며 날 불렀다.

“이리와.”

“그응”

옆에 가자 날 인형처럼 끌어안더니 “자”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혹시 깰까봐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말똥한 눈으로 천장만 보는데 바짝 붙은 남자의 가슴너머로 심장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옆에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누운 설기의 따끈함을 느끼며 거짓말처럼 눈이 감겼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느낌에 눈을 떴더니 설기의 코가 보였다. 뭘 가지고 논 건지 코에 깃털 하나를 붙인 상태였다.

“그응”

깃털을 때주고 그대로 설기를 껴안았다. 러그 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놀다가 뒷발을 잡혀 죽 끌려갔다. 아 왜. 불만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자면서도 빈틈없던 얼굴이니 아침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었다. 그저 눈매만 조금 나른하게 풀려있었다. 그뿐인데도 평소의 금욕적이던 모습은 사라져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뒷발을 타고 올라온 손이 몸을 주무르기 시작해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으으응!”

“완전히 내렸군.”

“그응?”

뭐가 내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해주는 대신 바나나를 주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어제 밤에 먹은 스프와 익히 잘 아는 바나나. 간만에 먹는 음식다운 음식이었다. 바나나 한 개를 순식간에 다 먹고, 씻고 나온 남자를 향해 껍질을 내 밀었다.

“버려달라고?”

“그으응”

“하나 더 달라는 거냐?”

“그응!”

바나나를 하나 더 먹는 사이 씻고 옷까지 말끔히 갈아입은 남자가 밑단이 너덜해진 바지를 내팽개쳤다. 다분히 감정이 실린 동작이었다.

멍!

하지만 쪼르르 달려온 설기가 바지를 본격적으로 물고 뜯으면서 모습이 좀 우스워졌다. 그러다가 불쑥 신경질이 났다. 설기가 괜히 저러겠어? 다 자기가 설기를 버렸으니까 그러지! 벌떡 일어나 설기 옆으로 갔다. 그리고 바지를 입에 넣으려 하자 남자가 안아 올렸다.

“지저분하다.”

“그으응”

“...여신의 날개에 맹세했잖아.”

“캉!?”

하지만 남자가 밑도 끝도 없이 또 내 마음을 읽어내서, 얼마간 커졌던 간이 다시 쪼그라들었다.

“카으응”

어제 먹었던 허브차를 억지로 들이키자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날 셔츠로 돌돌 말았다. 목구멍 깊숙한 곳부터 올라오는 생강향에 꿈틀댔더니 곧장 커다란 손이 몸을 토닥여왔다.

설기까지 챙겨 밖으로 남자가 향한 곳은 어제 봤던 오닉경의 기숙사였다. 거기가 기숙사인 것도 도착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어제는 멍해서 주변을 둘러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유럽여행 브이로그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비슷한 점은 길을 다니는 사람이 전부 서양인이라는 거고, 다른 점은 중세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건축물들이었다.

생각해보면 "언아더"에서도 머리나 눈 색이 화려하고 튀는 건 유저의 캐릭터뿐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마을은 지극히 평화롭고 일상적이었다. 그래서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게임 세계라고 하기는 모든 게 너무 입체적이었다.

구경하다말고 품에 파고들자 남자는 왜 그러냐는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좀 더 단단히 끌어안아줬다.

기숙사로 가자 입구에 편하게 옷을 입은 오닉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타부타 말없이 우리를 끌고 간 곳은 기숙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식당이었다.

“로보에 오면 꼭 여기서 샌드위치랑 맥주를 마셔줘야 합니다. 샌드위치 종류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토마토랑 베이컨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주문.”

“아뇨, 아뇨. 여기는 카운터 가서 주문하고, 받아와야…, 다녀오겠습니다!”

남자가 무표정하게 오닉경을 쳐다봤다. 안가고 뭐하고 있냐는 뜻이었다.

돌아온 오닉경은 커다란 나무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나무로 된 맥주잔 두 개와 길쭉한 샌드위치 두 개였다. 겹겹이 쌓인 베이컨 위로 녹아내린 모짜렐라 치즈가 주륵 흘렀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었다.

“먹어볼래?”

“예?”

“경한테 한 말 아니다.”

“...예?”

남자가 샌드위치를 내 앞에 내밀며 말하자 오닉경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쳐다보든 말든 상관할 리 없는 남자는 내가 테이블에 기댈 수 있도록 고쳐 안자 “저, 전하?”하고 당황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전하라니.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평범한 인간은 아닌가 봐... 젠장.

“밥이나 먹지 왜 자꾸 불러대나.”

“어제부터 그 보따리를 너무 애지중지 들고 다니시는데... 정말 그거 뭡니까?”

“알 거 없다.”

“팔 것도 아니고 드실 것도 아니면 설마 전하가 키우시려는 겁니까?”

“신경 꺼.”

남자가 뭐라 하든 오닉경은 꿋꿋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더니...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저 흰색 개도 그렇고, 바로 황녀님 눈에 띌 것 같습니다만.”

황녀? 황…제의 딸을 황녀라고 하지 않나?

“누님은 말 못하는 짐승한테는 너그럽다. 암살자를 보내도 나만 죽이라고 하지, 동물은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할 걸.”

“아하하하... 뭐라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본부대로 관심 끄겠습니다.”

바로 한 발 빼버린 오닉경과 다르게 나는 다급해졌다.

누나가 황녀면 동생은 황제 아들이니까... 아니, 잠깐만. 암살자요?

“먹어봐.”

앞으로 내밀어진 샌드위치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다. 갓 구운 빵, 신선한 야채, 기름진 베이컨, 고소한 치즈향. 하지만 입에 침이 고이기는커녕 식욕이 뚝 떨어졌다.

“그으응? 그응? 그으으응?”

누나가 죽이려고 해? 암살자를 보낸다고? 너무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는 깜찍하다 못해 속 터졌다.

“크아아앙!”

그응 말고! 크앙도 말고오! 절규하며 쓰러지자 얼굴 위로 그림자가 졌다. 오닉경이 불쑥 얼굴을 들이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날 잡아당겨 자신의 품에 묻은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경.”

“죄송합니다. 깽알대는 거 보니까 다시 궁금해져서 말입니다. 곰 맞죠?”

“경.”

“죄송합니다. 진짜로 관심 끄겠습니다…만.”

“만?”

“어린새끼한테 이런 짠 음식은 안 좋습니다. 설사도 하고,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던 샌드위치가 사라지고, 대신에 남자가 토마토만 빼내서 내밀었다.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토마토만 달랑 있는 걸 보자 약이 올랐다.

“그으응! 그응!”

사람이 아무리 악의가 없다고 해도 말이야! 어!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그으응!”

누가! 신경질을 내다가 멈칫했다. 콧잔등을 찌푸리며 쳐다보니 설명을 덧붙였다.

“너 어제 열 심하게 났다. 치료소도 다녀왔는데 기억하나?”

“그으응?”

“아예 정신을 놓고 있었군. 어쨌든 주는 대로 먹어.”

잠깐 기세에 밀려 토마토를 받아먹었다.

“오... 제 것도요. 제 것도 주,”

“경.”

“넵. 다시 빵에 끼우겠습니다.”

만담 같은 대화에 복잡하던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 그래. 비록 말은 못해도 나한테는 바디랭귀지가 있다.

셔츠에서 앞발을 빼냈다. 매듭이 풀리며 천이 젖혀지려다가 귀에 걸렸다.

“얌전히 있어.”

“그응!”

셔츠를 다시 여미려는 남자를 막으며 열심히 손짓, 아니 발짓발짓을 해보였다.

진짜로 그쪽을 죽이려는 암살자가 있어?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건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진짜로를 어떻게 표현해?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했다. 부사 따위 없어도 문장은 완성된다!

처음에는 앞발로 남자를 가리켰다. 삿대질하듯 몇 번이나 콕콕 찍어줬다. 그 다음에는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 칵. 이렇게 칵! 말이야. 그리고 암살자는... 암살자는... 모르겠다. 이것도 패스. 마지막으로 고개를 기우뚱 기울였다. 이거 뭔지 알지? 응?

생각하기에도 허술한 몸짓이었지만 아무말 안 해도 찰떡같이 내 마음을 읽던 남자를 믿었다. 자. 내 눈빛을 읽어내.

“전하.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꼼지락대는 거 너무 귀엽습니다.”

“그으응!”

“방금 뭐 한 거야? 다시 한 번 해주면 안 돼?”

꼼지락이라니. 오닉경을 쳐다보자 시원한 이목구비가 부드럽게 풀어져 있었다. 귀여워죽겠다는 얼굴로 “그 머리통 기울이는 것만이라도. 응?”하고 거듭 애원해왔다.

이게 아닌데. 남자를 보며 한 번 더 몸짓을 반복했지만 눈매만 조금 더 가늘어졌을 뿐이었다.

왜 몰라! 아침에도 귀신같이 알더니 이건 왜 모르냐고!

내 성질에 못 이겨 다시 한 번 쓰러지자 남자가 빠르게 셔츠를 여몄다. 아까처럼 쉽게 풀리지 않도록 묶기까지 했다.

“아... 귀여웠는데.”

“게밍교의 움직임은?”

“음. 전하께서 출발하신 후 뒤이어 두 팀이 더 나갔는데 전하를 끌고 갔던 교도를 포함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도도 안 돌아왔다고?”

“네. 저는 그래서 전하께서 처리하신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었습니까?”

“날 끌고 간 놈만 죽였다.”

오닉경이 머리를 긁적였다. 정리 안 된 머리와 편한 차림새 때문인지 어수룩해 보였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푸른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이상하네요. 교도랑 같이 있는 동안 몬스터 공격 없었죠?”

“접근 자체를 안 하더군.”

“사이비 놈들이 뭘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슬레인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놈입니다. 간혹 재수없게 죽는 놈들도 숲이 아니라, 산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도 그런 흔적은 없었는데.”

머리 위로 알 수 없는 대화들이 오갔다. 진지한 분위기에 끙끙 앓던 것도 멈추고 슬그머니 귀를 쫑긋 세웠다.

“어쨌든 그 때문인지 집회도 취소됐습니다.”

“그럼 교주는?”

“역시 뭘 느꼈는지 잠적한 상태입니다.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진 못 했을 텐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짐작 가는 은신처도 없나?”

“저희 쪽에서 알고 있는 곳은 다 확인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이쪽도 귀찮게 됐군.”

“서두르셔야 합니다. 복귀날짜가 얼마 안 남으셨잖습니까. 교주를 잡지 못하면 교를 해산시켜도 금방 다시 만들어 질 겁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만 들어서는 위장수사 뭐 그런 거 같은데. 주워들은 몇 마디로는 호기심만 더 부풀었을 뿐이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렸다. 오닉경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다.

“전하께서 어련히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르실 때까지 얌전히 대기타고 있겠습니다.”

“일단 회계하는 놈들 더 털고 있어라.”

“넵.”

얘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용건이 끝나자 순식간에 샌드위치를 다 먹고, 둘은 바로 헤어졌다. 고개를 빼고 뒤를 보자 오닉 경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오닉 경이 어색하게 손을 올렸다. 반쯤 들다만 손은 엉거주춤했지만 손을 흔들며 벙긋거리는 입모양은 분명 안녕이란 인사였다.

다행히 꼼짝도 할 수 없는 나대신 설기가 멍, 하고 같이 인사해줬다.

오닉경과 헤어진 남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 숙소 가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길을 기억하냐면 설기가 수시로 마킹을 하고, 그때마다 남자가 진심으로 싫다는 표정을 지어서였다.

심지어 설기도 남자가 싫어하는 걸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영역표시를 하고 뒷발로 흙을 찰 때마다 보란 듯이 남자를 올려봤다. 나는 그냥 ‘우리 설기 멋지네’하며 둘 사이에 흐르는 냉기류를 무시했다.

체감 상 20분은 걸었던 것 같다.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얼마안가 축구장만큼 넓은 잔디광장이 나왔다. 광장 중앙에는 천사조각상으로 된 분수대도 있었다.

특이한 건 광장에 모인 사람이 족히 230명은 될 거 같은데도 들리는 건 분수대의 물소리뿐이라는 거였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귓속말로 속삭였고, 그도 아니면 양손을 모으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응?”

“쉿.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한다.”

괜히 숨소리까지 죽이고 광장을 통과했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햇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나는 건물이 보였다. 첨탑에 금으로 새겨진 날개문양은 신전이란 뜻이었다.

화이트 신성국 맵에서 봤던 신전보단 작았지만 그래도 거기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계단을 올라가자 그 끝에 서 있던 소년사제가 합장하듯 손을 모으고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여신의 숨결이 불어오기를.”

친한 사람을 맞이하듯 따뜻한 울림이었다. 직접 들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게임을 할 때는 지나가는 대화로만 봤던 터라 느낌이 색달랐다. 기억이 맞다면 여기에 대한 인사도 있었다.

“여신의 숨결 아래 있기를.”

성호를 그은 남자애가 방문 목적을 물었다.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기도. 헌금을 내고 신관에게 축복도 받고 싶군.”

“혹시 미리 예약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고.”

“아... 그럼 사제님은 만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봉사를 나가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남자는 잠깐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자신의 품을 뒤적여 무언가 꺼내 내밀었다. 내가 처음 가방을 열었을 때 시험 삼아 꺼내봤던 1골드였다.

“어쨌든 헌금은 지금 미리 내도록 하지.”

“금화는, 아니! 헌금은 안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

“우선 기도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장서 걷는 남자애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눈에 띄게 긴장을 해서는 기도실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끝나면 모시러 올 게요”하면서 사라졌다.

5평 남짓한 기도실 바닥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건지 방석이 하나와 제단 하나가 있었다. 제단에는 여신의 상징인 날개문양이 새겨져 있고, 백합 몇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단출한 풍경위로 햇살이 쏟아지면서 작은 기도실에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으응?”

“답답해도 조금만 더 참아라. 금방 신관이 올 거다.”

셔츠를 풀려고 바르작대자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뭐라고 더 얘기하려는 것 같았지만 설기가 제단 가까이 가는 순간 그쪽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 개... 설마 여기서도 일을 보는 건 아니겠지.”

“…그응”

“네 말은 들을 거 아니냐. 말려라.”

“그으응”

과연 말린다고 말을 들을까. 하지만 설기는 내가 부르기가 무섭게 앞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어댔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랑스러움에 나는 웃음이 났고, 남자는 더 빈정이 상한 것 같았다.

남자에게 졸라 방석에 앉자 설기가 나를 덮쳐왔다. 내가 아무리 새끼곰이라고 해도 설기보다는 컸지만 지금은 돌돌 감겨서 간신히 얼굴만 내놓은 상태였다. 뒤로 발라당 넘어가자 설기가 왕! 하고 덮쳐왔다.

헥헥 헥

그으응. 그응

남자가 심란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설기랑 놀았다. 셔츠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어서 설기의 장난감이 돼줬다고 하는 게 더 맞긴 했다.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 준 남자애의 목소리였다. 남자가 나를 다시 안아들고 문을 열자 남자애가 고개를 숙여 사과부터 했다.

“기도 중에 방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수석사제님께서 마침 기도를 끝내셔서요. 괜찮으시다면 그분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나.”

“네! 그럼요. 천천히 하고 나오셔도 되세요.”

문을 닫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남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짜증난다는 얼굴로 설기를 노려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단에 올라가 백합 한 송이를 뽑아들었다.

“그응?”

“가만있어.”

남자는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백합으로 셔츠를 탁탁 치기 시작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뭐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빛 속을 나풀나풀 유영하는 털들이 보였다.

“퓨헷치!”

털이 눈에 보이니 갑자기 코가 간지러웠다. 기침을 하자 털들이 더 날렸다. 남자는 셔츠를 끌어올려 내 코를 막아주면서도 계속 털을 털어댔다.

“빌어먹을 개새끼.”

“그으, 헷취!”

작게 중얼거리는 말에 뭐라 하려했으나 입을 열면 나오는 건 재채기였다. 설기한테서 이렇게 털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몰랐나 싶을 정도였다.

백합의 대가 부러질 때까지 털어내고 나서야 남자는 날 다시 안아들었다. 대가 부러진 건 물론 만신창이가 된 백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두는 남자를 보며 내가 더 불안할 정도였다.

저렇게 둬도 돼?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아?

“그으으응. 그으응.”

“괜찮다. 상관없어.”

암살자에 대해 물어볼 때는 끝까지 못 알아듣더니 이럴 때는 또 바로 대답해줬다. 이해의 기준을 종잡을 수 없는 남자였다.

“아, 기도는 잘 끝내셨나요?”

“...”

“아하하... 가, 가실까요?”

신전은 기도실도, 복도도 모든 곳이 단출하고 정갈했다. 아치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가장 화려한 빛깔이었다.

그래서 수석사제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 휘황찬란함에 더 괴리감이 컸을지도 모르겠다.

“여신의 숨결이 불어오기를.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원목가구와 대리석 장식장, 커다란 보석이 박힌 도자기. 그 중심에 서 있는 수석사제는 종교인보다는 꼭 사업가 같았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집무를 보는 곳이라 자리가 좀 어수선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차는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남자가 괜찮다며 고개를 젓자 수석사제는 자신도 괜찮다며 대기하고 있던 남자애를 물렸다.

“저어, 혹시 어느 가문의 분이신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주님의 자녀분들 신학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탓에 성을 자주 오가다보니 로보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소식에 본의 아니게 빠삭해서,”

어쩌구저쩌구. 수석사제의 말은 끝날 듯 말 듯 길어졌다.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방안을 구경하는데 설기의 행동이 수상했다. 새하얀 털뭉치가 꼬물대며 장식장 근처를 맴돌다가 슬그머니 뒷다리를 올리려고 했다.

“이런 저를 영주님께서는 항상 겸손하다, 훌륭하다 칭찬해주시니 몸둘 바를,”

“그으, 으으응!”

백설, 아, 안 돼!

내 울부짖음에 말이 잘린 수석사제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쉬이, 하고 원초적인 소리가 더 노골적으로 들려왔다.

“...!?”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던 수석사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설기는 이미 일을 마치고 야무지게 발까지 터는 중이었다.

“이, 이, 이, 개…가!”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진 수석사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개와 가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뭔지 모를 수가 없었다.

후우. 남자의 반응은 그보다 더 짧고 굵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한숨에 다급하게 설기를 불렀다. 하지만 설기는 그냥 오지 않았다.

“으악!”

씩씩대며 자신을 노려보던 사제의 발에 한 번 더 오줌을 갈기고 나서야 이쪽으로 달려왔다. 언제 사고를 쳤냐는 듯 남자의 발 옆에 착 앉는 모습은 순하기까지 했다.

“그, 그러다가 개가 소파에까지 실례를 하면...”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며 눈은 날 향했다. 새파란 벽안이 하는 말은 분명했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 맡겨만 줘…!

“그 소파도 꽤 비싼, 아니...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소중한 거라서요...”

수석사제이 입꼬리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열심히 눈빛으로 사과하다가 내가 해야할 일을 떠올렸다.

“가만히 있어.”

“예?”

“그대 말고.”

일어서겠다고 버둥댔다. 처음에는 말리던 남자도 계속 그러자 의심하면서도 날 바닥으로 내려줬다.

힘들게 셔츠 밖으로 다리를 나 빼내고 장식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수석사제가 급하게 던져놓은 종이뭉치가 있었다. 단단하게 둘러진 셔츠 때문에 엎드리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걸레질을 시작했다.

후우우. 아까보다 더 깊은 한숨소리가 들린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설기도 나처럼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과도 못 시키고, 지금같은 뒤처리는 더 그랬다. 결국 주인인 내가 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바닥을 먼저 닦는 게 맞나? 사제 발부터 닦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갑작스런 고민에 잠깐 멈칫하는데 뒷덜미가 잡혔다.

“그응!”

남자는 앞발로 옴팡지게 쥐고 있던 종이마저 빼앗았다.

“이것들이 아직 어린 새끼라서 실수가 있었군. 망가진 가구는 새로 사도록 해.”

“아,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

“정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하는데 쓰겠습니다.”

남자가 꺼낸 작은 주머니가 순식간에 사제의 소매 속으로 사라졌다. 정말 불우이웃한테 갈까? 그보다 사과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수석사제는 아예 나와 설기를 없는 취급하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그보다 갑자기 얘기가 끊겼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가문의 분이신지요?”

“알 필요 없다. 아니면, 최근에 집안에 따라 대접을 다르게 하는 신전이 있다고 하던데...”

“아이고! 노, 농담이라도 무섭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신의 가르침을 따라 한낱 미물조차 귀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다 아까 설기한테 욕을 하려다 삼킨 게 떠올랐는지, 급하게 말을 돌렸다.

“그런데 어떤 축복을 원하시는지요?”

“용서의 축복을 받고 싶군.”

“아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죄를 고하고 싶으신지요?”

“고해성사가 있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서요.”

다행이군.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날 들어올렸다.

“말 못하는 짐승인지라.”

“...네?”

“이 동물한테 축복을 내려주면 되네.”

수석사제의 동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렸다. 나도 그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것 같진 않았다. 권력이 깡패라 애써 표정을 수습하며 축복을 내린 사제가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다 된 건가?”

“네... 하지만 축복은 믿음과 크게 연관돼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축복도 커지는 법인데...”

그건 믿음이고, 뭐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 않느냐. 라고 할 수는 없을테니 사제는 말끝을 흐렸다.

“그냥 동물이 아니다.”

“네? 아, 네네. 그럼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훤칠하시니 평범한 동물은 아니겠죠. 하하하.”

당황하면서도 청산유수처럼 아부가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더 수치스러웠다.

“어쨌든 여신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사랑하시니 축복이 내려졌을 겁니다.”

…난 이 땅 소속이 아닌데…? 축복이 하나도 안 통했다는 소리?

고개를 푹 숙이자 설기가 뒷발을 딛고 서서 턱밑에 자신의 머리통을 밀어 넣었다. 꼭 고개를 들라고 하는 것 같았다.

분명 여신의 자비로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사제는 기부금을 말하고 있었다. 좋은 일에 쓰겠다며 말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욕심 가득해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다.

남자는 생각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배웅하겠다며 쫓아 나오려는 사제를“필요없다”란 말로 막은 후 밖으로 나왔다. 설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닫힌 문에 쉬를 쌌다.

“이 개새,”

“그응!”

“…후. 오만데다 지리고 다니지 않느냐.”

“그으... 그응응!”

혼은 낼 거지만! 그렇지만! 남자가 설기를 버렸던 걸 생각하면 아무말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사고 수습을 해준 건 남자였다.

“저 개…가 지려놓은 소변까지 닦고도 그래? 그리고 그걸 더럽게 왜 네가 닦아.”

“그응”

“자꾸 이런다면 목줄을 채워놓겠다.”

“그으응”

복도 중간에 서서 말씨름을 할 때였다. 옆에서 “저기…”하고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려고요...”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건지 어색하게 웃는 남자애를 보자 또다시 수치가 밀려왔다. 어린애 보는데서 뭘 한 거야. 부끄러워하는 나와 다르게 남자의 얼굴색은 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전에 헌금을 내고 싶다.”

“아…! 그러셨죠. 그럼 예배실로 먼저 모실게요!”

앞에서 종종종 걷던 남자애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다. 다른 복도들과 달리 햇빛이 들지 않아 초를 켜놓은 곳이었다. 남자애는 머뭇거리다가 복도를 따라 그려진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으, 여기에 그려진 거랑 공자님의 애완동물이랑 좀 닮았어요.”

“...”

“성화에 그려진 건 아기늑대이지만요. 그래도 하얗고 귀도 꼬리도 뾰족한 게 똑같아요.”

남자애가 가리킨 그림을 봤다. 단편적인 그림이 아니라 복도를 따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무릎 꿇은 남자와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여신의 그림을 시작으로 둘이서 땅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노동을 했으며 축제도 열었다. 그런 여신의 곁에는 빠짐없이 새하얀 동물이 있었다. 남자는 늑대라고 했지만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진돗개였다.

‘신의 사자’

그러고 보면 오크족장 으라차는 설기를 그렇게 불렀다. 설기를 내려다보자 꼬리를 흔들며 주위를 둘러보던 설기가 곧장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맞춰왔다. 벌어진 입은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성화에는 있는데 이상하게 성서에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돼서 사실 이 늑대를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남자애가 말을 하며 몇 걸음 움직여 벽화의 끝나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여신이 둥글게 몸을 말고 있었고, 여신의 날개 위에는 대륙이 올라가 있었다.

“여길 보면 늑대가 여신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주인인 여신님과 함께 대륙 아래 잠든 거예요. 그래서 본교에 있는 라이트 울프 기사(Light wolf knight) 제복에 보면 오른쪽 가슴에는 날개문양이 왼쪽 가슴엔 이 늑대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남자애의 설명도, 그려진 벽화도 흥미로웠다. 생각해보니 게임 프롤로그에서도 여신이 대륙을 구하기 위해 날개를 펼치는 장면까지만 나왔지 그 다음은 없었다. 대륙을 건졌다고 해서 당연히 위에서 들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서 받친 거였나 보다.

“어쨌든 강아지 귀랑 꼬리가 벽화에 있는 늑대랑 너무 비슷해서, 앗.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남자애가 말을 하다가 혼자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다. 예배실에 있는 헌금함에 골드를 넣은 후 밖으로 나갔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남자가 무심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타지인들도 많이 오나?”

“네? 네. 아무래도 용병 분들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무사귀원을 빌고 가세요.”

“귀족은? 귀족도 오나?”

“으음, 아뇨... 영주님은 사제를 성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세요.”

“데니스 백작 말고는?”

“영주님 말고는 딱히... 매년 오는 토벌군이 아니면 딱히 귀족 분들이 올 이유가... 아앗. 물론 다 바쁘고 그러시니까…!”

허둥대며 말을 덧붙이는 남자애를 보며 남자가 됐다, 하고 말을 끊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하대를 하고 높은 신분임을 부정하지 않아서일까. 그를 대하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그러면 상인들은?”

“네? 그게... 죄송합니다. 사실 오는 분들이 상인인 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서요...”

남자는 무언가 고민하듯 잠깐 말이 없다가 품을 뒤져 은색 동전을 하나 꺼냈다.

“받아라. 수고비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나대신 헌금으로 내.”

“하, 하지만...”

남자가 튕긴 은화를 반사적으로 든 남자애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꼭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하며 뒤에서 외쳤다.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태도로 걸어 나갔지만 말이다.

빠른 속도로 신전 그리고 광장에서도 벗어나 인적도, 주택가도 드문 길로 들어섰다. 양옆으로 가지런히 나무가 심겨진 길목 중간에서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누님도 보낼 거면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낼 것이지. 대놓고 살기를 흘리는 머저리를 보내시다니 말이야.”

뜬금없는 말에 주위를 살피려고 했지만, 남자가 다른 손을 들여 셔츠를 끌어내리고 그 걸로도 모자라 손으로 가리기까지 했다. 답답하다고. 고개를 막 흔들려고 할 때였다.

“이런... 오해이십니다.”

분명 우리뿐이라고 생각했던 가로수길인데, 누군가 대답을 해왔다.

“기척을 지우고 쫓아가면 괜히 오해하실까 봐요.”

“오해?”

“네. 전하를 죽이러 온 게 아닌데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시야라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남자의 손은 여전히 앞을 가리고 있었다.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뒷골목의 백성이 제국의 빛을 뵙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업에 들어가면 목표물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그림자에 죽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쓸모없다 생각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주십시오. 유명인 할인도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조잘조잘 가볍게 구는 것 같지만, 소름이 끼쳤다. 꼭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었다. 철저히 감정이 배제된 상태였다. 저렇게까지 자기소개를 하는데 더는 모를 수가 없었다. 암살자였다.

“오늘은 심부름을 하러 온 건데…, 사실 제가 저희 길드에서 나름 세손가락 안에 드는 놈인데, 어휴, 또 다른 전하께서는 그런 저를 말이나 전하는데 써먹으시지 뭡니까?”

“본론.”

“아, 음음. 그렇죠. 일단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흠흠. 하고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영락없이 인간을 흉내 내는 기계 같았다.

“"친애하는 로인. 도대체 어디까지 독을 푼 거니?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그러니 너도 입궁하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 놓고 잠들지 마렴. 그 순간 콱 죽여 버리려니까"”

누나는 암살자를 보내고, 동생은 독을 풀었구나? 하하…, 하. 절대로 도망가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다.

내 현생도 지금 막장드라마였다. 거기에 막장 한편을 더 엮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까지가 전하라는 말씀이었고요. 거참, 암살의 묘미는 뒤통수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죽이겠다고 경고하시다니... 뭐, 저야 말만 전하면 되니 상관없지만 다른 동료들은 고생 좀 하겠네요.”

“얘기 끝나면 꺼져라.”

“아? 저 안 죽이십니까? 물론 저도 아무 짓도 안했는데 억울하게 죽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대로 살려 보내주시는 겁니까?”

암살자가 “아니면”하면서 일부러 말꼬리를 늘렸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려는 것 같았지만 남자가 계속 침묵으로 무시하자 입맛을 다시며 말을 이었다.

“이런 얕은 수가 통할 리가 없죠? 어쨌든 아니면 안고 계시는 그 보따리 때문에 절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까?”

갑자기 지목당한 탓에 흠칫하고 놀라자 남자의 팔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

“동물을 키우는 취미는 없지 않으셨습니까? 아아. 물론 저 같은 놈이 감히 전하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려는 건 아니니 부디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순수하게 '슬레인'에서 주운 짐승들치고, 상태가 너무 멀쩡해보여서 호기심이 들지 뭡니까.”

“...”

“이런. 이놈의 직업정신이 뭔지. 입이 방정이었네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언제나 제국의 빛이 찬란하길.”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떠난 건지 더 이상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식간에 휘몰아친 일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냥 기가 질렸다.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 주변을 살필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해 남자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을 치워주고 나서야 시야가 트였다.

남자는 문을 연 자세 그대로 몸을 굳혔다. 방안은 깨끗했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질러져 있던 게 전부 정리돼있었다. 심지어 화덕 위에 있는 솥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었다.

옥수수 콘스프... 킁킁. 안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 거 같은 익숙한 향이었다. 나도 모르게 콧구멍이 커지는 순간이었다. 남자가 문을 도로 닫아버렸다.

“그응?”

“잠깐 여기에... 아니다. 됐다.”

남자는 현관 앞에 날 내려놓으려다가 혀를 찼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숨까지 내쉬었다. 시선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는 벽안은 평소보다 훨씬 새파랗게 얼어붙어 있었다.

왜? 뭔데? 무슨 일인데? 알 수 없는 남자의 행동에 열심히 눈빛을 보냈다. 내 질문에 대답한 건 설기였다.

으르르

설기는 우리의 앞에서 몸을 잔뜩 낮춘 채 경계하고 있었다.

“그으응?”

설기야? 하고 불렀지만 오히려 그 부름이 신호탄이 된 것처럼 하얀 강아지가 냅다 마당을 가로질렀다. 힘차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티 테이블 아래에 있는 뼈다귀 앞이었다.

왈! 왈왈! 왈!

그러고는 뼈다귀를 향해 사납게 짖는다. 점점 더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졌다.

짧은 다리로도 기운차게 땅을 파내고, 뒷다리로 뼈다귀를 차서 구덩이 안에 넣었다. 기껏 팠던 구덩이에 다시 흙을 덮고는 뿌듯해 보이는 얼굴로 날 본다.

“개도 눈치를 채지 않았느냐.”

“그응?”

“숙소에 독이 풀렸다.”

“...그으응!?”

“생존능력이 없으면 위기의식이라도 있어야지. 도대체 슬레인에서는 어떻게 무사했는지가 궁금하다.”

한심해하는 목소리에 억울했다. 누가 숨어 있다가 덮치는 거면 모를까 누가 독이 풀렸을 거란 생각을 해?

“그응! 그으응!”

“그렇게 말해도 뭐라는지 모른다니까.”

“그으응!”

“쉿. ...이 개도 조용히 시키고.”

남자는 설기의 뒷덜미를 잡아 올렸다. 짐을 들 듯 설기까지 달랑 들어 올리고 숙소를 빠져나와 대로변에 몰린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사람 사이에서 걷다가, 골목으로 빠지고, 골목 사이로 다니는가 싶으면 어느새 큰 길이었다. 멀미가 날 정도로 길을 돌다가 어느 순간 한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물 흐르듯 매끄러웠는지 안에 있던 직원이 “어…어!?”하고 화들짝 놀랐을 정도였다.

“어,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면 주문 도와드릴게요. 빈자리 아무데나 앉으셔도 돼요.”

“아니. 식사는 방에서 하겠다.”

“어…, 숙박 손님이세요? 사장님!”

직원이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바통을 이어받듯 안에서 나온 건 고개를 조금 숙여야 문에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키가 큰 여자였다.

갈색머리는 사자갈기처럼 부스스하고, 얇게 입은 옷 위로 드러난 몸은 탄탄했다. 졸린 것처럼 눈꼬리가 풀려있었는데, 이쪽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꼬리가 점점 위로 올라갔다.

“하.”

그러더니 기어코 입술을 비뚜름하게 끌어올리며 웃고는, 성큼성큼 앞에 와 섰다.

“숙박 하겠다고, 요?”

“여기서 제일 좋은 방으로. 식사도 방에서 하지.”

“며칠자게, 요?”

“하루.”

“흐음. 따라와, 요.”

히죽 웃으며 말하는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시비 거는 거였다. 왜 저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사장이 걸을 때마다 허리춤에 있는 열쇠꾸러미에서 잘그락 소리가 났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가도 힐끔하고 사장을 봤다. 어쩌면 소리 때문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 안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아. 이런 후진데서 목욕까지 하겠다고?”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뭐. 안 될 건 없고.”

“그럼 같이 준비,”

“아, 예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빈정거린다. 진짜 왜 저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남자의 눈치를 봤다. 다행히 오늘 걸려오는 시비는 전부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건지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이었다.

오늘 이 남자 일진이 안 좋나봐. 그런데 일진이 나쁜 건 남자뿐만이 아니었다.

왈!

“어쭈? 이 개새끼가 피했어?”

사장과 남자의 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뒤를 보자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게진 사내가 한발을 쭉 빼고 있었다. 왜 남자 옆구리에 있어야 할 설기가 저기 있는 있어!?

“야야.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저런 강아지 하나 못 잡냐? 내가 다 쪽팔리다.”

사내가 있는 테이블에서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우리를 따라오던 설기를 걷어차려던 거였다.

“그으응!”

“아씨! 닥쳐봐!”

식겁해서 설기를 불렀지만, 버럭 짜증을 내는 사내의 목소리에 묻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장의 신형이 바람처럼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디 개새끼가 사람 밥 먹는데 들어와, 컥!”

주먹으로 맞은 사내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다. 큰소리가 나고 여관 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거침없이 주먹을 내지른 사장은 뒷모습밖에 안 보였지만 사내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의 얼굴은 잘 보였다.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뒤늦게 욱하며 일어났다.

“벨라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 너도 맞아라.”

“뭐, 무, 악!”

그렇게 두 번째 사람도 날라 갔다. 상대방이 미처 방어할 시간도 없었다.

“감히 내 가게에서 난동을 피워?”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건 너거든 이 미친년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팼어 아니면 물건을 부쉈어? 애초에 사람 밥 먹는데 저런 지저분한 짐승새끼가 들어오게 둔!”

퍽. 사장은 마지막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내질렀다.

“이거 미친놈들 아냐? 야 이 인간새끼들아. 그럼 애초에 지저분한 짐승새끼가 하는 가게에 술 처마시러 오질 말았어야지.”

다 쓰러트려놓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세워서 다시 팰 기세였다. 그를 말린 건 어디선가 달려 나온 남자였다.

“누나아아아!”

“놔.”

“아, 손님들 뭐해요!? 빨리 쟤네들 좀 버리고 와요!”

남자가 사장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근처 테이블에 있던 사람 몇이 정말로 남자들을 밖에다 버리고 왔다. 호들갑인 건 사장을 누나라 부른 남자뿐이고 나머지 손님들은 전부 익숙하다는 태도였다.

그 사이 남자는 설기를 다시 옆구리에 끼고 날 쳐다봤다. ‘얘 사고 못 치게 하랬지’하고 탓하는 눈이라 기가 막혔다. 사람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싸매놓고! 설기 놓친 것도 자기면서!

“누나. 손님 계속 저렇게 세워둘 거예요?”

“저 새,”

“누나아아아아!”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사장의 눈초리가 사납게 올라갔지만, 이쪽을 쳐다보고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린 후 어깨에서 힘을 뺐다.

“야. 됐으니까 가서 일 해.”

“여기 자리만 치우고 갈게요.”

“내가 할 거니까 가.”

“으응. 네!”

다시 이쪽으로 오는 사장이 무서웠다. 저러다가 갑자기 남자를 때리면 어떡해? 구부러져있던 허리에 힘이 들어갔다. 혹시라도 때리려고 하면 소리라도 질러야겠다.

남자가 때린다고 얌전히 맞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더 걱정이었다. 눈을 부릅뜨자 사장의 표정이 변했다. 진정했다가 또 다시 열이 오른다는 얼굴이었다.

“저 멍청한 게...”

바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어두운 청록색 눈동자가 너무 무서웠다.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다.”

“아! 오늘 진짜 무슨 마가 껴가지고!”

사장은 남자의 말을 들은 척도 안했다. 거칠게 머리만 쓸어 넘기며 한숨만 푹푹 쉬다가 말없이 먼저 가버렸다.

“그응…”

차라리 딴 데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느낌으로 올려다보자, 정면을 보고 있던 벽안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사장의 무례에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새파란 하늘은 의외로 평온했다.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사장은 2층 계단이 끝나는 곳 바로 앞에 있는 문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문구멍에 열쇠를 콱 넣는데, 모습만 보면 손에 들린 게 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이 방. 식사는 바로. 목욕물은 밥 다 먹고.”

이제는 약 올리듯 늦게 붙이는 ‘요’도 없었다. 할 말만 하고 휙 뒤도는 사장을 남자도 무시하며, 설기를 바닥에 내려놨다. 설기는 바닥에 내려오자마자 이를 드러내며 사장의 뒤를 쫓으며 짖었다.

잘한다, 내 새끼…! 가 아니라, 저 사고뭉치가 진짜!

“그으응!”

백설기! 너 자꾸 누나 걱정시킬 거야? 목소리를 높였더니 뾰족한 귀가 쫑긋하고 섰다. 사장과 날 번갈아 보다가 이쪽으로 오더니 화내지 말라는 듯이 낑낑 울어댔다.

아니야. 누나가 잘못했어. 누나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죄지. 내려달라고 몸을 흔들자 남자가 아직까지 안 나간 사장을 쳐다봤다.

“언제까지 그러고 서 있을 거지.”

“...”

“안 들리나?”

“이 빌어먹을 인간새끼!”

휙 뒤돌아선 사장의 이마에 핏대가 올라와 있었다.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본 분노조절장애인가 싶었다.

“감히 내 가게에 버젓이 그런 젖먹이를 들고 와놓고…! 나가! 너 같은 놈 손님으로 안 받으려니까 썩 꺼지라고!”

“…수인족, 이었군.”

“너 지금 말 다했냐?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없으니 나가라.”

사장이 다시 한 번 폭발하려고 할 때, 또다시 좀 전의 남자가 누나를 외치며 직원 셋을 데리고 나타났다. 총 4명이서 사장에게 매달려서는 끌고 사라져버렸다.

드디어 조용해진 방 안에서 남자는 언제 기분이 좋았냐는 듯 싸늘한 낯으로 변해 있었다. 간신히 셔츠 포대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설기를 끌고 침대 뒤로 숨었다.

설기야 여기 여관 너무 무섭다. 그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반나절 만에 주인과 재회한 설기는 그런 거 없이 날 물고 빠느라 신났다.

설기랑 바닥을 구르며 정신없이 놀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설기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자 사장을 누나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푸른 초원"에서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밥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는 죄송했습니다.”

“...”

“사과의 뜻으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식사 전부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하던 밥의 눈동자가 스치듯 바닥에서 고개만 들고 있던 우리를 봤다. 아래로 처진 눈꼬리가 찡그려졌다.

“으음.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예민한 문제라서요...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안될까요?”

“아까 그 여자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군.”

“아...”

밥의 얼굴이 찡그려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다. 순해 보이는 얼굴이 내 쪽을 볼 때는 펴지고, 남자를 볼 때는 찌푸려졌다.

“음음.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설명해야 할까요.”

“...”

“저희한테 손님은 지금 부모 젖도 못 뗀, 인간으로 치면 갓난아기요. 그런 아기를 납치한 끔찍한 유괴범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었다. 놀라서 눈만 깜박이자 밥이 표정을 피며 쓰게 웃었다.

“뭐, 손님은 그저 팔고 있는 걸 돈 주고 산 것 뿐이겠지만요. 어쨌든 제발 이런 사정 딱하게 여겨주세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밥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그래서 깨달았다. 남자를 보는 밥의 눈동자도 사장과 비슷했다. 분노, 경멸, 체념 등등...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민 끝에 라는 느낌으로 입술을 떼고, 그러고도 또다시 말이 없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하나만 묻지.”

“네? 네.”

“수인족은 어떻게 변신을 조절하나?”

“그건 숨을 쉬는 것만큼 당연한 본능입니다만...”

밥이 안타깝다는 얼굴로 날 보며 말을 이었다.

“저 아이는 아마 공장출신 일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이미 자연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의도인 아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언하는 거지?”

“아무런 냄새도 못 맡고 있으니까요. 부모나 무리랑 있다가 생포된 수인족은 아무리 새끼여도 냄새를 구분하고 숨길 줄 알거든요.”

“...”

“그러니까 어려울 겁니다. 모든 본능이 지워진 아이니까요.”

밥이 식사를 준비해오겠다며 나가고, 숨 막힐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어깨를 짓눌렀다. 남자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들이었다.

설마 나 때문일까? 그렇다면 걱정해줄 필요 없다고 말해줘야 했다. 아직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여기서 눈을 떴던 처음 나는 분명 사람이었다. 아직 변신을 조절하는 단축키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내 상태에 답답함을 느낀 적은 많아도, 영원히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란 절망은 하루가 다르게 지워져갔다. 그러니 난 정말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 어두웠다. 나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다.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적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다.

놀아달라며 보채는 설기를 쓰다듬으며 고민하다가, 문득 앞발을 내려다봤다. 지난 며칠의 기억도 되짚었다. 망설이다가 남자의 앞으로 돌아가서, 기둥처럼 땅에 박힌 정강이를 툭툭 쳤다.

“그으응”

나를 보는 눈빛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다. 속을 알 수 없고, 서늘하니 시렸다. 그 눈을 한 번, 땅바닥을 한 번 그걸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눈을 질끈 감을 용기가 생겼다.

고개를 정면으로 하고 눈은 질끈 감고 앞발을 내밀었다. 남자는 숨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고요하다가 무겁게 내뱉는 숨과 함께 날 안아들었다. 품에 안기긴 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긴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굳이 들 필요도 없지 않나?

나는 여전히 앞만 보는 채로 남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프지는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힘이 없지도 않게. 곧 그 애매한 중간을 찾았다. 느낌 알았으니까 더 잘 두드려줬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지? 열 번만 더…, 그건 너무 조금인가? 그럼 스무 번? 으음. 열다섯 번? 횟수를 고민하는 사이 이미 열 번은 넘었을 것이다. 그때였다. 남자의 이마가 툭 하고 머리에 닿았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멈추면 되겠어. 막 남자의 어깨에 닿으려던 앞발에 힘을 줬다. 남자는 이마를 떼며 애매하게 들고 있는 앞발을 한손으로 쥐었다.

“당연히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걱정…하는 거 맞겠지? 어쨌든 걱정 마. 될 수 있어.

앞발을 내려다보는 벽안이 일렁였다. 절대 울 준비를 하는 촉촉한 일렁임은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았다.

신경 써서 올리겠다더니 저녁상은 푸짐했다. 그런데 그림의 떡이었다. 밥이 친절하게도 나랑 설기가 먹을 사.료.까지 준비해줬기 때문이다.

갖가지 과일에 살짝 익혀 핏물만 뺀 생고기, 아주 묽지만 단내가 폴폴 올라오는 고구마 스프. 슬레인에서 먹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진수성찬…하지만 아무리 봐도 개밥인데요! 진짜로 설기랑 밥이 똑같은데!

과일을 깨작대다 남자의 저녁으로 눈길을 돌렸다. 고춧가루의 매운 향과는 다르지만 빨갛고, 알알한 향이 나는 스튜가 너무 먹고 싶었다. 사실 먹을 수 있을 뻔했다.

‘목욕준비도 지금 같이 해달라’라는 말에 계속 오가며 물을 나르던 직원이 말리지만 않았으면 말이다.

‘아. 새끼들한테 맵고 자극적인 거주면 안 돼요. 애기 탈나요’

그 말에 남자가 지나가듯 그러고 보니 오닉도…,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수저가 멀어졌다. 젠장!

밥을 다 먹은 후에는 남자가 먼저 씻었다. 본격적으로 씻은 건 아니고 세수랑 양치정도만. 그러고는 팔을 끝까지 걷어 올린 후 말했다.

“씻자.”

“그으응”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남자가 계속 들고 다녀 준 덕에 별로 더럽지도 않고, 무엇보다 남자의 씻김은 괴로웠다. 힘 조절이야 곧잘 하지만 여전히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다.

“개랑 뒹굴었잖아.”

하지만 남자는 단호했다. 좁은 방안에서 몸을 피할 데도 없었다. 하필이면 아래가 막힌 침대를 원망하며 남자의 팔에 매달렸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의 나무통이다 보니 나한테는 너무 깊었다.

남자는 나를 빨고, 설기도 빨았다. 설기 역시 괴로운지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깽깽 울었다.

빨았으니 이제는 쥐어짜야 했다. 나는 정말로 빨래가 아닐 지언데 느낌만큼은 탁! 탁! 탁! 털리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 설기도 이 꼴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수건을 들고 부르자 설기가 눈에 띄게 남자를 경계하며 앞으로 왔다.

앞발로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했다. 정말 힘겹게 귓속의 물기도 닦아내줬다. 개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최소 열 마리는 되는 개들의 랜선 엄마로 살았다. 숱하게 본 동영상으로 이론은 좀 있었다.

“그걸 붙잡고 있지 말고 차라리 널 말려라.”

“캉캉캉!”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

“캉캉캉캉캉캉”

우리에게 다음은 없으니 꿈도 꾸지 말래? 설기도 덩달아 짖는다. 왈왈왈. 설기야 네가 듣기에 개소리 같지?

남자는 모르는 척 수건으로 내 털을 말리는데 집중하다가 스쳐지나가듯 물었다.

“널 버린 자가 있나?”

“그으응”

“주인이 없다고는 했지만 넌 사람 말을 이해하잖아.”

그야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응!”

몇 번을 말 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손길이 문득 멈췄다.

“그럼 내가 처음이자 유일한 주인인 거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씹었다가 덜컥 얼굴을 잡혔다. 커다란 손바닥 두 개가 꽃송이를 품듯 내 얼굴을 감쌌다.

“이제 그 가방이 어디서, 누구한테 난 건지 상관없다. 네가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벽안이 번쩍였다. 흠칫했다가 급하게 창문을 봤다. 밤이었다. 남자의 벽안이 도깨비불처럼 요사스러워질 시간이었다.

대답을 바라는 것처럼 지그시 보는 시선을 피해 수건 속으로 숨었다. 그러다가 평소에는 있는지도 모르는 동그란 꼬리를 덥석 움켜쥐는 손길에 벌떡 일어났다.

“캉!”

“만지지 말라고? 싫어?”

“캉캉캉캉!”

벌레가 움직이는 걸 본 거 같은 불쾌감이었다. 작은 소동이 있고, 남자는 아직도 남아 있는 줄 몰랐던 약을 꺼냈다. 약을 먹고, 볼일도 보고.

먼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건 설기였다. 남자는 나와 설기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의자를 끌고 와서 앉아있었다.

품에 파고든 강아지가 너무 따뜻해서 곧 나도 졸렸다. 그쪽은 왜 안자? 옆자리를 툭툭 쳤지만 그걸 붙잡아주기만 할 뿐 누울 생각은 없어보였다.

너도 입궁하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 놓고 잠들지 마렴

낮에 들었던 얘기가 떠오른 건 정말 갑자기였다. 하나가 떠오르니 나머지는 같이 기억났다.

친애하는 로인

아주 높은 확률로 로인이란 건 이 남자의 이름이겠지? 계속 옆에 있었는데도 오늘에서야 알게 된 이름이었다. 애초에 동물한테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며 자기소개를 하지는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냥 기분이 이상할 뿐이었다. 안다고 해도 부를 수 없는 이름.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없는 내 이름.

난 김이림인데. 서울에서 자취하고 나이는 스물넷. 또...

잠에 취해 생각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마저도 뚝뚝 끊겼고, 곧 완전히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악몽이 아닌 평범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그리운 내 원룸 침대 위였다. 이불 속에 파묻혀서 핸드폰으로 채팅을 했다. 상대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개꿈이었다.

오늘도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설기였다. 어제는 코에 깃털을 올려놓고 있더니, 오늘은 지푸라기였다.

“그으응”

웃음소리를 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람처럼은 웃지 못하지만 그래도 목 깊숙한 곳부터 그응, 하고 울음이 났다. 설기를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했다. 몸통박치기만 안 당했다면 일어났겠지?

같이 놀아주기 위해 있는 힘껏 굴렀는데, 정말로 너무 세게 구르고 말았다. 어어 하는 사이에 침대 끝이 가까워져갔다.

곰은 생각보다 몸이 유연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옆구르기도 아니고 앞구르기로 계속 굴렀기 때문이다. 이제 한 바퀴만 더 구르면…! 그때 아무것도 없던 침대 끝에 불쑥 그물처럼 활짝 펴진 손가락이 나타났다.

안정적으로 몸을 받아낸 건 남자였다. 씻은 건지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그래도 차가운 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잠깐 눈 뗐다고...”

“그응!”

좋은 아침! 앞발을 들어 인사한 후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하는 척 몸을 피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뻔 했는지 모르는 설기를 껴안고 이불 안으로 파고들었다. 한숨소리가 들린 것도 같지만 무시했다.

얌전히 안겨 있던 설기가 금방 답답해하며 머리를 빼려했지만 필사적으로 껴안고 버텼다. 어제 꾼 꿈이 평범하게 시작했다가 뒤숭숭하게 끝나서 괜히 기분이 이상했다.

처음에는 분명 채팅만 했다. 내용은 잘 기억안나지만 소소한 대화들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로인님은 직업이 뭐에요?’하고 물었는데, 그때 갑자기 꿈이 방향을 틀고 장르를 바꿨다.

‘난 개장수황자다’

남자가 그렇게 대답하며 작은 핸드폰 화면에서 빠져나왔다. 당장이라도 설기를 잡아 갈 것처럼 다가와서 설기랑 도망쳤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깨닫고 보니 네발로 달리고 있었다. 곰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똑똑똑.

“아침식사입니다.”

아침을 들고 나타난 건 밥이었다. 환한데서 보니 머리색과 눈동자가 짙은 올리브색이었다.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색이었다. 이불 속에서 머리만 빼고 구경하는데 상을 차리던 밥이 웃었다.

“잘 잤어?”

상냥한 웃음이었지만 어제 처음 본 초면의 사람이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민망할 법도 한데 밥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웃었다.

“한 번 안아 봐도 돼?”

“안 돼.”

“아... 딱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새끼의 무게를 느껴본 지 좀 오래돼서요.”

“안 된다고.”

남자는 몇 발자국 움직이는 걸로 밥의 시선을 가리고 말했다.

“도시락은 다 준비됐나?”

“그렇긴 한데. 아님, 이건 어때요? 한번만 안 게 해주시면 도시락 공짜로 드릴게요.”

“됐으니 나가라.”

“딱 한 번 만요.”

그때 닫힌 문 너머로 “밥!”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름을 부르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밥인 건지는 모호했다.

"언아더"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외국어를, 그것도 소리 나는 대로 읽는 표음문자를 썼다. 혀끝이 구부러지듯 발음이 매끄러웠지만 영어나 불어는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것들 중 그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았다.

글자도 꼭 영어 필기체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어린애가 어른을 흉내 내서 쓴, 즉 도형에 가까운 지렁이 글자였다.

이상한 건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읽어낸다는 거였다. 그게 얼마나 숨 쉬듯 자연스러웠는지 게임 속에 들어오고도 며칠이 더 지나서야 ‘한글이 아니었잖아’라고 깨달았다.

숲에 있을 때는 오크족장까지 만난 후 듣고 있는 말이 외국어인 걸 알았고, 마을에 와서는 간판만 보고 무슨 가게인지 아는 걸 보고 내가 글자도 자연스럽게 읽고 있는 걸 알았다. 듣고, 읽는 게 됐으니 쓰는 건? 기운차게 앞발로 바닥을 긁었다. 첫 획에 깨달았다. 쓰는 건 안 되네?

왜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 한글을 쓰지 않을까.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인데, 깊게 생각해보고 싶어도 지금처럼 꼭 방해를 받았다.

바아압!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고 감정적이었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효하는 사장의 목소리에 밥도 덩달아 급해졌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관이름이 "저 푸른 초원"이라고 했던가. 오해에서 비롯된 동정이지만 어쨌든 남을 가엽게 여기는 이들이 나쁠 거란 생각은 안하는데... 그래도 실수로라도 두 번은 오고 싶지 않았다. 쫄려서 살 수가 없다.

남자도 나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아침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여관을 빠져나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라처럼 셔츠를 몸에 둘렀다. 답답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게다가 숲으로 들어가면 셔츠를 바로 풀어주겠다는 말도 들었다.

남자는 숲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약을 사고, 수통도 하나 더 사서 가득 채웠다. 그러고는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가더니 작동하지 않아 녹이 슨 분수대 조각상의 허리춤에 걸려있던 칼을 수거했다. 뭔가 더 챙기겠지?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아냐, 가는 길에 뭔가 더 있겠지. 하지만 성문을 빠져나와 그대로 산으로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진짜? 진짜 뭐 더 없어?

“여기는 쥐새끼들도 안 쫓아오는군.”

산을 오른 지 30분쯤 됐을 때 남자가 입을 열고 한 첫마디였다. 무심한 얼굴을 보며 혼자서 속으로 북 치고 장구치고 꽹가리도 쳤다. 믿는 구석이 있겠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시원한 바람이 몸을 한 번 휘감고는 떠나갔다. 바람에 걱정도 같이 날리고 나니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산을 내려왔던 날은 밤이라 깜깜하고, 정신도 없어서 진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다. 그런데 낮에 보니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팔랐다.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선 건데도 말이다. 뒤를 보자 아니나 다를까 혀를 길게 빼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설기가 보였다.

다리가 짧고, 자그마한 강아지는 그 잠깐 사이에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고 하얀색에서 회색이 돼 있었다.

“그응!”

앞발로 머리를 쥐어박자 남자의 눈썹이 꿈틀하고 움직였다. 앞발로 열심히 설기를 가리켜봤지만 꼬질꼬질해진 모습을 보고 인상만 써댔다.

아, 어떡해, 우리 설기... 나도 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남자 팔에 무임승차해서 다는 중이었다. ‘설기하나 더 든다고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하는 뻔뻔한 생각과 ‘아니 그래도’하는 한줌의 양심이 대립했다.

이도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문득 메고 있던 곰돌이 가방에 눈이 갔다. 잠깐 인벤토리에 넣는 건? 좋은 생각인데? 눈을 반짝이며 뒤를 봤다. 힘들어하는 중에도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쳐주는 작은 강아지를 보며 열심히 손짓했다. 잠깐 가방에 들어가 있을래? 그랬더니 대답대신 꼬리도 귀도 축 내려갔다.

싫어? 이거 아니야? 당황해서 그응그응 묻자 설기가 힘없이 울었다. 인벤토리 싫어했구나. 뒤늦게 안 사실에 미안해하며 열심히 변명했다. 나는 너 힘들까봐 그런 거지, 응?

낑낑, 그응, 그응, 낑낑낑. 말은 안 통해도 정말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열심히 소리를 냈다. 아래로 쳐졌던 설기의 꼬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그럼 너 힘들 때 꼭 말해줘야 해. 대충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을 때였다. 남자가 짜증을 냈다.

“알겠다. 알겠다고.”

“그응?”

“대신 안고 있는 건 네가 해.”

“그으응?”

고맙게도 남자가 알아서 오해를 해줬다. 설기를 들고 내 품에 안기 길래 그냥 그 오해 감사하게 받기로 했다. 나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헤헤헤.

남자의 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가파른 오르막길도 평지를 걷듯이 힘들이지 않고 올랐다. 현실에서 편의점 다녀오는 것도 힘들어했던 저질 체력을 생각해보면 대단하단 말밖에 안 나왔다.

밥도 도시락을 펴는 대신 걸으면서 과일과 육포를 먹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걸은 덕분인지 해가 아직 머리 위에 있는데도 슬레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슬레인은 뭐랄까 결이 달랐다. 원색 속에 무채색 같고, 용암 한가운데 있는 빙산 같았다. 이질적이고 새카맣고 음산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저기만큼은 호기심으로라도 들어가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 저주받은 숲에 다시 제발로 들어갔다. 남자는 눈에 띄게 느려진 걸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오크족장이 말했던 가시덤불이 보였다. 학교 담을 따라 편 개나리처럼 끝이 없지만, 포식동물의 입안처럼 뾰족하고 매서웠다.

남자의 가슴께까지 올라올 정도로 자라난 가시덤불은 엉킨 실타래 같았다. 입구는 고사하고 길이란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

“...”

“...”

“...”

남자도 나도 하다못해 설기도 잠시 침묵했다. 저기 안에 있다고? 실화입니까?

암담한 눈으로 가시덤불 숲을 보다가 이번에는 남자를 훑었다. 내가 준 셔츠를 비롯해 걸치고 있는 모든 게 천이었다. 아무리 두껍고 가죽을 덧댔어도 결국은 가시에 걸리면 찢어질 연약한 옷감이다.

이 남자. 분명 오크족장이 말했을 때 ‘가시정원’운운하며 아는 척하지 않았나. 그런데 준비랍시고 한 게 칼이랑 약 조금이야? 으응?

내가 느끼기에도 시선이 곱지 않았다. 남자는 변명하는 대신 나와 설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칼을 뽑았다. 휙 하고 팔을 휘두르자 가시덤불이 우수수 베였다. 노가다이긴 하지만 저렇게 한 번 길을 내면 돌아올 때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다. 찌푸리고 있던 콧잔등을 피려는 찰나였다.

“캉!?”

남자게 베어낸 가시덤불이 순식간에 땅에 뿌리를 내리더니 쑥쑥 자랐다. 자라기만 한 게 원수를 갚듯 남자의 다리 휘감으려고까지 했다. 남자는 별무리 없이 그걸 피했지만 비켜난 자리에는 아까보다 훨씬 빼곡하게 들어찬 가시덤불이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하.”

남자는 어이없어하며 다시 한 번 칼을 휘둘렀다. 결과는 아까랑 똑같았다. 오히려 시간은 더 짧아졌고, 가시는 더 길어져서 손등에서 피까지 봤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핏방울이 맺히는 걸 보고 기가 막혔다. 장갑도 안 끼고 있었네? 어?

“진짜 가지가지하는군.”

한발 물러서서 말하는 목소리가 태연했다. 아주 나중에 남자가 이도저도 다 번거로우면 그냥 로니를 족치러 갈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때는 로니가 언제든 흑화해서 리치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

어쨌든 지금은 너야말로 안 그럴 것 같이 생겨서 가지가지 한다, 라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주둥이를 앙 물고 남자의 정강이를 툭툭 쳤다. 가방을 열라고 내리자 순순히 지퍼를 열어줬다.

가장 먼저 꺼낸 건 해독약이었다. 작은 유리병에 보라색 액체가 찰랑였다.

“마시라고? 이걸?”

그럼 버리라고 줬겠니. 노려보며 재촉하자 손등에 몇 방울 덜어 맛을 보더니 그대로 들이켰다.

“해독제였군. 그런데 색깔이 왜 이러지? 그리고 도대체 거기에는 뭐가 얼마나 들어 있는 거냐?”

찝찝해하는 목소리에 퓨하, 하고 그냥 무시했다. 그보다는 머릿속을 뒤지는 게 더 급했다. ‘쇠! 금속! 딱딱한 거!’새로운 사실도 알았다. 정확하게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도 비슷한 검색결과 기능처럼 가방은 비슷한 아이템을 뱉어냈다.

"재탕한 청동으로 만든 건틀렛", "늙은 사냥꾼의 무릎보호대", "초보자를 위한 엉성한 사슬흉갑". 초보자 사냥터에서 얻은 것들이니 하나같이 조잡하지만, 이것보다 지금 더 적절한 장비도 없을 것이다.

날 대신해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던 남자가 한숨처럼 말했다.

“내가 이래서 가방을 못 열게 하는 거다.”

남자의 말은 버튼이 되었다. 내 분노버튼.

“캉캉캉캉캉캉!”

“...?”

“캉캉캉캉캉카캌캉캉캉캉!”

한바탕 퍼붓고 나니 기분이 좀 풀렸다. 남자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왜…? 가방 때문에?”

헛다리짚는 걸 무시하고, 킁킁대며 손가방에 코를 박은 설기를 쳐다봤다. 살살 흔들리는 꼬리를 보다가 간식을 꺼내주자 좋아하긴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바라는 게 있는 눈치였다.

잠깐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장난감을 꺼냈다. 길쭉한 꼬리가 휙휙 세차게 흔들렸다. 순식간에 간식을 해치운 설기가 공을 물고 뛰어 다녔다.

그 사이 장비 착용을 마친 남자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보고 있었다. 맞춤 제작한 것 마냥 남자의 몸에 맞았다.

내 캐릭터가 착용했을 때도 딱 맞았던 거 같은데. 착용자의 몸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나?

“전부 옛날에 만들어진 구식 장비들 같은데... 관리가 잘 됐다. 튼튼해.”

내구도가 하나도 닳지 않았을 테니 튼튼할 것이다. 게임할 때 주로 착용하던 장비는 퀘스트 보상으로 받았던 것들이고, 그 외에 사냥해서 얻는 것들은 장비강화 할 때 쓰려고 고이 놔뒀었다.

서늘한 낯 위로 만족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지만, 보고 있는 나는 여전히 막막했다. 여전히 가시에 긁히고, 찔릴 수 있는 노출부위가 많았다. 가시덤불이 자랄 수 없도록 아예 불태우는 게 아닌 이상에야…, 아!

“그으응”

남자를 불러 손짓발짓을 해보였다. 불은 표현하기 쉬웠기 때문에 남자도 금세 내 몸짓을 이해했다.

“불을 지르자고?”

“그응!”

“안 돼.”

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자 날 안아들고 가시덤불 근처로 갔다.

“이런 식물형 마물은 불에 내성이 강하다. 불이 붙기도 전에 스스로 꺼트린다.”

…그게 뭐야?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자 남자가 설명을 덧붙였다.

“모든 마물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불만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몬스터도 꽤 된다. 하지만 식물형 마물은 마법으로 만들어낸 불이 아니면 소용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식물이 아니라 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빈공간이 안보일 정도로 얽히고설킨 덤불이 하나하나 다 살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자 소름이 쫙 돋았다. 도대체 저길 무슨 수로 통과하지?

인상을 쓰며 고민하다가 뱀처럼 스르륵 움직이는 손길에 몸을 말았다. 가방을 껴안고 눈을 치켜뜨자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뭐 더 꺼낼 게 있어?”

“그응”

“없으면 이제 닫자.”

“캉! 캉캉캉!”

“그렇게 짖어도 화났다는 것만 알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다.”

화났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하지만 남자는 찌푸린 콧잔등을 살살 쓸며 속을 긁었다.

“아무리 그래도 잠글 거야.”

“캉캉캉!”

“대신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주면 되잖아.”

“캉캉캉캉!”

“나도 양보했으니 너도 양보해.”

양보 같은 소리하네. 게다가 내 가방인데 왜 내가 양보를 해? 고개를 휙휙 저었다. 달래려는 건지 남자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 안에 뭐가 더 있는지 모르잖아.”

“그응!”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안에 네가 도망칠 때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고.”

“퓨하?”

“너는 아직도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방을 열어두겠어.”

불시에 찔린 정곡에 움찔 떨자 남자가 피식 웃었다. 어버버 하는 사이 가방도 잠겼다.

“말했다시피 놔줄 생각 없다.”

“그응…”

“포기해. 넌 내 거다.”

이씨, 내가 포켓몬이냐... 울컥해서 다시 짖으려고 했는데 남자의 말이 더 빨랐다.

“그런데.”

“...?”

“네 개가 없어졌다.”

“...?”

“안 보여.”

“크아아앙!”

설기야아아! 평소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귀신같이 알고 오던 강아지가 지금은 목어 터져라 불러도 답이 없었다.

‘이참에 버리자’며 헛소리를 했던 남자는 물리고 나서야 같이 설기를 찾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밤이되면 아무리 설기의 털이 새하얘도 알아보지 못할 텐데. 불안과 걱정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크, 켁켁!”

급하게 주둥이를 벌리다가 결국 사래에 걸렸다. 컥컥 거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물을 먹였다.

“불러서 올 거면 이미 왔을 거다.”

“그으응”

“놈의 발자국이 저기 있어. 저걸 따라가면 돼.”

“그응!”

어디?! 고개를 확 들자 남자가 손을 들어 땅 어딘가를 가리켰다. 아무리 봐도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잔뜩 쫄려있던 마음에 틈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그 자리를 메웠다.

“쀼…”

“흔적을 따라가면 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울지 마.”

혹시라도 나쁜 일을 당했으면 어떡하지. 자그마한 강아지쯤은 한입에 삼키고도 남을 곳인데. 여기가 어딘 줄 알면서도 부주의했던 나한테도 화가 났다.

“네가 왜 울어.”

뭘 잘했다고. 남자가 하지도 않은 말이 들렸다. 그리고 남자는 그게 아니라는 듯 바로 말을 이었다.

“그 개새끼가 지 멋대로 다니다가 길까지 잃어버린 건데.”

“...”

“명줄 긴 새끼라 별 일 없을테니까 울 필요도 없다.”

차가운 말이 이어질수록 불안감이 조금씩 지워져갔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게,”

말을 하다가 멈춘 싸늘한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그리고 쿵, 땅이 울렸다. 쿵쿵쿵. 점점 커지는 울림도, 슬그머니 코를 찌르는 악취도 익숙했다.

“이 개새끼가 또...”

이를 악문 중얼거림에 등뒤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신의사자 개새끼 아니다.”

뒤를 돌자 커다란 몸통과 큼지막한 손바닥 위에 서있는 하얀 강아지가 보였다. 공을 뱉을 생각은 못하고 꼬리만 열심히 흔들던 설기를 보자 잠깐 그쳤던 눈물이 도로 터졌다.

“인간. 계속 신의시자 욕하면,”

“쀼이이!”

오크족장의 말은 중간에 잘렸다. 세차게 흔들거리던 설기의 꼬리도 뚝 멈췄다.

“하아...”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등을 토닥였다. 오크족장이 내려준 건지 곁으로 다가온 설기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남자가 밑에 내려주자 바로 품에 파고 드려는 설기를 끌어안으며 입을 벌렸다.

“쀼잉, 쀼이잉”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 너 백설기, 너, 누나가 진짜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엉엉.

“학살자 운다.”

“...”

“계속 운다.”

“아니까 입 좀 다물어라.”

오크족장이 음, 하고 말을 흐리다가 돌연 우리를 들어올렸다. 굴삭기마냥 흙까지 같이 퍼낸 손은 땅보다도 단단했다.

“무슨 짓이냐.”

오크족장이 우리를 퍼 올리는 순간 빠르게 나와 설기를 잡아 챈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갈 데가 있다.”

“따라갈 테니까 내려놔.”

“괜찮다.”

“내가 안 괜찮으니까 내려놓으라고.”

“정말 괜찮다.”

바로 아래서 본 오크족장의 턱은 턱이 아니라 방 천장처럼 드넓었고, 남자의 턱은 화를 참느라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오크족장이 걷자 나무들이 비켜섰다. 뿌리가 들썩일 정도로 몸을 기울이며 그에게 길을 만들어줬다. 그 덕분인지 울창한 나뭇잎에 가렸던 하늘이 드러났다. 주황빛 노을이 드리운 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쿵쿵 걸어 도착한 곳은 커다란 못이었다. 여긴 왜,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무들이 가지를 눕히며 하늘을 열었다. 오크족장은 턱짓으로 못을 가리켰다.

“봐라.”

“그으…”

커다란 못에 노을이 섞여들었다. 바람에 수면이 일렁일 때마다 주홍빛 하늘도 너울거렸다.

“여기 오면 기분 풀린다, 했다.”

“...”

“그렇다? 이제 안 울고 싶다?”

어느새 오크족장의 부리부리한 눈에도 노을이 내려앉아 있었다. 손바닥을 자신의 얼굴 높이까지 올린 오크족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오크족장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웃어도 흉악하리라 생각했던 창백한 낯에 다정한 미소가 피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지자 오크족장은 우리를 데리고 마을로 갔다. 저번에 왔을 때는 마을이 텅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오크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취이익 취익

사람얼굴에 돼지의 귀와 코를 붙여놓은 것 같이 생긴 오크족장과 다르게 병사들의 얼굴은 사람과 돼지의 머리 그 중간쯤에 걸쳐져 있었다.

우리가 오크족장의 손바닥에서 내려오자 오크들은 닭장 안에 쳐들어 온 천적을 보는 것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나같이 2M는 될 것 같은 거구들을 공포에 질리게 한 건 다름 아닌 나였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꽂혔고, 실수로라도 눈이 마주치면 뱀의 눈을 본 초식동물처럼 얼어붙었다.

…왜들 저러는 거야? 또 뭔데?

“앉는다. 전부.”

이 불편한 상황을 정리해준 건 오크족장이었다. 앉으란 말에 오크들이 불편한 얼굴로그랬다, 분명 불편해했다 자리에 앉았다.

설기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니 서있는 건 남자뿐이었다.

“전사 마주 앉아 얘기해야한다.”

“난 전사가 아니고, 이게 그나마 눈높이가 맞아서 편하다.”

“인간 전사 아니다. 전사는 학살자다. 그러니까 인간 너는 서 있어도 된다.”

“...?”

남자의 시선이 단번에 꽂혔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에 뒤통수만 긁적였다. 전사…이긴 하지? 그런데 도대체 오크족장은 칭호도 그렇고 어떻게 아는 거냐고?

남자마저 자리에 앉자 오크족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의 사자 도와 달라 했다.”

“...? 저게?”

“나한테 왔다. 도와달라는 거다.”

정신없이 공을 굴리며 노는 설기를 보며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꿈보다 해몽 같은데?

“사악한 힘 사악한 가시덤불 만들다. 거기 고블린도 있다. 그냥 간다? 죽는다. 그래서 마비독 필요하다.”

“마비독이 필요하면 그때 같이 얘기 했어야지.”

“준비 필요하다 말했다. 그리고 인간 알겠다, 준비한다 했다.”

“그러니까…, 아니, 됐다. 마비독이라고?”

마비독...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익지?

“인간 화났다?”

“됐으니까 무슨 마비독인지나 말하라고.”

“왜 화났다? 이해 안 된다.”

“마비독.”

“하지만,”

“마비독.”

뭔가 기억날 듯 말 듯 한데 정신 사나웠다. 에잇, 둘 다 그만해!

“마비독 그러니까 슬라임 잡는다.”

아.

생각났다. "초록슬라임의 액기스(마비독/재료템)". 한 백 마리쯤 잡아야 한 개씩 나오던 50골드짜리! 오염된 홉고블린이 팔지도 못하는 잡템만 떨어트리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거였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팔다가 나중에 ‘재료템’이라 써져있어서 모았는데, 로니를 죽이고 나서도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다 팔…았는데...

“슬라임을 잡아도 독을 채취할 도구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

“도구 필요 없다. 그냥 슬라임 잡는다.”

“... 설마 지금 말하는 잡는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잡으라는 건가?”

남자가 그러게 말하며 날 양손으로 붙잡았다. 에이 설마. 그걸 어떻게 잡아?

초록슬라임은 자동차 바퀴만한 크기에 몸이 녹아있는 몬스터였다. 포켓몬에 나오는 메타몽은 귀엽기라도 하지, 이건 흐느적대며 땅을 기어 다니다가 먹을 게 생기면 입을 벌려 통째로 삼켰다.

게임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직진조차 안 될 때, 초록슬라임들 사이에 갇혀 죽은 적이 있다. 그때 YOU DIE라는 문구 뒤로 슬라임한테 삼켜진 내 캐릭터를 보고 얼마나 기겁했던지...

어쨌든 잡을수도 없거니와 잡아도 주르륵 다 미끄러질 게 뻔했다. 잡을 수가 없,

“그거 맞다.”

는데, 오크족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어떻게 잡으라고.”

“잡아야 한다.”

“말이야 쉽지. 잡기 전에 손부터 녹겠군.”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색깔부터가 초록색이었다. 산성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초록슬라임과 아주 잘 어울렸다.

“차라리 다시 마을로 가서 비슷한 독을 구해오든 스크롤을 사오겠다. 독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전부 말해라.”

“슬라임 마비독이다. 비슷한 독 안 된다. 시간 없다. 사악한 힘 커진다. 점점 커진다.”

오크족장의 고개가 돌아갔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어두웠다.

“우리 노력했다. 막았는데... 이제 소용없다.”

“...?”

“시간 없다. 슬라임 덫으로 잡는다. 걱정마라.”

“덫?”

“덫 만들어준다. 재료 필요하다. 재료 구해온다.”

이상하게 오크족장만 만나면 띠링라이트가 울렸다. 로니한테 퀘스트를 안 받으니까 오크족장이 주는 건가? 그래?

오크족장이 내 우울함을 당연히 알 리가 없다. 그저 남자의 깊은 한숨이 날 위로했다. 퀘스트를 받아도 하는 건 내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울할 게 아니라 미안해해야 하는 건데?

“브래큰 줄기 필요하다. 다 큰 브래큰 안 된다. 막 난 브래큰이다.”

“...”

“또 슬라임 들어간 물 필요하다. 두 개 있으면 된다.”

“그게 어딨는데?”

“브래큰 많다. 스파인 어디나 있다. 슬라임 들어간 물 저기 있다.”

잠깐 말이 없던 남자가 날 쳐다봤다. 무언가 바라는 얼굴이었고, 뭘 바라는지도 알겠어서 미안했다. 그런데 없어... 나도 처음 들어보는 아이템들인 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얼마나 구해오면 되냐.”

“많다가 좋다. 가시덤불 많다. 슬라임 마비독 많아야 한다. 백 개 넘게?”

“…덫 하나 만드는 데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덫 하나 브래큰 줄기 하나. 물 이만큼.”

오크족장의 이만큼이 세숫대야 쯤 돼 보였다. 남자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우선 브래큰(Bracken)의 줄기를 구하러 갔다. 슬라임이 들어간 물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기 쪽이 훨씬 더 구하기 쉬워보였다.

오기 직전 오크족장한테 들었던 설명은 굉장히 난해했다.

‘얼굴 내민 지 얼마 안 된다. 수줍고 여리다’

‘뭐?’

‘어려서 아기 볼 같다. 통통하다. 그래도 아주 작지 않다. 곧게 잘 자란다’

‘...뭐라고?’

‘이래도 모르나? 음... 아. 끝 귀엽다. 동그랗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오크족장은 설명을 포기하고 오크병사 하나를 붙여줬다. 데리고 가라는 거였다. 자신은 마지막 재료인 가죽을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은 숲은 오크족장이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르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막아섰냐면 그건 또 아니었지만, 어쨌든 험한 길이었다.

오크병사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슬레인의 끝이었다. 두꺼운 나무기둥 사이로 달빛이 비추는 풀밭이 보였다.

취! 취이익!

거길 손짓으로 가리켜서 쳐다본 건데, 내 시선을 받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한 번, 두 번...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금방 풀밭 쪽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곧,

퍽.

오크병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부딪혀 휘청거렸다. 오크는 내 눈치를 보며 뒤통수에 손을 올렸다.

“...?”

남자가 손을 뻗어봤지만 역시나 보이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취, 취이…

눈치가 좋은 건지, 오크병사는 뻔히 쳐다보는 덜덜 떨면서도 팔을 뻗었다. 팔꿈치가 펴지기도 전에 탁, 하고 또다시 허공에서 소리가 났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풀을 둘이서만 찾아내야 한다는 거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우리의 솟아날 구멍은 바로 무식함이었다.

달이 환해서 다행이었다. 남자는 풀을 닥치는 대로 뜯어서 오크병사 앞에 보여줬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풀을 살핀 병사가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다시 풀을 뜯으러 갔다. 이번에는 내 차례였다. 사람 손처럼 풀을 움켜쥘 수가 없어서, 쥐어뜯다보니 풀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오크병사는 언제라도 내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듯이 벌벌 떨며 눈알을 굴리다가 이내 뒤로 몸을 뺐다.

취이익

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닥치는 대로 뜯어보고는 있지만 도대체 아까 전과 지금의 풀들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기운 없이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저쪽에서 뽑아봐야겠다.

풀을 뽑기 전 앞발에서 발톱을 뽑았다. 그리고 그 발톱만 풀들에 닿도록 조심하며 빠르게 흔들었다. 혹시 모를 벌레를 쫓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바로 몸도 탁탁 털었다.

원래라면 이런 곳에 발도 들이지 않았을 거고, 오더라도 절대 남자 품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양심에 너무 찔려서 남자 혼자 풀을 뜯게 할 수가 없었다.

“끄응”

아. 방금 뭔가 떨어진 거 같... 아아아. 진저리를 치다가 더 빠르게 앞발을 흔들려는데 설기가 갑자기 짖었다. 제각각 자란 풀 사이로 빼꼼 얼굴을 내민 설기가 있었다.

멍! 멍멍!

설기는 그 자리에서 계속 짖었다. 설기쪽으로 가는 남자를 보고 갑자기 기대감이 치솟았다. 설마?

기대감을 안고 설기 앞으로 갔다. 하지만 설기는 다른 이유로 우리, 정확히는 나를 부른 거였다.

곁에 가자 설기가 자세를 낮추고 볼일을 봤다. 남자의 목소리가 험악해졌다.

“이 새끼가.”

남자가 욕하건 말건 설기는 꿋꿋이 일을 봤고, 열심히 뒷발도 털었다. 마지막으로 내 앞발에 주둥이를 한 번 부비더니 옆에 둔 공을 물고 뛰어가 버렸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저게 무슨 개의 습성인데... 물어보는 얼굴이 진심으로 짜증나 보였다. 설명해줘도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정색할 것 같아서, 그냥 정강이 매달렸다. 왜에, 우리 설기 귀엽잖아. 봐줘, 응?

그래도 남자의 표정이 차가워서, 방법을 바꿨다. 저, 저기! 앞발로 아무데나 찍으며 그응 울었는데 정말로 특이하게 생긴 풀이 있었다. 이파리 하나 없이 대만 껑충 자랐는데, 대의 끝이 동글게 말려 있었다.

이번만 넘어가주겠다는 얼굴로 날 안아든 남자가 풀을 뽑아 오크병사한테 갔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우리가 자신의 앞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오크가 췩! 췩! 울면서 발을 굴렀다.

브래큰이 바로 이거였던 거다. 남자는 걸음을 돌려 다시 이 풀을 뽑았던 곳으로 갔다. 비슷한 위치에 대여섯 개 정도가 더 있었다. 근처를 샅샅이 뒤져 뽑고 나니 총 11개였다.

“...”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데 브래큰은 더럽게도 안 보였다. 심지어 우리가 뽑은 게 오크족장이 된 다고 한 막 난 브래큰 인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한 다 자란 브래큰 인지도 몰랐다. 말인즉슨 딱 100개만 채우면 된다는 게 아니었다.

체감 상 두 시간은 풀밭을 헤맸다. 백 개하고도 오십 개는 더 캔 것 같았다. 언제 어느 때고 화사하던 남자의 낯빛은 그 사이 어두워져있었다.

캐낸 브래큰을 들고 슬레인 안으로 들어오자 싱싱하던 연둣빛 순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생기를 잃었다.

취이익…!

헛숨을 삼키듯 작게 운 오크병사가 양 팔을 내밀었다. 꼭 자신한테 달라는 것 같았다.

“네가 들었다가는 더 시들 거 같은데.”

…췩!

오크병사의 눈이 커졌다. 얼굴만 놓고 보자면 그마저도 놀란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것 같은데, 축 처진 어깨는 지나가던 설기가 봐도 힘내 하고 응원할 정도였다.

앞발을 뻗었다. 기운내라고 응원하려 했는데 우울해하던 오크병사가 기겁을 하며 물러섰다.

“...”

내민 앞발이 민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운은 차린 건지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설마 도망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으응”

노가다지, 뭐. 이런 일은 절대 안 해봤을 것처럼 생긴 남자라 차라리 진실을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오크병사는 거의 뛰다시피 걷는 중이었다. 남자의 걸음도 덩달아 빨라져서, 죽어나는 건 다리 짧아 슬픈 설기였다. 혀를 빼물고 쫓아오면서도 내 부탁에 남자가 억지로 안아들려 하면 도망갔다. 안기기 싫다는 거였다.

“저게 싫대.”

“그응”

“그보다 배는 안 고프냐?”

그러고 보니... 남자가 묻기 무섭게 배가 꼬르륵하고 울렸다. 낮에 산을 올라올 때 먹은 과일이 마지막 식사였다. 설기 역시 자기도 배고프다는 걸 알리고 싶었는지 공도 뱉어버리고는 짖었다.

“뭐.”

멍멍!

“그러니까 뭐.”

멍멍멍!

왜 그러는지 뻔히 알 텐데 남자는 비뚜름하게 웃으며, 설기를 약 올렸다.

“기운차게 짖는 걸 보니 저 개는 아직 괜찮은가 보다.”

멍…, 왈왈왈!

왜 먹을 걸로 그래. 진짜 사람이 안 그렇게 생겨서 자꾸 유치했다. 설기가 다시 공을 물고 오느라 거리가 벌어지자 느려 터졌다며 비난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주먹보다 조금 큰 강아지 붙자고 뭐하나 몰라, 쯧쯧.

마을로 가자 오크족장을 비롯한 병사들이 브래큰을 보며 반색했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했던 오크병사와 똑같이 빠르게 시들고 있는 풀을 보고 우울해하기도 했다.

풀을 오크들에게 넘긴 남자는 불을 피우고 밥의 도시락을 꺼냈다. 오늘은 배가 고파서 그런지 개밥처럼 한데 뒤섞인 고기와 과일들도 싹싹 비웠다. 밥을 다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릴 때쯤 일곱 마리의 오크병사들이 다가왔다. 하나같이 자신의 몸통만한 나무통을 들고 말이다.

속을 파냈다고 해도 크기가 크기인지라 통을 들고 있는 오크들의 팔에 핏줄이 툭툭 불거져 있었다. 그중 가장 앞에 있던 오크가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오크들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로니의 거처가 있는 메마른 땅이었다. 메마른 땅과 숲의 경계에 통을 내려놓더니 다들 한마음 한뜻을 모은 것처럼 남자를 돌아봤다.

“뭐 어쩌라고?”

취이익

오크 하나가 나무통을 드는 시늉을 했다. 밥을 먹고 좀 밝아졌던 얼굴이 도로 어두워지고 밤을 맞아 피어오른 도깨비불 같은 벽안도 불씨가 약해진 것 같았다.

“여기에 물을 퍼오라고?”

취익!

“설마 저기도 너네는 못 가냐?”

취이익!

“이거밖에 없어? 다른 통은 없냐는 거다.”

오크들은 내 눈치는 엄청 보면서 남자의 기분은 하나도 살피지 않았다. 굳이 위를 보지 않아도 남자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지 알겠는데 말이다.

저기에 물을 받아 오라고? 저기에 물까지 받으면 이 오크들도 못 들 거 같은데?

멍! 멍! 멍!

설기가 남자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짖었다. 꼭 놀리는 것처럼 들렸지만 기분 탓으로 넘겼다. 설기가 그럴 리가...

그 때 바스락 소리와 함께 수풀을 헤치고 오크 세 마리가 더 다가왔다. 셋 다 나무통을 들고 있었다.

“그으응”

눈치를 보며 설기를 불렀다. 안 돼, 설기야. 지금은, 지금은 진짜 안 돼.

남자는 잠시 날 내려놓고 나무통을 들었다. 별다른 기합 없이 한 번에 들었고, 들고 나서는 무언가 시험해보는 것처럼 팔을 움직여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걷어 올린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뚝에는 좀 전의 오크들처럼 핏줄이 성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주변을 거닐고는 통을 내려놨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기에 물 못 떠온다.”

취익?

“안 된다고.”

오크들이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웠지만, 남자는 날 안아들고 마을로 가서는 오크족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왜 안 된다?”

“저걸 들면 슬라임을 상대 할 수가 없다.”

아... 그러네. 통이 무거운 것만 걱정했지 그 생각까지는 또 못했다. 말대로 통을 들면 발밑에서 슬라임이 튀어나와도 모를 것 같았다.

“그리고 뭘 퍼오라는 건지, 슬라임이 들어간 물이란 게 뭔지 제대로 설명부터 해라. 아까처럼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 그때는.”

남자는 말하다말고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언제라도 폭력을 불사하겠다는 무언의 뜻 같았다.

다행히 오크족장은 이번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남자가 생략한 말을 캐묻지 않았다. 음, 음. 하고 여러 대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하는 것 같은 소리만 흘리다가 푹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더 쉽게 말한다? 너무 어렵다.”

남자가 말없이 손잡이를 쥐었다.

“하지만 노력한다. 우리 말 다르다. 그거 안다.”

“...”

“슬라임 마계 청소부다. 마왕 팬치 만들다. 탐욕의 모양. 다 먹는다.”

오크족장은 말이 어수룩해 바로 알아듣기는 힘들어도 듣다보면 재밌었다. 남자 역시 도로 손을 떼고 그의 말에 집중했다.

“슬라임 우리 먹는다? 먹히면 영원 못 죽는다. 우리 위대한 전사다. 아무것도 안 무섭다. 그런데 영혼 먹힌다? 무섭다.”

“그럼 슬라임이 있는 곳은 갈 수는 있다는 건가?”

“그렇다. 우리 저주 받았다. 몸 영혼 힐타 못 나간다. 죽는다? 살아난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라면 계속 시체 같다 생각했던 창백한 피부도, 지독한 악취도 이해됐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그건 너무 끔찍했다.

“사악한 인간 그거 안다. 슬라임 우리 막는다. 사악한 인간 불러냈다. 슬라임 들어간 물. 가서 본다? 안다. 까맣다.”

“가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저 나무통은 안 된다. 차라리 저기에 슬라임을 잡는 건?”

“아직 녹는다. 덫 안 녹는다. 나무 녹는다.”

이럴 때 내가 사람이었더라면... 문득 아쉬움이 차올랐다. 그랬다면 나무통을 든 남자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수록 아쉬웠다.

“덫을 만들고, 슬라임을 잡고, 옮기는 것보다 마을에 다녀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사악한 힘 빠르게 커진다. 마지막 제물 찾았다? 모른다. 위험하다.”

제물이란 말에 고개가 번쩍 들렸다. 오크족장이 계속 말했던 사악한 인간과 힘 전부 로니를 말하는 거였다!

“그으응!”

“학살자?”

“그응? 그으응?”

로니 말하는 거 맞지? 응? 아무리 물어도 오크족장은 물론 남자도 내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마지막 제물을 찾았을 지도 모른다, 고? 게임할 때는 시나리오 상 그게 나였지만, 지금은? 하필이면 로니를 만났을 때 아팠고, 기절도 했다. 기절한 사이에 기어코 제단 위에 눕혀 본걸까?

아니, 아니야. 게임에서 본 로니라면 그 즉시 눈이 뒤집혀야했다. 아니면 이 남자? 하지만 이 남자한테도 퀘스트만 내 줬을 뿐 배웅까지 했는데? 뭐가 됐든 지금 이대로는 위험했다. 로니가 리치가 되면...

“왜?”

“그으응!”

“위험하다고 해서?”

“그응!”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생각이 통한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할 처지였다. 크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다.

“괜찮다. 네가 위험할 일은 없다.”

“그으응!”

“정말이야. 날 믿어라.”

아니!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대화 끝에 둘은 우선 물을 구해보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남자는 오크들을 불러 나무속을 더 파내야 한다고 했다.

가방에서 꺼냈던 고블린의 곡괭이가 여전히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남자는 그 곡괭이로 속을 긁어내는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불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중이었다. 조금 전에 나무통을 가방에 넣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남자는 괜찮으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했던 게 조금 전이었다. 시범까지 보이고 난 후 옆으로 온 남자가 가방지퍼를 열어주며 말했다.

“가방에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 봐라. 부피가 작은 걸로.”

눈이 마주칠까봐 무서워하면서도 이쪽을 힐끔대는 오크와 눈이 마주쳤다. 헙, 숨을 들이키는 걸 보다가 가방으로 시선을 내렸다.

“꺼냈어?”

“그응”

“그럼 그걸 다시 넣는다고 생각해봐라. …들어갔나?”

가방에서 꺼내는 건 금방이지만, 다시 넣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고개를 젓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고 있는 걸 꺼내는 것만 가능하도록 마법이 걸린 것 같다.”

빌어먹을 "언아더"! 정말 게임 속에 끌고 왔으면 뭐라도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라고!

남자는 씩씩대는 날 달래다가 가방을 보고 멈칫했다.

“이게…?”

남자가 꺼낸 건 커다란 송곳니였다. 오크들 중 하나가 급하게 숨을 들이켰고, 유행이 번지듯 점점 그러는 오크들이 늘었다.

취익! 췩! 취이이

하나같이 입을 가린 채 가련히 떠는 덩치들을 보다가 남자가 설마하는 얼굴로 물었다.

“저것들의…거냐?”

부정하기에는 오크들 반응이 너무 정직했고, 긍정하기에는 오크들이 너무 바들바들 떨었다. 입을 다무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남자가 송곳니를 바닥에 던져서 기겁했다. 야, 이! 그걸 그렇게 대놓고 버리면 어떡해!

“그, 으으응!”

내가 도대체 왜 이걸 꺼냈나. 그냥 뭘 꺼내야지 하던 때에 오크와 눈 한 번 마주쳤을 뿐이다.

부리부리한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세심함이 부족했다. 버둥대며 땅으로 내려와 버려진 송곳니를 주웠다.

“더러운 거다. 버려.”

“그응!”

조용히 해! 오크들 울잖아!

숙연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후, 조심조심 남자의 품에서 내려왔다. 바닥에 손수레 그림을 그렸다. 공을 굴리는 설기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러다 또 발톱 들린다.”

처음에는 내 발톱만 주시하던 남자가, 곧 그림을 보고 눈을 깜박였다.

“수레라. 나쁘지 않은데.”

메마른 땅은 잡초조차 다 말라죽은 곳이니, 마른 억새와 잔가지 정도만 정리해 주면 충분히 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을 거 같았다.

“그런데,”

남자가 옆에 같이 쪼그리고 앉으며 손으로 바퀴를 가리켰다.

“이건 어디서 구하려고? 혹시 가방에 바퀴가 있어?”

있을 리가. 고개를 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나무속을 파냈던 건지 주변이 온통 나무천치였다.

“다듬으란 소리군.”

고개를 끄덕였더니 남자가 피식 웃으며 양손으로 내 옆구리를 잡고 번쩍 안았다.

“똑똑해.”

“…그응?”

자꾸 할 일만 던져주는 것 같아 미안하던 차였다. 모닥불에 물들어 붉은색을 덧씌운 벽안이 부드럽게 휘었다. 하루 종일 옆에 붙어있다 보니 면역력이 생긴 건지 무던해지다가도, 이렇게 반성하게 됐다. 무던해지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손쉽게 사람을 홀려놓고도 남자는 태연한 얼굴로 다른 걸 물었다.

“글도 쓸 줄 아나?”

“그으응”

“하긴... 쓸 수 있다면 이미 썼겠지.”

“그응”

“어쨌든 이거. 잘 그렸다.”

그러다가도 목소리에 다시 아쉬움이 깃들었다.

“그림으로 이름을 설명하라면 할 수 있나?”

“그응?”

“이름. 있는 거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었다. 뒤늦게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앞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표정을 찡그렸다.

“궁으로 가면 글부터 가르쳐 주마.”

“그으응?”

“네 이름이 알고 싶다.”

내 이름이 궁금했어? 나처럼? 눈을 빛내며 남자의 가슴에 매달렸다.

“왜?”

“그응. 그으응”

나도 그쪽 이름이 계속 궁금했어. 로인, 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그게 이름이야? 나랑 다르게 그쪽은 말해줄 수 있잖아.

가죽을 다듬고 있는 거인을 가리켰다. 오크족장의 이름은 으라차.

“긍긍긍!”

그 다음에는 반나절 만에 공을 찌그러트린 설기를 가리켰다. 설기는 설기. 백설기.

“긍긍…, 긍긍긍!”

마지막으로 남자를 향해 손짓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자 똑같이 고개를 숙였던 남자가 원하던 정답을 말해줬다.

“내 이름을 물어보는 건가?”

“그응!”

남자가 다시 한 번 눈을 휘며 웃었다. 아이고, 눈 부셔라...

“해로인. 해로인 레 루테다.”

해…로인? 어어... 음. 그래. 할로윈 보다는 해로인이 낫지. …그렇겠지? 그런데 뒤에 있는 성도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루테? 이건 또 왜 익숙한...

“크엉!?”

“이건 또 무슨 반응이지?”

“그으으응! 그응! 그으응!”

“…그렇게 말해도 뭐라는 지 모른다니까.”

익숙할 수밖에 없다. 버려진 제단'슬레인', 흔들리는 신성국 '화이트', 그리고 그 다음이 멸망의 기로에 선 제국 '루테'였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인 화이트 편은 그래도 초반부는 진입했다. 맵에 걸린 자물쇠는 풀었다. '루테'는 바로 그 옆에 있었다. 커다란 자물쇠 뒤로 모든 게 배일에 싸인 곳. 아는 거라곤 슬레인과 화이트처럼 루테가 그곳의 이름일 거란 사실 하나였다.

우연과 우연이 만나 이어졌다고 생각한 인연이었다. 그런데 무려 3번째 시나리오에 관련된 사람이었다. 이게 정말 우연은 맞는 걸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함에 슬그머니 몸을 뺐다. 남자, 해로인은 도로 품에 끌어안으며 눈을 빛냈다.

“내 이름을 들어봤어?”

“그으응”

“아닌데 갑자기 왜 도망가.”

너도 내 얘기 들으면 기분 좀 이상해질 걸? 누군가는 이걸 ‘하늘이 돕는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기분밖에 안 들었다.

안 그래도 게임 속 세상이 너무 입체적이라 정말 이게 ‘제작된’세상이 맞는 건지 헷갈리던 차였다. 모든 게 만들어진 가짜라기에는 당장 저쪽에 있는 오크족장만 봐도 눈빛이 너무 다채로웠다. 마주앉은 이 남자는 더 했다.

싸늘하고 냉정함, 이라고 설정됐다면 날 예뻐할 수 없다. 설기를 버릴 순 있어도 날 위해 참고 키우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던 의심이 마침내 싹을 틔웠다.

이건 정말로 게임인가? 왜 게임 속 인물들에게 정해진 질문과 대답이 없나. 왜 한국어, 영어도 아닌 처음 보는 외국어가 통용되고 있나. 왜? 도대체 왜?

내가 왜 게임 속에 들어 왔는가 만큼 답이 없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다가 머리를 붙잡혔다. 해로인은 대답을 요구하며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재미가 붙은 건지 귀만 건드렸다. 눌렀다가 손을 떼고, 접거나 모으기도 했다.

아프지는 않은데 무시할라치면 반응해달라는 듯 당기는 손길이 성가셨다.

“크앙!”

이럴 시간에 가서 바퀴나 깎으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귀는 만지게 해주고, 꼬리는 안 되는 거지?”

“그응?”

“귀나 꼬리나 비슷하잖아.”

귀는 머리에 붙어 있지만 꼬리는 엉덩이에 붙어 있잖아, 인간아. 해로인은 결국 한 번 물리고 나서야 바퀴를 깎으러 갔다.

밤이 늦도록 마을 안은 부산스러웠다. 황량하던 공터는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속을 파내는 오크병사들의 열기로 데워져갔다.

해로인이 수레를 만들기 시작하자 거기에도 오크 몇이 달라붙었다. 그러면서도 자꾸 내 눈치를 봐서 편하게 일하라고 자리도 피해줬다.

모두가 바빴다. 나랑 설기를 제외하면 말이다. 심지어 설기조차 노느라 바빴다. 풀벌레가 대신 괴물이 울부짖는 슬레인의 밤이 깊어졌다. 얼추 작업을 끝낸 노동자들은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이제 보니 공터를 따라 파져있던 얕은 구덩이들은 오크병사의 잠자리였다. 그것도 각자 정해진 자리가 있었는지 일사분란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누웠다.

해로인도 하루 만에 부쩍 늙은 얼굴로 모닥불을 키웠다. 그리고 내 뒷덜미를 잡아 품에 안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뛰놀며 공 하나를 완벽하게 못쓰게 만든 설기도 고롱고롱 소리까지 내며 잤다. 눈을 뜨고 있는 건 나 혼자였다.

아까 모두가 바쁠 때 불을 쬐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 때문인지 정신이 말똥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있어보기도 했지만 잠이 올 생각을 안 했다.

이것저것 떠올려봤다. 가장 최근에 든 생각은 해로인은 집착이 심하다는 거였다. 내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그래도 그게 걱정해서 혹은 나에 대해 궁금해서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저러다가 갑자기 관심을 끊으면 서운할 것도 같고.

“...”

내가 한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서운하다니? 몸을 조금 돌리자 길게 드리워진 금빛속눈썹과 조각같이 잘 생긴 얼굴이 보였다.

첫 만남이 최악이었고, 절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잘 했다. 그게 비록 애완동물에게 쏟아 붓는 애정이라 해도 신경써주는 것은 진짜니까. 게다가 같이 붙어있는 시간 동안 든 정도 무시할 수 없다.

조금 복잡한 기분으로 해로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몸을 일으켰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미뤄뒀던 고민을 해볼까 싶었다.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빼낼 때였다. 감겨있던 벽안이 번쩍 열렸다.

“으응!”

비명을 가까스로 참으며 눈치를 살폈다. 다시 보니 눈만 떴을 뿐 초점이 없었다.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재우자 푸른 눈이 천천히 감겼다.

눈이 완전히 감긴 걸 확인하고, 설기를 그 옆으로 밀어 넣었다. 잠잘 때 꼭 엉덩이를 붙이고 자는 설기는 자면서도 허전한 건지 온기를 찾아 해로인의 품으로 알아서 굴러갔다.

좋아, 완벽, 악! 다시 한 번 비명을 삼켰다. 몸을 돌리자마자 오크족장의 부리부리한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오크족장은 공터 한가운데서 어깨를 늘어트리고 앉아있었다. 설기까지 남자 품에 밀어 넣고 다시 눕기도 뭐해서 결국 족장의 앞으로 주춤주춤 걸어갔다.

“학살자. 안 잔다?”

“그응”

커다란 목소리에 급하게 주둥이에 앞발을 댔다. 쉿, 하는 시늉을 알아들은 건지 다시 말하는 오크족장의 목소리는 훨씬 작아져 있었다.

“왜 안 잔다? 잠 안 온다?”

“그응”

“그럴 수 있다. 숲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말에 고개를 기울였다. 간간히 들리는 울부짖음만 아니라면 숲은 사실 적막한 편이었다.

“들리지 않다? 숲 매일 운다. 영혼들 계속 운다.”

“그으응?”

“힐타 매일 행복하다. 하늘 땅 우리 다 행복하다. 영혼 축복한다. 하지만... 지금은 운다.”

듣는 나마저 괴로워질 만큼 고통이 배인 목소리였다.

“다들 떠났다. 그거 다행이다. 그런데 그보다 죽은 거 더 많다. 나 그거 다 봤다.”

“...”

“나 으라차. 힐타의 숲지기. 숲 못 지켰다. 벌 받았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오크들은 잡으면 아이템을 주는 사냥감 같은 게 아니었다. 여긴 "언아더" 속 세상이지만, 게임이랑은 달랐다. 이들은 생각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 할 줄 알았다.

“이제 죽고 싶다. 내 반려. 날 기다린다. 가야한다. 내가 보고 싶다.”

“그응”

“우리 도와줘라. 죽고 싶다.”

제발이라 덧붙이는 목소리가 절박했다. 죽고 싶다는 부탁이 무섭고, 버거웠지만 감히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수도 없었다.

고인 눈물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끄덕이다가 욱하고 차오르는 감정에 몸도 같이 흔들릴 만큼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몸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볼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고맙다.”

아직 한 것도 없는데 진심으로 인사하는 오크족장을 쳐다보다가 자리로 돌아갔다. 눈을 감기 전 본 오크족장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로 길게 그림자가 뻗어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왈왈왈! 왈왈!

설기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깼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더니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다.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해로인과 설기가 보였다.

“그으응…”

아침부터 왜. 앓듯이 소리를 내자 단번에 둘의 시선이 꽂혔다. 설기는 시무룩했고, 해로인은 뚱했다. 당황해서 완전히 눈을 뜨자 설기가 품에 파고들었다. 끙끙 앓는 설기를 달래자 해로인의 표정은 한층 더 나빠졌다. 당황하며 한쪽 앞발을 뻗어 해로인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러는 사이 조금씩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기분이 미묘해지려는 때의 그 미묘한 순간을 둘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며 몸을 일으켰다. 둘 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얼굴이었다.

“밥 먹기 전에 좀 씻자.”

거사를 치룰 당일이어도, 남자는 한결같았다. 설기를 뒤꽁무니에 달고 씻으러 간 곳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절벽이었다.

날 먼저 씻긴 후, 씻고 있는 해로인 옆에서 나도 설기를 씻겼다. 하지만 설기가 물만 끼얹었다하면 바로 털어대는 통에 나중에는 설기보다 내가 더 흠뻑 젖고 말았다.

“다 놀았나.”

논 거 아닌데! 나름 흰색을 되찾은 설기를 가리켰다. 내민 앞발을 앙 문 설기가 아프지 않게 잘근잘근 씹어댔다.

“그으응?”

그 감각이 귀여워서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털고 있던 해로인이 뒤늦게 그걸 보고는 날 안아들었다.

“이 똥개새끼가 이제 입에 넣을 거 안 되는 것도 구분 못하고.”

왈왈!

“시끄럽다. 조용히 해.”

왈왈왈왈!

바지 밑단을 무는 설기를 무시하며 해로인이 나한테도 한소리 했다.

“어리광 다 받아주면 기어오른다. 그러다가 저 멍청한 게 진짜로 물면 어떡하려고 가만히 있어.”

“그으응”

“뭘 맨날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 너 무는 순간 저 놈은 바로 우리에 가둘 줄 알아.”

툭하면 목줄이랑 우리랑 협박이었다. 불만스럽게 노려보다가 하는 말과는 다르게 꼼꼼하게 내 털의 물기를 짜내는 행동에 한숨만 쉬었다.

마을로 돌아가자 오크병사들이 심각한 얼굴로 자신들의 족장 곁에 모여 있었다. 취익, 췩, 취이익.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가 몇 번 더 오가고 오크족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학살자.”

“그응?”

“동족의 이빨 가지고 있다?”

“...”

“우리 동족. 돌려준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해로인의 팔을 흔들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손가방만 가리키자 머리 위에서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가방을 열고 어제의 송곳니를 포함해 스물 세 개의 송곳니를 꺼냈다. 다행히 곡괭이보다는 적게 나왔다. 가방을 비우고보니 오크보다 고블린을 더 많이 잡았나 보다.

물론 다행이라는 건 순전히 내 기준이었다. 바닥에 쌓인 송곳니를 본 오크병사들이 또 입을 틀어막고 취잇, 잇 하며 울었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듯 송곳니를 추스른 오크족장이 말했다.

“학살자... 정말 학살자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불편한 정적 속에 식사를 마치고 나무통을 숲의 경계로 옮겼다.잘은 몰라도 팔뚝들을 보니 확실히 어제보다는 통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해로인은 우선 경계에 통과 수레를 두고 수레를 끌고 갈 길부터 만들었다. 툭 튀어나온 뿌리를 뽑아내고 마른갈대를 베었다. 다행히 가시덤불 때처럼 잘려나간 게 다시 자라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라면 처음에 길을 만들 때만 좀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월할 터였다. 초록슬라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슬라임은 오로지 먹는 입만 달린 몬스터였다. 보고, 느끼고, 들을 수도 없는 점액질 마물이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어떻게 상대를 인식하고, 공격하러 오냐면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슬라임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가 우르르 오는 거라고, 게임할 때 흑화하기 전이었던 로니가 알려줬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슬라임과 마주친 순간부터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해로인이 슬라임을 잡는 게 너무 빨라서 말릴 새도 없었다.

얼마안가 우르르 기어나 오기 시작한 슬라임은 여전히 잡는 건 쉬웠다. 몸 안의 핵이 뚜렷하게 잘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죽을 때 간혹 튀는 파편이 산성을 띄고 있다는 거였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다가 해로인의 건틀렛이 부식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 그걸 시작으로 몸 여기저기 파편이 튀었다. 해로인은 급하게 날 로브로 감쌌지만, 그 로브에 마저 구멍이 나서 하마터면 털이 탈뻔했다.

그걸 본 해로인은 그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경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크들이 왜 벌써왔냐며 고개를 갸우뚱댔다.

“너...”

“그응?”

“후.”

뭐라 말하려던 해로인이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대로 나무통과 수레를 팽개치고 걸음을 옮기자 오크병사들이 당황하며 뒤쫓아 왔다. 금방 마을에 도착한 해로인이 오크족장을 불렀다.

“이봐 오크.”

“이름 오크 아니다. 으라차다.”

“어쨌든. 물을 구해 올 때까지 얠 좀 데리고 있어라.”

“학살자?”

“그래.”

뜻밖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해로인은 내가 아니라 설기를 보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저걸 인질로 데려가고 싶은데...”

왈! 왈왈!

“저것도 짐이니까.”

차갑던 벽안은 이쪽을 향하는 순간 냉기를 지워냈다.

“아무래도 슬라임을 잡으면서 너까지 데리고 다니기에는,”

말을 하다가 멈춘 해로인의 뒷말을 기다렸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로니의 땅굴이었고 해로인은 그때 ‘성가셔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었다.

“너무 위험해.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어.”

혀를 차며 내 몸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그때와는 전혀 달랐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오크만 믿고 널 맡기기엔... 저들이 개를 너무 떠받들어.”

“...?”

“저 개가 조르든 네가 졸라서 도망갈 수 있잖아.”

“그으응!”

안 가! 안 간다고! 날 걱정해주는구나 하고 감동하다가 순식간에 산통이 깨졌다.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해로인은 단호했다.

“그러니까 그 가방을 내 놔라.”

“그응?”

“너는 벗을 수 있는 거지?”

“그응…”

“다녀와서 돌려주겠다.”

…얘는 항상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양아치이지?

속으로 빈정거렸지만 이내 생각이 복잡해졌다. 정말? 정말로 돌아와서 가방을 줄까? 매번 찝찝한 얼굴로 가방을 봤으면서.

해로인은 설기 대신 다른 담보를 잡겠다는 투였지만, 내가 이 남자에게 넘기는 게 있다면 그건 가방이 아니었다. 내 믿음과 신뢰, 기대였다. 남자한테는 별 게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아주 거창한 무언가.

고민 끝에 손가방을 벗었다. 날 든든하게 붙잡아주던 손위에 올린 게 어떤 의미인지 그가 몰랐으면 하다가도, 그래도 알아줬으면 했다.

“금방 다녀올게.”

해로인이 가버렸다. 경계에서 기다리고 싶었지만 ‘위험해’라는 말과 함께 마을에 남겨졌다.

나만 보면 입을 가리는 오크들과 송곳니를 보란 듯이 마을 중앙에 모아놓은 오크족장. 그리고 그걸 꼼짝없이 지켜봐야 하는 나.

“...”

“...”

내 거친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BGM이 흘렀다. 견디기 힘든 어색함에 자꾸 앞발이 움찔 거렸다. 1분 1초가 한 시간처럼 흘러갔다.

혹시라도 오크들 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십분 넘게 그러고 있었더니 슬슬 목이 아파서 고개를 슬쩍슬쩍 돌렸다. 그러다가 곁눈질로 본 설기의 상태가 좀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뛰어다녔던 거 같은데 지금은 한자리에 서서 고개만 연신 갸우뚱 기울이고 있었다. 잠깐만 그러는 거라면 귀엽겠지만, 지켜보는 내내 그러고 있었다.

옆으로 가서 하지 말라고 붙잡으면 멈추긴 했다. 하지만 놓으면 바로 고개가 기울어졌다. 왜 그러는 거야. 걱정스러운 눈으로 설기를 살피는데 별안간 땅이 흔들렸다. 비틀거리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뒤를 봤다.

땅이 흔들릴 만큼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오크족장이 설기와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느슨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당겨졌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설기부터 안아들었다.

“사악한 힘이... 제단 가야한다.”

“그응?”

“같이 간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움찔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다고 하고나서야 제단에 있을 시체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 때문에 못가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가서 확인해야 했다. 강박증처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오크족장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내가 올라가기도 전에 설기가 먼저 뛰어올랐다.

멍! 멍멍!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위험할지도 모르는 곳에 설기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역시 오크족장이 없다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손 위에 올라갔다. 눈높이가 순식간에 껑충 올라갔다. 오크족장이 한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주변 풍경이 휙휙 변했다. 마을에 남아있던 오크들도 전부 쫓아오고 있었다.

오크마을에서 마왕의 제단까지는 금방이었다. 애초에 마을이 제단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이동거리 동안 내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다. 바람이 몸을 스칠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유모를 혐오감이 끓어올랐다.

게다가 숲의 상태도 이상했다. 오크족장이 지나갈 때면 알아서 길을 비켜주던 나무들이 기를 쓰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발목에는 밧줄처럼 굵은 넝쿨이 휘감겼고, 나뭇가지들은 칼과 창처럼 끝을 뾰족하게 세웠다.

오크족장은 묵묵히 그걸 몸으로 받아냈다. 나뭇가지에 찔릴지언정 먼저 부러트리려 하지 않았고, 발목을 감은 넝쿨을 거칠게 털어내지 않았다. 고행을 떠난 수도승처럼 무던하게 상황을 견뎌내던 거인의 평정심이 무너진 건 제단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검은색 돌로 이루어진 제단 위에서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안 돼!”

오크족장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고함을 지르며 제단을 향해 돌진했지만 새카만 돌에 닿기 직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튕겨서 뒤로 날라 갔다. 오크족장은 바로 양손을 모아 우리가 다른 데로 튕겨나가지 않게 했지만, 모아진 손바닥 안에서 구르는 것까진 그도 막을 수 없었다.

뒤로 넘어간 오크족장이 허우적대며 몸을 뒤집었다. 정신이 반쯤 나간 건지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기어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먼 거리에서 막히고 말았다.

“아아아!”

앞을 가로막은 투명한 막 앞에서 오크족장이 무너져 내렸다. 언제나 굳건하게 땅에 다리를 박고 서있던 거인이 비탄에 빠져 울부짖었다.

“그날이랑 똑같다. 똑같은 일 시작된다.”

“그응! 그으응!”

“그때도 이랬다. 사악한 힘 넘친다. 순식간이다. 모두 다 잡아 먹을 거다. 늦었다. 늦은 거다.”

“그으으응!”

까만 연기가 뱀이 혀를 날름이듯 연기를 피워 올리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크족장을 언제 삼킬지 고민하듯 코앞에서 넘실거렸다. 연기가 집어삼킨 땅 위에 모든 풀이 순식간에 까맣게 물들며 바스러져버렸다.

취이익!

뒤에 있던 오크병사들이 안간힘을 쓰며 자신들의 족장을 끌어당겼다. 커다란 몸이 조금씩 질질 끌리기 시작했지만 퍼지는 연기의 속도에 비하면 턱도 없어보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설기랑 나는 바닥에 엎드린 오크족장의 주먹 안에 갇혀 있었다. 손가락 틈사이로 보이는 주변상황은 당장에라도 최악으로 변할 수 있어보였다.

이를 악물며 손가락 사이에 머리통을 들이 밀었다. 힘없이 그러쥔 주먹인데도 손가락 하나 벌리는 게 보통일이 아니었다. 미친 듯이 몸을 팔딱이며 힘을 줬다. 가까스로 손가락 사이에 어깨를 끼우자 작은 틈이 생겨났다.

설기야! 작고 어리지만 똑똑한 설기가 내 뜻을 알아차린 것처럼 틈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보다도 작은 설기니까 쉽게 빠져나가는 건 당연했다.

“그으…? 캉캉캉!”

하지만 빠져나간 설기가 그대로 연기를 향해 돌진했다. 작고 둥실한 엉덩이에 비해 큰 꼬리가 출렁이는 게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보였다. 새카만 연기는 그런 설기를 단숨에 덮치려는 것처럼 몸을 부풀렸다.

“안 돼!”

뒤늦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던 손가락이 활짝 벌어지고 몸이 땅바닥을 굴렀다.

쓸린 어깨와 부딪힌 골반이 얼얼했지만 한 번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처럼 내 몸이 달라졌다는 것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

“설기야아!”

버럭 소리를 내 지르자 설기가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다. 콧잔등에 잔뜩 주름을 잡아놓고도 돌아보는 까만 눈동자가 한없이 동글동글해서 속이 탔다.

“이리와! 빨리!”

오라고 외치면서 내가 달려갔다. 설기 역시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 뒤를 쫓아 달려드는 검은연기를 보자 더는 생각을 이을 수도 없었다.

설기를 끌어안고 그대로 등을 돌렸다.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순간에 대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아르르 품에 안긴 설기가 으르렁 대는 소리에 감았던 눈을 떴다. 뒤를 돌아보는 데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했다.

“헉.”

고개를 돌렸다가 얼굴에 닿을 뻔한 연기에 뒤로 확 몸을 뺐다. 검은 연기가 다가올 것처럼 움찔했지만 설기가 짖자 주춤거리며 멈췄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설기와 연기를 번갈아 봤지만 답이 나올 리가 만무했다.

“학살자.”

“응?”

“인간 됐다.”

“…어?”

오크족장의 말에 얼빠진 목소리를 냈다. 망가진 로봇처럼 끼긱 거리며 아래를 보자 훌쩍 멀어진 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땅을 딛고 서 있는 건 곰발바닥이 아니라 광택이 도는 까만색 워커였다. 그 워커를 반 이상 덮은 건 마찬가지로 까맣고 통이 넓은 슬랙스. 허리에 찬 벨트도 몸에 딱 달라붙게 입은 긴팔 폴라티도 그 위에 걸친 라이더 자켓도 모두 까맸다.

전사로 전직하면서 기념으로 현질해서 맞춘 룩이었다. 믿을 수가 없어 입만 벙긋거리는데 오크족장이 몸을 일으켰다. 눈동자가 형형하기는 했지만 이성은 되찾은 모습이었다.

“신의사자 막았다.”

“...어?”

“하지만 지금 이거 시작이다. 진짜로 힘 넘치면,”

꾸에엑!

오크족장이 말하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울며 돌진해왔다. 뒤에 서 있던 오크병사 중 하나가 몸을 날려 그런 멧돼지를 붙잡았다.

멧돼지를 시작으로 수많은 야생동물이 제단을 향해 달려들었다. 대부분은 오크병사들이 막았지만 하늘에서 날아든 새까지는 다 막기가 어려웠다.

까아아아. 하늘에서 날라든 까마귀가 연기와 닿는 순간 쇳소리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토해냈다. 연기 속으로 힘없이 추락해버리는 까마귀는 바스러졌던 풀과 똑같아졌다.

“쟤, 쟤네 왜 저러는 거야?”

“사악함 힘 제물 부른다.”

“제물을 부른... 잠깐, 제단이? 제단이 직접 제물을 부르고 있다고?”

“그렇다. 지금은 신의사자 막았다. 아직은 신의사자 할 수 있다. 그래도 제물 계속 온다. 그럼 힘들다.”

설기가 저 연기를 막았다고? 안고 있는 설기를 내려 봤다. 솜뭉치마냥 하얗고 작은 강아지는 이를 한껏 드러내고 계속 으르렁 대고 있었다.

“학살자. 시간 없다. 당장 제단 부숴야 한다.”

“아직 덫을 못 만들었잖아.”

“그렇다. 하지만 시간 없다. 곧 이다. 그럼 죽는다. 신의사자 우리 인간 학살자 다 전부 다.”

죽는다니. 죽음이 이렇게 쉽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곡괭이. 가져온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하지만… 아오!”

하지만, 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인상을 쓰다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때는 더더욱 아니었다.

“산장가면 바로 보여? 따로 안 찾아도 바로 알 수 있어?”

“그렇다. 보면 모를 수 없다.”

“버…틸 수 있는 거지? 그 때까진 버틸 수 있는 거 맞지?”

“신의 사자 달렸다.”

“뭐라는 거야? 설기한테만 맡기지 말고 뭐라도 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으라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자 오크족장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학살자 말 맞다. 우리 최선 다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오크족장은 나무통보다 두꺼운 팔로 허공을 저으며 부나방처럼 날아드는 새들을 막고 있었다. 난리통인 이곳에서‘뭐라도’안하고 있는 건 나뿐이었다.

“설기야. 누나 갔다 올게. 금방 다녀 올 테니까... 위험할 거 같으면 꼭 도망가야 돼. 알겠지? 진짜 꼭 도망 쳐야해.”

설기를 꽉 끌어안고 바닥에 내려줬다. 설기는 여전히 검은 연기에서 시선을 못 떼고 있었지만 귀가 쫑긋하고 움직였다.

오크족장이 길잡이로 붙여준 오크병사의 뒤를 따라 달렸다. 지각할까봐 뛰었던 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전력질주 한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았다.

심장이 아프게 뛰지도 않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가지도 않았다. 숲이 길을 막고 있는데도 그걸 뚫고 달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 풍경이 휙휙 지나갔고, 오크병사는 언제라도 제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나풀대는 머리카락, 몸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발밑을 노리는 넝쿨의 움직임과 몸을 비트는 나무들. 스쳐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선명했다. 환하게 트인 시야로 몸부림치는 숲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지금 전사 ‘2lim’인 거였다.

‘2lim’은 남들보다 많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슬레인'을 깼다. 그 커다란 오크족장도 잡고, 마법을 난사하던 리치도 잡았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손가락 몇 개로 캐릭터 조종할 때도 그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직접 팔다리를 움직여서 싸워야 한다고? 내가? 나 같은 발컨이?

“…말도 안 돼!”

맹세컨대 목소리는 작았다. 억눌려 나온 소리니 클 수가 없었다.

우당탕탕!

그런데 앞에서 뛰어가던 오크병사가 기겁하며 놀란 걸로도 모자라 넘어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달리던 속도가 있다 보니 엄청나게 장렬했다.

“헉!”

어쨌든 나 때문에 놀라 엎어진 거였다. 어딜 잘못 부딪힌 건지 머리를 끌어안은 채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상태를 보기 위해 옆으로 갔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취이이익!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던 오크가 벌떡 몸을 세우고 비명을 질렀다.

“여기! 여기 있을게.”

양손을 손바닥이 보이게 들고 뒤로 물러섰다. 아픈 와중에도 나는 무섭니…? 무릎이 다 까진 걸 보자 더 미안해 졌지만, 내 눈빛에 오크병사는 오히려 더 겁을 먹었다.

내 눈치를 보면서 몸을 일으킨 오크가 다시 뛰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죽겠네. 절뚝대며 뛰는 걸 보자 양심이 콕콕 찔렸다. 체력포션 이라도 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가방이 없다.

심지어 없는 게 포션 뿐만이 아니다…?!

시선을 내렸다. 예상대로 허리띠에 검집이 걸려 있었고, 검집 밖으로 튀어나온 손잡이는 손때가 가득했다. 검집 자체도 허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엄청 튼튼한 한손검". 슬레인에서 초보자가 얻을 수 있는 무기 중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봤자 방어구처럼 옵션이라고는 공격력이 전부인 무기였다.

내 칼!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다. 전사로 전직하면서 받은 무기가 인벤토리에 있었다. 기껏 좋은 무기를 받아놓고 인벤토리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랬다.

마침내 로니를 잡는데 성공했는데, 로니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스토리모드가 시작됐다. 온힘을 쏟은 내 캐릭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할 힘도 없어서 리치를 쓰러트린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헉, 헉'

거친 숨에 가슴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갑자기 환한 빛과 함께 성기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런 반항도 못하는 내 캐릭터를 붙잡아, 자신들이 나왔던 빛 속으로 들어갔다.

화면이 하얗게 물들고 "2. 흔들리는 신성국 '화이트'"라는 문구가 뜨며, 두 번째 맵의 자물쇠가 풀렸다.

'으음… 여긴 어디지?'

깨끗하지만 창살이 처진 방에서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선한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다. 신성국의 교황인 유다였다. 유다는 내 캐릭터를 의심하면서도 기회를 줬다.

'스스로를 이세계의 사람으로 칭하는 자여.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대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곳으로 가서 수상한 게 없는지 확인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스토리모드는 끝났다. 띵동 띵동 알람이 울리며 로니를 처치한 보상도 들어왔다. 참고로 보상이 "전사의 자격(승급 아이템)"이었다.

전사가 되고, 초보자 사냥터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전설급 무기도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결국은 또다시 슬레인에 갈 처지였던 것이다.

레벨 낮은 몬스터를 잡는데 좋은 무기를 쓸 필요가 없었다. 내구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었고 말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젠장.

“아하하...”

어이가 없어서 웃자 앞에 가던 오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저러다 또 넘어질라.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욕했다. 바보 같은 나! 좀팽이 같은 나! 장비 수리하는데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계속 자책하다가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소름에 흠칫 놀랐다. 머릿속에서 사이렌이 삐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요란하게 울려대는 위험신호를 따라 검을 뽑아들었다. 처음 쥐어보는 건데도 잡고 뽑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손잡이 단단하게 쥐며 수풀을 헤치고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건 언젠가 디즈니 만화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시련의 장소였다. 잠이든 오로라 공주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필립왕자를 막아선 마녀의 가시덤불.

처음 봤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몸체를 키운 가시덤불이 위협적으로 가시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저길 뚫고 가라, 아니, 가야, 가는... 한숨이 푹 나왔다. 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2lim’이 저 가시덤불도 이길 만큼 셀까? 아니면?

…아니면 죽는 건데?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도망칠까? 하지만 그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새카만 연기 앞에 선 작은 강아지. 비통해하는 오크족장. 상황도 모르고 고생하고 있을 해로인. 정말로 이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있을까?

아니었다. 나한테는 그럴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곡괭이를 가져오자. 할 수 있다. 못하면 안 된다!

“흐읍!”

기합을 넣으며 눈을 떴다. 꿈틀대는 가시덤불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다리는 움직였다. 내가 접근하자 앞쪽에 있던 가시덤불이 일제히 뒤로 젖혀졌다. 채찍처럼 내리칠 모양이라, 입안으로 되뇌고 있던 스킬을 외쳤다.

“플레임!”

팔이 크게 휘둘러지고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비스듬히 베어냈다. 그러자 짓쳐들어오던 덤불이 땅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그게 어떤 기분이었냐면 누군가 ‘푸른 하늘 은하수~’하고 운을 띄우자 손이 저절로 쎄쎄쎄하고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플레임! 플레임! 으아아! 플레이임!”

하다 보니 딱히 스킬이름을 외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악을 쓰며 외쳤다. 그럴 때마다 가시덤불이 우수수 떨어지며 빈공간이 생겼고, 그곳으로 머리부터 집어넣고 봤다.

전사로 전직하면서 드디어 액티브 스킬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액티브는 하나씩만 찍고 일단 직업 패시브부터 마스터하세요. 힘은 무기옵션으로 커버돼요”라고 했지만, 스킬 없이 기본공격으로 죽어라 몬스터를 두들기던 날들 얼마나 속이 터졌던가.

그래서 전직하자마자 액티브부터 찍었다. 지금 쓰고 있는 플레임과 격발이 바로 그거였다.

게임 때처럼 화려한 이펙트 효과도 없고, 결국은 강력한 베기와 찌르기였지만 그래도 나는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키이익! 키익! 키이이이익!

정신없이 검을 휘두르는 와중에 비명소리가 울렸다. 덤불에 숨어있던 홉고블린들이 내는 소리였다.

“죽기 싫으면 비켜라아아!”

아무리 몬스터라고 해도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칼을 내밀기 무서웠다. 무릎을 노리고 날아드는 가시덤불을 피하며 악을 썼다.

“가만히 있지 말고 비키라고!”

간혹 칼이 코앞을 스쳐도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놈들도 있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죽일까봐 정신없는 와중에도 얼어있는 고블린을 힘껏 걷어찼다.

“으아아아! 으악! 으아악!”

온몸이 따끔거리고, 머리채가 잡혔던 것처럼 두피가 얼얼했다.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시동을 거는 건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래도 드디어 눈앞에 산장이 보였다. 진짜로 산장이 있었다!

산장은 허름한 나무오두막이었다. 다만, 오크족장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컸다. 손잡이부터가 내 머리꼭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홉고블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한쪽 눈썹에 칼자국이 있고 무려 길쭉한 송곳니로 피어싱을 해놓은 놈이었다.

키, 키, 키, 키이, 이이익!

홉고블린이 이빨을 딱딱 부딪치며 떨면서도 나를 향해 곡괭이를 치켜들었다. 등 뒤를 노리는 가시덤불을 베어내다가 뒤늦게 녀석을 발견했다.

“이! 으! 으아아아!”

그래서 몸으로 들이 받았다. 발로 차기에는 그랬다가 내가 중심을 잃을 것 같았고, 칼은 더더욱 아니었다. 나한테 들이받힌 고블린이 뒤로 날아갔다. 그렇게 세게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무문까지 부수며 안으로 날아가 버렸다.

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고블린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몸을 던져 넣었다.

! !

요란한 소리가 연이어 귓가를 강타했다. 다 내가 낸 굉음들이었다. 나무도 부서지고 내 몸도 부서졌나봐. 으아아.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서 꿈틀대며 겨우 눈을 떴다. 그리고 잠깐 내 시력을 의심했다.

“...?”

연두색 싱그러운 이파리와 나뭇잎 사이로 찬란하게 쏟아지는 햇빛이 보였다.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온화한 풍경에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자 모든 게 사라지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 천장이 보였다.

“어어?”

잠깐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몸을 세우며 내가 들어온 문을 쳐다봤다. 구멍 너머로 꿈틀대는 가시덤불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었다. 계속 그쪽을 신경 쓰며 안을 훑었다. 한쪽에는 고블린이 혀를 빼물고 기절해 있었다.

“죽은…건 아니구나!”

가까이가자 숨소리가 들렸다. 간신히 한숨 돌리며 고블린을 끌어다 문구멍을 막았다. 바닥에 팽개쳐진 곡괭이를 주워 들고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갔다. 긴장하며 문을 열었지만 안은 복도와 사정이 비슷했다.

벽에는 말라버린 풀 다발이 걸려있고, 벽난로 앞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다. 러그로 추정되는 천은 다 삭았고, 방 가운데 바닥은 무너져 있기까지 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곳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곳에서 특별한 게 있다면 무너진 바닥을 뚫고 자라난 작은 묘목뿐이었다.

“여기에 곡괭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없잖아!”

보면 모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곡괭이는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간을 헤집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눈앞이 뿌옇게 변할 정도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아니라 복도인가? 복도에 있나?

만약 복도에도 없다면 밖으로 나가봐야 했다. 어쩌면 오두막 뒤에 기대 세워뒀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복도로 나가려다가 몸이 굳었다.

…잠깐만. 방 안에서 나무가 자란다고?

휙 고개를 돌리자 나폴 거리는 먼지 사이로 가느다란 나무기둥이 보였다. 회초리보다 더 얇은 가지에 붙어있는 건 분명 연두색 이파리였다.

“...!?”

묘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검을 허리에 차고 곡괭이로 바닥을 찍자 퍽하고 땅이 쪼개졌다.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다가 곡괭이로 찍으면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이런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어느 정도 땅을 파냈을 때는 흙이 너무 부서져 내려서 곡괭이를 던지고 손으로 파냈다. 손톱에 흙이 끼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미친 듯이 파내려가다가 검지가 딱, 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아!”

얼얼한 손가락을 몇 번 털어내고 그 주변의 흙을 퍼냈다. 송곳처럼 뾰족하지만 쇠가 아니라 나무로 된 날이 보였다. 허리를 세우고 힘주어 뽑아내는 순간 눈앞에 다시 한 번 싱그러운 숲 속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진짜...”

여신의 곡괭이야? 이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신기하고, 손잡이 부분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 것도 신기하지만 무려 여신의 물건이라기에는 여러모로 소박해보였다.

설마 가져갔는데 아니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불길한 상상이 떠올랐지만 이거 말고는 달리 가져갈 것도 없었다.

여신의 곡괭이를 들고 산장 복도로 나오자 문 앞에 세워뒀던 홉고블린은 사라진 후였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뱉으며 검을 다시 뽑았다.

여기에 왔을 때처럼만 하면 됐다. 설마 잔가지 몇 개가 부러진다고 곡괭이가 효능을 잃는 다거나…,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해 보자. 잔뜩 기합을 넣으며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플레...!”

레레레레...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텅 빈 들판에 퍼져나갔다. 그랬다, 텅 비었다. 산장 주위를 빼곡하게 채우던 가시덤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고난과 역경의 장소가 순식간에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었다. 분명 좋은 일인데 변화가 지나치게 극적이다 보니 경계심부터 차올랐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한동안 굳어 있다가 불현 듯 머리를 흔들었다. 설기가 물기를 털어냈던 것처럼 격하게 흔들고 나서야 시야가 한 번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역시나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슬레인의 입구고, 가시덤불은 사람을 잡는 마물이라 했다. 게다가 우연히 들었던 얘기지만 오닉경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했다. 무슨 사이비교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다들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윽!”

하지만 쓰러진 사람의 곁으로 가기도 전에 도로 뒷걸음질 쳤다. 악취가 엄청났다. 오크족장과 있을 때면 후각이 마비될 때까지 견뎌야 했던 냄새였다.

이런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돌아갔던 고개를 힘겹게 돌렸다. 눈에 힘을 주고 보자 역시 시체였다. 남자였고, 입고 있는 옷이 삭아있었다. 허벅지를 찔린 건지 바지에 구멍이 뚫려있지만 핏자국은 없었다.

진동하는 악취가 무색할 정도로 시체는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피도 없고, 벌레도 없고, 썩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장도 없었다.

천천히 시선을 올리다가 텅 빈 가슴 한쪽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 시선을 돌렸다. 눈길이 닿는 곳에도 쓰러진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비교적 옷과 머리카락 상태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살폈다. 표현이 좀 그랬지만 이제 막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넷이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옷이 멀쩡한 사람이 다섯이었다.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다친 부위도 달랐지만 심장이 없다는 건 똑같았다.

후각은 어느새 마비됐지만, 속이 울렁거렸다.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지만 전부 죽어있었다. 구토감이 올라왔을 때 참지 않고 그냥 속을 비워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시체를 목격한 충격, 공포도 있겠지만 무언가 달랐다. 과하게 들이킨 카페인에 쿵쿵쿵 뛰는 심장처럼 기분 나쁘고 불안했다. 느낌 탓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몸에서 없어진 피를 전부 땅이 머금은 양 불그죽죽해보였다.

분명 뭔가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자꾸만 무슨 소리가 들렸다. 몸을 일으키자 멀리서 팔을 흔들고 있는 오크병사가 보였다.

취이익!

내가 쳐다보자 팔 동작이 더 커졌다. 다급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날 부르는 오크병사의 얼굴은 아주 괴로워보였고 동시에 아주 기뻐보였다. 눈물로 뺨을 흥건하게 적신 가여운 오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가시덤불이 없어진 들판은 시체 말고는 발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기에, 뛰기도 좋았다. 그래. 분명 가시덤불이 없는데. 어째서 심장은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뛰는 걸까?

처음에는 오크병사의 뒤를 따라 달렸다. 하지만 곧 숲이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역시 이상한 표현이었지만, 숲은 버티고 있었다.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활짝 몸을 벌리고 그 상태로 있기 위해서 바르르 떨며 힘겹게 버텼다. 그래서 오크병사를 제치고 앞으로 나갔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채찍처럼 뺨을 스쳤지만 그 덕분에 잡념을 날릴 수 있었다.

얼마 달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무 사이로 오크족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온몸으로 돌진해오는 짐승들을 막아내고 있던 오크족장이 날 보고 울부짖었다.

“달려라! 그대로 달려서 제단을 부숴다오!”

오크족장의 눈이 형형하게, 고통스럽게 타올랐다. 그 시선을 받아들이며 곁을 지나쳤다. 곳곳에서 짐승들을 막고 있던 오크병사들의 눈물들도 잘 보였다. 가장 선두에서 짖고 있던 설기가 뒤를 돌아 꼬리를 흔들었다.

달려오면서 검은 도로 허리에 찼다. 그리고 양손으로 가느다란 나무기둥을 움켜쥐고 위로 높게 치켜들었다.

검은연기가 발악하듯 부피를 키웠다. 하지만 아직 이었다. 지금 곡괭이를 내리찍으면 제단이 아니라 연기만 가를 테고, 다시 팔을 들었을 쯤엔 연기에 삼켜질 것이다.

그때 뒤로 빠졌던 설기가 다시 달려들었다. 새하얀 강아지를 피하듯 연기가 주춤하며 갈라졌다.

“설기야, 됐어! 뒤로 가!”

드디어 제단이 보였다. 연기가 자욱한 주변과 다르게 제단 위는 멀쩡했다. 제단의 한가운데, 다른 곳보다 한 단 더 높은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기야. 저길 내리찍어’

귓가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 것도 같다. 별다른 도약도 없이 제단 위로 올라갔다.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던 곡괭이를 있는 힘껏 아래로 내리찍었다.

나무로 된 곡괭이가 돌을 찍는 순간 잠깐 ‘망했다’란 생각이 들었다. 곡괭이가 부서지지도, 돌이 갈라지지도 않았다. 다시 한 번 내리찍기 위해 곡괭이를 들려는 순간이었다.

쩌억

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리고 새카만 바닥에 금이 갔다. 갈라진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터졌다. 하늘의 태양처럼 찬란한 금빛이었다.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 없는 눈부심에 얼굴을 가렸다. 곡괭이를 놓치고 뒤로 물러서다가 손바닥마저 뚫고 들어오는 빛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적이 흐르고 곧 귀가 먹먹할 정도로 엄청난 돌풍이 불었다. 신기한 건 모든 걸 찢어발길 것 같은 날카로운 바람 한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였다.

돌풍이 서서히 멎었다. 마침내 음소거가 풀린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보이는 건 산장에서 보았던 환상이었다.

거기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를 정오의 햇살이 채웠다. 앙 팔을 활짝 벌려도 끌어안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나무는, 자신이 대신 안아주겠다는 듯 아늑하게 품을 벌리고 있었다.

눈을 깜박여도 사라지지 않는 풍경에 점점 입이 벌어졌다. 성공했다. 성공한 거였다!

“이거 봐봐! 성공한 거지? 성공한 거 맞지?”

뒤를 돌자 못 박힌 듯 제자리에 서있던 오크족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가 움직일 때마다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힐타 괜찮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앞으로 다가오는 오크족장의 피부에 혈색이 돌고, 코를 찌르는 악취대신 흙냄새가 났다.

“저주가 풀린 거지!?”

“그렇다. 숲이 안식 돌려줬다. 이 은혜 절대 안 잊겠다.”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에 주춤 물러났다. 손을 저었지만 거인의 커다란 머리통은 올라올 생각을 안했다.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고맙다.”

“알겠다니까... 그, 숲! 숲이 안식을 돌려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른 데로 말을 돌렸다. 다행히 오크족장이 허리를 세우고 순순히 대답했다.

“우리 숲 못 지켰다. 힐타 화났다. 숲지기들 안식 뺏었다.”

“저주를 건 게 마왕의 사도들이 아니라 숲이었다는 거야?”

“저주이다? 아니다. 형벌이다. 하지만 숲 우리 지켰다. 그리고 이제 안식 허락했다. 죽을 수 있다.”

아아,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상함에 멈칫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오크족장이 더 빨랐다.

“내 이름 받아다오.”

“뭐?”

“나는 '힐타'의 숲지기.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 지킨 위대한 우차라의 마지막 전사 으라차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다. 학살자 준다. 받아다오.”

“그, 그래. 고마워.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꼭...”

“고맙다.”

오크족장 으라차가 웃었다. 활짝 웃느라 올라간 광대를 따라 굵은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렀다.

“제대로 보답 못한다. 미안하다.”

“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준 거잖아.”

“그렇지만... 마지막 부탁 있다.”

“마지막이라니. 그…, 렇게 말하지 마.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양손을 꽉 잡으며 물었지만 오크족장은 미안하다는 얼굴로 웃을 뿐이었다.

“나 죽는다. 하지만 기다렸다. 반려 만난다. 그래서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갑자기? 그러지마. 내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이미... 나 괜찮다. 울지마라.”

무릎 꿇고 앉아있던 오크족장의 몸이 천천히 허물어져 내려갔다.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안 돼... 이렇게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 눈앞의 거인이 정말로 행복해보여서 더 슬펐다.

“나중에 혹시 힐타 온다? 오면 민들레 한 송이 이 자리 심어다오. 노랗고 예쁜 꽃 안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환하게 웃는 오크족장의 입부터 코, 눈, 눈썹, 이마까지 전부 부스스 무너져 내렸다. 이제 눈앞에는 딱 오크족장장의 크기만 한 거대한 흙무덤만 남았다.

“이게...”

뭐야.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흙무덤이 맥없이 흩어지자 울음은 더 커졌다. 발밑에서 낑낑 우는 설기를 껴안고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몸을 세웠다.

숲은 여전히 비이상적으로 울창하게 자라나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간간히 드리운 햇빛이 평화로움을 더했다. 하지만 그 풍경 속 어디에도 오크병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무슨 정신으로 그리 향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크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아. 아아아...”

공터를 따라 얕게 파뒀던 구덩이들. 오크병사들의 잠자리라 생각했던 그 구덩이들이 전부 봉긋하게 변해있었다. 구덩이를 채운 흙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한순간에 무덤으로 변한 마을의 한복판에서 서럽게 울었다. 이렇게 죽어버린 오크들이 너무 불쌍했다.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무덤으로 쓸 구덩이 아래서 잠이 들었을까.

끼이잉 끼잉

설기가 계속 턱 끝에 고인 눈물을 핥았다. 설기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고였던 눈물이 또 후드득 떨어졌다.

“설기야아...”

쾅!

설기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커다란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난 곳을 보자 멀리서도 보일만큼 길쭉한 토네이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사라졌다.

저 스킬, 아니 저 마법을 알고 있다. 리치가 된 로니가 쓰는 공격기였다.

“해로인...”

눈앞의 일들에 정신이 팔려 새까맣게 잊고 있던 남자가 떠올랐다. 설기가 아프지 않게 턱을 물었다.

멍! 멍멍!

“으응. 응. 가자.”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길을 안내해 줄 오크도 없지만, 없어도 괜찮다. 게임 속에서 수십 번을 갔던 곳이었다. 그러니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죽으면 안 돼. 더 이상 아무도 죽지 마. 기도하듯 간절히 빌며 뛰었다. 메마른 땅, 거기에 있을 해로인을 향해.

메마른 땅.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마물의 영역. 그곳의 주인인 초록슬라임에 둘러싸여 고전하고 있던 해로인도 숲의 술렁임을 느꼈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의 어린 것이었다.

가방을 건네주며 무언가를 호소하던 눈빛, 마지못해 그를 배웅하던 짧은 앞발. 생각할수록 마음이 급해졌고, 그건 곧 실수로 이어졌다.

성급하게 휘두른 칼에 슬라임이 반으로 잘렸다. 문제는 힘이 너무 들어갔던 탓에 파편이 튀었다는 거였다.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자 새카만 물웅덩이와 한발자국도 채 남지 않았을 만큼 가까워졌다.

처음, 웅덩이를 찾는 건 쉬웠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크기의 못이 하나 있고, 그 주위를 슬라임이 배회하고 있었다. 새카맣게 변한 물은 색도 탁하고, 그 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해로인은 바로 나무통을 물에 담갔다. 그를 인식하자마자 멧돼지처럼 돌진해오는 슬라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 몸을 틀었을 때였다. 수면 위로 드러난 나무통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

이게 무슨. 순식간에 반토막 난 통을 보고 멈칫하는데, 갑자기 수면이 일렁였다. 크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 몸에 익힌 생존본능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웅덩이에서 넘친 물이 조금 전까지 그가 서 있었던 자리를 적셨다. 바닥에 떨어트린 나무통은 물에 젖는 게 아니라 녹아버렸다. 물살을 가르며 기어 나오는 건 초록슬라임이었다.

슬라임 들어간 물 필요하다

오크족장의 설명은 정말로 말 그대로였다. 다만 그 몬스터도 물 자체가 이미 산성을 품고 있다는 건 몰랐던 거다. 그는 차오르는 짜증을 누르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화를 내고 있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슬라임들이 빠른 속도로 몰려들고 있었다. 어제 밤 몇 시간에 걸려 완성한 수레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때부터 해로인은 옴짝달싹 못하고 슬라임을 상대해야 했다.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핵의 위치만 안다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몬스터였다. 하지만 베어낸 것 이상으로 밀려드는 숫자와 산성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게다가 슬라임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를 물웅덩이로 몰고 있었다.

‘슬라임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아무리 마계의 마물이라 해도, 지능형 몬스터는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조종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게 훨씬 더 그럴싸했다. 빙벽보다 더 차게 얼은 벽안이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나왔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여기서 벗어나 어린 것을 챙기고, 숲을 빠져나가야 했다. 사악한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오크족장의 말이 떠올랐다. 마을에 가자마자 신전 측에 알리고, 다시 오겠지만 어린 것은 마을 안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도 모를 만큼 아늑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끼곰은 인형처럼 작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솜 대신 피를 흘릴 것처럼 약했다. 그저 인형보다 무게가 더 나갈 뿐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죽었을 작고 연약한 짐승. 언제라도 기회만 된다면 도망치겠다고, 순진하게 그런 생각들을 전부 고스란히 내비치는 새카만 눈동자.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속내가 아니라, 어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이는 특별한 힘이었다. 왜 오크 우두머리는 손가락 하나라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작은 짐승에게 학살자라, 전사라 할까.

어린 것은 여전히 그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봤다. 까만 눈동자가 온전히 그만 바라보게 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다.

오늘따라 속내가 복잡했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러는 중에도 몸은 착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쪽 팔로는 쉼없이 칼을 휘두르며, 다른 손으로는 로브를 끌러냈다. 그리고 그걸 슬라임의 위로 던졌다.

탐욕의 마왕이 탐욕을 모양으로 형상화 시킨 마물.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먹어야 하는 슬라임들의 주위가 로브로 향했다. 해로인은 그 틈을 타 머리 위에 있던 나뭇가지를 붙잡고 몸을 띄웠다.

슬라임의 산성에 뿌리부터 죽어버린 나무들은 크기만 클 뿐 단단하지 못했다. 조금만 힘줘도 뚝뚝 부러지는 가지들을 밟고, 땅에 곤두박질치는 대신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걸음은 보기만 해도 위태로웠다.

슬라임들은 해로인이 움직일 때마다 뚝뚝 부러져 떨어지는 나뭇가지들을 삼키며 그의 뒤를 쫓았다. 성난 멧돼지처럼 맹렬한 속도였다. 그런데 그런 마물들이 갈대밭이 나오는 순간 거짓말처럼 그를 뒤쫓는 걸 관뒀다.

평지에서 본격적으로 슬라임을 떨칠 생각을 하고 있던 해로인은 조금 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아 하아

가빠진 숨을 고르며, 잠깐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부상을 입은 곳은 없지만 어린 것이 준 건틀렛은 원래의 형태를 거의 잃었을 만큼 부식돼있었다.

어린 것에게 받았을 때만해도 딱히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너덜해진 꼴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어쨌든 그게 나름 생각해서 준 걸 텐데’

록시티르 황후가 어머니의 유품인 하프를 망가트려 그의 궁에 보낸 날. 그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잃었다.

비켜! 비키라고!

진정해, 응?

나보고 진정하라고? 내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 유품까지 부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죽일 거야!

…어, 마마마가 황후님을 죽이셨다는 증거는,

누님!

비명과 다를 게 없는 목소리에 황녀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정말 미안해, 미안해. 로인... 하지만 너한테도, 나한테도 끔찍한 그 사람이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널 가게 둘 수가 없어

그를 막은 황녀는 그날 저녁 황후가 빼돌렸던 유품을 전부 돌려보내줬다. 그리고 해로인은 그 모든 유품을 자신의 손으로 부쉈다. 그리고 황녀에게 보냈다. 동봉한 쪽지 하나 없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아주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느꼈던 물건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걸 소모재로만 여길 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머릿속은 어린 것에 대한 걸로 가득 찼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작은 의심도 들었다. 알고 보니 수인족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마물이었던가 하는 그런 의심.

실상은 이제 막 집사가 된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앓이’의 시작이었지만.

그때였다. 복잡해보이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냉정해진 벽안이 향한 곳은 정면, 땅굴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이었다.

“...?!”

막 고개를 빼낸 노인, 로니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란 눈을 해보였다. 그러고는 곧 심각한 얼굴로 주변을 경계하며 손짓했다.

“모습이 왜... 여기로 오시오!”

다른 사람이라면 볼 것도 없이 그 손짓을 따라 몸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로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서 오라니까!”

“...”

“어서…!”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그를 부르던 로니의 목소리가 점점 멎었다. 다급하던 표정은 무표정하게 변하고 고개가 천천히 기울어졌다.

“으음... 정말 안 들어올 거요?”

“...”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오.”

해로인은 말없이 거리를 벌렸고, 로니는 웃으며‘이미 늦었소’라고 말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구멍에서 빠져나온 노인은 여전히 평범해보였다. 아무 힘도 없어보였다. 그래서 말이 안됐다. 해로인은 노인이 인기척을 내기 전까지 근처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몰랐다. 분명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왜 여기로 안 들어왔소?”

“...”

“내가 못 미웠다거나... 그런 뻔한 걸 묻는 건 아니고. 혹시 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온 거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국의 황태자가 그만한 눈치도 없을까.”

열렸던 해로인의 입술이 다시 닫혔지만, 로니는 상관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칩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현 황제는 황태자도 아니었소. 그런데 그 황자가 황제가 되어 낳은 자식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참 시간이 빠르지 않소?”

“그보다 이런데 숨어사는 노인이 어떻게 날 알아봤는지가 더 궁금하군.”

“금발에 벽안이고, 고귀하게 생긴 청년이라 하니 바로 제국의 빛이라 말해주던데?”

“누가 말이냐.”

“나만 계속 대답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소?”

그리 말하며 웃는 얼굴은 여전히 선량했다. 부드럽게 휘어진 입매도, 따뜻한 눈빛도 모두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왜 안 들어왔소? 응?”

“네 말대로 제국의 황태자가 눈치도 없이 죽을 게 뻔한 곳에 들어가진 않겠지.”

“죽을 거란 느낌이 왔단 말이오? 정말 신경 써서 기운을 지웠는데 느껴졌소?”

“아무것도 안 느껴져서 이상한 거였다.”

로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헛웃음을 터트렸다.

“아아. 그렇지. 그렇겠어.”

숲 안쪽에서부터 불길한 바람이 불어왔다. 은근히 뒷덜미를 쓸며 신경을 긁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자니 눈앞의 왜소한 노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도망치기에는 늦었다, 라고 했지만 주변을 살펴도 함정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아, 나는, 음. 들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들었소.”

“여기에, 말이지.”

“조력자…라고 해야 하나.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소. 어차피 예서 죽을 텐데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겠소.”

“그건 네 놈의 생각이고.”

“아아. 살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요? 무리래도.”

로니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해로인이 그를 덮쳤다. 눈 깜박할 새 거리를 좁히고, 칼로 로니의 심장을 찔렀다. 급소를 찔린 노인이 놀란 것처럼 눈을 깜박이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거, 무리래도.”

“…네 놈. 정체가 뭐냐.”

“이미 다 알고 있잖소? 평범하게 탐욕의 마왕 팬치님의 부활을 꿈꾸는 늙은이가 말고 달리 뭐가 있겠소.”

로니는 가슴에 칼이 찔린 채로 태연하게 떠들었다.

“마지막 제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이 참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는데 기적처럼 그대가 나타난 거지. 고귀한 혈통이라면 마왕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것 같지 않소? 심부름꾼이 제국의 빛이라고 하는 순간 아, 이거다 싶었던 거야.”

해로인은 저 좋을 대로 떠드는 노인을 보다가 가슴에서 칼을 뽑아냈다. 마른 몸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뿐이었다. 신중하게 거리를 벌리는 해로인을 보는 로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피는 충분히 바쳤소. 결정적인 하나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것도 준비가 됐으니, 나도 움직여야하지 않겠!”

로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기라도 하는 양 숲속을 뚫어져라 노려봤다.

덩달아 숲을 쳐다보는 로니의 표정 역시 좋지 못했다. 숲이 심상치 않았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역동적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틀댐은 고통에 겨운 몸부림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한참동안 숲을 노려보던 로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앞의 해로인을 보고 있지만 시선은 좀 더 먼 곳에 둔 채 입술만 움직였다.

“막혔다…? 왜? 그분의 힘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연신 ‘막혔다’와 ‘어째서’를 반복해서 말하는 로니는 제정신으로 안 보였다. 아니, 그 표현도 양호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화약처럼 위험해보였다.

“루테의 황태자여.”

“건방지군. 네가 아무리 과거의 일을 틀어쥐고 있다고 해도 정도껏 하는 게 좋을 거다.”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 되는가? 황태자가 이리 어리석으니 제국의 앞날이 어둡구나. ...뭐, 그 앞날이란 게 올까 싶지만 말이다.”

로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히죽 걸린 웃음은 기괴하게도 점점 양쪽으로 벌어져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네게 기회를 줬단다. 마지막 제물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지도 모르게 편히 죽을 수 있게 배려했는데...”

입술은 어느새 양 볼을 가르고 귀 끝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데도 피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그 대신 뱀처럼 길어진 혀가 날름댔다.

“오크를 죽이러 갔으니, '슬레인'의 힘이 폭발할 때 같이 휘말리면 됐을 텐데 도대체 왜 여기에 있을까?”

“...”

“혹시 지금 폭발을 막고 있는 것도 그대의 수작인가? 아! 그렇다면 방금 전 한 말을 취소해야겠어! 역시 일국의 통치자가 될 재목이라 해야겠다. 그래. 그게 낫겠구나. 제물의 상태는 훌륭할수록 좋겠지!”

이제는 완전히 광인의 모습이었다. 혼자서 묻고 답하던 노인의 녹빛 로브가 확 부풀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곳에 하나하나가 칼날같이 날카로운 바람이 고이더니 그대로 왜소한 노인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으학, 악, 하하, 하악!

로니는 웃으면서도 비명을 질렀고, 비명이 멎는 틈을 타 웃었다.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해로인조차 신음을 삼킬 만큼 소름끼치는 장면이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옷이 찢기고, 살이 갈라졌으나 피는 나지 않았다. 몸을 내어주며 점점 허공으로 떠오르는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저 노인이 무엇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지금의 장소는 위험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할까. 해로인의 시선이 울창한 숲과 메마른 나무 사이를 오갔다.

하나는 숲이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생명을 앗아간 마물이 들끓었다. 어디로 향하든 최악과 차악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엄폐물 많은 숲이 낫지 않을까. 허나 저곳에는...

해로인의 몸이 움직였다. 그가 향한 곳은 수십, 수백의 슬라임이 도사리고 있는 메마른 나무 기둥 사이였다. 그리고 그에 맞춰 왜소한 노인을 난도질하던 바람도 그쳤다.

적막이 흐르는 공간에 홀라 남아 눈을 뜬 것은 심장을 숨긴 흑마법사, 리치였다. 눈꺼풀이 올라가자 드러난 건 새빨간 안광이었다. 얼굴부터 어깨까지는 다 찢어진 피부일지언정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가슴부터는 살점이 붙은 뼈와 뒤틀린 채 바짝 마른 장기가 고스란히 보였다.

시체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몸에 유일하게 생기가 도는 건 일렁이는 새빨간 안광뿐이었다. 고개가 움직일 때마다 붉은 잔상을 남기던 것이 해로인이 들어간 나무 사이로 고정됐다.

"하하하하"

입과 볼의 경계가 사라진 얼굴로 웃던 리치의 몸이 허공을 가로질렀다. 인간이 날개 없이 새처럼 날아올랐으나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주문을 영창 할 필요도 없고, 마력이 닳지도 않았다.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었으므로! 살아 숨 쉬는 것들의 피와 심장, 고통과 절망이면 됐다. 그렇게 바칠 제물이 세상에 온통 널리고 깔렸다.

아직은 '슬레인'이 완전히 폭발하지 못했고 그의 각성도 불안전했지만 어차피 시간문제였다. 그 때까지는,

"루테의 황태자. 어디까지 도망갈 셈이냐"

저 황족을 제물로 만드는데 집중 하자.

"소용없다하지 않았느냐"

찬란한 금발에 깨끗한 벽안. 그리고 핏줄에 타고 흐를 고귀함. 생각만으로 전율이 일만큼 최상급인 심장을 가지고 있겠지?

이보다 마왕께서 기뻐하실 제물이 또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심장을 숨기고도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마왕이 자신의 추종자를 축복했기 때문이다.

삼십년 가까이 몸을 숨기고, 인내하며 힘을 모으던 로니. 긴 시간동안 냉정하게 상황을 살피던 이성은 축복과 함께 사라졌다. 다른 것도 아닌 탐욕의 마왕 펜치(PENCH)의 힘이었다. 인간이 탐욕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데는 아주 잠깐이면 됐다.

해로인은 앞에서 꾸물대며 모습을 드러내는 초록슬라임과 등 뒤를 쫓는 괴물이 자신을 포위하듯 좁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앞을 가로막는 마물을 베기 위해 팔에 힘이 들어갔을 때였다.

"그만"

로니가 기묘한 음성으로 말했다. 슬라임들이 썰물처럼 물러났다. 달려들던 속도보다 더 빠른 물러섬이었다.

“역시 아까도 네가 슬라임을 조종한 거군.”

해로인의 말에 리치가 마치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은 것처럼 크게 웃었다.

"맞다. 그 역시도 네게 내린 배려였단다. 그냥 물속에 빠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아주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아주 잠깐일 뿐일텐데"

“개새끼보다도 더 잘 짖는구나.”

해로인은 건성으로 도발하며 다시 뒤돌아 달렸다. 그가 원하는 곳까지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그 뒤를 여유롭게 쫓던 리치의 몸이 돌연 솟구치듯 하늘 위로 떠올랐다.

"어, 어떻게!"

새빨간 안광이 꽂힌 곳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 저주받은 숲을 되살리고, 생명을 순환시킬 여신의 힘이었다. 저게 왜 저기에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만들었던 '슬레인'의 위에!

마치 자신을 엿보는 리치의 시선을 알아차린 것처럼 나무에서 한층 더 강력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왔다. 생명의 대척점에 선 괴물은 순간 힘을 잃고 땅으로 추락했다.

"여신의 신물을 찾았구나! 도대체 누가!?"

마왕의 힘에 오염된 숲의 주민은 숲지기를 습격해 신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는 훔친 신물을 숨기고 그 주변에 악마가 울타리 대신 쓴다는 올가미가시덤불을 깔아뒀다.

그가 직접 깔아둔 것이니 누군가 신물을 가져갔다면 분명 가시덤불을 통해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했다.

…루테의 황태자가 시선을 어지럽히지만 않았어도 분명 알았을 텐데.

땅에 처박혔던 몸을 세우자 간신히 붙어있던 피부가 갈라진 진흙처럼 떨어졌다. 그의 힘을 증폭시키던 제단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감히!"

분노로 눈앞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실제로도 새빨간 안광은 눈은 물론 눈썹이 있던 자리를 가릴 정도로 타오르고 있었다.

해로인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지는 살기에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땅바닥에 코가 눌릴 정도로 얼굴을 박아야 했으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간 돌풍은 눈앞의 모든 것을 베어내고 하늘로 솟구쳤다.

‘일을 너무 쉽게 생각 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회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만, 입 안이 썼다.

암흑기를 재림시키려 했던 마왕의 사도와 제단은 과거에는 큰일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는 이야깃거리에 불과했다. 해로인이 주목했던 건 바로 그 점이었다.

신성국에서 그토록 마왕의 사악함과 위험에 대해 강조하는데 어째서 기록물은 없을까. 신성국은 물론 제국의 역사서에도 남아 있는 기록은 몇 줄 되지 않았다.

결국 빛은 승리한다는 빈껍데기 서술밖에 남지 않은 성전과 역사서를 보고 해로인은 은밀하게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 역사서 편찬하는 일을 주관했던 이는 당연히 신성국의 인물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정확히 누구인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었다.

돈을 써가며 캐내 알아낸 것은 그 인물이 현재 신성국의 고위관직에 있는 자들 중 하나라는 뻔한 사실뿐. 허나 바꿔 말하면 록시티르 황후의 외가도 얼마든 그에 엮을 수 있다는 거였다.

그는 록시티르 황후나 마리화나 황녀가 눈치 채지 못하게 최선을 다했다. 조금의 방심도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그도 마음속으로 마왕의 사도를 이야깃거리쯤으로 여기고 있던 거였다.

또다시 날라오는 돌풍을 피해 몸을 굴리며 분노한 리치를 쳐다봤다.

"머리털은 다 뽑고 눈알은 까마귀밥으로 줄 것이다. 죽어서도 안식에 들 수 없는 악몽을 걸어주마"

저주의 말을 흘리는 노인은 더 이상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말할 때마다 피부며 장기를 흘려대는 모습에 역겨울 정도였다.

해로인은 아직까지 장기가 남아있는 가슴과 배 부근을 쳐다봤다.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겨우 정체를 알 수 있을 만큼 엉망이었다.

‘아무리 봐도 심장은 없는 거 같은데’

리치가 심장을 달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어쨌든 심장이 없으면 리치를 완전하게 죽일 수 없다. 하지만 몸을 완전히 녹여놓으면 잠깐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로인은 일부러 뒤에 있는 물웅덩이에는 시선도 주지 않으며 칼끝을 세웠다. 어떻게든 리치를 웅덩이에 빠트리고 그 사이 심장을 찾아 파괴해야만 했다.

"죽어라!"

물론 마법이 주무기인 괴물은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다. 해로인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세우자 다시 한 번 허공에 몸을 띄우며 거리를 벌렸다. 리치의 손끝에서 파괴적인 기운이 응축했다.

리치를 잡기 위해 물웅덩이로 향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충수가 되어 해로인의 숨통을 조였다. 이제 와서 몸을 피하기에는 늦었고, 마법을 되돌리자니 조금만 실패해도 몸이 찢겨 죽거나 아니면 마법에 떠밀려 물에 빠져 녹거나 할 터였다.

웅덩이를 뛰어넘는 건... 잠깐 거리를 가늠해봤지만 하나마나한 계산이었다. 작다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제국 수도의 커다란 분수대가 통째로 들어가도 남았다. 도움닫기 없이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었다.

‘이런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해로인이 호흡을 다듬고 로니가 힘을 다 끌어 모은 순간이었다. 긴박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명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깨트렸다.

“으아악! 화면에서보다 더 징그럽잖아! 웨엑!”

로니와 해로인 둘의 시선이 동시에 뒤로 향했다. 울어서 빨개진 눈과 코를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여자는 달려오던 속도를 줄이는 대신 더 박차를 가하며 해로인에게 소리쳤다.

“비켜! 앞에서 비키라고!”

순식간에 발도를 한 여자, 이림은 플레임을 쓸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검을 사선으로 들고 로니의 가슴이었던 갈비뼈을 꿰뚫었다.

당황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괴력이었다. 제대로 된 반항도 하지 못하고 뒤로 밀린 리치의 몸이 물웅덩이에 처박혔다. 물이 튀기 전 빠르게 몸을 뒤로 뺀 이림이 정신없이 해로인의 전신을 훑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었고, 옷과 방어구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멀쩡했다.

“다행, 윽, 다행이다.”

찔끔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안도하는 눈앞의 여자. 해로인의 벽안이 혼란스럽게 일렁였다.

생소한 복식의 옷차림과 허리께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 얼마나 험하게 달려온 건지 그 머리는 본래보다 2, 3배로 부풀어서 작고 새하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흔치 않은 새카만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특히나 눈동자가 그랬다. 동그랗고 순진한 눈망울. 눈동자만큼이나 새카만 속눈썹에 고인 눈물이 툭 흘러내리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걸 닦아줄 뻔 했다.

“…너...”

해로인이 답지 않게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여자의 뒤에서 튀어나온 강아지가 웅덩이를 향해 짖으며 돌진했기 때문이었다.

“설기야!”

여자는 잡을 틈도 없이 강아지를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해로인은 상황도 잊고 잠깐 얼어붙었다. 여자는 몰라도 저 흰 개는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그의 어린 것? 그의 작은 새끼곰이라고?

그는 어린 것이 인간으로 변한다면 당연히 어린아이의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자는 동안이기는 해도 분명 성인이었다.

“설기, 으악!”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자 솟구친 물기둥에 당하기 직전이 가느다란 몸이 보였다.

잠깐 그의 머릿속에 최악의 장면이 그려졌다. 물을 뒤집어 쓴 이림의 몸이 순식간에 녹아들어 가고, 유일하게 익숙하던 새카만 눈동자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갔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상상을 깨부수는 건 다급한 외침이었다.

“플레임!”

커다란 검이 공간도, 물기둥도 깨끗하게 베어냈다. 칼을 휘두름과 동시에 강아지를 낚아채듯 어깨에 얹고 그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뭐라 말할 틈도 없이 그의 팔을 붙잡고 달렸다.

“심장! 심장을 부숴야 돼!”

“너는 도대체,”

"으아아아!"

리치의 분노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깜짝 놀라 움찔하는 어린 것의 손을 마주잡으며 뒤를 봤다. 리치의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빛내고 있었다.

“아! 벌써 분노모드 들어가면 안…, 어?”

같이 뒤를 보던 이림이 말을 흐렸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커다란 나무기둥을 엮은 지붕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다가 잡힌다. 제대로 뛰어.”

“산장이…, 산장이 왜 이렇게 가깝지?”

“뭐?”

“저기 산장 말이야. 너무 가깝, 악!”

물러섰던 초록슬라임이 다시 튀어나왔다. 해로인이 반사적으로 팔에 힘을 줘 끌어당기려 했지만, 이림은 끌려오는 대신 엄청난 속도로 슬라임을 베어냈다.

“비명은 왜 질렀지?”

“그야 놀랐으니까...”

빛을 머금어도 새카만 눈동자가 파르르 흔들렸다. 눈치를 보는 여자의 얼굴 위로 어린 것의 모습이 잠시 겹쳤다. 해로인은 발밑을 노리고 달려드는 슬라임을 베며 물었다.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하려하지 않았나?”

“아! 산장!”

“오크가 말했던 산장을 얘기, 멈추지 말라니까.”

또다시 걸음이 느려지려고 했다. 해로인은 손을 높고 대신 팔목을 잡아당겼다.

“역시 가봐야 할 거 같아.”

“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

“산장 말이냐? 도대체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게... 그쪽 강하지? 나무통도 번쩍 들고, 몬스터도 한방에 죽이고... 어?”

질문을 했더니 대답대신 엉뚱한 질문이 돌아왔다. 해로인은 표정을 찌푸리다가 왜인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이는 얼굴에 움찔했다.

“…강해.”

“얼마만큼?”

“왜 그런 걸 물어?”

“아, 좀! 얼마만큼 강하냐고!”

다그치는 목소리와 다르게 동그란 눈동자는 걱정과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건 새끼곰일 때나 인간일 때나 똑같았다.

“검 실력만으로도 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대답이 됐나?”

“그럼, 우리가 갔었던 땅굴 있잖아. 저 리치의 집. 쟤가 처음에 나 눕히려고 했던 단 기억 나?”

“난다.”

“거기 안에 심장이 있을 거야. 그걸 부숴줘.”

“거기에 그게 있다고?”

이림이 숱하게 깨려다 실패했던 보스전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아주 드문 확률을 제외하면 로니는 자신이 만든 제단 안에 심장을 숨긴다고 나와 있었다.

“응! …아마도? 거의 거기에 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는데?”

“지금 설명하려면 길어! 내가 어그로를 끌 테니까 최대한 빨리 부숴야 돼. 알겠지?”

‘어그로’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이해했다. 어린 것이 그 괴물과? 절대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말리기도 전에 이림이 움직였다.

“설기도 같이 부탁할게! 조심해!”

그의 품에 떠넘겨진 강아지가 버둥댔다. 팔을 뻗었지만 어린 것이 아닌 허공만 스쳤다.

“서둘러야 돼! 나 발컨이라…, 어쨌든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어!”

“그럼 가지마! 당장 멈춰!”

그럴 순 없었다. 분노모드가 시간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도 더 세졌다. 적어도 게임에서는 그랬다. 이걸 구구절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가지 말라고 부르는 얼굴이 어쩐지 절박해보여서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달리면서도 뒤를 보며 힘껏 외쳤다.

“안…죽을게! 열심히 버틸 테니까 빨리 와야 돼!”

어린 것이 잡을 새도 없이 리치를 향해 달려갔다. 해로인이 이를 악물며 욕을 삼켰다.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간 어린 것에게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그걸 붙잡지 못한 자신에 대한 화가 더 컸다.

지금이라도 이림과 함께 리치를 상대할까. 하지만 심장을 부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어린 것이 하고, 자신이 리치를 상대하면 되는 건데!

“빌어먹을!”

결국 잇새로 욕이 새어나갔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땅굴로 향해야 했다. 깽알대며 버둥대는 개를 단단하게 움켜쥐며 해로인이 이를 갈았다.

목줄을 채운다고 했다. 우리에 가두겠다고 했다. 분명 경고했으니 울면서 잘못했다 빌어도 확실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린 것이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걸음을 옮기는 얼굴이 흉흉했다. 예술작품처럼 붓으로 그려낸 듯 잘생긴 얼굴이 지금은 야차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냥 북쪽으로 가서 시랭후작을 포섭해야 했다. 근거 없는 직감을 뒷받침할 증거 따위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작고 연약한 새끼곰은 제단 위에서 게밍교의 신도에게 붙잡혀 제물이 됐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살의가 치솟았다.

냉정해야할 속이 뜨겁게 들끓었다. 마음을 대변하듯 거칠어진 손속으로 앞을 막는 것을 전부 치워냈다. 땅굴에 가까워질수록 해로인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슬라임이 피를 흘리는 몬스터였다면, 이미 마른 땅에 빨간 선혈이 낭자했을 것이다.

‘저기에는 심장이 없다’

땅굴 앞에서 확신이 섰다. 심장이 여기 있다면 어린 것이 아닌 자신을 뒤쫓았어야 했다. 아무리 강력한 보호마법을 걸어 놨다 해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건 만약이란 말 때문이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저기에 심장이 있다면. 그렇다면.

왈왈!

해로인이 혹시 모를 함정을 대비해 안을 살피는데 설기가 짖으며 그를 재촉했다.

“...”

품에서 짖고 있는 강아지를 보는 눈이 차가웠다. 아까도 이 개 때문에 어린 게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소중한 뜻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 생각하니 기분은 더 나빠졌지만, 어쨌든 그 무엇보다 유용한 인질이었다.

안은 난장판이었지만, 이림이 말했던 단 주변만큼은 깨끗했다. 해로인은 바닥을 뒹굴던 나무그릇을 들어 단 위로 던져 반응을 살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 다음은 나무의자를 잡고, 망설임 없이 단을 내리쳤다.

원래라면 돌로 된 단이 아니라 나무의자가 박살나야겠지만, 몸을 단련한 이가 힘을 실어 내리친 한방이었다. 돌의 파편이 튀며 그대로 깨져나갔다.

“안이…비었군.”

텅 빈 공간에는 작은 상자 하나와 수식이 복잡하게 들어간 마법진 뿐이었다. 해로인은 상자를 챙기고, 주위를 둘러봤다. 딱 좋은 길이의 빗자루가 보였다. 빗자루로 마법진을 쓸자 불꽃이 튀었다. 빗자루를 불쏘시개 삼아 점점 커지는 불덩이에 의자까지 던져주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불길에 휩싸이기 전 땅굴에서 빠져나온 해로인은 산장을 향해 달렸다.

"…제단을 부… 하지만 소용 없… 나는 이미 마왕님의 힘을…"

멀리서 로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가자 크기만 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허름한 나무오두막이 보였다.

“그것도 이미 봤던 멘트거든! 똑같은 말 그만 하라니까!”

"죽이겠다!"

날카로운 돌풍 세 개가 순식간에 앞으로 내질러졌다. 으아악, 요란한 비명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돌풍이 사라진 후에도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이림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었다.

“이, 이번에는 진짜 터트릴 거야! 찌를 거라고!”

"강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지? 정신머리가 약해 빠진 것을. 너는 절대 내 심장을 찌르지 못할 것이다. 찌르는 순간의 그 느낌과 흘러내릴 피를 감당할 자신이 있나?"

“…에이씨! 왜 심장만 살아 있는 건데!”

말투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가벼웠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림은 펄떡대며 뛰는 심장을 끔찍하다는 얼굴로 내려봤다.

로니의 이목을 끌었고, 산장까지도 잘 끌고 왔다. 어쩐지 순순히 따라온다 싶더니 심장이 여기 있었다. 드문 확률로 다른데 있다더니, 그게 설마 산장 근처의 땅속일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리치의 공격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땅을 할퀴던 돌풍 때문에 심장이 드러났다. 기적 같은 우연이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 심장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건가봐. 이림은 볼 것도 없이 심장을 찌르려고 했다. 신체에서 떨어져 나왔음에도 펄떡대는 장기는 빨갛고 징그러웠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작아서 눈을 딱 감고 찌르면 될 것 같았다.

안 돼!

그런데 심장에 칼을 박으려는 순간 보호마법이 발동됐다. 사실 그것도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술 수 있었을 텐데, 이림의 행동을 막은 건 고통스러워 하는 로니의 모습이었다.

‘찌르면…죽는다’

로니를 죽여야 자신과 설기 그리고 해로인이 살았다. 저 자식 때문에 숲속의 오크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공터를 따라 생겨난 수십개의 무덤과 그런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간 으라차. 그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죽이는 게 맞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살인. 20년 넘게 나쁘다, 끔찍하다 배워온 단어가 이림의 팔목을 움켜잡았던 것이다.

짧은 대화로 금세 상황을 파악한 해로인이 심장을 찾았다. 심장은 이림의 바로 앞에 놓여있었다.

듣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았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아야 했고 어린 것의 정체도 궁금했다. 몬스터들이 학살자나 전사라고 할 때는 헛소리 취급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다. 다시는 멋대로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혼도 내야했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해로인은 숨까지 참으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아…!”

해로인의 움직임을 눈치 챈 이림이 움찔하고 놀랐다. 그대로 리치의 관심까지 끌게 되면 일이 다시 어려워질 터였다. 하지만 이림은 해로인을 쳐다보는 대신 리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심장은 못 찔러도 넌 팰 수 있거든!”

"소용없다고 했을텐데!"

“언제까지 회복할 수 있나 보자!”

이림이 리치에게 달려드는 순간 해로인도 그들을 지나쳐 심장을 향해 질주했다. 엇갈리면서 잠시 어린 것과 시선이 마주친 것도 같았다.

"안!"

으아아!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이림은 끝끝내 찌를 수 없었던 심장을 해로인은 그대로 발로 짓밟아 터트려버렸다.

피와 살 대신 리치의 몸을 지탱했던 마왕의 힘이 연기로 화해 사라졌다.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은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허무하게! 배신자에게 복수도 못했는데"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지지부진하게 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끝나버렸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이림이 어깨에서 힘을 빼며 기운 빠진 웃음을 토해냈다.

“그래도…어떻게 다 클리어하긴 했네...”

뒤돌아선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급격히 몰려드는 피곤에 눈 밑도 새카맸다. 빈말로도 보기 좋은 얼굴이 아니었지만, 말려 올라간 입꼬리에서 어쩐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둘은 대략 10m정도 떨어져 있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다. 이림이 다가오려는 것처럼 발을 뗐다가 비틀대는 순간 굳어있던 해로인의 발이 움직였다.

“거기 있어. 내가 가겠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두발자국 걸었을 때 이변이 벌어졌다. 이림의 뒤로 빛무리가 생겨났다.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빛이었다.

반사적으로 질끈 눈을 감았는데, 이림의 비명이 천둥처럼 내리 꽂혔다.

“이게 뭐야! 싫어! 해로인!”

“...!”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림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해로인은 다시 한 번 입을 벌렸고 얼굴이 천천히 절망으로 물들어 갔다.

그는 이 순간 불러야 할 어린 것의 이름조차 몰랐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만 두 개. 최소한으로 갖춘 가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방. 그들이 모인 곳은 여신의 두 번째 종, 교황 유다의 처소였다.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교황 유다 감마, 수려한 외모와 달리 북풍한설처럼 냉기를 흘리고 있는 국무원장 에드마오 카를,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비샤 다우트 추기경.

이 작은 방에는 신성국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셋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 침대에 누워 죽은 듯 잠들어 있는 김이림이 그 마지막 한명이었다.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것 같은 숨소리가 아니었다면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길 만큼 파리한 모습이었다. 이림이 신성국으로 온지 만으로 하루가 지났다.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기절했고, 회복시키기 위해 걸었던 치유의 힘은 의도와 다르게 그녀를 사지로 내몰았다.

뒤늦게 그들은 여자의 몸에서 느껴지는 여신의 흔적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달았다. 모두가 당황해 있을 때 에드마오는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건 우리 셋뿐입니다. 기다렸던 성녀가 아닌 것은 아쉬우나, 괜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림의 존재를 그대로 묻자는 뜻이었다. 그 말에 멍하던 유다의 녹안에 초점이 잡혔다.

‘여신께서 잠드신 후, 오로지 발현되는 신성력으로만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그분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습니다. 이백 년만의 일이에요.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 허나, 근래 들어 예배에 오지 않는 신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신께서 역사하신 증거라 해도, 저주받은 이를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신도들이 믿음을 잃는 이유는 여신께서 실존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연약해진 믿음을 단단하게 할 거예요’

의견은 좀처럼 모여들지 않았다.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으니 대립은 점점 첨예해져 갔었다. 보다 못 한 비샤가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며 자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과를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저녁. 셋은 다시 모였다. 생각할 시간을 가진 덕에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만 늘었다. 결국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언성이 높아지는 일은 없었지만 격렬했다. 한차례 공방이 오가고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내내 냉정하던 에드마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성하…, 아니 유다. 이쯤하지 그러나.”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믿음을 가볍게 본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대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어투였다. 사실 어렸을 때 이후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을 편하게 해본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았다.

교황인 유다의 가문인 감마와 국무원장인 에드마오의 가문인 카를. 이 두 가문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대립하기 시작한 지 벌써 백년이 넘었다. 척을 진 이유는 두 가문 다 교황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스트윙에서 가장 먼저 신전이 세워졌다는 땅, 화이트. 이곳의 통치자라하면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성스러워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다. 신께 받치는 헌금은 조금만 쓰임새를 달리하면 재물이 되었고, 기꺼이 신께 일생을 바치겠다며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교황은 본래 여신의 두 번째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에 교황은 화이트의 통치자였다.

감마가문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세대의 승리자였다. 유다 가 교황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황이 된 이후 그의 행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교황의 자리에 있는 동안 경쟁자인 카를 가문을 무너트리고, 교황을 배출해내는 유일한 가문이 되도록 힘써야했다. 절대군주가 되기 위해 애썼던 선대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는 대신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신의 말씀을 쫒으며,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목표로 삼았다.

감마에서 꽤 괜찮은 수를 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정면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지 않나

사람들은 유다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카를을 무너트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카를의 세력은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었다.

자신과 비슷하다 생각했던 경쟁자의 파격적인 노선변경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에드마오는 그게 유다의 정치가 아니라 진심인 건 의심하지 않았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했으니까.

“성직자들은 네 말대로 이 여자를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일반인들은 달라. 그들에게 중요한 건 몇 백 년 만에 여신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다.”

“하지만,”

“구원을 바라는 이들에게 저주받은 여자를 보여주자고? 지금 네가 하려는 건 신도들을 시험에 빠트리는 것밖에 안 돼.”

에드마오는 유다의 말을 막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는 비샤를 끌어들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림의 안색을 살피던 비샤가 한숨을 쉬며 시선을 들었다. 이십 년 전 처음 봤을 때는 똑똑하고 귀여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고집밖에 남지 않은 아저씨들이 되어 스승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이놈들아. 어디까지 갈 셈이냐!”

제자들 중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어 이럴 때면 그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 저절로 목소리가 커졌다.

“교수님?”

“네놈들은 이제 생명조차 쓸모로만 따질 셈이야? 응?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따위 말만 하고 있을 셈이냐고!”

비샤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이가 들며 아래로 처졌던 눈꺼풀이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다.

“이 사람을 내 사택으로 데려가겠다. 신성력이 독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성전에 있으니 몸이 회복될 리가 있나.”

“교수님 그건,”

“둘 다 입 다물어! 내 어디까지 하나 들어볼 셈이었다. 당사자 의견은 구하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꼴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앞에 있는 게 성직자들이 아니라 시정잡배인 줄 알았어.”

나이든 노인이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니 당장 숨이 넘어갈 것처럼 거칠어졌다. 본인도 그걸 알았는지 잠시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다가 기어코 욕을 덧붙이고 말았다.

“못난 놈들.”

그렇게 이림은 비샤의 사택으로 옮겨지게 됐다. 그리고 그게 그녀가 게임과 다르게 엉뚱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된 일의 별 거 없는 전말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잤던 거 같다. 최고로 오래 자본 게 28시간인데, 그때보다도 훨씬. 눈을 뜬지는 꽤 됐는데 몸에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온몸의 뼈가 쑤셨다.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는 동안 행복회로도 돌려봤다.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하는 행복한 상상. 하지만 눈동자를 돌려 방안을 파악해 나갈수록 덧없어졌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장작이 타고 있는 벽난로 하나만 봐도 절대 자취방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여기는 어디일까.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봤다. 로니가 죽고, 해로인이 뭐라 말하며 다가오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팔이 잡아당겨졌다. 기억나는 건 팔을 잡은 손이 아주 차가웠다는 것뿐 이었다.

“…으...”

소름끼치던 냉기에 어깨며 뒷목이 오싹해졌다. 몸을 부르르 떨다가 좀 더 머리를 굴려봤지만 그게 끝이었다. 눈이 엄청 부셨고, 제대로 앞이 보이기도 전에 정신을 잃었다.

역시 게임 때처럼 성기사들한테 잡혀 온 걸까? 그렇다면 여기는 감옥? 하지만 창살이 없는데? 그런데 나 지금 왜 감옥이 아니냐고 고민하고 있네?

난데없이 머리를 강타한 깨달음에 실없는 웃음만 나왔다. 으허허, 허허. 내 인생 진짜 실화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마른세수를 몇 번 더 하고 몸을 일으켰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돌았지만 못 움직일 정도도 아니었다.

일단 여기가 어딘지 부터 파악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해로인과 설기를 찾고, 또...

“꺄악!”

침대에서 완전히 빠져나옴과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던 여자가 들고 있던 세숫대야를 놓치며 소리를 질렀다. 비명소리, 철 세숫대야가 깡하고 떨어져 시끄럽게 뒹구는 소리, 멀리서부터 “왜? 무슨 일이야?”하고 크게 묻는 소리. 사정없이 고막을 강타하는 큰소리에 머리를 움켜쥐었다. 술 마신 다음날 느끼는 두통과 비슷한 고통이었다.

“소, 소리 좀...”

몸을 일으킨 지 1분 만에 다시 침대에 앉았다. 머리가 핑핑 돌았다.

“깜짝 놀라서…,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많이 놀랐죠?”

“괜찮…은데, 목소리 좀 조금만 낮춰 주시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여자가 들어오느라 반쯤 열려있던 문이 활짝 열렸다. 들이닥치듯 방안에 들어오던 노인이 발밑에 있던 세숫대야를 걷어찼고 또다시 깡깡깡, 쇳소리가 자비 없이 울려 퍼졌다.

“세상에! 눈을 떴어!”

“제발 소리 조금만 작,”

“올라야! 당장 치료사를…, 아 네가 치료사지? 어떤지 당장 진찰을,”

“그마안!”

소리를 질러놓고 댕댕 울리는 머리에 괴로워 몸을 비틀자, 조심스럽게 다가온 여자가 목과 어깨를 주물러줬다.

“긴장 조금만 풀고, 천천히 숨 골라요.”

“올라야,”

“쉿! 교수님은 찬물 좀 가져다주세요.”

목덜미를 주무르는 차가운 손에 흠칫했던 것도 잠깐이었다. 뭉친 부위를 정확하게 누르는 손길이 조금씩 두통을 완화시켰다.

“자, 일단 침대에 다시 누울까요? 혹시 화장실이 급한가요?”

“아니요...”

“그럼 진찰부터 받고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아, 목소리는 어때요? 지금도 커요?”

“아뇨. 이제 괜찮아요.”

“그럼 계속 이정도 크기로 말 할게요.”

부축을 받아 다리까지 올리고 누웠다.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하고, 꼼꼼한 손길로 몸 이곳저곳을 눌러보는 여자는 적어도 마흔은 넘은 것처럼 보였다.

“두통 말고 또 아픈 데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머리랑 몸 다 무겁지 않아요? 허리도 아플 테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많이 어지러웠을 텐데.”

“...네.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제가 기절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깜짝 놀라서 묻자 고동색 눈동자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다들 그래요. 제 때 밥 챙겨먹고 움직이다보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걱정 말아요.”

“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혼자서 몸 일으키려고 하진 말고요. 어지럽고, 몸에 힘도 없을 때라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조근조근 이르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물었다.

“저기, 그런데요. 제가 오래 기절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교수님이 데려오셨을 때가 정신을 잃은 지 이틀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닷새 만에 눈을 뜬 거네요.”

“…오, 일 이요!?”

“네. 하지만 그런 것치고 몸 상태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해요.”

“오 일이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만큼 쉼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예요.”

별 일 아니었다는 듯 차분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겁먹고 불안해하던 마음을 달랬다. 물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오 일이었다. 정말은 괜찮지 않았던 게 맞지만, 그녀는 내가 스프를 다 비우는 걸 보고 나서야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다 듣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한테 설명 들으면 될 거 같아요.”

여자, 올라가 뒤에 있던 노인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내가 밥 먹는 내내 부산스럽게 굴다가 방에서 한 번 쫓겨났던 노인은 할 말이 많다는 얼굴이었다.

“내가 아가씨를 처음 본 게 아가씨가 정신을 잃은 지 이틀 째 되던 날인데, 그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맥도 약하고, 자극에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왜 쓰러진 건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했는데... 그것도 알 수 없었고요.”

올라의 시선이 스치듯이 옆을 향했다. 나도 덩달아 힐끗 보자 노인의 눈동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렸다.

“나는 그날 밤이 고비라고 생각했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동이 틀 무렵부터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더라고요. 완전히 해가 떴을 때는 그냥 깊게 잠이 든 사람 같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다는 거?”

진지하던 고동색 눈동자에 장난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평소에도 잠꾸러기였나요?”

“…네?”

“농담이었어요. 어쨌든 몸에 이상이 없다는 말은 정말이에요. 혹시 지병이 있거나 하진 않죠?”

“네. …아마도요?”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늙었을 때 야금야금 써먹을 수 있어요.”

올라는 잔소리를 조금 더 하다가, 갑자기 물 주전자를 채워주겠다며 나갔다. 나와 노인이 단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준 거였다. 이 할아버지가 날 데려왔다고 했으니 뭔가 알고 있는 건 분명했는데.

“...”

“...”

정적이 점점 길어졌다. 노인은 하염없이 내 눈치만 봤고, 나는 그런 노인의 눈치를 봤다.

“으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아니세요?”

“아. 말해도 되나요?”

“예? 네네!”

“아이구, 고마워요.”

멋쩍게 웃는 얼굴은 어딘가 허술했다. 새하얗게 샌 수염을 가슴께까지 기른 노인은 안경을 벗은 덤○도어와 닮았다. 게다가 아까 올라가 교수님이라고 불렀지?

“우선 아가씨에게 사과부터 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여기가 어디냐고 안 묻는 걸 보니 어딘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화…이트 아닌가요?”

“맞아요. 더 자세히는 내 사택이고, 아 내 소개부터 해야겠구나. 아이구, 늙으니까 자꾸 깜박깜박하네요. 나는 비샤 다우트라고 해요.”

아, 저는 김이림이라고... 잠깐 자기소개의 시간이 이어졌다. 비샤는 교단에서 내려온 후 지금은 성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은 추기경이긴 한데 신성력은 한줌도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뜻을 파악할 수 없는 말에 눈만 깜박이자 알 수 없는 침음을 흘리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게이트가 열렸던 것도 기억나요?”

“게이트요? 빛이 엄청 환하게 났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교황이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직접 게이트를 열었어요.”

하마터면 유다가요? 라고 물어볼 뻔 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만 부릅뜨자 무슨 오해를 한 건지 비샤가 손을 저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신전에서는 항상 슬레인을 주시하고 있어요. 아가씨를 감시하거나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갑자기 어둠의 힘이 강해져서 성기사를 보내려고 게이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여신의 기운을 품은 아가씨가 있었대요. 그때는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잡아당겼는데, 내보내기 위해 열었던 게이트를 역류해서 오다보니...”

내가 타격을 입고 기절했다는 얘기였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지만 아가씨를 다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절 구해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음, 제가 왜 신전이 아니라 교수님 댁에 있는 건지…?”

이 세상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단순한 세계가 아닌 건 안다. 하지만 게임 때처럼 게이트가 열린 점이나 성기사를 보내려고 했다는 걸 보면 정해진 이야기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다.

뭐가 똑같고, 어떤 게 달라진 걸까. 게임에서는 수상한 인물로 찍혀서 끌려간 건데, 이번에는 구하려고 했단다. 두 번째 편"흔들리는 신성국'화이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짐작조차 안됐다.

그러다가 문득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걸 깨달았다. 비샤는 나만큼이나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로 내 어깨너머를 노려보고 있었다.

“교수님?”

“아이고, 미안해요. 잠깐 못난 제자놈들이 떠올라서. 아가씨를 사택으로 데려온 건, 으음, 신성력 때문이에요.”

아. 지금 얘기는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이 갔다. 학살자, 여신의 분노, 먹지 못하는 체력 포션. 뭐 그런 맥락이 아닐까.

“아가씨가 게이트 때문에 기절해있을 때 교황이 직접 치유의 힘을 썼는데...”

이런 젠장!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던 거구나!

“아가씨 상태가 오히려 나빠지더라고요. 아가씨에게 있는 여신의 흔적이 축복이 아니라 죄인을 가리키는 낙인이었던 것도 그 때 알게 됐어요.”

“...”

“놀라지 않네요. 이미 알고 있었던…?”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표정이 굳었다.

“그,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교재판을 받는 다거나,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황인 유다가 확인했다. 게임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의심했는데, 여신의 분노까지 산 나를 가만 둘까?

“저, 진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퀘스, 아니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신한테 찍혔어요. 정말 저는,”

“아무런 일도 없을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오크들도 여신의 자식인 줄 몰랐다고요!”

“맹세 할... 으응?”

둘이 동시에 말하려다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다. 잠깐 어색한 기운이 흐르고 비샤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뗐다.

“신전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죄들이 있긴 해요. 살인이나 강도, 어둠을 추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가씨는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라...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실례가 아니라면 오크가 여신의 자식이란 건 무슨 얘기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 이야기였다. 오크를 많이 잡았고, 그 때문에 여신의 분노를 샀다고 했다. 얼마나 잡은 거냐고 물어서 천 마리 넘게라고 하자 표정이 이상해졌다.

“오크가 천 마리씩이나 있었어요?”

게임에서는 몬스터들이 계속 리스폰되거든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으니 어설프게 웃기만 하다가 말을 돌렸다.

“그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뭔가요?”

“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었죠. 아가씨는, 음, 쉽게 말하자면 몇 백 년 만에 나타난 증거품이에요.”

“...네?”

“여신께서 이 땅을 구하시고 잠드신 건 알고 있죠?”

내가 왜 여신의 증거가 되는 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종교적인 얘기가 길어졌다. 졸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했던 채플의 느낌이었다.

다행히 뜻밖의 종교공부는 올라의 개입으로 끝이 났다.

“교수님! 지금 환자 붙잡고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응?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아이고.”

“못 살아, 정말. 아가씨 쉬게 나오세요.”

“아, 꼭 해야 할 말을 못했는데.”

“그건 내일 하시고요. 이 아가씨는 이제 막 눈을 뜬 환자에요.”

밥 먹고 나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 하지만 올라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눈을 뜬 첫 날이 그렇게 어이없게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 날은 올라가 잠을 깨웠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다. 어제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스프 한 그릇이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빵과 과일이 같이 나왔다.

“난 이제 출근해야 해요. 이따가 청소랑 식사 해주시는 분 올 거예요. 점심은 그분이 가져다주실 거예요.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교수님은요?”

“교수님도 출근하셨어요. 늦지 않게 오신다고 했으니 어제 못다 한 얘기는 저녁에 하면 돼요.”

“아...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출근해야 한다는 말에 눈치를 보며 물었다. 올라는 하나가 아니라 열 개는 더 물어봐도 된다며 웃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같이 있던 일행이랑 갑자기 헤어졌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 할 거 같아서...”

근데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제대로 헤로인한테 갈까? 하다못해 국민청원도 20만 명이 넘어야 답을 해주던데. 잠깐. 내가 이 나라 글을 쓸 줄 모르잖아?!

“편지는 써서 일하시러 오시는 분께 부탁드리면 돼요.”

“호, 혹시요. 편지보다 더 빠른 연락방법도 있을까요?”

“마영석 말이죠? 잘 됐네요! 마침 영상소가 교수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을 쓰는 건 아닐 것 같았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회복에 좋으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다녀올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음, 옷이... 외출복 찾아 올 테니까 밥마저 먹고 있어요.”

올라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입고 있는 옷이 내 옷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다. 회색에 품에 크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였다.

“…어어?”

원피스를 들춰봤다. 슬립처럼 생긴 새하얀 원피스가 보였다. 그게 몸에 걸친 전부였다. 위에 속옷은 원래도 안 입었지만, 밑에는…! 팬티는!?

“어어어?”

당황해서 소리만 내고 있자 그게 들렸던 건지 올라가 무슨 일이냐며 되돌아 왔다.

“제 옷은, 누가 갈아입힌…?”

“글쎄요? 내가 아가씨를 봤을 때는 이미 그 옷 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속옷이…, 속옷을...”

“음? 슈미즈 입고 있던데?”

“아뇨, 아래 속옷...”

아래…? 하고 말을 따라하던 올라의 눈이 일순 커졌다.

“어머! 귀족이셨나요?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별 말씀 없으셔서…, 죄송해요!”

팬티의 행방을 물었을 뿐인데 상황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아닌데요? 귀족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요?”

“네! 왜 갑자기 그러시는 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야 아래속옷은 귀족만 입는 거니까요.”

보석도 아니고 속옷을? 싶었는데 설명을 듣자 납득이 갔다. 여기서는 아래속옷이 파니에나 코르셋처럼 옷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게다가 상아나 고래 뼈같이 비싼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쌌다. 즉 평민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

“우와.”

“그럼 아가씨가 말한 아래속옷은 뭐였어요?”

“으음... 제가 살던 곳에서 입는 건데, 짧은 치마나 달라붙는 바지를 입을 때 입는 옷이에요.”

“짧은 치마면 플레어 팬티를 말하는 건가요?”

“...? 네? 그건 또 뭔가요?”

이것저것 묻고 답하다가, 올라가 ‘어머, 내 정신 좀 봐!’하는 걸로 대화가 잠깐 끊겼다.

“나머지 얘기는 가면서 해요. 옷은 이걸 입고요..”

빈손인 줄 알았던 올라의 양손에서 천 뭉텅이가 나왔다. 조끼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봐도 제단하기 전의 천이었다. 난감한 얼굴로 올라를 쳐다보자 고동색 눈동자에 의아한 빛이 스쳤지만 별말 없이 옷 입는 걸 도와줬다.

잿빛의 커다란 천은 치마였다. 가슴 바로 밑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땅바닥에 닿을 정도라 두 번이나 접었다. 그 위에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는 새하얀 천을 허리에 두른 뒤 허리끈으로 꽉 묶었다.

“헉! 너, 너무 조이신 거 같은데요.”

사정없이 허리끈을 당기는 손길에 헛숨을 들이켰다.

“숨 쉬기 힘들어요?”

“네. 좀, 아니 많이요.”

“어머, 그럼 안 되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를 조이는 게 유행이라 그래서... 느슨하게 다시 해줄게요.”

옷을 다 입은 후 쇠로 만든 동색 거울에 이리저리 모습을 비춰봤다. 아무리 봐도 이불을 두른 어린애 같았다.

“다 내 옷이라 아가씨한테는 품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로브 걸치고 나면 안에는 안 보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걸친 로브도 크고, 길었다. 올라 눈에도 옷에 파묻힌 모습이 웃겼는지, 입술을 꾹 깨물고 웃음을 참는 게 보였다.

“아가씨는 키도 키지만, 뼈대가 너무 얇네요. 다른 옷도 없는데, 어쩜 좋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얼른 가요.”

“오늘만 좀 참아줘요. 내일 올 때 아가씨한테 맞는 옷 챙겨올게요.”

그래주면 정말 고맙긴 한데, 막상 감사하다고 말하려니 염치가 가슴을 쿡쿡 찔러댔다. 왜 이렇게 잘 해주는 걸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는데 올라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한 마디면 되는데. 해주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고마워요. 그럼 갈까요?”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여러 겹의 천이 다리를 휘감았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판이라 집밖을 나서서도 땅만 보며 걸었다. 그러다 문득 걷고 있는 길이 아스팔트도 시멘트도 아닌 흙길이란 걸 깨달았다. 고개를 들자 내가 살던 동네, 나라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느새 치마가 불편한 것도 잊고 마을을 구경하는데 정신 팔려 있는데, 올라가 말한 곳에 도착했다. "마법영상전송석 화이트 제1지부". 마영석이 뭘까 했는데 간판이 참 정직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두 명이 동시에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올라! 오랜만이네요. 저번 주에 예배 안 왔죠? 무슨 일 있었어요?”

“환자가 있었어요. 둘 다 잘 지냈죠? 옆에 있는 아가씨가 마영석을 쓰고 싶다는데 좀 도와줄래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직접연결을 원하시나요? 아니시면 메모전달?”

뭘 모를 때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설명해줬다. 가끔가다가 ‘왜 이런 걸 몰라?’하고 이상하게 보기는 했지만 아무튼 웃자. 아하하...

“혹시 마영석 처음 이용해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럼 이용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요금은 30제니고요, 5분 간 연결 가능하세요. 그 후에는 1분마다 5제니씩 추가되고요. 아, 연결에 실패해도 소모되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10제니는 먼저 주셔야 돼요.”

제니는 또 뭔데? 나도 모르게 마른세수를 하다가 손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시만요”를 외쳤다.

“제가 돈 생각을 미처 못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거든요.”

“어머, 아니에요. 내가 대신 내줄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해요.”

“아뇨, 아뇨! 아니에요.”

“정확히는 내 돈도 아니고 교수님 돈이에요. 뭐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사주라고 하셨는걸요.”

망설이다가 왜냐고 물었지만 올라도 어깨를 으쓱이며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봤다.

제니가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방에 골드가 있다. 로브의 신전에서 사제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꽤 비싸게 쳐주는 것 같았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외상을 이렇게 해보려니 마음은 안 좋았지만, 해로인이랑 영통만 되면 시간은 좀 걸려도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돈은 꼭 갚을게요.”

“교수님 돈이라니까요. 정 갚고 싶으면 교수님한테 드리고요.”

“앗.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10제니는 저 주시고요. 연결은, 아, 직접연결이랑 메모전달이랑 뭐가 다르냐고 하셨죠?”

직원은 설명을 하면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커다랗고 두꺼운 책을 꺼내고, 올라가 건넨 동전들도 받아서 챙겼다.

“직접연결은 말 그대로 상대랑 직접 통화하는 거고요. 메모전달은 그쪽 영상소에 심부름을 부탁하는 거예요. 심부름 비용은 상대 쪽에서 지불하고요.”

“상대방이 바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연결해보고 안되면 메모 남기는 걸로 할게요.”

하는 걸로 결정이 되자 카운터에 있던 또 다른 한명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 대화를 주도하던 직원은 책을 펼치며 물었다.

“연결하려는 곳은 어딘가요?”

“어, 그러니까, 아. 루테요! 루테의... 왜요?”

종이를 넘기던 손이 멈췄다. 방 안으로 들어갔던 직원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도로 밖으로 나왔다.

“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요...”

직원들이 올라를 쳐다봤다. 올라 역시 당황한 얼굴이었다.

“아가씨, 제국인 이었어요?”

“아뇨. 왜요?”

“아, 하긴 제국인이면 알았겠구나... 음, 일단은 가면서 얘기할까요? 출근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미안해요.”

떨떠름한 배웅인사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무슨 일인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화이트는 다른 나라와 마영석으로 연결할 수 없어요.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미안해서 어떡하죠? 이따가 저녁에 교수님 오시면 한 번 여쭤볼래요?”

비샤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비샤의 저택과 영상소는 걸어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였다. 멀리서 저택의 녹색 지붕이 보이자 올라는 내일 보자며 갔다.

나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저택주변을 느릿한 걸음으로 배회했다. 누워있는 동안 체력이 형편없이 깎인 것인지 그것도 살짝 버거웠다.

하늘은 푸르고, 햇빛에 데워진 공기는 따뜻했지만 볼을 스치는 바람은 선선했다. 남들이 미세먼지다 뭐다 할 때도 집에서만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았었다.

날씨를 즐기며 걷다보니 밀려오는 스트레스에 콱 막히던 숨통이 조금 트였다. 지금 고민한다고 한들 왜 '화이트'앞에 ‘흔들리는’이란 말이 붙었는지는 알 수 없다. 게임에서도 딱 시작만 해놓은 곳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했다.

게임에서 튜토리얼이라 할 수 있던 '슬레인'도 힘겹게 깼다. 그리고 여기서도 힘들었다. 살랑바람에 기다렸다는 듯 흩어지던 오크족장의 흙무덤은 떠올리기만 해도 눈이 시큰거렸다.

그러니까 여기가 쉬울 거라 기대는 안한다. 어차피 고생할 거라면 적어도 벌써부터 혼자 쫄려서 삽질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음을 추스르며 저택으로 향했다. 내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대문 두 개는 마차가 다닐 때나 여는 문이라고 했다. 보통은 그 옆에 쪽문으로 다닌다고 하며, 올라가 미리 문 여는 방법을 알려줬다.

올라가 가르쳐 준대로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맞물리는 소리가 나고 덜컹하며 잠금쇠가 풀렸다. 아무 생각없이 안으로 발을 디뎠을 때였다.

크르르

위협적인 소리에 몸이 굳었다. 앞을 보자 몸을 세우면 나보다 더 클 것 같은 대형견들이 5마리나 있었다. 하나같이 귀는 쫑긋 섰고, 벌어진 주둥이 사이로 설기의 밥알보다 작던 이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송곳니가 보였다. 몸을 잔뜩 낮춘 개들의 기세가 흉흉했다.

“...”

어떡해? 진짜 어떡하지? 순식간에 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이상한 건 커다란 대형견에 둘러싸인 채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공포가 아니라 난감함이라는 거였다.

이 멍멍이들은 나를 해칠 수 없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 개들은 겁을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였다.

주둥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침도, 안으로 말린 꼬리도, 풍겨오는 느낌도. 내가 여기서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공포에 이성을 잃고 덤빌 기세였다.

막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힘 조절을 잘못하면?

“…어떡해에...”

무심코 소리로 내뱉고만 중얼거림에 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납게 짖었다. 워낙 울림통이 큰 애들이다 보니 귀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였다.

“얘들아아…, 내가 그냥 나갈테니까, 응? 나 나갈게, 으응?”

애들이 공격신호로 받아들일까봐 입만 벙긋거리며 사정했다. 엉거주춤하게 엉덩이를 빼니 움직였다고 또 사납게 짖는다. 이러다가 진짜로 공격받게 생겼다.

바로 등 뒤에 쪽문이 있었다. 조금만 손 뻗어도 문은 열 수 있는데 나가서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개들이 머리를 박을까봐 걱정이었다. 저렇게 큰 몸으로 있는 힘껏 달려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쪽문이 찌그러지는 것과 동시에 개도 다칠 것 같았다.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 거지?

위기의 순간에 평정심을 지키고 있는 건 좋은데 그 대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사람을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했다.

“내가 나간다니까. 나갈게. 제발...”

이도저도 못하고 사정만 할 때였다. 등 뒤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웠다.

“엎드려.”

낮은 저음이 아닌데도 울림이 남는 목소리가 단호하게 명령하자 흥분해 있던 개들이 조건반사인 것처럼 바로 땅에 엎드렸다.

“어!”

놀라서 목소리를 높이자 또다시 주둥이를 벌렸지만 조금 전처럼 짖지는 못했다. 뒤를 돌자 일자로 굳게 닫힌 붉은 입술이 가장 먼저 보였다. 조금 더 고개를 젖히자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보였다. 푸른 눈을 한 은발의 천사였다.

아름답다,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해로인이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태양이라면 이 남자는 은은하게 빛을 내며 시선을 붙드는 달이었다.

“…헛!”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태양? 달? 원래라면 이렇게 깨닫는 순간 손가락이 곱아들어야 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자 ‘틀린 말은 아니잖아’하며 스스로 납득이 갔다. 미남은 얼굴이 정답이고 개연성이라고 했다. 사람은 뭐든 직접 겪어야 안다더니 이제 그 말을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런데.

“누…구세요?”

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주춤주춤 뒤로 갔다. 사람 몸에서 난 털 일텐데 속눈썹마저 아름다운 남자가 눈을 내리뜨자 도자기처럼 새하얀 피부 위로 잠시 처연함이 서렸…, 김이림. 정신 차려!

“성기사 베른디노트 카를이라고 합니다.”

“…네?”

“베른디노트 카를이요.”

태연한 표정과 목소리에, 정확히는 어느 각도로 보나 예쁜 얼굴에 넘어갈 뻔 했다. 아아, 내가 이름을 물어봤구나, 하고.

왈! 하지만 날 경계하던 개들 눈에도 그건 좀 아니었는지 정신 차리라며 크게 짖었다. 흠칫 놀라 뒤를 보자 남자를 피해 뒤로 물러난 만큼 가까워진 개들이 몸을 들썩이고 있는 중이었다.

“조용.”

남자의 말은 마법 같았다. 개들이 정말로 으르렁대던 주둥이를 닫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찰나의 소란 덕에 흐려지려던 이성이 되돌아왔다.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수님은 저택에 안 계세요. 출근하셨거든요.”

“압니다.”

“아, 네...”

무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웃는 듯 마는 희미한 미소에 불만은 자치를 감췄다. 인정하자. 눈앞의 남자는 내 취향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절대 현실에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미인이었다.

힘겹게 시선을 떨어트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취향이고 뭐고 얼굴에 정신 팔려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느, 늦었지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고개를 끄덕이려는 말이 이어졌다.

“훈련받은 애들인데,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걸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여신의 분노에 반응하는 걸지도...”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흠칫하며 얼굴을 들었다. 깊은 바다처럼 짙푸른 눈이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날 보고 있었다.

“아.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죠.”

남자는 호의도, 적대도 아니던 묘한 시선을 지우며 품에서 편지봉투를 꺼냈다.

“교수님께 편지를 전해드려야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레이나 부인께 드리고 갈 생각이었는데 아직 출근 전이신 거 같군요.”

엉겁결에 편지를 받았다. 뭐라 물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남자는 자신이 개들을 잡고 있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라 했다. 흠잡을 곳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종료선언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갔다. 남의 집 방문을 벌컥 여는 게 예의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정원이 보일만한 방향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에 내가 보이지 않도록 자세를 바짝 낮추고 밖을 봤다. 하지만 햇빛에 녹아내릴 것 같던 은발의 남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일분이 한 시간인 것처럼 흘렀지만 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오후 내내 청소도 뒤로 미루고 주방에 있던 레이나 부인은 퇴근 전에 쿠키를 주며 당부했다.

‘내일은 케이크를 구워줄 테니까 이건 오늘 중으로 다 먹어요. 알겠죠?’

그리 말하며 쳐다보는 눈동자에는 어떻게든 눈앞의 여자를 살찌워놓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아, 근데 쿠키 너무 맛있는데? 발끝을 까닥이며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있었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며 있으니 드디어 목 빼놓고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내 새끼들. 오늘도 밥 잘 먹고 잘 놀고 있었어?”

문밖에서 비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관 앞으로 가 발을 동동 굴렀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저녁 먹고 산책 나가자꾸나.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화들짝 놀라는 비샤를 부축하며 안으로 이끌었다. 당장 묻고 싶은 것들을 애써 참으며 사과도 했다. 어어어, 하는 사이에 소파에 앉게 된 비샤에게 편지봉투부터 건넸다.

“이게 뭔가요?”

“낮에 베른디노트 카를이란 사람이 교수님한테 전해달라면서 주고 갔어요.”

“디노가요? 음, 잠깐만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는 비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

“혹시 이 편지 주면서 디노가 다른 말은 안 하던가요?”

“아뇨. 전해달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네?”

“신전 분들은 전부 제가 여신한테 찍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뒤늦게 질문을 이해한 비샤가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에 대해 아는 건 날 포함해서 셋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편지 주신 분이 그 셋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그분이 절보고 여신의 분노란 말을 해서요. 아니면 신전 분들 눈에는 제가 여신한테 찍힌 게 바로 보이나요?”

비샤의 표정이 다시 구겨졌다. 들고 있던 편지를 와락 구기며 ‘유다, 에드마오 이놈들이 아주!’하고 이를 갈았다.

“교수님?”

“미안해요. 나도 처음 보는 사례인지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디노는 보고 안 게 아닐 겁니다.”

“그럼요?”

“…내가 어제 말을 끝까지 못한 게 있어요.”

백발의 노인은 고해성사를 하듯 말을 이었다. 날 성녀로 세우겠다는 교황과 반대하는 국무원장 그리고 거기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내 의견.

“그런데 이놈들이 해야 할 사과는 안하고...”

죄책감으로 얼룩진 얼굴은 얘기가 시작될 때부터 아래로 향해있었다. 반대로 얘기가 이어질수록 내 고개는 위로 들렸다. 열이 올랐기 때문이다.

“후우!”

“정말 미안해요.”

“아니, 후우, 아니에요. 교수님이, 후우, 사과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자꾸 숨이 거칠어졌다. 사람이 기절해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심지어 방금 비샤가 읽은 편지는 유다한테서 온 거였다. 온갖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나면 용건은 이거였다.

그녀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테니 다시 되돌려주세요

물론 유다가 말하는 설명은 사과가 아니었다. 내가 왜 성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에 대한 거였다. 되돌려주기는 개뿔!

국무원장도 사과할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로지 교황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베른디노트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경고한 것이다.

이건 여신의 분노를 받은 여자다

날 성녀로 만들 경우 내가 여신한테 찍혔다는 걸 공개하겠다는 뜻이란다. 당사자인 나를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에 기가 막히고 코도 막혔다.

“후우우!”

“미안해요. 이런 내용 다 알아봤자 화만 더 날 텐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될 그게 아니라서...”

“아뇨! 오히려 이렇게 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한 걸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비샤가 죄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을 하지만 답은 안 들어도 알 것 같다.

“제가 직접 안하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줄까요? 아니면 제가 돌아갈 수 있게 교수님이 도와주시는 건요?”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도울 수는 있지만...”

비샤는 몇 번이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돌려 대답했다.

“아마 빠져나가기 전에 잡힐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놈들이 허튼 짓 하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막을게요.”

제가 두들겨 패는 건요? 이것도 대답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이건 안 물어봤다.

흔들리는 신성국'화이트'.

시작부터 조짐이 나빴다.

밤새 고민했다. 어떻게 하지. 원래라면 두 번 볼 것도 없이 튀었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가 깨야 할 두 번째 시나리오였다. 끙끙 앓다가 해로인 욕도 좀 했다.

가방만 있었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나았을 텐데! ...아마도?

게임은 퀘스트창이 뜨면서 할 일을 정해줬는데, 지금은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심지어 슬레인도 내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도대체 신성국이 왜 흔들리는가. 천천히 생각해보려 했던 고민이 멱살을 잡고 답을 재촉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미룬 똥이었다.

교황과 국무원장이 싸워서…? 하지만 게임에서는 유다가 날 의심하며 슬레인으로 보냈다. 어디에도 여신의 증거라던가, 성녀라던가 하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게 뜬눈으로 밤을 샜더니 내 몸이 말했다.

‘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몸이 아직 정상이 아니란 걸 잊고 밤을 샌 대가는 컸다. 열이 펄펄 끓었다. 그리고 그 후로 기억이 드문드문했다. 올라도 봤고, 비샤도 봤고, 레이나 부인도 본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다. 해로인이랑 설기도 보였기 때문이다.

상태를 살피기 위해 방으로 온 비샤에게 말했다.

“갑자기 헤어져서 절 찾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제국에 있어서 마영석으로 연결할 수가 없대요. 방법이 없을까요?”

말하면서도 비샤가 불쌍했다. 잘못한 놈들은 따로 있는데 애먼 할아버지가 고생이었다.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안 돼.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설기도 그렇고 걱정하고 있을 텐데...”

“마을에서는 안 되지만 신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일행이 누군지 말해주면 내가 지금 바로 가서 연락해볼게요.”

비샤의 말에 고개부터 저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열이 나고 있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제가 하고 싶어요. 설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픈 상태로 신전에 가면 더 아플 거예요. 일행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내가 먼저 연락하고...”

비샤의 말이 이어졌지만 소리가 멀게 들렸다. 잠깐 상체를 세우고 있었을 뿐인데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울렁거렸다.

결국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했다. 비샤가 등을 두들겨주며 올라를 부르는 게 멀리서 들렸다. 토하는 와중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은 새끼곰도 아닌데! 그런데 왜 또 그때처럼 아프고 토해야 돼? 이게 다 그 나쁜 놈들 때문이다!

“교수님!”

“네! 올라가 약 가지고 온대요. 조금만 참아요.”

“그 새끼들 만나야겠어요. 당장 오라고 해주세요.”

“그 새…, 그, 그렇죠. 그런 말 들어도 싼 놈들이죠. 그래요, 그래. 아가씨 몸 다 나으면 그놈들보고 바로 오라고 할게요.”

“아뇨! 지금, 윽, 지금요!”

토를 했는데도 여전히 속이 안 좋았다.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있다가 몸부림을 치자 따뜻한 손이 이마를 눌렀다.

“아가씨, 진정해요! 이런, 교수님 어깨 좀 잡아주세요. 약 먹여야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마를 누른 건 해로인이었다. 찬기가 묻어나올 것처럼 서늘한 이목구비가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마에 닿은 손은 따뜻했다. 그게 올라의 손이란 걸 아는데도 해로인의 환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해로인은 굳은 얼굴로 한참을 날 보다가 입을 열었다.

‘제발 잠 좀 자자’

참나. 내 환상인데도 괜찮냐고 묻질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온갖 형상이 뭉개져 어지럽던 시야가 새까맣게 물들어갔다.

나 또 아프다? 그런데 내 걱정하고 있어? 아니면 화났나? 내 잘못 아니야, 알지? 그쪽도 봤잖아. 설기는 잘 있어? 애기 밥 안 굶기고 있지? 그리고 나 또 토했어. 곰 일 때처럼, 아니다, 토 얘기는 좀 더럽지? 빨리 연락할게. 그러니까 목줄은 안 돼...

“…우리도 안 되고...”

“아가씨? 일행이 누군지,”

“쉿! 잠들려는 거예요. 깨우지 마세요.”

한숨만, 딱 한숨만 더 자고 일어날게. 진짜 힘들어서 그러니까...

열에 취해 주절주절 떠들었다. 진짜 소리 내서 말한 건지 속으로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다. 의식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열이 났던 다음 날이었다. 그렇게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걸 제외하면 멀쩡했다.

“어제 하루 종일 토하느라 진이 빠져서 그렇지, 열은 싹 내렸네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하자며, 답답하지만 산책도 정원에서만 즐기라고 했다. 올라와 교대하듯 방으로 들어온 비샤의 표정이 어두웠다.

“좀 괜찮아요?”

미안해요 대신 꺼낸 말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바꿔버렸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자꾸 고개를 숙이니 불편했다.

…그리고 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말뿐인 사과만 하는 게 싫었다.

“네. 아직 출근 안 하신 거예요?”

“으음. 아가씨가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제국에 연락하고 싶은 일행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흐릿한 기억을 더듬다가 멈칫했다. 그 새끼들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그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연락할 사람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본교 안에 있는 마영석으로 연락을 취해보려고요. 누군지 알려줄래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아가씨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안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아가씨는 신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HP, 즉 체력이 깎일 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다. 얼른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지 않나?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비샤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가면 유다랑 에드마오 그 놈들이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으음...”

표정관리 할 것도 없이 인상을 확 찌푸리자 비샤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 렇겠네요.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건 괜찮겠죠?”

“올라가 오늘은 침대에서 푹 쉬어야 한 댔어요. 내가 연락해보고 바로 사람을 보낼게요. 가자마자 연락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게, 바깥바람 쐬면서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원에 티테이블이 있어요. 레이나 부인한테 차랑 다과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돼요.”

허술한 핑계라 그런지 금방 막혔지만, 원하던 말이 나왔다. 처음부터 정원에 나가면 된다는 말을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개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요? 아이고, 혹시 개 무서워 하나요?”

“아뇨, 아뇨! 좋아하는데... 그 애들이 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순한 애들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믿지 못하는 비샤한테 어제 있었던 일에 조금 더 살을 보태서 말했다. 개들한테 둘러싸였다, 물어 뜯길 뻔 했다, 베른디뭐시만 아니었으면…, 어쨌든 너무 무서웠다. 마지막에 ‘역시 제가 여신한테 찍혀서 동물도 절 싫어하나 봐요’하고 결정타를 날렸다.

“아이고, 아이고! 그럴 리가요! 우리 애들이 기사단에 있던 애들이라 낯선 사람은 좀 경계…, 애들 후원에다 묶어두고 갈게요.”

“아니에요. 그 애들 묶어놓으면서까지 정원에 나가고 싶지는 않은 걸요. 그냥 가서 밖에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네? 무리 안하게 조심 할게요.”

이것도 안 먹히면 그 때는 생떼를 쓰려했는데 비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었다. 외출준비는 금방이었다. 비샤가 마차를 부르러 간 사이에 옷만 입으면 됐기 때문이다.

“아...”

다만 땀에 절었다가 그대로 마른 건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저번처럼 천을 겹겹이 둘렀지만, 천을 뚫고 올라오는 냄새를 막을 수는 없었다.

“준비 다 됐...”

응접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샤가 말을 흐렸다. 천에 파묻혀서 휘적휘적 계단을 내려오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아이고, 늙은이가 혼자 살다보니까 세심함게 없어서... 오늘 가서 아가씨가 입을 만한 옷도 여러 벌 챙겨올게요.”

“감사합니다.”

제발요. 땀 냄새가 너무 나요. 흑흑.

정원에 나가자 개들은 보이지 않았다. 비샤가 다른 데로 보내놓은 모양이었다. 편하게 정원을 가로질러 쪽문으로 나갔더니 마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영화에서 봤던 거랑 비슷했다.

우와. 촌스러워 보일까봐 소리는 참았는데 도로 아미타불이었다. 마부의 도움을 받아 타자마자 정신없이 내부를 구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행이랑 슬레인에는 무슨 일로 갔었어요?”

“네?”

“어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성기사들 슬레인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가씨도 위험했던 순간에 거기에 있었고...”

문제가 생길 게 있나? 제단도 없어지고, 여신의 곡괭이도 살아나고, 오크들도 다 죽었…는데...

오크들 생각에 침울해지자, 그게 표정에도 드러났는지 비샤가 손을 저었다.

“아이고, 아가씨를 의심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져서요.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아, 아니에요. 거기서 아는… ... 친구들이 죽어서...”

사람이라고 하려다가 급하게 말을 바꿨다. 아는 몬스터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했다.

“아아, 그래서... 거기서 안타깝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죠.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맞다, 죽어간 사람들. 산장 근처에 시체가 많았다. 로니 상대하느라 바빠서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설마 돌풍에 훼손됐다거나 그렇지는... 으윽.

“왜 그래요? 속이 안 좋아요?”

“아뇨, 괜찮아요. 그리고 슬레인은 부탁받은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거기 몬스터도 있고 위험했을 텐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제국 어디로 연락하면 되요?”

마차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단 온 건가? 창문 밖을 봐도 알 수 없다. 너무 빨리 온 거 같은데. 마차가 신전 앞에 도착했을 때 말하고 싶었다.

“…황성으로요.”

“…네?”

“아마 황성에 있을 거예요. 황자거든요.”

나이 때문에 처진 눈꺼풀이 활짝 올라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릅뜬 눈은 느끼고 있는 혼란을 고스란히 내비췄다.

밤새 고민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제국에, 그것도 무려 황자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하면 순순히 연결해줄까?

그 때문에 직접 연락하고 싶었는데, 지금의 몸 상태로 교황이나 국무원장 같은 나쁜 놈들을 상대하는 건 무리였다. 게다가 말했던 일행이 황족인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핑계를 대서라도 못하게 막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차선이 비샤한테 부탁하되 최대한 말하는 걸 미루는 거였다.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교황이나 국무원장을 그놈들이라 부르는 건 친하니까 그런 거였다. 혹시라도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다가 미안하다고 거절하면?

“새끼곰이 찾는다고 하면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던 일행이 해로인 황태자 전하라는, 건, 가요?”

“네. 맞아요.”

심지어 황태자였냐. 속으로 구시렁대면서도 고갯짓은 단호했다. 비샤는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올라한테 귀족이 아니라고...”

“네? 네.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랑...”

“어쩌다보니 그렇게 돼서...”

그때 안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마부가 마차를 통통 두드렸다.

“교수님!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지요.”

망설이다가 엉거주춤하게 엉덩이를 들어 비샤의 손을 꽉 잡았다.

“교수님, 가자마자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연락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주실 거죠?”

“...아가씨는 정체가...”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눈앞에서 제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어요. 많이 놀랐을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아쉬운 건 난데. 속으로 자책하며 급하게 말을 이었다.

“도망가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놈들 그렇게 혼내놓고 정작 내가 세상 것을 따지고 있으니...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요.”

평소의 허술한 얼굴이 아니었다. 쓰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노인은 자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서 바로 연락 해볼게요. 유다나 에드마오도 나중에나 알지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하는 일인걸요.”

비샤가 가고, 마차의 문이 다시 닫혔다. 마부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지 잠깐 말들을 봐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마차의 문도, 창문도 꼭꼭 닫혀 있었지만 방음은 별로 안 되는 건지 이런저런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가장 많이 들리는 건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였다. 신전 바로 앞에서 저렇게 장사를 해도 되나. 로보에서는 신전 앞에 있는 공원에서도 기도하고 있던데. …그런데 화이트의 명물이 사과였어? 사과가 어떻게 하얘?

소리로만 듣다보니 나중에는 좀 답답해졌다. 괜히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가 유다나 에드마오가 알까봐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에 얼굴이 비출까 바짝 세우고 있던 허리에 슬그머니 힘이 빠졌다.

잠깐만, 아주 잠깐만 보는 거야.

에이포 용지보다 살짝 작은 창문 밖으로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였다. 멀어서 가판대에 펼쳐놓은 물건이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상인들이 목이 터져라 명물이라 외치는 사과는 보였다. 정말로 사과가 하얬다.

“오오.”

저건 도대체 무슨 맛이지? 겉이 무려 우유 같은 흰색이었다. 하마터면 더 자세히 보겠다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일 뻔 했다. 사과에서 시선을 떼고 신전을 봤다. 게임에서처럼 엄청난 크기의 대문이 보였다. 고풍스러운 기둥도, 날개가 새겨진 대문도, 내 머리통만할 문고리도 전부 새하얀 색이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나올 신전도 온통 하안색 일색이었다. 보통은 그러면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공간이 연상되는데, 게임에서 봤을 때는 그래픽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예뻤다.

자꾸 하얀 것들만 보다보니까 처음에 새하얀 솜뭉치가 이쪽을 향해 오는데도 몰랐다. 누가 사과를 떨어트렸나봐. 그런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굴러오는 사과에 다리가 달려 있었다!

“...설기야!”

비명처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꼭꼭 닫아놨던 문을 열자 새하얀 강아지가 보였다. 멍! 멍! 멍! 쉴 새 없이 짖고 있는 설기는 절대 환상이 아니었다.

“설기야! 설!”

급하게 일어나다 옷자락을 밟고 엎어졌다. 마차바닥에 엎어져서 앓는 사이 문 바로 아래에 멈춰선 설기가 낑낑 울며 불러댔다.

마차 문턱에 쭈그리고 앉아 팔을 뻗었다. 기다렸다는 듯 뛰어오르는 강아지의 몸이 따뜻했다.

끼이잉

품에 안긴 설기의 꼬리는 정신없이 흔들리는데, 새카만 눈동자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코까지 훌쩍이며 우는 강아지를 보자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설기야아...”

게임펫이었는데. 실제로 같이 있던 시간이라고 해봤자 양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고, 반가운지 모르겠다. 설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작 내 눈물은 뚝뚝 떨어졌다.

“이 개새끼가 또…! 몬드 사람을 풀어...”

절대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들린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내 손바닥으로 다 가려질 만한 크기의 남자가 보였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도 반짝이는 금발과 작고 동그란 두 개의 하늘이 보였다.

“...!”

“...!”

눈에 고여 있던 눈물이 떨어졌다. 깨끗해진 시야에 보이는 건 무서울 정도로 굳은 얼굴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해로인이었다.

자정이 넘은 야심한 밤. 황태자가 돌아왔다.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이른 귀환이었다. 침대와 변기에도 눈, 귀가 달렸다는 황성에서 그의 귀환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틀 무렵이 되자 황태자의 심복들은 땅거미도 걷히지 않은 길을 헤치고 입성했다. 평소보다 이르게 하루를 시작한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에는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글세... 자네도 새벽에 전보를 받은 건가?”

“네. 시종도 아니고 기사가 와서 전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데, 심장부터 내려앉지 뭡니까.”

비슷한 대화가 회의실 곳곳에서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부름이라 상황 추측도 조심스러웠다. 마차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조금 늦은 마지막 인원이 도착했다. 자리가 모두 차자 황태자, 해로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짧은 인사와 함께 간단한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심복들의 눈동자는 정신없이 서로를 오갔다.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도 같고. 그러게요. 무슨 일일까요. 심복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한 자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서쪽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쪽 이단 토벌은 실패했다.”

하오면. 누군가 목소리를 내려다 형형하게 번뜩이는 벽안을 정면으로 받고 도로 입을 닫았다.

“하지만 다른 걸 건져왔다. 내가 그대들을 부른 이유는 그걸 가지고 판을 키워야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목소리는 지극히 무심한데, 눈동자에 박힌 새파란 불씨는 뜨겁게 느껴질 정도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틀 전 눈앞에서 새끼곰을 도둑맞은 순간 붙은 불이었다. 물 대신 도둑놈들의 피를 끼얹어야 꺼질 불꽃인데, 불을 끄고 싶어도 그를 둘러싼 상황이 행동에 제약을 걸어왔다.

이틀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움직였다. 그전부터 꾸준히 쌓여온 피로가 누적되어 팔다리를 무겁게 했지만, 잠깐 눈을 붙일라치면 어린 것의 비명이 잠을 깨웠다.

“오늘 국무회의 때 긴급안건으로 올릴 것이다. 이 일의 책임자는 내가 돼야 한다.”

국무회의는 점심식사 직후 바로 시작됐다. 6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선례를 확인해보는 것만 해도 반나절은 족히 걸릴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심복들이 난색을 표했으나 해로인은 단호했다.

‘이게 뭐야! 싫어! 해로인!’

겁에 질린 비명소리는 지금도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제국의 국무회의는 안식일 제외한 모든 날 열렸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3, 4시간 안에 끝났다. 이 날도 황태자의 갑작스러운 귀환만 아니었다면 평소와 똑같았을 터였다.

회의장의 상석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른 가구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일무이해진 의자였다. 거기에 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현 황제 암페타인 레 루테였다.

황제는 햇빛을 받으면 금처럼 반짝이는 노란 머리칼과 청명한 하늘을 뚝 떼어 옮겨놓은 것 같은 벽안의 미중년이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해로인 레 루테처럼 말이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자지간이었지지만...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은 무미건조 했다. 남보다 못하려면 미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조차 없었다. 애정과 미움은 물론 관심조차 없는 사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황제와 황태자로만 정의되는 관계.

해로인이 때때로 눈앞의 황제가 자신의 친부가 맞다고 느끼는 건 똑같이 생긴 얼굴을 볼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삶의 열의를 잃은 눈빛을 볼 때였다.

‘복수를 마치고 나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레 루테’라는 성에는 무언가에 미치게 하는 내력이 있지 않을까. 자신은 복수에 미쳤고, 황후는 딸을 황제로 만드는데 미쳤으며, 황녀는 그런 황후에게 미쳤으니 말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미쳤던 황제는 대상을 잃은 후 저렇게 숨만 쉬는 인형이 돼버렸다.

지금의 황제를 보자면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만, 그는 사랑에 미친 적이 있다. 급작스러운 병으로 허무하게 잃은 기사 바르델에게 말이다.

제국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귀족들 또한 자유로운 연애가 흠이 아니라서 불미스러운 염문설만 아니라면 결혼 전까지 얼마든 즐겨도 상관없었다. 루테는 사랑에 있어서 관대한 나라였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제한받는 이가 바로 황족이었다. 후사를 봐서 핏줄을 유지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페타인은 사랑하는 바르델이 아닌 친황제파의 수장이었던 공작의 여식과 결혼했고, 원치 않은 잠자리도 가졌다.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황제를 설득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기사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황제의 개로 키워진 기사. 충신 중의 충신이었던 바르델은 죽는 순간까지도 황제에게 ‘제국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죽지 못해 살면서도 금관을 계속 머리에 쓰고 있는 이유였다. 그의 기사, 바르델이 그러길 원했으니까.

사람들은 낭만적이라 말했고, 해로인은 자신의 미래를 엿본 기분이라 황제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슬레인에 숨어살던 마왕의 사도가 제단을 부활시키기 위해 인간제물을 모았고, 그걸 돕던 불온한 세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세력을 직접 토벌하고 싶다? 고작 그런 놈들을 잡는데 일국의 태자가 직접 나서겠다 이 뜻이냐?”

황제가 ‘고작’이라고 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빼들 생각이냐는 말이었다. 이제 수긍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면 어떤 말을 하던 전부 황제의 뜻에 맞서는 게 됐다.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다른 것도 아닌 ‘마왕’이 언급됐다. 그런데도 고작이라. 황제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얼마안가 고민하는 걸 관뒀다. 새벽에 심복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나. 판을 키우겠다, 고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것들이 꼬리를 자르고 숨기 전에 개인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었다. 개인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말에 황제가 입꼬리를 당겨 웃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었다.

“아아. 그렇다면 보내줘야지.”

너무 쉽게 나온 대답에 마음이 급해진 건 황녀의 세력이었다. 구휼활동을 포기하고 돌아온 걸 물고 늘어지려 했는데 느닷없이 마왕의 사도가 튀어나오고, 이제는 그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황녀가 아무리 완벽하게 북쪽의 야만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도파인 시랭 후작을 포섭해온다고 해도 그들이 밑지게 됐다.

야만족 문제와 마왕의 잔존세력. 관심이 어디로 더 쏠릴지는 안 봐도 뻔했다. 황녀의 파벌이 앞 다투어 입을 열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흑마법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하다, 황태자를 직접 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전과의 협력이라면 이전부터 황녀전하께서...

“그만.”

“하오나!”

“나는 황녀에게 화이트와의 교섭권을 넘겨준 적이 없는데. 그대들은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오라,”

“아니면 말을 말아야지. 그렇지 않느냐?”

황제는 폭군은 아니었으나 문제를 해결할 때 피를 보는 게 게 가장 쉽고 빠르다며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였다. 상과 벌이 확실했고, 그중 벌로는 목을 칠 때가 많으니 신하들이 저도 모르게 목을 움치는 것은 그간 학습의 결과였다.

“가거라. 허락해주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개인적으로 무얼 얻든 간에 나한테 가져올 결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도, 이득도 없을 것이다.”

경고인가, 격려인가. 사실 고민할 거리가 안 됐다. 바르델을 잃고 모든 게 무의미해진 황제였다. 저기에는 아무런 뜻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황제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도 당일 날 바로 출발할 수는 없다.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야 하던 구휼활동과 달리 지금은 외교적인 문제까지 얽혔다. 해로인 혼자 움직일 수 없었고, 전시가 아닌 이상 모든 절차와 위임장을 생략해도 사람을 꾸리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러고 슬레인까지 가는데 또 다시 하루가 걸렸다. 서른 명에 가까운 인원이 하루 만에 슬레인까지 갔으니 보고도 믿기지 않을 속도였으나 해로인의 신경은 끊기기 직전의 실처럼 가늘어진지 오래였다.

‘너무 심한데’

어린 것을 되찾는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 많았다.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서두르고 있긴 해도 그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다. 새끼곰은 분명히 되찾을 것이지만 그건 ‘겸사겸사’가 돼야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탓하듯 어린 것의 비명소리가 점점 크기를 키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져야 할 것이 반대로 더 예리하게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것들이 꼬리를 자르고 숨기 전에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얻어야 할 것. 황후를 무너트릴 수 있는 ‘무언가’의 단서. 그리고 새끼곰…이어야 하는데.

해로인의 벽안이 스치듯 뒤를 향했다. 짐마차 위에 숨구멍만 뚫어놓은 나무상자가 보였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어린 것이 예뻐하던 하얀 강아지였다.

‘설기, 라고 불렀지’

개새끼 이름도 아는데 정작 그 주인의 이름을 몰랐다. 어린 것이 사라지던 때 부를 이름을 몰라 말문이 막혔다. 그때의 황망함과 허탈함이 지금도 생생했다.

멀리서 로보의 성벽이 보였다. 하루 동안 게이트를 네 번이나 넘는 탓에 죽어가던 이들이 이제 살았다는 얼굴이었다.

게이트는 한 번 시동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마력이 들었고 그 탓에 마력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인도 심한 멀미를 했다. 그런 걸 하루 만에 네 번이나 탔으니 기사 중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가 속출했다.

과거 게이트를 이용해 반역을 꾀했던 이들이 수도로 곧장 쳐들어 왔던 사건 이후, 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안에는 게이트를 설치할 수 없게 됐으며, 어느 도시던 한 번에 수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곳도 없어졌다.

하다못해 수도에서 말을 타고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휴양지에서도 게이트를 이용해 수도로 가려면 다른 곳으로 한 번 경유해야 했다. 들어가는 게 이러니 빠져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수도에서 로보까지 하루 만에 도착한 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다. 게이트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뛰쳐나온 데니스 백작은 표정관리를 하는 것도 잊고 입을 벌렸다.

“…로, 로보의 영주 데니스가 제국의 빛을 뵙습니다.”

보다 못한 가신이 등을 찌르고 나서야 인사가 나왔다. 해로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환자가 있다. 그들부터 우선적으로 방을 내주고 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네! 너는 먼저 성으로 가 집사에게 전하의 말씀을 전해라.”

데니스 백작이 뒤에 있던 하인에게 빠르게 명령을 내리고 다시 앞을 봤다. 해로인은 백작의 뒤에 선 사람들을 훑으며 물었다.

“신성국에서는?”

수도로 가기 전 백작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 하나는 슬레인의 출입 전면 통제였고 다른 하나는 신성국에서 사람이 나올 경우 구류해두라는 거였다. 안 그래도 그 문제로 하루 만에 눈 밑이 거뭇해진 백작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전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신성국에서 조사단이 나왔습니다. 성기사 스물다섯에 고위사제 셋과 견습 일곱 명인데, 구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라...”

그도 그럴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성국에서 나온 이들이었다. 느닷없이 황태자의 명령과 신성국 사이에 낀 백작은 빨리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바로 그들에게 가겠다. 안내해.”

기다렸던 말에 반색하며 고개를 들었던 백작이 그보다 더 빠르게 눈을 내리깔았다. 가겠다, 말하는 황태자의 얼굴이 너무 사나웠기 때문이었다.

‘이게 뭐야! 싫어! 해로인!’

눈을 떴을 때, 어린 것은 보이지 않았다. 시야를 새하얗게 물들였던 빛도 같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외마디 비명뿐이었다.

그도, 새하얀 짐승도 바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멈칫했다. 강아지는 이림이 사라진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다시 일어나 냄새를 맡고 다녔다. 좀 더 나중에는 싫어하던 해로인 앞으로 갔다. 올려다보는 시선이 마치 자신의 주인이 어디 갔냐고 묻는 것 같았다.

해로인은 말없이 이림이 사라진 자리만 봤다. 새카맣게 죽어버린 땅에 정말 자세히 들여 봐야만 보이는 작은 새싹 몇 개가 피어났다. 딱 빛이 생겨났던 자리였다.

눈부시던 백색의 빛과 치유된 땅. 도둑놈이 누군지는 볼 것도 없었다. 빛이 사라진 지금도 희미하게 신성력이 남아있었다.

신성국이, 왜?

그는 발밑에서 끙끙대고 있는 강아지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주변을 살피는 얼굴도 어디까지나 침착했다. 새파란 벽안에 불이 붙었지만, 그때까지는 당사자인 자신도 잘 몰랐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작은 불씨는 완전하게 크기를 키워 이제 사나운 기세로 넘실거렸다. 보기만 해도 선뜩해지는 빛이라 감히 시선을 마주칠 엄두도 들지 않았다. 이번 슬레인 조사단의 책임자인 사제 테른은 떨리고 있는 손을 감추기 위해 양손을 모았다.

현재 화이트와 제국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눈앞의 남자는 거기에 크게 일조 했다. 자신들을 막는 게 ‘황태자의 명령’이란 걸 알고 나서 일이 꼬였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하. 슬레인에서 사악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 해야 하옵니다.”

“내가 교황과 대화하는 게 먼저라고,”

“...”

“방금 전에 말하지 않았나?”

황태자가 이렇게까지 고압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얼굴에는 표정이랄 게 없는데 눈빛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어떤 연유인지 말씀해주시면,”

“신의 종 테른이라 하였지.”

“네, 네. 맞사옵니다.”

“마영석을 내줄테니 교황을 준비시켜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다.”

아무리 제국의 황태자라 해도 교황을 오라, 가라 할 수 없다. 게다가 마왕 소환이 실패로 돌아가고, 숲이 오염됐던 날 제국과 화이트는 협약을 맺었다. 마왕과 그의 사도들에 관련된 거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조력하기로 말이다.

신전은 암흑기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였고, 제국은 자국 내에서 참사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당위성은 자신들한테 있다. 황태자에게 조약을 지키라고 해야 했다.

‘히익’

하지만 너무 무섭다! 간신히 벌렸던 입은 다시 조개처럼 꽉 다물렸다. 테른은 평생을 신학교에서 연구만 해온 신학자였다. 해로인이 작정하고 살기를 내비치는데, 그게 살기인 줄도 모르면서 잔뜩 겁먹고 떨기만 했다.

“테른. 한시가 급하다고 하지 않았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지?”

“그, 그게...”

“내가 직접 화이트에 연락하는 게 빠르겠군.”

“아, 아, 아닙니다! 제가!”

엉겁결에 목소리를 높였다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해로인은 고개를 숙여 테른과 시선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의 뜻은 분명했다.

안 가고 뭐해.

해로인이 로보에 도착한 건 점심 전이었다. 테른과의 접견을 마치고, 간단히 배를 채우고는 사이 견습사제가 쭈뼛대며 와서 말을 전했다.

‘성하께서 출타 중이시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해로인 측도, 조사단 측도 속을 끓이며 시간을 죽였다. 교황과 연락이 된 건 해가 저물기 시작한 저녁이었다.

“해로인 레 루테가 여신의 두 번째 종을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황태자. 하루가 다르게 장성하시니 참으로 보기가 좋아요"

“화이트 역시 성하의 치세 아래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영석이 연결되면서 한쪽 벽면에 교황 유다의 얼굴이 맺혔다. 정말로는 적이나 다름없는 사이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다정히 서로의 얼굴에 금칠도 했다.

"테른에게 간단히 얘기는 전해 들었어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따로 조사하고 있던 사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건의 단서가 이번 일과 겹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의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건 알지만, 제가 조사하던 사건이 이번 일과 관련이 있어 보여서요.”

"무슨 일이 길래, 다른 것도 아닌 사악한 힘이 폭발한 것과 관련을 보인다고 하는지요?"

해로인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눈짓으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 교황 역시 해로인의 행동을 보고 뒤에 서있던 이들을 내보냈다.

“인간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 설마 제단의 부활을 위한?"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맞을 겁니다.”

교황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해로인은 정중한 모습 뒤로 선뜩한 시선을 숨기며 신중히 말을 골랐다.

“성하. 일방적으로 슬레인의 출입을 통제하긴 했지만, 먼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제물을 받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모두 제가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 물론 당연히 모든 과정은 화이트와 공유합니다.”

"흐음. 다른 일이면 몰라도 인간제물에 관련된 일이라, 나 혼자서 바로 답은 못 하겠군요. 일단 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그러는 사이에 의논해보고 말해드릴게요"

“성하. 저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후에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함 말입니다.”

물론 성하께서는 제 얘기를 들어주시려 하겠지만,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의견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잡음, 말입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덧붙이는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이 일을 확실하게 결론짓지 않는 이상 슬레인은 계속 막혀 있을 거라는.

유다가 눈을 깜박이다 웃음을 터트렸다. 기특하다는 얼굴이었다. 속뜻이 무엇인지는 그 본인만 알겠지만.

"…황태자는 정말 부친이신 황제폐하를 많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연결을 끊고 바로 사람을 모아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이 나는 대로 연락 드리죠"

“아, 그때 한 가지만 더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짓누르던 화가 이 다음 꺼낼 말을 부싯돌 삼아 순식간에 크기를 키웠다.

슬레인에서 우연히 주운 짐승이다. 신기한 힘을 갖고 있는 수인족이다. 옆에 두기로 했다. 하지만 데리고 있은 지 오래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널뛴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중해서는 아니다. 해로인은 아주 어렸을 때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고 배웠다. 황후가 자신의 물건을 망가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부순 날이었다. 그는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갖기 시작한 건 그걸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만큼 힘을 기른 후였다. 그렇다고 거기에 연연했냐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니었다. 그저 필요에 의해 가졌을 뿐이다.

하지만 어린 것은? 그건 그한테 필요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어린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그래서일까. 내 걸 훔쳐갔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다.

해로인은 마침내 화를 억지로 다스리는 대신 받아들였다. 그러자 눈앞에 있는 선한 얼굴이 더 싫어졌다. 눈앞에 있으면 당장 쳤을지도 모를 만큼.

"황태자? 뭔가 말하려던 게 아니었나요?"

생각에 너무 빠져있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실수였지만 그만큼 몸에 쌓인 피곤이 컸다는 뜻이었다.

“오 일 전 신성국에서 슬레인으로 게이트가 열렸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악한 힘이 순간적으로 너무 강해졌거든요. 성 기사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직접열었어요"

“아, 뭐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있었다고요!?"

“네. 게이트가 열렸던 그 자리에 말입니다.”

해로인은 놀란 교황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게이트가 열리고 무슨 이유인지 혹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있던 일행이 사라졌습니다.”

"..."

“그런데 그 게이트를 성하께서 직접 여셨다고 하니, 당연히 제 일행의 행방도 아시겠습니다.”

화이트에서 제국까지 한 번에 열린 게이트였다. 평범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했지만 교황이 직접 열었을 줄은 몰랐다. 밝혀진 도둑놈의 정체에 살기가 피어올랐지만 영상 너머에 있는 이가 그걸 알 리가 없다.

"…현재 우리 쪽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일행이 있다는 걸 알면 바로 연락했을 텐데, 그녀가 계속 정신을 잃고 있었던 터라"

정신을 잃어? 해로인의 표정이 굳자 유다가 급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깨어났다고 합니다. 금방 다시 잠들어서 별다른 얘기는 나누지 못했다고 하지만요"

“무슨,”

짓을 한 거냐. 생각을 거치지 않고 튀어나가려던 말을 입술이 가까스로 가뒀다. 분명 모시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어린 것이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였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습니다만.”

"게이트를 역류하면서 일차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재촉하자 돌아온 대답은 "함부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였다.

멋대로 훔쳐가서, 상하게까지 만들었다고.

반대편에서 무어라 사과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아드득. 살벌하게 흘러나간 잇소리에 교황이 고개를 기울였다.

"황태자. 방금 무슨 말을 했나요?"

“내일 일행과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으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군요. 아!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요. 그녀가 완전히 몸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요"

“…그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오 일 간 정신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깃들었다. 해로인은 뭐라 더 말하려다가 관두고, 내일 다시 연락하자는 말만 남긴 후 연결을 끊었다.

쾅!

방안에서 갑자기 난 큰소리에 물러나 있던 사람들이 급히 방문을 열었다. 조금 전까지 해로인이 앉아있던 의자가 박살나 있었다.

“전하!?”

단단한 원목과 대리석으로 만든 의자가 산산조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잘게 부셔졌으니, 그렇게 만든 다리가 멀쩡할 리가 없다. 마나를 쓸 줄 아는 무인이었으니 신체는 멀쩡했는데 대신 옷과 신발이 엉망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엉망인 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었다.

왜 어린 것이 멀쩡하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정말로, 왜.

황태자가 교황과 개인적으로 대화한 후 의자를 부쉈다. 하지만 따라온 심복들이 아무리 물어도 끝끝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황태자는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으로 쉬어야겠다고 하며 방으로 돌아갔다. 황태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온 모두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결국 그날은 모두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전의 견습사제가 찾아왔다.

화이트와 로보의 마영석이 다시 연결됐다. 해로인의 뒤에 몸을 추스른 이들이 서있는 것처럼 교황의 뒤에도 국무원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있었다.

중간 중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얘기가 길어질 때도 있지만, 양쪽 다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져 갔다. 계약서를 어느 쪽에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할 때였다. 뒤에서 부하들의 얘기를 거들기만 하던 해로인이 앞으로 나왔다.

“계약서는 이쪽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인편을 통해 보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출발 할 테니 이틀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국에서 화이트까지 이틀 안에 가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다시 게이트 지옥이 열린다는 소리였다.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누군가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건 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핼쑥하게 변한 가운데 해로인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빠른 시일 내 뵙도록 하지요.”

"...? 설마 전하께서 오시는?"

“네. 제가 갑니다.”

“핼!”

이름을 끝까지 부르지 못한 건, 순간이동처럼 순식간에 코앞까지 다가온 남자의 품에 당겨졌기 때문이었다.

단단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몸. 새끼곰일 때 거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보내던 익숙한 품이었다. 거칠게 당겨진 탓에 놀랐지만 절박하리만큼 꽉 감긴 팔에 아프다는 말도 참게 됐다.

해로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맞닿은 몸에서 들리는 심장소리를 들었다. 어째서일까. 쿵쿵 뛰는 박동에 덩달아 내 심장도 같이 뛰려고 했다.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심장이 뛴다. 이렇게나 가쁘게.

잠깐이지만 시끄럽던 바깥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에 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이었다.

멍!

우리 사이에 갇혀있던 설기가 바르작대며 짖었다. 멀어졌던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리고, 반쯤 나갔던 이성도 되돌아왔다.

“그…, 해로인?”

좀 놔보라며 불렀지만 대답 대신 뒷목과 등을 감싼 손에 힘만 더 들어갔다. 가운데 낀 설기가 눌릴까봐 몸에 힘을 주다가 아옥, 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

해로인이 그제야 팔에 조금 힘을 풀고 고개를 내렸다. 일주일 만에 마주한 얼굴은 어두운 마차 안에서도 눈이 부신지라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늘어졌다.

“…왜 그래?”

“갑자기 힘이 빠져서...”

몸 상태는 생각도 안하고 힘을 주니 와르르 무너지는 카드 탑처럼 몸에서 힘이 빠졌다.

내 말에 해로인의 표정이 티 나게 굳었다. 별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막상 나온 말은 정반대였다.

“나 어제 많이 아팠거든.”

“아, 팠다고?”

“응. 열도 심하게 나고,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하고...”

남자의 벽안이 도깨비불로 변했다. 하소연하던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이 인간, 눈빛이 왜 이래?

“그, 그런데 어제 하루만 그랬어. 오늘은 열도 싹 내렸고 괜찮대.”

“…안색이 나쁘잖아.”

“이건 어제 아팠던 거 때문이고.”

“약은? 너 수인일 때도 그렇게 아팠다. 약 안 먹으면 바로 열 올랐다고.”

새끼곰일 때 안 아팠던 날이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아팠던 적은 없는 거 같은데. 기억을 더듬었다.

“약 먹었냐고.”

“으응. 그런데 언제?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는데?”

“정신도 못 차렸는데 기억이 나겠냐.”

그건... 그렇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해로인의 뒤로 불쑥 머리통이 솟아났다.

“헉!”

“죄송함다!”

내 비명과 동시에 사과를 한 남자가 주춤 물러났다가 이번에는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다. 개그를 하는 건가 싶을 만큼 느린 속도였다.

“…뭐 하나.”

보다 못한 해로인이 한 마디 하자 이제 겨우 코까지 올라온 남자가 옆머리를 긁적였다.

“놀라실까 봐요.”

“...후. 됐고, 왜.”

“슬슬 들어가 보셔야죠. 저희 좀 늦었슴다. 조엘 자작님 혼자서 쩔쩔 매고 있을 걸요.”

아니다, 토하고 있으려나. 아, 사실 저도 토 한 번만 하고 오고 싶은데요. 멍하던 표정이 시무룩하게 변하며 우는 소리를 했다.

“참아.”

“아니, 이게요 전하. 참으란다고 참을 수 있는, 넵. 참아야죠.”

해로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급하게 태도를 바꿨다.

“어쨌든 들어가시죠.”

“…3분만 기다려라.”

“그 애매한 시간은 뭔가요. 1분이면 1분, 5분이면…, 넵. 알겠습니다.”

남자가 크게 몇 발자국 물러섰다. 다시 고개를 돌린 해로인은 마차와 날 차례로 훑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설 수 있어?”

“응. ...아니네.”

설기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다 오히려 몸이 고꾸라졌다. 해로인이 바로 손을 뻗은 덕에 얼굴을 박지는 않았지만 민망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봐.”

“왜?”

“마차가 작아서 여기서는 안아 줄 수가 없다.”

“어? 아냐, 아냐. 의자 잡고 일어나면 돼.”

급하게 뒤로 몸을 뺐는데 이번에는 옷이 문제였다. 겹겹이 두른 천이 지들끼리 미끄러지면서 내 몸도 덩달아 뒤로 넘어갔다.

후우. 이번에도 늦지 않게 날 붙잡고는 한숨을 쉬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일단 개부터 내려 놔. 몸도 못 가누면서 뭐 하는 거야.”

반사적으로 설기를 보자 여전히 눈물콧물이 그렁그렁한 설기가 보였다.

“아냐. 내가 잘 앉아볼게.”

이렇게 간절하게 올려 보는데 어떻게 내려놔. 그렇지, 설기야? 너도 누나랑 떨어지기 싫지? 설기의 얼굴에 이마를 대고 문지르자 축축한 혀가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핥았다.

해로인은 뭐라 하는 대신 한 번 더 한숨을 쉬더니 마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비샤랑 둘이 있을 때도 좁단 생각이 안 들었는데, 머리가 닿아서 고개를 꺾은 모습을 보니 왜 마차가 작다고 했는지 바로 이해가 갔다.

사람이 아니라 짐을 드는 것처럼 날 가볍게 번쩍 들어 의자에 앉히더니, 자신도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접어도 긴 다리와 내 다리가 얽히자 자연스럽게 양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내 다리를 가둔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급한 거 몇 개만 묻지.”

“...?”

“오 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고 들었다. 정말인가?”

“어? 어떻게 알았어?”

대답 대신 눈빛이 더 형형해졌다. 나한테 화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보니 좀 무서웠다.

“어, 얼굴 좀 풀어봐. 무서워.”

“너한테 화난 거 아니다.”

“그건 아는데, 말 붙이기도 무섭다고.”

“...무섭다고? 내가?”

새파랗게 타오르던 벽안의 기세가 순간 꺾였다. 멈칫하며 묻는 모습에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 말 거는 좀 어렵다, 불편하다 그런 거 있잖아.”

“너한테 화난 거 아니다. 말해도 화 안내.”

“으응. 그런데 진짜 어떻게 알았어?”

“그건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 내 질문부터 대답해라.”

반가운 마음에 계속 좋던 기분이 순간 삐끗했다.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얼굴이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 꿍얼대다가 이어진 해로인 말에 진짜로 헉 소리를 내며 놀랐다.

“내 말투 때문에 그런가?”

“나 소리 내서 말했어!?”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어?”

내내 굳어있던 얼굴에 순간 웃음이라 부를 만한 게 스쳤다.

“말하지 않았나. 다 보인다고.”

“와... 곰일 때도 생각했던 거지만 진짜 귀신같다. 어떻게 알아, 도대체?”

똑똑

“전하. 3분 넘었슴다.”

화기애애해지려던 분위기가 도로 얼어붙었다. 언제 표정을 풀었냐는 듯 해로인이 다시 정색을 했다.

“기절해 있던 이유가 뭐지? 게이트 역류 충격 말고.”

“그것도 알면 거의 다 아는 건데? 그, 있잖아. 나 체력포…, 성수 못 마시는 거. 내가 쓰러지니까 교황이 치료하겠다고 신성력을 썼나봐.”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 했으며, 신전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 갈 거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걸 교황도 알아?”

“응. 교황 말고 몇 사람 더 알아. 국무원장이랑 그 사람 아들? 이랑, 나 돌봐주시는 분이랑.”

“안다고...”

흐려진 말끝을 아득, 짧고 굵은 잇소리가 맺었다.

“해로인?”

“하나만 더 묻지.”

“뭘?”

“네 이름.”

“응?”

“이름이 뭐냐고.”

질문이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할 새도 없이 웃음이 났다. 입을 벌려 활짝 웃자 해로인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아! 아아! 내 이름!”

“...”

“우와. 우와! 그러게! 비샤한테도 말해줬는데!”

“…그게 누군,”

“김, 이림! 내 이름 김이림이야.”

얼떨결에 했던 자기소개와는 달랐다.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을 트기 위해 어색하게 하던 통성명이 아니었다.

“앞에가 성인가? 이…림이 이름이고?”

“맞아!”

흐헤헤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웃음을 흘렸다. 해로인도 내 이름을 발음하는 게 어려운 건지 입술을 달싹이며 반복하다가 내가 웃자 눈을 크게 떴다.

“너무 바보같이 웃었나. 하하...”

항상 날카롭던 눈매가 동그래진 게 민망해서 웃음을 멈췄지만, 시선을 떨어질 생각을 안했다.

“금방 다녀오겠다.”

“어?”

“계약서만 주고 나올 거다.”

해로인이 말하면서 자신의 로브를 끌러냈다.

“나 여기서 뭐 더 못 걸쳐.”

“덮고만 있어. 추워.”

“아냐. 나 입고 있는 걸 봐. 춥겠어?”

가뜩이나 몸에 힘도 없는데 옷까지 치렁치렁해서 더 힘들었다. 하지만 말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는 벽안은 아무런 말도 안 들린다는 듯 단호했다.

“아, 진짜.”

“이림.”

“...!”

“어디가면 안 된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이름을 부르니 잠시 말문이 막혔다.

“몸 상태 나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라. 더 이상 혼자 어디 가지마.”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싫다고 고개를 저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힘들게 만났는데 다시 헤어질 생각도 없었다.

“기다릴 테니까 다녀와.”

해로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금 늦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닫힌 문 너머로 해로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몬드. 넌 여기에 남아서 이 마차를 지켜라.”

“예에? 사람도 아니고 마차를요?”

“무슨 말을 하는 지 알 텐데. 네 실력을 높게 샀기 때문에 까불거리는 것도 봐줬지만...”

봐줬지만, 뭐? 뒷말이 궁금한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어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몬드라 불린 남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하면서 비장하게 외치는 소리만 들렸다.

해로인이 갔다. 창문에 매달려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다가 다시 몸을 원위치 시켰다. 해로인이 덮어준 로브를 슬쩍 들추자 잠든 설기가 보였다. 눈이 초롱초롱 했던 거 같은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다.

창밖으로 몬드 경의 뒷모습이 보였다. 해로인이 없어지자마자 자세가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도 못 붙일 만큼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사이 화장실에 다녀온 마부가 마차로 돌아오다가 흠칫하는 것도 보였다. 몬드 경이 서 있는 위치는 마차에서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즉, 누가 봐도 마차를 지키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였다.

“저어, 누구십,”

“누구십니까.”

할 말을 뺏긴 마부가 당황해하면서도 순순히 저 마차의 마부노라 대답했지만 몬드 경은 말없이 날 돌아봤다.

맞아요. 그런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풀려난 마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대신 말을 돌봐주던 사람에게 하는 감사인사도 소곤소곤 조심스럽기만 했다.

시장과 신전이 보이는 쪽에 몬드 경이 서 있어서 계속 보기가 좀 그랬다. 반대쪽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자 6차선대로만 한 큰 길과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길 구경, 사람 구경, 그 너머 구경. 노래라도 들으면서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밖만 내다보니까 시간이 더럽게 안 갔다.

진짜 이럴 때 핸드폰만 있으면... "언아더"부터 삭제해야지.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을 곱씹는데 톡톡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레이디.”

“네, 네?”

움찔 놀라며 시선을 돌리니 몬드와 그 뒤로 황당하다는 얼굴의 비샤가 보였다.

“아시는 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흠. 실례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자신의 마차인데도 겨우 허락을 받고 들어온 비샤의 표정이 이상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이마에 몇 줄 더 금이 갔다.

“아가씨, 저 사람은 누군데 우리 마차 앞에서…?”

“그게요, 제가 연락해달라고 했던 일행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에 왔더라고요!”

“황태자께서 오셨다고요!?”

노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당황하다가 뒤늦게 아아, 하면서 고개를 잘게 끄덕였다.

“귀빈이 온다는 말을 들은 거 같긴한데…, 그게 전하이셨군요. 아, 그럼 만난 거예요?”

“네. 여기 앞에서 만났어요. 진짜 우연히요!”

혹시 오해할까봐 급하게 말을 덧붙이다가 사과도 했다. 괜히 수고하게 해서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자 비샤가 아니라고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국에 연결하니까 전하께서 임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다 해서 메모만 남겼거든요. 잘됐어요. 정말 잘 됐네요. 여신을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만날 인연은 다 만나게 된다고, 인연이었나 봅니다.”

“인…연이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마을, 같은 나라도 아닌데 우연히 만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말하는 비샤의 얼굴이 밝았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전하는 어디 계시나요?”

“아. 계약서만 주고 온다면서 신전에 갔어요.”

“계약서요? 흐음. 본당 일에 너무 신경을 끄고 살았네요. 어쨌든 그럼 금방 나오시겠군요?”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두드리며 고민하다가 말했다.

“전하께는 조금 나중에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원래라면 바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늙어도 겁은 없어지질 않아서 좀 무섭네요.”

비샤에 비하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싶지만, 좀 전까지 나도 번뜩이는 도깨비불에 쫄았던 차였다.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전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옮기나요?”

“아직 얘기를 못해봐서요. 이따 말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저녁식사를 같이 할까요? 시내에 파스타가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도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몬드 경의 뒷모습이 보였다. 창문을 열자 뒤를 돌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혹시요, 해로...”

가만. 이름을 막 불러도 되나. 어쨌든 황태자인데? 아까 실컷 말 놓고 이제 와서 고민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비샤 앞에서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황태자님 말이에요. 저녁에 약속 있나, 있으신가요?”

“음, 원래라면 신전의 성찬에 참가하셨겠지만... 왠지 레이디께서 같이 식사하자고하면 조엘 자작님만 던져두시고 나올 것 같습니다.”

“...?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되기는요. 그러려고 자작님 기절시켜서 데려 왔을 텐데요.”

해로인한테 말할 때처럼 장난스러운 표정은 아닌데 말에 믿음이 안 갔다.

“아, 제가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빈말은 안합니다.”

“...!”

“레이디 표정이 너무 솔직하셔서요. 음, 저는 다시 경계 서겠슴다.”

도망치듯 물러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뒤돌아서 웃음을 참고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다닐 때 “얼굴에 다 써 있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다. 남들이 들으면 재수 없다 하겠지만 돈이 부족해 본 적 없다보니 아쉬운 소리를 할 일도 얼마 없었다. 다행인 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집순이라 이런 것들을 자각은 하고 있었다는 거였다.

표정관리를 잘 못한다는 건 안다. 그런데 딱히 나가서 사람 상대할 일이 없다. 월세 잘 받고, 관리인한테 월급만 잘 이체해주면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속이 까발려지다니. 인생...

“아가씨?”

“예? 아아. 네, 가능할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수님이랑 올라씨한테는 꼭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는 말에 비샤가 쓰게 웃었다. 그 표정을 모른 척했다.

비샤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뒤 마차도 내가 쓰라고 했다. 비샤가 다시 신전으로 돌아간 뒤에는 잠깐 졸았다. 허벅지를 데우는 설기의 온기가 너무 따끈해서 절로 잠이 왔다. 그래도 자리가 불편해서인지 깊게는 자지 못했다.

덜컥, 하고 몸이 조금 흔들리자 바로 눈이 떠졌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해로인이 보였다.

“졸린가? 피곤해?”

“으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서 졸았어.”

“배는? 안고파?”

“아직은? 아, 그런데 이따가 저녁에 시간 돼?”

“된다. 몬드한테 들었어.”

해로인의 말에 몬드 경이 또 불쑥 창문에 얼굴을 내밀었다. 나랑 있을 때는 표정이 딱딱했는데, 해로인이 오자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전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됨까. 다 들려서 들은 건데 괜히 엿들은 거 같아지잖슴까.”

“지금도 엿듣고 있다 끼어든 거고?”

“아... 떨어지겠슴다.”

한마디 이상을 못 가면서 자꾸 뻗대려는 게 좀 귀엽기도 했다. 작게 웃자 해로인의 시선이 바로 꽂혔다.

“왜 웃어.”

“...?”

“왜 웃었냐고.”

“…아니, 사람이 좀 웃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정색하고 물어.”

“…?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거다.”

얘기 흐름이 영 이상했다. 둘 다 인상만 쓰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 웃겨서 결국 다시 웃고 말았다.

“내가 웃음포인트가 좀 많아. 갑자기 웃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

“궁금한데.”

“별 거 아니라니까.”

왜 웃었는지 설명해주다가 그걸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게 웃겨서 끅끅 웃었다. 얘기를 다 들은 해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몬드는 미친놈이다. 말 시키지도 말고 대답 해주지도 마.”

대답도 안하고 웃자 못마땅해 하다가 마차 벽의 퉁퉁 두드렸다. 그러자 있는 줄도 몰랐던 작은 창이 열리며 마부가 고개를 눈을 빼꼼 내밀었다.

“부, 부, 부르, 셔었, 습니까?”

“가격은 상관없으니 바로 옷 수선을 해주는 의상실로 가도록.”

“네, 네, 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목소리가 뚝뚝 끊겼다. 작은 창을 닫는 손도 조심스럽기 그지없었다.

“왜 저렇게 굳어 계시지? 나 잘 때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저런 마부한테 뭐라 할 일이 뭐가 있나.”

“음. 그러게.”

어색하게 웃는데, 마차가 갑자기 출발했다. 자동차로 치면 급발진이었다. 나는 굴러 떨어지려는 설기를 잡았고, 남자는 그런 나를 잡았다. 그리고 마차에 못 탄 몬드경은 마차를 잡는다.

“히이익!”

마부가 겁에 질리는 소리가 생생했다. 몬드 경이 자기가 마차를 몰겠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삐를 내주기까지 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없습니까? 숨넘어가겠습니다. 진정 좀 하십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말 안 시키겠슴다.”

작은 해프닝 후 다시 마차가 출발했다.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 혹시라도 마부한테 들릴 새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쪽 때문에 저러시는 건가?”

“내가 뭐.”

“황태자라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다 그랬다. 하다못해 국사시간 때 배운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평민의 신분이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보고, 배우기만 하던 걸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했다. 해로인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만 지었다.

“이림, 너는 어디서 온 거지?”

“으응?”

“왜 슬레인에 그렇게 무방비하게 있었던 거냐?”

예상했던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하려니 말이 막혔다.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야지 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그런 걸 전부 귀신같이 잡아낸다는 거였다.

아니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 게임 밖에서 왔다고? 미친년 취급보단 거짓말쟁이가 낫지 않나?

혹시 표정이 읽힐까봐 눈을 내리깔고 끙끙 앓았다. 결국 내뱉은 말은 한없이 진실에 가까운 개소리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상하게 들릴지 아는데, 진짜야.”

“그래.”

“나는 한국인이야.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슬레인 이었어. 참고로 내가 살던 곳의 지도에는 슬레인도, 화이트도, 제국도 없었고.”

말하면서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싶었다. 슬쩍 고개를 드니 희미하게 찌푸려진 미간이 보였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른다고?”

“아니…, 또 그건 아닌데... 사실 슬레인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다? 개소리 같지만 진짜다? 응?”

차마 게임이라고는 못하겠어서 그 단어를 숨겼더니 말의 앞뒤에 개연성이 전부 사라졌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개연성은 내가 이 게임에 들어왔을 때 이미 다 사라진 걸.

“네가 살던 곳에 슬레인도, 화이트도, 제국도 없지만 슬레인을 영상으로 본 적은 있다?”

해로인의 말에 다시 고개를 떨궜다. 입으로는“그래서 내가 개소리 같을 거라 했잖아”라고 웅얼거렸지만 말하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사라진지 오래였다.

“고개 들어. 네 말대로 헛소리 같긴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 안다.”

“...”

“그럼 나이는? 가족 관계는? 신분은 어떻게 되지?”

갑자기 몰아치는 호구조사에 당황하면서도 하나씩 대답해줬다. 스물넷인데 생일 안 지났으니 만으로는 스물 둘이었다.

“그래서 몇 살이라는 거지?”

해로인이 헷갈려 해서 여기는 어떻게 나이를 계산하냐 했더니 만 나이로 셌다. 그럼 스물 둘, 이라고 하자 표정이 더 이상해졌다.

“왜 나이가 두 살이나 줄지?”

“내가 살던 데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거든.”

“...?”

“그냥 그런 나라구나 해. 그럼 그쪽은 몇 살이야?”

“스물넷.”

“아, 그럼 동갑이네.”

해로인 표정이 이번에는 좀 더 티나게 구겨졌다. 나도 내가 해놓고도 말이 좀 웃겨서 일단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

“스물 둘이랑 스물넷이 왜 동갑이냐.”

“내가 살던 데서는 스물넷이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오빠라고 불러줘?”

이번에는 또 무슨 헛소리냐는 눈빛이었다. 알고 보니 여기서 오빠나 형, 언니라는 가족 사이에서만 쓰는 표현이란다.

결국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걸로 합의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가족 관계는 아빠, 엄마 끝. 더 따지고 들어가자면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지만 부모님이랑도 남 같은데 친척은 완전 남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네가 없어진 걸 아는 사람이 없나?”

“그러게... 아니다! 관리인들이 월급 안 들어오는 거 알면 신고해 주지 않을까?”

그럼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겠지?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할 것 같지는 않다. 귀찮아하거나 그도 아니면 아예 신경을 끄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때 차가운 손이 볼을 감쌌다. 갑자기 살에 닿은 찬 기운에 놀라자 잠깐 손을 떼기는 했지만 금방 다시 달라붙어왔다.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붙잡고만 있는 손. 차가운 손이 내 체온을 나눠받듯 점점 따뜻해져갔다.

“어차피 앞으로는 내 성에서 지낼 거잖나.”

“...아닌데?”

“아니라고?”

희번득한 도깨비불이 무서워도 할 말은 해야 했다.

“내가 곰일 때부터 꼭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언제 같이 살겠다고 한적 있어? 그런데도 툭하면 목줄 채운다, 우리에 가두겠다 협박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

“...”

“우리가 같이 살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만큼 오래 알지도 않았잖아.”

말없이 내 얘기만 쭉 듣던 해로인이 툭하고 사람 속을 뒤집었다.

“너는 생각하는 게 인간 쪽에 더 가깝군. 스스로도 수인이 아니라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 내 말 제대로 들었냐고!”

“들었다. 하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라. 도망만 안 간다면 목줄도 우리도 필요 없다.”

“뭐라는 거야.”

차가운 시선으로 보다가 볼을 붙잡은 손을 밀어냈다. 해로인은 순순히 밀려나주는 대신 허리를 숙이며 몸을 붙여왔다.

“어? 어? 왜 이래?”

“네 말뜻은 이해했다. 나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뒤로 가. 왜 이렇게 붙어.”

“곰일 때는 안겨 다녔다만.”

“그건 그때고. 나 지금은 사람이거든?”

얘기는 잘 흐르는가 싶다가도 툭하면 옆으로 빠졌다. 주로 내 쪽이 열 받아 하긴 했지만 해로인 역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차가운 얼굴로 일일이 반응해왔다.

마차가 멈춘 줄도 모르고 싸우다가 정중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먼저 아래로 내려간 해로인이 팔을 벌렸다.

물 흐르듯 막힘없는 태도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다. 공주님 안기도 아니고, 아빠가 자식을 안 듯 한 팔로 날 안아든 남자가 혀를 찼다.

“왜 무게가 곰일 때랑 똑 같은 거지?”

“설마. 크기차이가 있는데. 그건 좀 오버다.”

“진짜 스물 둘 맞나? 덜 큰 거 같은데.”

“그냥 인종 차이인거거든.”

마차에 내려서도 투닥거리는데 옆얼굴에 뜨거웠다. 안 그래도 계속 뒤에서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는 몬드 경 때문에 곤란했는데, 시선이 더 늘었다.

슬쩍 앞을 보자 3층짜리 건물 입구에 양옆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못해도 5, 6명은 되 보였다.

“…뭐지? 그러고 보니까 여긴 왜 온 거야?”

“네 옷 사러.”

사실 의상실로 가자고 했을 때부터 예상은 했다. 다만,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서 오십시오”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완벽한 인사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뒤늦게 내가 어떻게 보일 지에 대해 생각이 미쳤다. 맞지도 않은 큰 옷을 이불처럼 두르고, 또래의 품에 안겨서 이동하고 있다. 그것도 멀쩡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자 몸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눈 한번 안 뜨고 잘 자는 설기가 보였다. 눈물자국이 남은 흰털을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최대한 마음을 비웠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나는 공기다...

가게 안은 옷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잘 꾸며놓은 카페 같았다. 해로인은 푹신해 보이는 2인용 소파에 날 내려놓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차와 우유, 커피 전부 준비돼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뭐 마실래.”

“커피인데, 차가운 걸로 부탁드려요.”

“앗!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음이 없어서...”

“아니, 아니에요!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해로인이 홍차를 시킨 후 직원이 우르르 빠져나갔다. 몇은 남아서 옷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잠깐 의문이 들었다.

“평소에 얼음을 넣어 마셨나?”

“그럼. 아메리카노는 아아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가방에서 금화를 꺼낼 때부터 예상은 했는데 정말 돈이 많았군.”

아, 이거 알 거 같다. 읽었던 소설에 빈번하게 나왔던 얘기였다. 얼음은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마법으로만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다.

“여기도 얼음이 비싼가 봐?”

“네 나라에서도 비쌌나?”

“…아니?”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이상하게 변하는 해로인 표정에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보다 내 가방 줘.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없어. 슬레인에 있다.”

“아.”

“…진짜로 깜박했다.”

“어? 나 아무 말 안했는데? 찔리나봐?”

히죽 웃으며 놀리자 미간에 금이 가는 게 보였다. 신전 앞에서 만난 것부터가 우연이었다. 그 때문인지 아쉽긴 해도 화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나 그럼 돈 좀 빌려줘.”

“왜?”

“오늘 저녁 내 돈으로 살 거야. 교수님한테는 내가 사드려야 돼.”

“그자들이 너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

“교수님은 아니야.”

비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게 내 마음에 찼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노력했다는 것만큼 확실했다.

얘기를 하는 사이 직원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차와 커피는 물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디저트까지 같이 나왔다. 빵에 쿠키에 잼과 버터까지. 하지만 가장 먼저 손이 간 건 새카만 커피였다.

“얼마만의 커피야...”

향을 들이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온 후 든든한 식사를 해 본적이 없다. 배는 불렀지만 뭘 먹어도 국물 생각이 간절했다.

물론 커피가 그런 국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속을 개운하게 씻겨 내려준 다는 점에서는,

“…아! 써!”

“뜨거운 게 아니고?”

“괜찮으세요? 여기 이게 각설탕 단지에요. 설탕을 좀 넣어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해로인과 직원이 번갈아 말을 시켰지만 귀에 안 들어왔다. 왜? 왜 이렇게 쓴 건데? 강렬한 쓴맛 뒤에 찾아온 건 배신감이었다. 커피가 어떻게 나한테!

그 와중에 해로인이 커피 잔에 설탕을 넣으려는 게 보여서 손으로 막았다.

“넣지마.”

“쓰다면서.”

“…왜 쓰지? 어째서?”

한심하다는 눈빛이었다. 아 물론 커피가 쓴 게 당연하지만, 아니! 못 먹을 정도로 쓰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모금 들이켰다. 이번에도 혀끝에 남는 맛이 너무 써서 인상이 찌푸려졌다. 이건 꼭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같은...

헐.

문득 떠오른 생각에 당황스러웠다. 설마‘2lim’은 지금이 첫 커피인가? 그래?

“정신 차려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와. 이러면 술도 확인해보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해로인이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한 여자가 뒤에 여러 명을 달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곳의 수석 디자이너 마담 선프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프리는 방긋 웃으며 실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훑었다. 특히 해로인을 보는 눈빛이 대단했다.

“실례지만 옷은 어떤 분이 보러 오신 건가요?”

“저요. 제가 지금 입을 게 없어서요.”

“그러시군요. 일단 카탈로그부터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있던 카탈로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말이 좋아서 카탈로그지 가족앨범 만한 크기의 스케치북 이었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재생지처럼 노르스름한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직접 그리고 칠한 드레스가 가득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기에는 이런 장신구를 걸치고 저런 신발을 신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테이블에 펼쳐진 카탈로그만 다섯 개였다.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홀린 듯이 설명을 듣다보니 어느새 마지막 장이었다.

말을 다 마치고 가볍게 목을 축이는 선프리를 보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음…, 선프리씨?”

“선프리 아니면 마담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음. 그런데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지금 사려는 건 드레스가 아니라 편한 옷이거든요.”

프로는 프로인지 선프리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편한 옷이라 하면 어떤 걸…?”

“저 뒤에 있는 분이 입은 옷 같은 거요. 그런데 저기서 레이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지목 당한 사람이 움찔하고 떨었다. 종아리 아래로 떨어지는 까만 단색 원피스에 주머니가 많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

“어머, 저건 일할 때 입는 옷인데요.”

“길 다니면서 보니까 다들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네. 평민들은 보통 저렇게 입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입을 다물었다.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선프리의 말이 꼭‘설마 지금 평민처럼 입겠다는 거니?’처럼 들렸다. 그때 가만히 있던 해로인이 입을 열었다.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드나?”

“예쁘긴 한데 맨날 저렇게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

목 끝까지 올라온 깃은 뻣뻣한데다 그 끝을 보석과 레이스 아니면 깃털로 마무리했다. 어깨는 뽕이 잔뜩 들어가 봉긋했고, 허리 아래로 차르르 떨어지는 치마는 길고 풍성했다. 치마가 구겨질까봐 함부로 앉지도 못할 거 같았다.

고개를 젓자 해로인이 왜? 라며 물었다. 불편하니까 그렇지. 정말 모르겠다는 눈빛이라 표정을 찡그리며 귓속말을 했다. 그래도 옷을 만든 사람 앞에서 크게 말할 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로인은 대답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시중들 사람들이 있잖나.”

“처음부터 편하게 입으면 누구한테 도움 받을 필요도 없는데, 굳이?”

“어차피 성에 가면 최소 3, 4명은 전속시녀가 붙을 거다.”

“안 간다니까?”

속닥거리다가 빤히 쳐다보는 시선에 자세를 바로 했다. 선프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 편한 옷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옷을 원하시는 지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고개를 돌리고 몸을 숙이자 해로인이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여왔다.

“다른 데도 여기랑 비슷할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다.”

갑자기 좀 아쉽고 말았던 가방이 엄청 아쉬워졌다. 거기에 셔츠랑 바지 많은데.

“음, 그러니까요. 편해야 하고요.”

활동성이 좋은 옷 말씀이시죠? 그럼 소매는, 치마길이는, 네크라인은 , 주머니는...

일반인과 전문가는 다르다고 편하면 좋겠다는 말에 수십 가지 질문이 쏟아졌다. 대답하다보니 점점 기가 빨려서 피곤해져갔다. 인터넷 쇼핑몰이 그리웠다.

해로인은 묵묵히 옆에 있다가 내가 지쳐서 늘어질 때마다 초콜릿을 먹였다. 그러면서도 성에 가면 아예 처음부터 재봉사를 불러 맞춤제작 하자고 했다. 찬기가 뚝뚝 묻어나오는 서늘한 얼굴이라 처음에는 별생각 없었는데 듣다보니 성에 가자고 꼬드기는 거였다.

선프리는 매장에 있던 드레스 중 목깃이 없는 걸 가져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선해줬다. 치수를 잴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말랐다고 하길래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

“이곳 사람들 평균키가 어떻게 돼요?”

“아, 타지분이셨군요. 어쩐지 유행을 하나도 모르시더라.”

말에 뼈가 좀 있었지만 곧 원하는 대답을 들려줬다.

“여자는 보통 170 중반이고요, 남자는 거기서 10cm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170 중반이 평…균이요? 한국남자들 평균키네…?

“1415살 때가 딱 아가씨 키 일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는 뭐랄까 뼈대부터가 다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먼 곳이요. 아마 이름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아하하... 어설프게 웃자 어떻게 생각한 건지 더 묻지는 않았다.

“다 됐다. 거울 한 번 보시겠어요?”

뒤를 돌자 전신거울에 빠글빠글한 곱슬머리마저 예쁘게 소화하는 미인이 보였다. 가슴 아래부터 A라인으로 떨어지는 남색 원피스였다.

“여기 소매에 달린 거...”

“진주에요. 장식이 아니라 진짜 단추라서 부러 상급으로는 안 달았는데... 상급으로 바꿀까요?”

“아뇨, 아뇨. 괜찮아요.”

떼어 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걸로 바꿔 주냐고 물었다. 내가 뭐라 말 할지 알아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했다.

“옷은 괜찮으세요?”

“네, 예뻐요.”

“다행이네요. 그럼 아까 보여드린 흰색이랑 노란색 원피스도 비슷하게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맞춤제작으로... 선프리의 말에 적당히 대꾸하며 그 사이에 준비된 신발로 갈아 신었다. 안에 양털을 덧댄 케이프도 하나 같이 샀다.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었다.

“정말 수선 안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허리쯤에서 찰랑여야 예쁜데.”

“괜찮아요. 길어야 따뜻하죠.”

“…아가씨께서는 정말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첫 대면 이후 자꾸만 아닌 척 긁는다. 그런데 열 받는 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되받아칠 말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였다. 이러고 또 마차에 타면, 잠자기 전에 생각나겠지? 아오.

계산을 하고 온 해로인이 가자는 눈짓을 해보였다. 하다못해 지금 돈이라도 있었으면 진상처럼 굴기라도 하는데!

멍멍!

옷을 갈아입기 위해 소파에 내려놓자 바로 깬 설기가 꼬리를 흔들었다. 품에 안자 바로 해로인이 쳐다보긴 했지만 무시했다.

“도와드리,”

“몬드.”

“넵. 마차나 몰겠습니다.”

해로인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 올라탔다. 의상실에 있던 내내 아닌 척 품평을 당했더니 너무 높이 있는 마차 문마저 짜증났다.

“지금 몸 상태가 별로라 그래. 괜찮아지면 혼자서 올라갈 수 있어.”

“...? 그래.”

“가방에 옷도 있는데. 이렇게 살 필요 없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풀기였나 보다. 홧김에 말해놓고 바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야. 미안해...”

“...? 뭐가?”

“아, 거... 화풀이해서 미안하다고.”

해로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화풀이라고? 화가 났나? 왜?”

“아니야.”

“의상실에서 너한테 무례하게 군 인간이 있는 건가?”

“아니? 없는데?”

정색을 하고 없다하니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절대 있군’같은 표정이었다. 딱히 재촉하며 묻지도 않는데 지그시 쳐다보는 시선에 저절로 입술이 열렸다. 미주알고주알 다 떠들고 나니 확실히 속은 시원했다.

“불러서 매질을 하라 해?”

“…그런 말 하지 마. 그쪽은 평범하게 말해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같아.”

“농담 아닌데. 오히려 관대한 처분이다.”

“뭐라는 거야. 그러기만 해봐.”

해로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깜박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살던 곳은 여기랑 많이 달랐나보군.”

“…엄청 다르긴 하지.”

“내가 더 신경 쓰겠다.”

“...?”

“그보다 슬레인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묻고 싶은 게 있다.”

“슬레인? 뭔데?”

“영상으로 슬레인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본 거지?”

“...”

“그리고 정확히 어떤 장면을 본 거냐?”

아까 자세히 안 물어보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예고도 없이 훅치고 들어온 질문에 당황한 걸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말았다.

“…어떤 상황에서 본 건지는 말하기 어려울 거 같아.”

“...”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게 절대 그쪽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정말로.”

어설픈 거짓말은 안하느니 못했고, 솔직히 털어놓는 건 더 말도 안 됐다.

게다가 눈앞의 이 남자는 나랑 똑같았다. 살아있고, 말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여기가 핸드폰 게임이라고 해도 해로인을, 사람들을 캐릭터로 볼 수 없었다.

“말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된다.”

“고마워.”

“됐다. 고맙거나 미안해 할 필요도 없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린 건 기분 탓이 아니겠지? 아. 잊고 있었다. 사람 사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지를. 생각지도 못했던 말, 의도치 않았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혼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이것도 내가 더 신경…, 아니 노력 해야겠군.”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나한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느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다.”

“나 방금 진짜로 고마워서 고맙다고 한 건데…?”

“그래도 여전히 성으로 갈 생각은 없잖나.”

그게 지금 얘기랑 무슨 상관이냐 싶은데 지그시 쳐다보는 눈빛 안에 뭐가 담겼는지 모르겠다. 어정쩡한 느낌으로 시선을 맞추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군. 나중에 네가 살던 나라 얘기를 해다오. 문화부터 알아야겠다.”

해다오, 라는 어투가 어색했다. 꼭 억지로 쓴 말 같았다. 그리고 그 말투와 해로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언제 가라앉았냐는 듯 기분이 나아졌다. 명령조인 말투를 불편해해서 그래?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생리 중도 아닌데 기분이 극과 극을 오갔다. 그리고 생리 중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 기복이 전혀 버겁지 않았다.

“어쨌든 그럼 뭘 봤던 건지는 말해 줄 수 있는 건가?”

“으응. 내가 본 영상 속에서 로니, 그러니까 나무 밑동에 살던 노인은 처음에는 되게 착해. 아, 그리고 영상 속에서 나는 제3자처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돼.”

꿈을 꾸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하자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내가 눕기 싫어서 뻗댔던 단 기억나?”

“그래. 심장이 있을테니 부수라고 했던 제단.”

“맞아, 거기. 거기에 손을 대거든. 영상 속에서 말이야. 그랬던 제단에서 갑자기 붉은빛이 나고, 로니가 말해.‘제단을 완성시킬 마지막 제물을 찾았다’고. 그러고는 리치로 변해.”

마지막 제물? 그리 중얼거리며 살짝 기울어졌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안 그래도 평소 표정의 기본 값이 무표정이었다. 그것도 찬기가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얼굴. 그러니 조금만 인상을 써도 남들의 배로 위협적이었다.

눈치를 보며 왜냐고 물었지만 고개만 젓고는 말을 돌렸다.

“다른 건? 다른 건 못 봤나?”

“응. 사실 영상 속에서 슬레인의 몬스터들은 말 그대로 몬스터였거든. 오크족장이 부탁을 한다거나 죽…는 건 본 적 없어.”

“숲지기의 산장은?”

“그것도 본 적 없어. 진짜 로니 중심으로 봤거든. 그리고 나도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신전이랑 뭘 계약한 거야?”

묻고 나서야 계약 같은 걸 함부로 물어도 되나 싶었지만, 이런 고민을 막 하려는 찰나 해로인이 바로 대답해줬다.

“슬레인 조사 관할권에 대한 거였다. 신전 쪽에 넘겨주면 안 되는 게 나왔어.”

“그게 뭔데?”

“산장에 있던 시체들.”

불쑥 떠오르는 참상에 반사적으로 얼굴이 찡그려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받은 게 여든여덟 구였다. 전부 심장이 없었으,”

“잠깐만. 여든여덟!?”

“아마 돌아가면 더 늘어 있을 거다. 전부 파낸 게 아니라고 했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눈이 질끈 감겼다. 꽤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여든여덟이면 거의 백에 가까운 숫자였다. 심지어 거기서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물을 흑마법사한테 공수한 놈들을 잡아야 한다.”

아, 너무 끔찍해... 진저리 치느라 어깨를 떨자 걸치고 있던 해로인의 로브가 흘러내렸다.

“시체는 멀...쩡해? 리치가 마법 엄청 써댔는데...”

“마왕에게 속하게 되면, 마왕의 힘을 빌린 모든 공격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 땅은 파헤쳐 졌어도 마왕한테 바쳐진 제물이라 그런지 시체는 멀쩡하더군.”

로니가 난사했던 마법에 드러난 건 심장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시체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고 말이다. 해로인이 흘러내린 로브를 도로 여며주며 말했다.

“신전에서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던데.”

“나 여기 오자마자 기절해 있었잖아. 게다가 지금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거 같고.”

“성녀에 대한 걸 말하는 건가?”

“와... 그쪽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뭐래?”

“이림 네가 신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사람이 다니는 대로라 그런지 천천히 달리던 마차가 멈춰 섰다. 시전 앞과 비슷할 정도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심지어 노래와 악기소리도 섞여 있었다.

띠링, 띠링, 띠리링. 아기자기한 맑은 소리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독였다. 교황 이 인간은 게임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대화 한 번 못해봤는데, 얘기만 들어도 화부터 났다.

“아니,”

전에 인터넷에서 한국인은 아니가 아니면 말을 시작 못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긍정할 때도 아니, 부정할 때도 아니, 질문할 때도 아니.

“또 아플까봐 신전에도 못 가는데 성녀는 무슨 얼어 죽을 성녀냐고!”

“왜? 또 무슨 일 있었나?”

“응.”

있었지. 반나절을 붙어 있었어도 할 얘기가 수두룩했다. 하지만 일단은 마차에서 내려야 했다. 몬드 경이 다른 마차가 들어오고 있다며 밖에서 재촉을 해왔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런데 설기 잠 엄청 자네. 어떡하지?”

신전 앞에서 만난 이후로 줄곧 자기만 했다. 의상실에서도 품에서 내려놓았을 때 잠깐 깼을 뿐 안아들자 다시 금세 잠들었다.

“피곤할 만하지.”

“왜?”

“너 없어진 후로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잤다.”

얘기를 듣고 보니 배가 홀쭉했다. 코가 촉촉하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었다. 마음이 아팠다.

“두 분. 이제 진짜, 정말로 나오셔야 함니다.”

몬드 경의 재촉에 마차를 내렸다. 마부가 마차를 끌고 건물 뒤로 가고, 레스토랑에서 검은색 앞치마를 한 직원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비샤님께 미리 말씀 들었습니다. 이림님 맞으시죠? 안으로 안내 도와드리...”

줄줄줄 말을 잇던 직원의 표정이 일순 흐려졌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내가 안고 있던 설기였다.

“저어, 저희 가게가 음식을 파는 곳이고 또 손님들 중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지만 설기를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맞다, 식당이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에 당황해 하려니 오히려 직원이 재차 사과를 해왔다.

“불편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진상이 됐다. 의상실에서면 몰라도 여기는...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일단 주변을 살폈다. 설기를 맡길 데가...

“몬드.”

“…아, 설마요. 그놈 지랄에서 해방된, 아, 죄송함다. 어쨌든 저는.”

“데리고 있어.”

“하지만!”

“가.”

몬드 경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해로인은 내 어깨에 걸쳐놓은 로브를 뭉쳐 꼭 둥지처럼 만들더니 몬드의 양손 위에 올려놨다.

“이림. 여기에 놔라. 네 냄새가 나면 그놈도 쉽게 깨지는 않을 거다.”

“아, 그런 방법이!”

“넌 조용히 하고. 깨우고 싶나?”

“너무함다...”

해로인 말처럼 다행히 설기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어쩐지 자는 애 몰래 놀러가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몬드 경은 멀리 가는 대신 레스토랑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직원도 당황해서 쳐다봤지만 해로인이 들어가자며 고갯짓했다.

“몬드 경 어디 카페 같은 데라도 가 있으시라고 해.”

“몬드한테 존칭 쓰지 마. 그전에 신경도 쓰지 말고.”

“아니, 내가 방금 무슨 말 했어.”

“호위라서 그래. 다른 기사들 같았으면 죽어도 못 떨어진다 했는데 저놈이라 저 정도 융통성은 있는 거다.”

그 말 진짜야? 둘러대는 게 아니고? 투닥거리며 막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우리가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켜서 있던 다른 직원이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카를님. 카를 경.”

응? 카를? 바로 기억은 안 나도 분명 아는 이름이었다. 누군지 보기 위해 힐끔 고개를 돌렸다가 걸음까지 멈추고 말았다. 저무는 노을에 물든 은발과 새하얀 피부를 한 미인들. 늙었냐, 젊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취향의 얼굴을 한 남자가 둘이나 거기에 있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춰선 나 때문에 덩달아 멈춘 해로인이 뒤를 보다 아, 하고 짧게 소리를 냈다. 그때 쯤 나는 미인은 늙어도 젊어도 예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잠깐. 그런데 뭔가 잊은 거 같은데.

“…국무원장 아니십니까.”

해로인이 말을 걸기만 기다렸다는 듯 나이가 많은 쪽 미인이 우아하게 허리를 숙였다. 젊은 쪽인 베른디노트도 마찬가지였다.

“에드마오 카를이 제국의 빛을 뵙습니다.”

얼굴만큼이나 듣기 좋은 미성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감탄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저 미인, 아니아니 저 인간이 그 국무원장이었구나!

그랬다. 비샤가 분명 베른디노트는 국무원장의 아들이라고 했다. 저렇게까지 닮은 부자지간일 줄은 몰랐지만, 와, 근데 나이 많은 쪽은 차가운 미인... 제발.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다. 눈앞의 미인들의 외모가 너무 강력했다. 내가 혼란에 빠진 사이 직원들 역시 비명을 삼키는 중이었다. 들었어? 제국의 빛이면... 대박! 대충 그런 표정이 아닐까 싶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성하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정말 전하의 일행이었군요.”

에드마오의 짙푸른 눈이 나를 향했다. 어떤 호감도 깃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은. 완벽히 비즈니스적인 얼굴이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작 입이 안 떨어졌다. 달지도 않고 퍽퍽하기만 한 고구마를 입에 처박은 기분이었다. 왜 말을 못해 왜!

얼굴이 다야? 얼굴이 다냐고!

…그건 아니지만 저 얼굴을 보라고!.

아...

...

갈등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합의를 봤다. 바로 옆에도 엄청나게 잘 생긴 얼굴이 있는데... 취향이라는 게 이래서 참 무서웠다.

“국무원장께서도 여기에 식사를 하러 오셨나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사장이 저희 가문 집사의 딸이라... 자주 오는 편입니다.”

허리에 해로인의 팔이 감겼다. 날 당기는 대신 본인이 한발자국 움직여 가깝게 붙어선 남자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 이게 우연은 아닌 겁니까?”

해로인의 돌직구에도 국무원장은 눈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가깝게 붙어선 우리를 유심한 눈으로 볼뿐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예약을 잡을 때 검은머리를 한 여성 일행이 올 거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엄청난 실례인 건 압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행 분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해로인의 얼굴은 처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허리를 감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손을 툭툭 치고 고개를 숙여보라는 시늉을 했다.

“저 인간이랑 같이 밥 먹기는 싫어. 그런데 무슨 말 할지는 들어보고 싶거든. 괜찮아?”

“…그래.”

귓속말을 하고 고개를 들자 시선이 느껴졌다. 젊은 미인, 베른디노트 쪽의 시선이었다. 알 수 없는 눈을 한 미인은 웃는 듯 말았던 저번과 다르게 정말로 웃고 있었다.

“가게 현관에서 나눌 대화는 아닐 것 같고... 안으로 들어가죠.”

해로인의 힘에 몸이 돌아가고 나서야 미인의 웃음에서 벗어났다. 지그시 쳐다보는 벽안을 외면했다.

레스토랑은 특이하게도 1층이 방이고 2, 3층이 홀이었다. 위층에서 은은한 연주 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긴 복도에 방이 딱 하나인 곳이었다.

뒤에 있는 사람들 신분 때문인지 직원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더 할 나위 없이 정중했다. 노크 후 안으로 들어서자 비샤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눈을 홉떴다.

“에드마오…?”

나이가 들어 표정이 적어진 노인의 얼굴 위로 갖가지 감정이 스쳐지나갔다. 당황, 분노, 미안함, 곤란함 등등. 마침내 얼굴에 자리를 잡은 건 분노였다.

“이…게 어떻게 된…?”

“전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아, 가씨한테가 아니라…?”

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미인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풀어졌다.

“교수님의 말씀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낼 테니 걱정 마십시오.”

“...”

“아. 그러고 보니 교수님께 양해도 못 구했네요. 죄송합니다.”

비샤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아마도 이를 악물었기 때문이겠지? 누가봐도 화를 참고 있던 비샤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에드마오와 급하게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되니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도 없다. 에드마오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비샤의 차가운 눈빛에 인상만 찌푸리고 말았다.

“디노야. 전하께서 무료하시지 않도록 잘 모시고 있어라.”

“예.”

“그리고 아가씨. 우리랑 같이 가요.”

제가 왜요…? 갑작스러운 지목에 당황한 것도 잠시였다. 여전히 허리에 둘러져 있던 팔을 치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림.”

“무슨 말씀하실지 알 거 같아서 그래.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금방 다녀올게.”

해로인의 얼굴이 또 딱딱하게 굳었다. 눈빛이 무섭긴 했지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었다. 고민하다가 옷자락을 당기자 몇 번을 반복한 일이라 그런지 익숙하게 고개를 숙여왔다. 베른디노트를 의식하며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최대한 작게 얘기했다.

“가서 국무원장 한 대 치고 올 거야.”

“...뭐?”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말해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뒷말은 몸을 빼며 크게 말하자 차가운 얼굴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표정의 비샤와 에드마오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직원은 당황하면서도 다른 방으로 우릴 안내했다.

“방에는 알아서 돌아 갈 테니 그쪽에서 기다려주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힌 것과 동시에 노인의 손바닥이 에드마오의 등에 닿았다. 찰싹도 아니고 퍽퍽 소리가 났다.

“교수님! 뭐 하시는, 교수님!”

에드마오의 포커페이스가 깨졌다. 진심으로 황당해하며 몸을 피하는데 비샤가 놓치지 않고 바짝 따라다니며 계속 때려댔다.

“교수님!”

“네 스승 안 할 거다! 그렇게 부르지도 마라!”

“진정하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무리하면,”

“그걸 아는 놈이 이렇게 속을 썩여!”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한 비샤가 허리를 굽히며 기침을 쏟아냈다. 토라도 할 것처럼 격렬한 기세였다. 국무원장이 그런 노인을 급하게 부축하며 자리에 앉혔다. 기침을 한 후 부쩍 늙어버린 얼굴로 비샤가 말했다.

“에드마오.”

“물을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유다 그 놈은 맹목적인 데가 있어서 한 번 귀를 닫으면 말을 들어처먹지를 않아.”

“교수님…, 외부인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놈은 아니잖느냐. 누구보다 이치에 밝은 놈이, 왜 그러는 거야. 응?”

국무원장의 입술이 일자로 다물렸다. 무거운 분위기에 입도 벙긋할 수가 없었다.

“저 아가씨는 네놈들의 피해자다. 유다놈이 시작을 했어도 너도 같이 방조했으니 잘못을 했어.”

“...”

“내가 자식까지 본 놈을 붙잡고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느냐? 그리 가르쳤어?”

여전히 말이 없는 국무원장을 쳐다보는 눈빛에는 어느새 화가 사라지고 안쓰러움만 남아있었다. 비샤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이걸로 아가씨의 마음이 풀어지진 않겠지만... 얘가 고집 센 아저씨가 되서 그렇지, 자기 잘못 끝까지 모른 척 할 사람은 아니에요.”

꼭 진심으로 사과 할 거라고, 그게 늦어질 거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혼내서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고 했다.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짙푸른 눈이 바람에 휩쓸린 낙엽처럼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국무원장이 부러워졌다. 좋겠다. 저렇게 자기 일처럼 괴로워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못했던 시절, 반 친구랑 싸우다가 실수로 코를 쳤는데 코피가 나고 말았다. 그것도 꽤 많이 나서 결국 집에 연락이 가고 말았다.

두어 시간 후 상담실에서 관련자가 모였다. 나, 반 친구, 담임 선생님, 친구의 엄마 그리고 엄마의 비서.

얘기가 다 끝나고 교실 복도에서 비서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지금 이림이 앞에 있는데, 바꿔드릴까요?’하고 물었다.

왜요? 거기 일 끝났으면 바로 복귀하세요

아. 올 때 명진 김이사 아들 병문안 선물 좀 사올래요? 다쳤다는데 한 번 가봐야지

싫다도 아니고 왜였다. 뒤에 나온 말은 기억하기 싫은데도 여전히 생생했다. 내 눈치를 보는 비서 앞에서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워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었다.

“...교수님이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러지 마세요.”

고개를 저으며 비샤를 일으켰다. 국무원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 대 때리고 온다고 했는데. 비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비샤도 밉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셋 다 말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쪽도 대화가 없었는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해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옆자리 의자를 빼줬다. 그러고는 내가 앉고, 본인 역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시선이 떨어질 생각을 안 했다.

“왜?”

“...”

“배고프니까 식사 주문부터 하자. 음식 나오는 동안 얘기하고.”

방 한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던 직원이 살았다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주문 도와드리겠다며 메뉴판을 펼쳐 보여줬다.

글자는 다 읽는데, 읽기만 했다. 목차 맨 위에 "파스타"라고 적혀는 있는데 그 밑에 적힌 건 새싹의 향을 품은 신선함, 올리브의 부드러움을 담은 매끄러움 등이었다.

이게 메뉴야, 시야...?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아는 메뉴를 찾아봤다. 직원이 설명한다고 설명은 하는데 “아, 이 날것의 생명력에 어울리는 와인은”같은 거였다. 그냥 해로인이 주문하면 똑같이 달라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해로인 옆얼굴만 보고 있으려니 남자가 갑자기 “아”하며 입을 열었다.

“국무원장.”

“네.”

“아무래도 저 역시 초대받은 자리인지라 같이 식사를 하는 건 무리일 거 같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비샤를 보며 정중하게 쐐기를 박았다.

“호스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대화를 수락한 점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화는 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원장 계획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나라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같이 저녁 먹자고는 못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게 아니라”하면서 말을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로 정색하고 말 할,

“당연합니다. 우리의 식사는 다른 방에 준비하도록. 나는 코스3으로, 너는?”

“저도 같은 걸로 먹겠습니다.”

려고 해도 기회가 오질 않는다. 역시 아까 빈정댔어야 하는데... 다행인 건 에드마오 얼굴 뒤로 나던 후광이 꽤 많이 걷혔다는 거였다. 적어도 나이 많은 쪽을 보면서는 방심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해로인을 따라 코스1로 시켰다. 비샤의 주문까지 받은 직원이 흡사 탈출과 비슷한 느낌으로 도망갔다.

얼마 안 있어 식전빵과 새콤한 차가 들어왔다. 갓 구운 빵처럼 옅게 김이 올랐다. 빵을 앞 접시에 옮기자 해로인이 잼과 버터를 앞에 놔줬다.

“그래서 제게 꼭 하고 싶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슬레인을 조사할 때 제 아들을 써주십시오.”

“슬레인에는 이미 성기사들과 신관이 있습니다만. 신전에서는 인력을 더 추가하길 원하는 겁니까?”

버터를 발라 해로인 앞에 놔주고, 이번에는 잼을 들었다. 뚫어져라 보는 비샤와 베른디노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게 아니라 전하의 개인적인 일에 부려 주십사 드리는 청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래? 잼을 바른 빵을 비샤에게 내밀자 노인이 놀라며 접시를 내밀었다. 해로인이 슬쩍 인상을 쓰며 돌아보더니 버터 칼을 뺏어가 버렸다.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국무원장을 보면서도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빵 두 개에 각각 잼과 버터를 발라 내 접시에 올려줬다.

국무원장은 아까처럼 유심한 누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전하도 눈치 채셨겠지만 성하께서는 전하의 일행 분께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아마 쉽게 저분을 놓아주시지 않겠지요. 아무리 전하가 계셔도 말입니다.”

내가 붙잡혀줄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네? 불만스럽게 얼굴을 굳히는데 해로인이 이쪽은 보지도 않고 접시를 톡톡 쳤다. 빵을 먹으라는 거 같았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전하에게 줄을 대고 싶습니다.”

“전에 이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는 거절하셨잖습니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정이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는 게 그 사정 일 것 같습니다만.”

고민도 않고 내치는 말에 국무원장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제 아들은 성하를 모시고 있지만, 카를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전하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교에 제 의사표현은 확실히 전해 질 겁니다.”

“흠.”

“제국의 황녀께서는 감마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카를은 전하를 지지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화이트를 위해서입니다.”

휙휙 오가는 대화에 눈만 크게 떴다. 비샤와 베른디노트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지 오래였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물론, 제 아들은 데려가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국무원장이 얻는 건 뭡니까?”

“카를 역시 제국과 연결되는 것, 그것도 제국 그 자체인 루테 분과 말입니다.”

해로인은 침묵하다가 다른 걸 물어봤다.

“하고 싶다는 말 중 내 사람과 관련된 말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성하께서는 쉽게 저분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시간을 버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참 집중해서 얘기를 듣다가 “잠깐만요”하고 끼어들었다.

“제가 신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빚 진 게 있나요?”

“…네?”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황이 절 붙잡든 말든 제가 가겠다면 가는 건데요.”

‘사이다’란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는 단어였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랬다. 왜냐면, 내 말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웃는 국무원장 때문이었다.

“물론 아가씨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하필 이번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화부터 치밀어 오르니 말문이 잠시 막혔다. 사이다는 멀고 고구마는 항상 내 목구멍에 걸려 있다.

“아가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나고 답답할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 거야? 머리를 쓸어 올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내가 왜 설명을 하고 있어?

“저기요.”

툭하고 부르자 국무원장의 푸른 눈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얼굴만 예뻤지 비샤 말이 맞았다. 고집 센 아저씨, 꼰대.

“부탁하지도 않은 일 해주겠다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할 생각도 마시고요.”

“...”

“날 쉽게 안 놔주면, 뭐 감금이라도 하는 건가요? 누가 쉽게 당해는 준데요?”

눈앞의 빵을 던지고 싶은 충동에 팔짱을 끼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지만 결국 목구멍을 막고 있던 고구마가 튀어 나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굴 호구로 아나...”

씩씩대고 있으려니 눈앞에 음료잔이 내밀어졌다. 옆을 보자 해로인이 몸을 튼 채 벽안을 반짝이고 있었다. 무슨 눈빛인지는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뜻인 건 분명했다.

고개를 들자 아예 고개를 돌리고 상황을 외면한 비샤가 보였다. 그에게는 좀 미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무원장의 아들인 베른디노트 카를은 언제 딴 데를 봤었냐는 듯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중이었다.

그 모든 눈빛들을 외면하고 다시 국무원장을 봤다. 입술이 벌어지는 게 뭔가 말할 거 같아서 내가 먼저 선수 쳤다.

“사과도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신경 끄시고, 하실 일 하세요. 제발요.”

다 꺼져.

저녁식사 자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국무원장은 할 말이 많아보였지만 해로인이 대화에 끼어들며 그대로 무산됐다.

쫓겨나듯 카를 부자가 나간 후, 테이블 분위기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됐다. 비샤가 아닌 척 해도 푹 가라앉았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비샤한테 신경이 쓰였다. 비샤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좋은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못 먹어.”

“먹고 있어.”

“아까 식전 빵도 한 두입 밖에 안 먹었잖아.”

게다가 해로인은 그런 비샤한테 신경도 안 썼다. 말을 걸면 정중하게 답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아냐. 잘 먹고 있어.”

“네 그릇이나 보고 말해라.”

“아, 좀.”

울컥 짜증을 내려다 참았다.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내가 곰일 때부터 뭘 먹이는데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겠지?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식전주를 더 달라고 하겠다. 아니면 입맛을 돋우는 샐러드로...”

흉흉한 눈빛을 받고 나서야 해로인의 입이 다물어졌다.

해로인은 비샤한테 혹시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다. 손님방이 있긴 한데 깨끗하진 않다고 하자 그런 건 상관없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숙박비는 받지 않으실 테니, 대신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비샤는 대거리를 할 기운도 남지 않았는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갈 때는 한 마차를 타고 다 같이 갔다. 우울해하던 비샤의 표정이 밝아진 건 설기를 봤을 때부터였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여전히 숙면 중이던 설기의 뾰족한 귀가 움찔 떨렸다. 비샤는 그걸 보고 더 흥분했다.

“방금 귀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아이고. 쪼그만 게 너무 예쁘네요. 혹시 쓰다듬어줘도 될까?”

비샤의 질문에 대답한 건 내가 아니라 해로인이었다.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뭅니다.”

너무 단호해서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비샤는 작은 강아지가 물면 얼마나 세게 물겠냐며 허허 웃었다.

“강아지가 물면 잇자국도 되게 귀엽게 남습니다.”

“이건 그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직접 보여주겠다는 듯 손을 뻗었다. 털에 직접 닿은 게 아닌데도 해로인의 손 때문에 그늘이 지는 순간 설기가 이를 드러냈다.

아르르…

설기한테 왜 그러냐고 말 하려던 게 쏙 들어갔다. 자면서도 송곳니까지 드러내는데 아무리 내 새끼여도 안 물 거라고 말 할 수가 없었다.

“서, 설기 종이 그래요. 충성심이 엄청 강한데 그만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경계하거든요.”

해로인은 퍽이나, 하는 눈빛이었지만 비샤는 눈을 빛냈다.

“사실 기사단에서 키우는 개들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사람을 너무 따라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다 기사단에 있다가 은퇴한 아이들인데, 그중 첫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비샤의 자식자랑이 줄줄 이어졌다. 말하는 얼굴이 완전히 기운을 되찾아보여서 다행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몰려오는 피곤에 씻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해로인이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거 같은데 씻고 나온 이후로 기억이 없었다.

볼이 쿡쿡 찔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설기의 어택을 당했다. 휙휙 흔들리는 꼬리에 엉덩이도 속절없이 따라 흔들렸다.

아구아구, 우리 설기. 그렇게 좋아? 다음부터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누나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설기 안 맡길게. 그런데 설기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잘 챙겨먹었어야지. 응?

설기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웃음이 헤실헤실 나왔다.

“오구오구, 우리 설기.”

멍!

“응응, 아이, 예쁘다.”

멍멍!

그때 노크소리와 동시에 문이 열렸다.

“네 개인 거 알겠으니까 그만 하고 나...”

해로인이 말을 흐렸고, 나는 급하게 말려 올라갔던 치마를 내렸다.

“아. 사람이었지.”

“…허?”

“그러고 보니 왜 성인인 거지?”

“...나가!”

세수를 하고 아래로 내려가자 레이나 부인이 있었다.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있는 걸 보면 점심때란 얘기였다. 식탁으로 가자 차를 마시던 해로인이 사과부터 해왔다.

“미안하다. 깜박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칼같이 사과하는데 뭐라 더 하기도 그랬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자 부인이 새하얀 크림 스프와 빵 그리고 씁쓸한 향의 차를 내줬다.

한 두 수저 떠먹다가 더 못 먹고 스푼을 내려놨다. 빵 역시 물려서 그런지 잘 안 넘어갔다.

“왜 이렇게 못 먹어.”

“어제랑 똑같은 말 하네.”

“똑같이 안 먹고 있으니까.”

대답 대신 웃기만 하자 미간을 찡그리는 게 보였지만 별 수 없었다. 흰쌀밥에 칼칼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 국물이 맑은 그런 김치찌개.

빵, 스프, 스튜, 파스타, 라자냐... 단어만 떠올려도 속이 느글거렸다.

“커…피가 있으려나?”

“속 버린다. 마실 거면 밥부터 먹어.”

“다 먹었어.”

“여기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니야. 아침 잘 안 먹어 버릇해서 그래. 고개를 저으며 핑계를 댔지만 해로인은 들은 척도 안했다.

“곰 일 때는 더 이른 시간에도 먹었었다.”

“그래서 그 때도 많이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곰일 때나 사람일 때나 자꾸 아픈 거다.”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어떡해!”

뚝 떨어진 입맛에 배도 안 고팠다. 억울한 건 그러면서도 먹는 게 부실하다고 몸에 힘이 없다는 거였다.

“밥 먹고 싶어. 한식 먹고 싶다고. 칼칼하고 시원하고 그런 거! 그런데 여기 있어? 없잖아!”

“...”

“그쪽한테 짜증낼 일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서 얌전히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찔러봐야 돼?”

왈왈왈!

식탁 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설기가 해로인을 향해 사납게 짖었다. 몸을 숙여 그런 설기를 달래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해로인한테 나는 툭하며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일 것 같았다. 아주 오랜만에 친해진 사람인데.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점수나 깎아 먹고...

이렇게 속 쓰려 할 거면 좀 참지. 왜 짜증낼 거 다 내고 후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머리에 피 쏠린다.”

구부리고 있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이 닿았다. 아프지 않게 어깨를 쥐고 일으킨 건 언제 옆으로 온 건지 모를 해로인 이었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치자 이 남자도 나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저기 있잖아.”

“말해라.”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대답을 안 하려하면 잠깐 가만 놔둬줬으면 좋겠어...”

손을 꼼지락거리며 최대한 신중하게 말을 골랐는데, 막상 입을 열면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느낌으로 말이 나오는 거 같았다.

“그냥, 음, 내 성격이 좀 그래. 좀 욱하는 게 있는데, 또 가만 두면 금방 가라앉거든. 근데 그러려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네가 밥을 안 먹는데도 가만 둬야 하나?”

“그건... 걱정해서 해준 말인 건 알거든? 분명 아는데...”

좀 더 그럴싸하게 변명해볼까 하는 고민도 들었는데, 섬광처럼 인터넷에서 봤던 글이 스쳐나갔다.

상대에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저런 글은 정말 많이 봤는데... 이게 바로 이론과 설전의 차이인지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 내가 몸이 힘들어서 예민해. 예민한데... 그쪽이 나를 그쪽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마다 확 짜증이 나. ...어, 음. 하지만 절대 그쪽이 싫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좋아한다고?”

묵묵히 얘기를 듣던 해로인이 마지막 말에 눈을 크게 떴다. 뭐, 하고 되묻는 것에 덩달아 뭐가? 하고 묻다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의미에 좋아한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말고!”

“...”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은 그랬다고... 그, 쪽은?”

“나? 뭐를?”

“뭐 좀 아니다 싶었거나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거 없어?”

해로인은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을 받은 것처럼 당황해 했다. 얼굴은 무표정해도 동요를 보이는 벽안이 그 증거였다. 꽤 오래 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 역시 가만히 기다렸다.

“…처럼.”

“응?”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방금 전처럼 말 해줬으면 좋겠다. 설령 그게 불가능해 보여도 말이다.”

“아...”

“머리는 모을수록 좋다. 슬레인으로 가면 그곳의 요리사를 모아서 네가 먹고 싶다는 걸 설명해보자. 혹시 모르지 않나?”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입으로 대답하면 어쩐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을 것 같았다.

“또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 있는 게 싫어. 날 떼놓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좀... 각자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선 긋는 게 싫다는 거다.”

“그쪽도 내가 모르는 일, 말해주기 좀 그런 거 등등 있을 거잖아.”

“그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눌 수 있잖나.”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진지하게 시작됐던 대화의 마무리는 결국 투닥거림 이었다. 설기는 어느새 해로인의 경계를 멈추고 다시 밥을 먹고 있었다.

레이나 부인이 두 분 다 서서 뭐하냐고 물어볼 때까지 툭툭 싸웠다. 아주 즐겁게.

“예? 에이. 말도 안됨다.”

몬드 라니골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앞서 걷고 있는 여자, 이림의 작고 좁은 등이었다.

해로인은 이림의 곁에 가깝지도 않지만, 멀지도 않게 서 있는 성기사를 바라보며 쐐기를 박았다.

“의심은 네 자유이지만, 그 때문에 내가 시킨 일에 지장이 가면.”

말을 끝까지 하는 대신 스윽 돌아보는 시선이 서늘했다. 시린 벽안에 쓰여 있는 건 경고였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빨리해 원래 있던 자리, 이림의 옆으로 가버렸다. 뒤에 덩그러니 남은 몬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이림이 나와 떨어지게 된다면 이림의 옆에 있어라

이림이 어디로 가든지 놓치면 안 된다. 방심하지 마라. 이림은 빠르고 강해

시종일관 이림 옆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그의 주인이 갑자기 곁으로 와 입모양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여자가 22살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해로인한테 진짜냐고 되물었다. 동글동글한 흑안이 주변을 살피며 눈치를 볼 때는 꼭 포식자의 동태를 살피는 초식동물 같기도 했다.

물론 사람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건 안다. 게다가 그는 다른 곳도 아닌 검투노예 출신이었다. 불법으로 운영되던 검투장에서 구르는 동안 별의별 상대를 만났다. 땅딸막한 난쟁이, 눈이 먼 노인, 양다리 에 의족을 한 여인... 결함이 있는데도 전부 승률이 높던 검투노예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이림도 강할 수는 있지만...

흐…, 후엣취!

조그마한 머리통이 세차게 끄덕였다. 양옆에 있던 그의 주인과 성기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서...”

쏟아지는 관심이 싫은 지 어색하게 웃는 얼굴에 왕부담이라고 써져있다. 화이트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로 표정을 숨길 줄 모르는 여자였다.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은연중 흘러나는 강자의 아우라’는 찾을 수 없다. 길거리에서 마주쳤다면 흔치 않은 까만 눈과 머리에 한 번 힐끗 보고 말았을 행인인데.

몬드의 안에서 이림은 그 본인에겐 아무런 메리트도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지랄개"의 주인이라는 것 정도?

지난 며칠 동안 도대체 주인은 저 여자한테서 무슨 메리트를 봤길래 저렇게 애지중지할까 고민했다. 철저하게 효율을 중시하던 인간이 저 여자 때문에 직접 화이트까지 갔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아마 로보에 도착하면 주인의 다른 부하들도 저 여자를 보고 당황할 것이다. 당장 지금 마차를 지키고 있을 조엘 남작만 해도 상관이 시간 버리고, 몸 축내며 화이트까지 와서 만나야 했던 사람이 고작 깡마른 여자였던 걸 알고 티 나게 당황해했다.

‘하지만 강하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얼굴에 드러났던 혼란이 걷히고 대신에 예리함이 찾아왔다. 그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실력자가 주인의 곁에 있는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소름도 좀 돋았다.

몬드의 눈이 차게 식었다. 양옆 남자들 때문에 정신없는 이림과 달리 사방을 쏘다니던 새하얀 강아지는 그 시선을 눈치 챘다. 왕왕대며 천진하게 나비를 쫓던 강아지가 뒤를 보며 이를 위협적으로 아르르, 울었다.

한 사람과 한 마리가 잠시 대치했다. 그 마저도 각각 주인의 부름에 금방 멈췄지만.

“설기야?”

다정히 무슨 일이냐 묻는 목소리와 다르게 그의 주인은 말이 없었다. 쳐다보기만 했다. 몬드는 바로 고개를 돌렸다.

얼마 안 가 세워둔 마차가 보였다. 마차 뒤에 묶어놨던 물통이 빠지는 바람에 급하게 물을 구해오는 길이었다. 여기서부터 로보까지 족히 4시간은 더 가야하는데 그 사이에 물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몬드가 마부석에 앉고, 성기사 베른디노트는 자신의 말에 올라탔다. 며칠 사이 체력을 꽤 회복한 이림 역시 설기를 안고 수월하게 마차에 올라탔다. 몸에 밴 매너로 인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 뻔했던 조엘 남작이 움찔 떨었다.

레이디가 희한한 바지를 입고 다리를 쩍쩍 벌린다...

“아씨.”

“왜.”

“혀 씹었어.”

레이디가 전하께 막말도 한다...

몇 번을 봐도 적응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때 같았으면 무시했을 해로인이 조심 좀 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랬다.

슬레인에 도착한 첫 날, 게이트 후유증으로 다 죽어가는 그를 신전에 버리고 가더니, 이틀 후 출발하는 날 웬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 여자가 앞으로 같이 다닐 거란 건 소개 받기도 전에 알았다.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지랄개가 여자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리랑 눈도 까만데 입고 있는 옷까지 까맸다. 심지어 생전 처음 보는 복식이었다. 안에 받쳐 입은 티는 몸에 딱 달라붙어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위에 걸친 자켓은 만들다 만 것처럼 짧았다. 바지는 또 어떤가. 치마도 아니면서 통은 또 엄청 넓었다.

해로인은 입은 옷처럼 제국과는 문화가 많이 다른 곳에 온 사람이라 했다. 그로 인한 실수가 잦을 테니 혹시라도 자신이 없을 때는 대신 수습하라는 말도 했다.

네. 그런데 레이디께선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지?

이림은 자신이 살던 곳엔 신분이란 게 없었다는 군

…예?

여신 앞에선 모두가 똑같은 자녀라는 신성국에도‘지도자 가문’이라는 계급이 있다. 하마터면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칠 뻔 했었다.

굳이 따지면 평민이라고 했다

아

혹시라도 무례하게 굴려는 놈들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막아라

네, 알겠습니다. ...레이디는 전하께 어떤 분이신 겁니까?

조엘 남작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해로인은 대답 아닌 대답을 했다.

반대로 이림이 무례하게 굴 때는, 그 누구도 그걸 지적할 수 없어야 한다

“출발하겠슴다.”

가벼운 신호와 함께 마차가 움직였다. 이동속도에 중점을 둔 마차인 만큼 금방 가속이 붙고 쌩쌩 달렸다.

조엘 남작은 화술에 능했다. 표정관리는 말할 것도 없다. 지방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카이테 남작가를 자작가로 끌어올린 것 역시 입을 잘 털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맞은편의 이림과 해로인을 보는 표정은 지극히 사무적이다. 속이 복잡한 사람 같지는 않다. 그래도 제 주인의 안위에 민감한 강아지는 알아차렸지만 말이다.

이림의 무릎 위에 몸을 말고 있는 설기가 콧잔등을 찌푸렸다. 몬드 때처럼 위협적으로 울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기분이 좋아보이진 않았다.

“설기야. 그러지 마.”

이림이 설기를 안아들며 달랬다. 위아래로 까만 옷에 온통 흰털이 붙었다. 하녀가 옆에 있었으면 속으로 울지도 몰랐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마 제가 쳐다본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전적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을 다시 삼켰다.

“걔는 너 빼고 다 싫어한다. 일일이 신경쓰지 마.”

해로인의 말에 이림의 표정은 구겨졌고, 조엘은 한층 더 상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어졌다. 자신의 상사가 평범한 청년이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전하가? 사랑? 그게 가능하다고?’

천천히 눈을 깜박이던 조엘이 생각했다.

그럴 리가.

각자가 생각이 많은 것과 별개로 마차 안은 조용했다. 달린 지 두 시간이 넘었을 때는 이림은 물론 조엘도 잠이 들었다.

달리던 마차가 천천히 멈춰 섰다. 말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해로인이 밖으로 나오자 말에게 물을 먹이던 몬드가 그를 불렀다.

“말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쳐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들은 물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할 만큼 헐떡이고 있었다. 그건 베른디노트의 말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스파인 산맥 바로 밑이었다.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몬스터가 내려올 가능성은 올라갔다. 여기 모인 이들이 모두 실력자라해도 그건 곤란했다.

그런 이유로 몬드의 표정이 좋지 못했지만 해로인은 무심한 눈으로 마차 쪽을 볼 뿐이었다.

“고삐를 푸르고 풀을 뜯게 해라.”

그랬다가 몬스터가 내려오면, 말을 통제할 수 없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몬드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알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주인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테니 말이다.

해로인이 다시 마차에 들어가려 할 때였다. 베른디노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들이 빨리 지친 건 이림님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희미하게 웃는다. 속을 감추는 미소였다. 나무가 우거지고 풀내음이 물씬 풍기는 숲길이었다. 은발의 성기자는 숲의 요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양의 화신처럼 존재감을 내뿜는 황족에게 말했다.

“지금 쉬게 한다 해도 금방 지칠 겁니다.”

“...”

“제게 성력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성기사 베른디노트. 카를 가문의 나이트이자 약점. 성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지도자. 자기소개를 하며 약점을 줄줄 말하던 의뭉스러운 인간. 어떤 의미로는 아비인 에드마오 카를보다 더 파악이 어려운 인간이었다.

해로인은 뭐라 대답하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성의 없는 태도였지만 베른디노트 역시 딱히 상관하지 않았다.

마차에 타자 벽에 기대자고 있던 이림의 몸이 어느새 옆으로 누워있었다. 해로인은 맞은편 자리인 조엘의 옆에 앉아 자는 이림을 내려다봤다.

‘그쪽이 나를 그쪽 뜻대로 휘두르려 할 때마다 확 짜증이 나’

‘하지만 절대 그쪽이 싫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좋아한다고’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던 순진한 얼굴이 자는 얼굴 위로 겹쳤다. 자존심은 센데 묘하게 자존감은 낮았다. 경계심도 많고 낯도 가리지만 대신 한 번 마음을 열면 급속도로 무방비해졌다.

절대 그의 성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작업하면 됐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친절하게 말까지 해줬으니 말이다.

그의 어린 것은 강하게 나오면 반발했고 약하게 굴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다면 목에 목줄을 채우는 대신 손을 붙잡으면 됐다. 그게 목줄만큼이나 튼튼한 족쇄라는 걸 모르도록 조심하며.

그런 의미에선 해로인의 시선에 눈을 뜬 강아지 역시 나쁘지 않았다. 이림이 어리버리하게 굴 때도 저 개는 귀신같이 제 주인을 향한 시선을 알아차리고 경계했다.

“이림.”

“...”

“이림. 일어나라.”

몇 번을 더 부르자 감은 눈이 움찔 움직였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 최소한의 식사만 하다보니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며칠 사이 더 작아졌다. 속으로 혀를 차며 해로인이 다시 한 번 이림을 깨웠다.

“일어나 있어.”

“…아…왜...”

“그래야 한다.”

슬레인의 몬스터는 이림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반도 안 되는 작은 여자를 앞에 두고 겁에 질리던 오크들이 떠올랐다. 더불어 흑마법사를 상대하던 이림도.

몬드에게 이림이 빠르고 강하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자신 역시 이림을 보면 슬레인에서 봤던 일이 믿기지 않았다. 검을 들고 있지 않을 때는 평범한 것도 아니고 연약해보이기만 했다. 살집 없이 깡마른 몸은 뼈와 근육의 구분마저도 모호하게 했다.

이동하는 동안 끊임없이 대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 것의 정체는 아리송했다. 스파인 산맥 너머 미지의 세계로 불리는 웨스트 윙에 살던 사람이 아닐까 정도만 확신하고 있었다.

‘로보에 가서는 검을 맞대봐야 겠군’

상대를 알아간다는 건 그만큼 미지의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관계가 얽힌다는 뜻도 됐다.

그게 종래에는 자신을 옭아맬 거란 걸 그는 아직 몰랐다.

“성이 보임다!”

몬드 경의 외침에 고개를 들었다. 새끼곰일 때 갔던 로보의 성벽이 보였다. 살았다... 무심코 튀어나온 진심에 해로인의 몸이 움찔하고 굳었다.

“힘든가? 이제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팔에 힘도 못 주고 있잖아. 할 만 하니까 빨리 가자.”

“…미안…하다.”

귀를 기울여야 간신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나야 부축하느라 바짝 붙어있었으니 잘 들렸지만 말이다.

“자작님. 조금만 더 가면 됨다. 예?”

“…무리... 절대 무리...”

“아. 저도 힘들단 말임다.”

얼굴이 노랗게 질린 몬드경은 반죽음 상태인 조엘자작을, 베른디노트는 자신의 말을 그리고 나는 해로인을 부축했다. 국경에서 탔던 게이트의 후폭풍이었다.

해로인과 화이트에서 만나고, 빠져나오는 과정은 한 편의 첩보영화 같았다…라고 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쉬웠다. 교황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었다.

축제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네요

교황은 직접 찾아오는 대신 내 옷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 지금 말고 축제 때 얼굴을 보자라는 부탁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였다. 아, 네.

해로인은 제국이 있는 한 교황도 함부로 나오지 못할 거라 했지만, 나 하나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됐다. 민폐 끼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사고와 수습 모두 내가 감당해야 괜한 빚이 안 생겼다.

어쨌든 순조롭게 출발은 했는데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화이트 안에서 있는 모든 게이트가 전부 신성력으로 운용됐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됐다. 본교 정확히는 국무원장이 이동에 특화된 마차와 말 그리고 길을 내줬다.

암흑기 때 악마들이 일직선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길은, 성마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러 복구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볼 때마다 과거를 되새기며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말이다. 무려 그런 길을 사용하게 해줬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카를의 힘이 큽니다

카를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조엘 자작과 해로인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다.

화이트에서 벗어난 후에는 국경에 있는 제국의 게이트 이용소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그리고 엄청 복잡해 보이는 마법진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았다 뜨니 장소가 바뀌었다.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이 순식간에 끝난 일에 음? 싶었던 바로 그때 털썩 소리가 났다.

...?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조엘 자작이었다. 그 다음 베른디노트의 말이 휘청거렸고, 자작을 부축하려던 몬드 경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용소 직원은 익숙하다는 태도로 사람들을 마법진 밖으로 끌어냈다.

다들 왜 그러, 해로인!?

그리고 믿었던 해로인 마저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몬드 경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꿋꿋하게 해로인을 비난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는데 멀쩡하실 줄 알았슴까

벽안에 잠깐 찬기가 돌기는 했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들 멀미 중…인 거죠? 저랑 베른디노트씨만 괜찮은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가 갈까요?

몬드가 고개를 젓다가 헛구역질을 했고, 제대로 된 답은 이용소 직원이 해줬다.

지금 가셔야 성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서 마차를 빌려준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게...

하필이면 총 세 대가 있는데 하나는 고장 났고, 나머지 두 대는 오전 중에 나가서 소식이 없다고 했다.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걷게 된 거였다.

“이림. 괜찮나?”

“힘들긴 한데 저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 같아.”

“...”

“맨날 그쪽이 안고 다녀줬잖아. 몸 더 괜찮아지면 그때는 똑같이 안아줄게.”

씨익 웃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진짜야. 왠지 느낌이 들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면 절대 쓰러지지 말아야겠군.”

“왜? 안겨 다니면 짱 편해.”

“그랬나? 언제든 말만 해라.”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주변이 조용해졌음을 느꼈다. 눈동자를 굴리자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왜, 왜요?”

“…아. 아닙니다. 그냥 보기랑 다르게 힘이 좋으셔서.”

나도 내 캐릭터 능력을 깨달을 때마다 놀라긴 하는데, 레벨 업 할 때마다 찍었던 스탯을 생각해보면 바로 납득 갔다. 문제는 이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를 모르겠다는 거였다.

몬드 경의 말에 웃기만 했는데, 시선이 떨어질 생각을 안했다. 더 할 말 있냐고 묻자 그제야 아니라며 고개를 돌렸다.

“...?”

“무시해라.”

“아, 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얼마 후 성문 앞에 도착했다. 심지어 성문 앞에 있던 건 안면이 있는 오닉 경이었다.

마차를 부르고, 앉을 자리를 마련하면서 오닉 경이 힐끔 내 쪽을 봤을 때는 하마터면 아는 척을 할 뻔...

“절 아십니까?”

“네? 왜요?”

“반갑다는 얼굴이어서요.”

“...아?”

뒤늦게 양 볼을 감싸자 오닉 경의 표정이 더 이상해졌다.

“그 때 그 보따리다.”

“...예?”

“그거라고.”

예? 오닉 경이 다시 한 번 되물었지만 해로인은 그 말만 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지그시 쳐다보는 눈빛에 어색하게 웃으며 속으로 해로인을 욕했다. 차라리 말을 말든가 다짜고짜 보따리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냐고!

“저어…, 잠깐 귀 좀...”

오닉 경 역시 나보다 한 뼘 이상은 컸기에 조용히 머리통을 요구했다.

“제가 수인족이라…, 그 때 셔츠에 말려있었던 게 저였거든요.”

말을 하고 5초쯤 지났을까 갑자기 몸이 덥석 안겼다. 기사라 그런지 해로인 못지않게 딱딱한 몸이었다.

“아아! 어쩐지! 눈을 보니까 자꾸 뭐가 아른거리긴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그때는 전하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말입니다.”

말투는 딱딱한데 안고 어르는 품은 다정했다. 확 껴안았다가 부드럽게 놔준 오닉 경이 손을 내밀었다. 조심스럽게 마주잡자“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하며 웃는데, 같은 동성인데도 심장이 쿵 뛰었을 만큼 시원한 미소였다.

“어, 어? 슨배님? 이님 아심까?”

“아. 이름이 이님이셔?”

“아녀아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이림님 이심다.”

오닉 경의 시선에 맞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또 웃는다. 나이가 어떻게 될까. 언닌가. 언니였으면 좋겠다. 언니 멋져요를 외치고 싶은 사람이었다.

“저는 오닉 클라리아입니다.”

“아. 저는 김, 이림입니다. 이림이 이름이고 김이 성이에요.”

옆에서 몬드 경이 자꾸 아는 사이냐고 끼어들었지만 오닉 경은 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베른디노트와 그의 말을 보고 나서야 득달같이 몬드 경한테 달려가 뭐라 말했다.

거리가 멀어 얘기가 웅얼거리는 소리까지만 들렸는데, 어느 순간 몬드 경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말이 이님만 옆에 가면 거품을 무는 걸 어떡하라고여!”

“...”

“...”

잠깐 정적이 흘렀다. 의자에 몸을 묻고 있던 해로인이 스윽 눈을 뜨길래 도로 감기고, 발밑에 있던 설기를 안아 들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게이트 이용소에서 나왔을 때 처음부터 내가 해로인을 부축했던 건 아니었다. 원래는 베른디노트가 해로인을 부축하고 내가 그의 말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히이잉!

내가 옆으로 가자 기운 없이 늘어져 있던 말이 앞발을 치켜들었다. 베른디노트가 고삐를 쥐고 달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을 되찾았다.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지 다른 때 보다 훨씬 예민하네요

베른디노트는 미안하단 얼굴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한테 괜찮냐며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했다.

…교수님 댁에 있던 개들. 생각나십니까?

... 말이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조금은요

그런데도 제가 말고삐를 잡고 놔뒀고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너무 깔끔하게 인정하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말문이 막혔다. 누가 그 국무원장 아들 아니랄까봐...

뭘 확인하고 싶으셨는데요?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고, 나중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말한테 돌아가는 뒤통수를 노려봤다. 정말 세상에 실제할 줄 몰랐던 취향의 미인인데도 조만간 콩깍지가 벗겨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베른디노트가 언제부터 였는지 뽑아들고 있던 검을 다시 차는 게 보이자 그마저도 고까웠다.

와. 아까 내가 살겠다고 말한테 뭐라도 했어봐. 저걸로 찔렀겠네, 찔렀겠어.

아까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인상을 쓰고 있다가 몸을 세워 턱 끝을 핥는 설기 때문에 표정을 풀었다. 오구오구, 우리 설기.

그 사이 부른 마차가 왔다. 화이트에서 탔던 마차들이랑은 다르게 겉모습부터가 휘황찬란했다. 그런 마차를 다고 도착한 곳은 커다란 대저택이었다. 할리퀸 영화에서 부자들이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커보였다.

마차에 내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아졌다. 사방에서 “전하!”하며 애절하게 해로인을 외쳐댔다. 나한테 꽂히는 게 아닌데도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몬드 경 뒤로 숨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더 뒤로 밀어 넣었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역시 나를 싫어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이림.”

“...”

“이림. 어디 있어.”

몬드 경이 왜 나를 싫어할까 고민하다가 불길함을 느끼며 얼굴을 들었다. 해로인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날 보고 있었다.

해로인은 자신만큼이나 키가 큰 아저씨 몸에 기대 있었다. 혼자 서있기도 힘들만큼 상태가 나쁘니 그러고 있는 건데, 아저씨 어깨에 살짝 고개를 대고 이쪽을 보는 모습이 어쩐지 퇴폐적이었다. 금발이 흩어져 있어서 그러나? 눈을 내리깔아서?

“이림. 이리와.”

“...”

“떨어지지 마라.”

“...하아.”

아프다고 투정부리는 걸까. 뭐가 됐든 도망은 못 가게 생겼다. 파들파들 웃으며 곁에가 서자 해로인이 팔을 뻗어 손을 붙잡았다.

“…놔. 놓으라고.”

이를 악물고 복화술로 말을 걸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태도라 더 열 받았다.

“전하. 이분은?”

“소개는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하겠다. 귀빈으로 모시고 방은... 내 옆으로 준비해.”

사람들 눈이 일제히 크게 떠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방에서 지내는 건 동성친구 혹은 약혼한 사이에서만 한다고 했다. 당시에는 이걸 몰랐으니 쏟아지는 시선에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말이다. 젠장.

해로인은 피곤하다며 사람들을 물렸다. 뒤에 남은 조엘 자작이 “말…, 시키지…, 마요! 토! 할 거 같다고!”하면서 울부짖었다. 해로인을 부축한 아저씨는 묵묵하게 우리를 커다란 방문 앞으로 데려다준 후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몬드 경을 끌고 가버렸다.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우와”소리가 났다. 침대, 소파, 테이블, 장식장... 어느 집에나 있는 가구가 아주 비싼 모양새를 하고 번쩍거렸다.

해로인을 침대에 눕혀놓고 정신없이 방 안을 구경하다가 부르는 소리에 침대로 갔다. 화낼 게 있기는 한데 아파보이는 얼굴을 보니 뭐라 하기도 좀 그랬다.

“이걸로 책상 맨 마지막 서랍 열어봐라.”

해로인이 주머니에서 꺼내 건네 준 건 열쇠였다. 그리고 말대로 서랍을 열자 작은 곰돌이 얼굴 모양의 손가방이 나왔다.

“내 가방!”

곰일 때는 배 한쪽을 가릴 만큼 크던 가방이 지금은 손바닥만 했다. 환하게 웃으며 해로인을 보자 핏기가 없어 더 색이 옅어진 입술이 가느다랗게 벌어졌다. 침대에 누워 웃는 모습이 아까 아저씨한테 기대 있을 때만큼 좀…, 흠흠.

“돌려줬다.”

“응!”

“이리와.”

“…이씨. 내가 개야? 그렇게 부르게?”

“가방을 받았으니 옆에 안 있어 줄 건가?”

“하! 그런 거 아니거든!”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 옆으로 가자 아까처럼 손을 붙잡았다. 잡히고 나서야 ‘응?’하고 찝찝함을 느끼는데 얽힌 손가락이 너무 찼다.

“...자.”

“옆에 있을 거지?”

“…당장 갈 데도 없어. 없으니까 자, 좀.”

시린 하늘을 금빛 속눈썹이 덮었다. 눈을 감은 걸 보며 안 잡힌 반대쪽 손을 쥐락펴락하다가 조심스럽게 뻗었다. 곰일 때 이 남자가 날 토닥였던 것처럼 남자의 팔위에 손을 올렸다. 어색하던 손짓은 점점 그럴싸하게 변해갔다. 천천히, 천천히, 부드럽게.

해로인은 잠들고도 한동안 손을 안 놔줬다. 빼려고만 하면 인상을 쓰며 뒤척였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을 때 몸을 일으키다 우드득 나는 뼈소리에 숨을 삼켰다. 다행히 해로인은 눈을 뜨지 않았다.

이제 뭘 하지?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나? 하지만 그러기에는 의미없이 까먹을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빈둥대는 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할 날이 오다니. 정말 인생...

밖으로 나가기 전 가방에서 체력포션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놨다. 사실 메모도 같이 남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글자를 몰랐다.

혀를 차며 방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설기가 다다다 뛰쳐나가기 전에 품에 안고 소리를 죽여 걸었다. 복도를 돌자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말소리는 안 들렸지만 길쭉한 그림자가 왔다갔다 움직이는 게 보였다.

지금 내려가면 또 시선이 몰리겠지? 해로인도 없겠다 날 둘러싸고 누구냐고 질문공세를 퍼부을 지도 몰랐다. 잠깐 상상만 했는데도 식은땀이 나는 기분이었다.

집이 이렇게 넓은데 설마 계단이 이거 하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반대쪽 복도로 들어갔다. 내가 조용히 움직이자 덩달아 소리를 죽인 설기가 꼬리만 흔들었다. 팔뚝을 아프지않게 때리는 그 움직임이 너무 귀여웠다.

반대쪽 복도에 반쯤 들어갔을 때였다.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림잡아도 10m는 훌쩍 떨어진 거리였는데 말이다. 당황해서 멈칫한 사이 방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건 메이드복을 입은 여자 두 명이었다.

둘 다 양손에 짐이 가득했는데, 둘이 나를 보는 것과 동시에 검지를 세워 입가를 가렸다. 쉿.

“...!”

“...!”

빠르게 다가가자 여자들이 흠칫 놀라며 허리를 숙이려했다. 품에 위태롭게 쌓아올렸던 수건이 쓰러지는 걸 가까스로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죄, 죄송합니다.”

“예? 아.”

왜 사과를 하나 싶다가 눈을 내리깐 채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보고 깨달았다. 날 귀족으로 보고 있구나.

해로인은 내게 신분을 물었고, 굳이 따지자면 평민이라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는 신분이 있다. 그리고 너는 귀족에게도 대우받으며 지내게 될 거다

그간 소설이며 영상을 본 짬밥이 있으니, 이런 세계에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잘 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날 무서워하는 ‘일반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졌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빙의 소설에서‘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라는 말을 자주 봤다. 정말일까? 아무 것도 안 해도 상대가 날 무서워하는데 그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건가?

“저기, 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속을 숨기며 최대한 무해한 얼굴로 웃었다.

“조용히 밖에 좀 다녀오고 싶어서요.”

“하지만 레이디 혼자 나가시는 건 위험해요.”

“괜찮아요.”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도 위험하다고 말려서 잠깐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승자는 나였다.

“저희 같은 사용인들이 이용하는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시면 그 앞에...”

마지못해 길을 설명해주면서도 중간 중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로보는 거친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아니면 기사님들보고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걱정 감사해요. 조심해서 다닐게요. 그리고 누가 절 찾으면 잠깐 나갔다 온다 했다고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 말씀... 부탁이라뇨! 제발 편하게 명령해주세요.”

내내 이쪽을 걱정하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어색하게 웃다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말해준 대로 밖으로 나가 길을 따라 걷자 커다란 정원이 보였다. 말이 좋아서 정원이지 공원이라 해도 될 만큼 넓었다. 정원 가운데 있는 큰 길로 간간히 마차가 지나갔다. 중간 중간 경비처럼 기사들도 서 있었다.

나는 도둑처럼 나무기둥 뒤로 다니는 중이었다. 안 들키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됐다. 조용하게 움직이려 하자 나뭇잎을 밟아도 소리가 안 났고 날렵하게 움직이려 하자 걷고 있는데도 뛰는 것처럼 빨랐다.

오오오. 속으로 감탄하며 저택 대문에 도달했다. 이제 수문장처럼 앞을 지키고 선 기사들만 뚫으면 됐다!

“...?”

진짜 도둑도 아니고, 잠깐 나가는 건데 왜 이러고 있어야…? 불쑥 찾아온 현타에 마른세수를 하며 다시 앞을 살폈다. 역시 몰래 빠져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하고 로브에 달려있던 후드를 쓰…려다가 말았다. 그럼 더 수상하잖아. 젠장! 인상을 쓰다가 안겨있는 설기가 눈에 들어왔다.

“...! 설기야.”

작게 이름을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반짝이는 눈동자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다.

손가방을 열고 공을 떠올리자 바로 손바닥 안에 동글동글한 게 잡혔다. 공을 꺼내기도 전인데 설기는 벌써 내려달라고 끙끙 울었다.

설기를 내려놓고 몸을 젖혔다. 투수가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한껏 팔을 들어서 그대로 던졌다. 높게 날아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정문 밖으로 날라 갔다. 홈런이었다.

설기가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갔다. 나도 조금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다.

“설기야!”

형식적으로 설기이름도 몇 번 불러줬다. 그러면서도 설기가 정말로 멈추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똑똑한 강아지는 들은 척도 안하고 쌩 달렸다.

“저거 지랄개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다. 아니, 왜 우리 설기한테 지랄개라고…! 이 와중에도 잠깐 울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로 향하는 순간 얼른 표정을 바꿨다.

뭐랄까, 저희 개가 또 사고를 쳤네요, 하하핫. 하는 그런 표정?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인사하듯 고개를 꾸벅였다. 눈이 마주친 사람도 당황해서 덩달아 고개를 숙여보였다. 설기를 쫓아갈 것처럼 몸을 들썩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급하게 소리쳤다.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쏜살같이 문을 빠져나갔다. 저만치 앞에서 설기의 엉덩이가 보였다. 마지막으로 뒤를 힐끔 보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탈출 성공이었다.

빠져나와서도 설기를 안아들고 얼마간은 계속 달렸다. 슬레인 때처럼 아무리 뛰어도 숨이 안찼다.

그러다가 멀리서부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릴 때 속도를 늦췄다. 설기를 다시 내려주고 공을 던지며 걷다보니 어느새 시장 입구였다.

한국이나 여기나 저녁 장을 보는 시간대는 똑같이 사람이 많았다. 설기를 잃어버릴까봐 안아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길을 물었다.

“혹시 "저 푸른 초원"이란 여관 아세요?”

그렇게 6번 쯤 물었을 때 드디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에서 꺾으면 돼요.”

“아...”

“길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아니면 나랑 같이 갈래요? 집이 그쪽방향이거든요.”

“아,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을 거 같,”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처음 온 사람 같은데 맞죠?”

“네...”

“그럼 길 잃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골목이 많거든. 리크만 사면되니까 같이 가요.”

낯가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빙긋 웃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천사처럼 선량했다.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걷기vs듣는 순간부터 더 모르겠던 여관찾기.

머릿속 저울은 볼 것도 없다는 듯이 기울었다.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뜻이었다.

아줌마가 말한 리크는 대파랑 비슷하게 생긴 야채였다. 장바구니에 리크 한 개를 꼽고, 아줌마가 이제 가자며 걸음을 옮겼다.

“로보에는 무슨 일로 왔어?”

“혼자 온 거예요?”

“아. 그럼 일행은 어디 있는데?”

“자고 있구나.”

쏟아지는 질문에 네, 아니오 정도로만 대답하며 설기를 달랬다. 아주머니가 옆에 가깝게 다가올라치면 설기가 이를 드러내며 짖었다.

“아직 애기인 거 같은데 성깔있네요.”

“아하하...”

“그런데 아가씨는 직업이 어떻게 돼요? 앗. 오해는 말구. 칼은 차구 있는데,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 같지는 않아서 말이에요.”

“네?”

“아가씨도 뭐 그건가? 호신용? 요즘 젊은 아가씨들 중에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서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말이야.”

“네, 뭐...”

어딜 가나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것도 똑같은 모양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묘하게 아까보다 주변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 같다.

“아, 지름길이에요. 마을 주민들만 알고 다니는 길.”

내 시선을 눈치 챘는지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요즘 용병 중에 로보에 그대로 눌러앉는 이가 많아서 곤란하다며 말을 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얘기가 점점 버거웠다. 이, 이제 그만.

“설기야!”

왈! 왈왈왈!

얌전히 품에 안겨있던 설기가 심하게 몸을 비틀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설기 때문에 놀라 급하게 몸을 숙였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앞뒤로 남자가 두 명씩 짝을 이뤄 다가오고 있었다.

“...?”

처음에는 상황이 바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고개를 기울였다. 뭐지? 뭔데? 그러다가 “반항하지 마렴. 그럼 너만 다친단다.”하는 아주머니의 말에 깨달았다.

“…헐?!”

아, 싫다. 이런 순간에도 나오는 말이 헐뿐이라니.

“걸친 게 제법 돈 있어 보이는데. 진짜 혼자 다니고 있는 게 맞아?”

다가오던 남자들 중 하나가 말했다. 그 남자의 눈동자가 장바구니에 꽂혀있던 리크를 스치는 게 보였다. 설마?

“호위가 있었으면 환락가로 들어오는데도 내버려 뒀겠니?”

“헐.”

환락가였어? 어쩐지 분위기가 음침하더니!

“하긴... 그런데 왜 이렇게 팔팔해? 약 안 먹였어?”

“개가 너무 경계하더라고.”

또 헐, 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고질병 안전불감증인가? 당하기 전까지는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끓는 것과 별개로 눈동자는 빠르게 굴러다녔다. 정면은 막혔고, 뒤는 벽이고 양 옆으로는 남자들이 오고... 에이잇!

침착하자. 침착하자, 김이림. 너는 지금 그냥 김이림이 아니야. ‘2lim’이다!

진정하려 애쓰는 것과 별개로 손을 덜덜 떨렸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거잖아. 납치.

그냥 평범하게 길을 물었을 뿐인데 납치를 당하게 생겼다.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게 손잡이를 잡았다. 후우, 후욱, 후우, 후욱. 귀에 들리는 숨이 거칠었다.

“어이, 어이. 괜한 짓 하지 마. 응? 우리들 그러면 화낸다?”

남자들이 먼저 입을 열고 뒤 이어 아줌마도 말했다.

“아가씨. 그러지 마요. 다쳐.”

“저 세요. 세다고요.”

흑. 뭐라는 거야, 김이림. 내가 들어도 만만하다. 만만해.

그리고 스스로 했던 생각처럼 사람들이 빵 터진 것처럼 웃음을 터트렸다. 나는 그냥 닥치고 허리끈에 연결된 검집의 매듭을 풀었다.

검집이 내 손 떨림을 따라 덩달아 달달달 흔들렸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말할 때 갑시다. 예?”

“그렇게 말하면 퍽이나 예 알겠어요 하겠다 새끼야.”

“ 그럼 니는 뭐라 할 건데?”

“고운 피부에 칼빵나기 싫으면 얌전히 와라, 엉?”

“이거이거 깡패새끼네.”

자기들끼리만 웃고 떠들고 난리 났다. 겁을 주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저들이 시간을 끌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침착해져 갔다. 정확히는 칼을 든 후 부터였다.

일단 손에 무기가 있다. 그냥저냥 무기도 아니고 길이만 50cm가 넘는 검이었다. 게다가 차분해지자 앞의 남자들이 아까만큼 무섭지 않았다.

“얌전히 굴라니까... 꼭 저렇게 매를 버는 애들이 있다?”

입을 꾹 다물고 눈동자를 굴리자 남자들이 비웃었다. 자기네들끼리 뭐라 떠들던 내 고민은 하나였다.

때린다.

...사람을?

싸우면 이길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앞의 인간들을 직접 친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졌다. 어디를, 어떻게?

골목은 비좁았다. 덩치 좋은 사내들이 둘씩 막자 꽉 막혀버렸다. 한 명을 넘어트리지 않는 이상…, 아.

“설기야.”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에 설기가 힐끔 뒤를 봤다. 손짓을 하자 빠르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한손에는 칼집 채로 검을 들고, 다른 손에는 설기를 안았다. 그리고 오른쪽 골목을 향해 뛰었다.

“어? 어? 나한테 안기려고아악!”

허벅지를 걷어차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옆에 있던 남자의 팔을 피하며 무너진 남자의 등을 발판삼아 있는 힘껏 달렸다.

“자, 잡아!”

“젠장, 왜 저렇게 빨라!”

남자들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멀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벌려놓고 도착한 곳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에이씨.”

길이 미로처럼 얽혀있었다. 나름 큰 길로 온다고 왔는데도 그랬다. 막다른 골목의 끝에 있던 가게에서 막 입간판을 꺼내던 여자가 뭐냐는 얼굴로 이쪽을 봤다.

“큰 길로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있다!”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골목 사이에서 따돌린 남자들이 튀어나왔다.

“어디로 가야해요?”

“어디 가게에서 도망쳤는지 몰라도 포기해.”

“예?”

어이없어 인상을 쓰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남자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도 골목이 꽉 막혔다.

“아까는 방심해서 놓쳐어억!”

아까처럼 허벅지를 걷어찼다. 딱딱한 워커 굽으로 살도 아니고 뼈를 까였는데,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게 당연했다. 어떻게 때리나 했더니 이렇게 때리면 됐나보다.

“저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길 좀 알려주세요.”

“닥치고 있어!”

남은 두 명 중 하나가 왁 소리를 질렀다. 망설이지 않고 발을 뻗었다. 내가 생각해도 전광석화처럼 빠른 움직임이었다.

“으아악!”

“헉! 어떻게!”

그런데 잘못 찼다. 가운데를 움켜쥐고 악을 쓰는 남자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터, 터졌어요?”

“너, 너, 죽여버리일...”

가운데를 차인 남자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눈을 뒤집었다. 순식간에 혼자 남은 남자가 욕을 뱉으며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뭐해! 잡아!”

뒤에 있던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반사적으로 쫓아가 정강이를 까 엎어트리고 나니, 맨 처음 허벅지를 맞았던 남자가 절뚝대며 오다가 숨을 들이 삼켰다.

잠시 후 가게 앞에 네 명의 남자가 기절한 채 누워있었다. 여자가 다 기절시키라며 소리를 지르길래 “어, 어떻게요?”하고 물었더니 답답해하며 가지고 나왔던 간판을 직접 휘둘렀다.

살벌한 소리 연달아 울리고 남자들이 기절하자 가게 안에서 여자 몇 명이 더 나왔다.

“어어, 얘네 그 놈들이잖아? 사이비 새끼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놈들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쟤 납치하려다 지들이 당했어.”

맨 처음 나왔던 여자의 말에 웅성거리던 여자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날 향했다.

“얘. 나가는 길 알고 싶댔지?”

“네? 네.”

“이리와. 너랑 너는 저놈들 눈뜨기 전에 묶어놓고.”

“어머, 왜... 아아. 알겠어!”

여자들 사이에서 시선이 오갔다. 바로 앞에서 그러는데 눈치 못 챌 수가 없다. 표정을 굳히며 가만히 있자 여자가 재촉했다.

“나가고 싶다며. 빨리 와.”

“그냥 길만 알려주시면 알아서 갈게요.”

“여기는 들어오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은 없어. 나가려면 가게 통해서 나가야 돼.”

“...”

“정말이라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눈에 힘주고 있는지 알겠는데,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따라와.”

방금 전에 길 알려준다는 말에 속아 납치당할 뻔 했다. 아무 짓도 안하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수상했다.

“얘. 니가 방금 저 새끼들 쓰러트리는 걸 봤는데 내가 뭘 하겠니.”

“저 인간들은 왜 묶는 거예요?”

“그, 그야 정신 차리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말까지 더듬었어. 수상해. 눈을 가늘게 뜨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작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여자가 깔깔 웃고 있었다.

“위험은 개뿔... 얘. 쟤네는 지금 너 빨리 밖으로 보내고 저놈들 경비대에 팔려고 하는 거야.”

“네?”

“영주가 저 새끼들 잡아오면 돈 준다고 포상금 걸어놨거든.”

“언니!”

밑에 있던 여자들이 위를 노려봤지만 반대로 나는 마음이 좀 놓였다.

“그거라면... 저 인간들은 여기 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이지? 나중에 돈 나눠달라고 와도 없어.”

“네.”

“좋아. 따라와.”

여자의 말은 정말이었다. 가게를 통과해 나가자 거짓말처럼 시장이 나타났다. 여전히 사람으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다가 여자를 붙잡고 물었다.

“저 혹시 "저 푸른 초원"이란 여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눈 삐었니. 바로 저기 있잖아.”

그러고는 쾅 문이 닫혔다. 여자가 가리킨 곳에는 거짓말처럼 찾고 있던 여관이 보였다.

설기를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먹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안은 한산했다. 구석에서 낮술을 푸고 있는 이들을 힐끔 보며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려니 사람이 다가왔다.

“어서오세요.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방?”

“어…, 저, 사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아아. 면접 보러 온 거구나! 저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요.”

아니라고 말할 새도 없었다. 쌩하고 가버린 뒷모습을 보다가 포기하고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설기가 답답해 하길래 간식을 꺼냈다.

“여기는 밥 먹는 데라서 돌아다니면 안 돼.”

멍!

“쉬잇. 우리 조용히 하고 있자.”

“그런다고 애가 알아 듣냐.”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밥을 먹는 중이었는지 우물대며 나온 여자는 벨라였다. 벨라는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안으로 사라졌다가 익숙한 얼굴을 데리고 나왔다.

“저는 왜…, 어!”

밥이 눈을 크게 떴다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때 그 애기구나.”

“절 알아 보시네요?”

“냄새가 똑같은데 어떻게 몰라. 강아지도 데리고 왔네. 저녁은 먹었어? 같이 먹을래?”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져와.”

벨라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밥은 설기를 보면서“네 것도 같이 가져올게”라며 다정히 말하고는 주방으로 갔다.

“여기서 일 하게?”

“네?”

“면접 보러 왔다며.”

“아니에요. 그건 직원 분이 오해하셔서...”

“그럼 왜 왔냐. 니 주인까지 떼 놓고.”

“주인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벨라가 눈을 깜박이다 피식 웃었다.

“그래, 뭐 그렇다 쳐. 이미 세뇌당한 애 붙잡고 무슨 말을 하겠냐.”

“예? 그런 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래. 어쨌든 왜 왔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근데 진짜 정말 아니에요. 친구사이라고요.”

벨라는 그저 재미있다는 얼굴이었다. 팔짱을 끼며 더 말 해보라는 듯이 쳐다봤다.

“그때 저보고 공장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펫 시장?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냄새 맡을 줄을 몰라?”

“그건... 배운 적이 없어서...”

게임에서는 단축키만 누르면 사람이 됐다 곰이 됐다 할 수 있다. 그거 말고는... 더 필요할 게 뭐가 있어? 그놈의 냄새가 도대체 뭔데요!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삼키자 이번에도 설명이 빈약해졌다. 벨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지었다.

“부모가 널 그대로 뒀다고?”

“그게…, 같이 안 살아서요.”

“부모랑 같이 안 살 수도 있지. 우리만 해도 애들은 다 같이 키우니까.”

“혼자 살았는데요.”

“뭐?”

“부모님이 돈은 보내주셔서...”

아무리 기억하려 애써도 부모님과 같이 산 기억이 없다. 유치원은 가정부의 손을 잡고 다녔고, 초등학생이 된 후에는 엄마의 비서가 준비물을 챙겨줬다.

돈이 부족한 적은 없다. 친구들을 따라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갈 수 있다. 반대로 가기 싫어졌을 때도 말만 하면 됐다. 그러면 그 날부터 안 나갔다.

집은 항상 내 명의였다. 중학생 때까지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 잠깐 다른 동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차라리 나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면. 이마를 뒤덮은 여드름처럼 크게 곪고, 예민했던 사춘기 때 엄마를 찾아간 적이 있다. 진짜 내 친부모가 맞냐고 묻자 엄마는 눈을 깜박이다 비서를 불렀다.

친자검사해서 보여줘

그러면서 본인 칫솔을 비서한테 주고는 나한테 말했다.

네 아빠한테도 가서 칫솔 달라고 해

하라면 못 할 줄 알고? 오기로 끝까지 했던 검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은 진짜 내 친부모가 맞았다.

좀 더 큰 후에, 인터넷에서 수많은 글을 읽은 후 깨달았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얼마든지 서로에게 무심할 수 있었다. 오히려 나는 돈은 잘 받고 있으니 정말 운이 좋은 편이었다.

“새끼를 그냥 혼자 뒀다고!?”

“진짜 혼자 둔 건 아니고, 사람 붙여주셨어요.”

“웃기는 소리!”

언제 여유로웠냐는 듯 벨라가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며 흥분했다.

“사람을 붙여줘? 사라암? 하!”

벨라의 목소리가 커지자 안쪽에서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다. 말리려고 나온 거 같은데 혼자 화나있는 걸 보고는 눈짓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물어봐도... 애매하게 고개만 젓자 밥이 나와서 직원들을 돌려보냈다. 익숙한 태도로 벨라에게 매달려 달래고는 음식을 날랐다.

밥을 먹으면서 내 얘기를 들은 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서 “전 정말 괜찮아요!”라고 해봤자 더 안 괜찮아 보일 게 뻔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응, 응. 뭔데?”

“제가 변신 조절이 안 돼서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벨라는 혀를 찼고, 밥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변신도 냄새랑 비슷해. 날 때부터 본능처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도 방법만 알면...”

“너는 숨을 어떻게 쉬냐?”

“네?”

“들이쉬고, 내뱉고를 어떻게 하냐고? 설명할 수 있어?”

“누나.”

밥이 팔을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었다.

“포기해. 포기하고 곰이 됐을 때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

“누나 말은…, 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장출신인 수인족을 알아. 고양이인데…, 그 친구 말이 정신이 흔들릴 때 약한 쪽의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정신이, 흔들릴 때요?”

“으응. 몸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특히나 통제가 안 된대.”

밥의 말을 이어 받듯 이번에는 벨라가 입을 열었다.

“걔 마법사야. 어지간한 인간 마법사 놈들보다는 강해. 그런데 걔처럼 공부 많이 한 놈도 여전히 스스로는 냄새조차 숨길 줄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마. 알겠어?”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였지만, 듣다보니 알 것 같았다. 벨라는 지금 날 걱정하고 있는 거였다.

“…그 고양이 분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냄새를 숨길 수가 있어요?”

“걔는 반려가 있어.”

아하.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내려놨다.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인간 놈 너무 믿지 말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 찾아라. 알겠냐?”

“친구라니까요...”

“친구는... 그 새끼는 냄새부터가 글렀어. 피 냄새 많이 나는 놈 치고 멀쩡한 놈 있는 줄 알아?”

“사, 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 누나랑 죽이네 마네 하면서 살았으니까…?

“퍽이나. 아이고, 답답아.”

벨라랑 내가 뭐라 하던 딴 생각에 빠져있던 밥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너 화이트 안 가 볼래?”

갑자기 나온 말에, 그것도 화이트란 말에 움찔했다.

“화이트는 왜요?”

“축제 때 거기서 모이는 친구들 있는데…, 그 중에 그리즐리도 있거든.”

벨라도 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그러면 되겠네.”

“뭐가요?”

“그리즐리가 좀 배타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놈은 그리즐리답지 않게 까불거리니까.”

“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곰 수인이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화이트에 갈 생각이 없냐며 물었다. 어차피 축제 때까지 가긴 가야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며 말을 흐리자 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로보에 있는 건 아니지? 며칠 정도 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3, 4일은 있을 거 같아?”

“아마도요?”

“그럼 한 3일 후에 다시 와줄래? 그 때까지 정확히 어디서 모이는 지 확인해볼게.”

그 후로 더 대화를 나누다가 손님이 차기 시작하자 밖으로 나왔다. 저택까지 가는 길은 몰랐지만 나오기 전 밥한테 좋은 정보를 얻었다. 길을 모르면 삯 마차를 타라는 거였다.

알려준 방향으로 가자 지붕이 없는 마차 여러 대가 서있는 게 보였다.

“어서옵쇼. 어디로 모실까요?”

“아.”

…그런데 거기가 어디지?

“저, 엄청 큰 저택인데요. 들어가는 길이 숲길이고 지붕이 초록색이었거든요.”

주섬주섬 이어진 설명에 마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주님 성 말하시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

“앗. 아니, 아니에요. 거길로 데려다 주세요.”

마차는 1인용인지 좌석이 좁았다. 나같은 사람은 둘도 탈 수 있겠지만 이 곳 사람들은 한명이 타면 딱 맞을 거 같았다.

“어, 어. 이놈이 왜 그래.”

마부가 투레질 하는 말을 달래며 고삐를 틀어쥐었다. 베른디노트의 얘기가 떠올랐다.

‘교수님 댁에 있던 개들. 생각나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생각해보니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했었다. 가서 지금 얘기하자고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리를 채웠다. 돌고 돌아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건 앞으로도 변신조절을 못할 거란 사실이었다.

나는 진짜 곰은 아니니까 따로 방법이 있지 않을... 아닌가? 곰이 맞나? ‘2lim’은 수인족이 맞잖아. 젠장. 내가 왜 수인족으로 했을... 왜긴 왜야. 누가 게임 속에 들어 올 줄 알았냐고?

생각할수록 답이 없다. 게임 클리어는커녕 당장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다.

멍멍!

우울감에 젖어 있자 품에 있던 설기가 앞발을 들고 일어섰다. 턱 끝을 핥는 게 꼭 힘내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다그닥, 다그닥. 어렸을 때 양발로 냈던 소리가 실제로 들렸다. 리드미컬한 말발굽 소리가 꼭 ASMR같기도 했다. 생각을 집어치우고 멍하게 있자 어느새 도착지였다.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넵. 돈은 25제니 주시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금화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그러자 마부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아하핫. 장난이 짓궂으신 손님이었네요.”

“...네?”

“세상에. 금화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와아.”

“...?”

“죽기 전에 금화 한 번은 보네요. 자. 이제 25제니 부탁드립니다.”

눈을 깜박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걸로 계산이 안 되나요?”

“...이 마차랑 말, 아니 저까지 사신다고 해도 거슬러드릴 돈이 없습니다만.”

“…이거밖에 없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돈을 안 거슬러줘도 된다고 했지만 마부가 기겁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네?”

“저희 같은 놈들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탈 없이 죽습니다.”

“아...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주실래요? 일행한테 돈 빌려올게요.”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으로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 안쪽에서 사람이 나왔다. 기사였는데 나와 설기를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눈을 홉뜨며 다가왔다.

“레이디 김 맞으십니까?”

“예? 아…,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을 향해 마차를 준비하라고 외쳤다. 레이디 김은 또 뭐야. 이상한 호칭에 인상을 쓰다가 뒤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 혹시 25제니 있으세요? 저분 삯 값을 못 드려서... 돈은 해로인한테 말해서 바로 드릴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귀족이신 걸 몰라 뵙고... 이렇게 모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가지마세요! 돈 받고 가세요.”

돈을 받으라는 말에 꼭 죽으란 소리를 들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말에 표정이 이상해졌던 기사가 헛기침을 하며 같이 입을 열었다.

“금방 돈을 줄 테니 기다려라.”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이 안쪽에서 마차가 준비됐단 얘기가 들렸다. 정원만 가로지르면 되는 건데 4마리 말이 끄는 휘황찬란한 마차였다. 오르기 쉽도록 문 앞에 단이 놓였고 그걸 로도 모자라 기사가 손을 내밀었다. 어색하게 그 손을 잡으며 안에 타자 바로 문이 닫히려고 하길래 돈을 빌려준 기사를 불렀다.

“저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론 데이스입니다.”

“아아. 네. 돈은 가자마자 바로 드릴게요!”

기사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기사가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왜 돈을 준대도 싫다는 거야. 아까 마부는 귀족 어쩌고 하던 걸 보니 어렴풋이 짐작되는 게 있는데, 기사는 왜 그러는 지 알 수가 없었다.

마차를 타고 가자 넓은 정원도 금방 가로질렀다. 문이 열리고 내리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가 무섭도록 굳어있는 해로인 얼굴에 같이 표정을 굳혔다.

“…뭐, 뭐야?”

“일단 내려라.”

내민 손을 붙잡자 그대로 끌어 안겼다. 한손으로 허벅지를 받치고 거뜬히 안아드는 움직임에 급하게 해로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려줘.”

“어딜 갔다 왔지?”

“잠깐 나갔다 왔어. 일하는 분한테 얘기하고 갔는데, 못 들었어?”

“들었다. 내가 묻는 건 어딜 다녀왔냐는 거다.”

고압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었다. 뒤에 있는 줄도 몰랐던 중년인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몬드 경과 아까 해로인을 부축했던 남자에 오닉 경까지 서 있었다.

“대답해.”

“내려 줘.”

“대답하라고 했다.”

“내려달라고!”

짜증을 숨기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커다란 홀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여전히 굳은 얼굴인 해로인을 보며 다시 한 번 말했다.

“놓으라고.”

“이림.”

“내가 분명 말했지. 이러는 거 싫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말까지 남겨놨잖아.”

“기사를 데리고 나갔어야지.”

“내가 왜?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걸 아는데,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해로인 앞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터트리게 됐다.

정색을 하며 화를 내자 이번에는 해로인이 입을 다물었다. 그럼에도 몸을 받치고 있는 팔을 단단해서 잡고 있던 어깨를 흔들었다.

“내려놓으라고.”

그때였다. 몬드 경이 “감히!”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쪽을 보자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다. 순식간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안의 여린 살을 깨무는 걸로 참았다.

서러웠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감히래? 지가 뭔데. 잘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말 싹 무시하며 힘쓰는 해로인도 싫었다.

아르르

가만히 있던 설기가 해로인의 옷자락을 물고 성질을 냈다. 그런 설기를 끌어안으며 해로인을 노려보자 날카롭게 빛나던 벽안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 미친놈이!”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서 몬드 경을 보던 오닉 경이 거침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퍽하고 나는 찰진 소리가 통쾌했다.

“제 방 어디에요?”

해로인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중년인에게 물었다. 하얀 와이셔츠의 깃은 빳빳했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가 봐도 집사였다.

집사가 해로인 눈치를 보며 사용인 하나를 불렀다.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자 뒤에서 해로인이 이름을 불렀다.

“말 걸지 마.”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한 후 계단을 올라갔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용인이 무언가 얘기하려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럼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저 줄을 잡아당겨주세요.”

“네. 제가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용인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대로 이불에 뛰어들어 발을 굴렀다. 몸부림을 치고 나니 조금은 기분이 풀렸다.

“설기야. 아까 잘 했어!”

칭찬하면서 개 껌도 꺼내줬다. 몸처럼 주둥이도 작은 설기가 커다란 개껌에 열심히 잇자국을 찍어댔다.

흐뭇한 눈으로 그걸 보다가 베개에 얼굴을 박았다. 바로 한숨이 나왔다.

내가 왜 그랬지... 내일 얼굴 볼 걸 생각하니 막막했다. 싸우고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어지간하면 상대의 말에 맞췄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관계를 끊었다. 그게 감정소모 없이 편했기 때문이었다.

‘너 갑자기 이러는 거 진짜 예의 없는 거야!’

‘그 예의 너부터 갖추지 그랬어’

‘뭐, 뭐? 니가 얘기를 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했어. 네가 안 들은 거지’

그랬다. 자신은 언제나 얘기를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분명 말했는데!

“하아...”

이참에 확 헤어져?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좀 참을 걸...

하아아.

분명 내일 해로인이랑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어느새 잠들었나보다.

스스로 잠들었다고 하니 웃겼지만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꿈인 걸 모를 수가 없었다.

으으윽, 분하다…

라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마왕이 말했다. 마왕이 쓰러지고 나자 게임을 할 때처럼 아이템들이 막 튀어나왔다.

주머니가 열리고 쏟아지는 골드들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글자가 맹렬하게 날라 왔다.

★☆GAME CLEAR☆★

마침내 내 머리 위에 도착해서 현란하게 빛나는 글자들에 꿈이란 것도 잊고 박수를 쳤다. 드디어!

...?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는 게 없었다. 오히려 반짝이던 글자가 점점 옅어지며 사라지기까지 했다.

안 돼! 사라지지 마!

간절하게 외쳤지만 글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쓰러졌던 마왕도, 나왔던 아이템들도 없어졌다. 순식간에 어두운 공간에 혼자 남았다.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곰으로 변해요’

밥인지 누구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리더니 뿅 소리가 났다. 그렇게 곰이 됐다. 까만 앞발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어두워졌던 공간이 밝아졌다.

혹시!

반색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반짝 빛을 낸 건 남자들이 봤던 무기였다. 낮에 날 납치하려 했던 남자들이 음침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너. 이제는.

못.빠.져.나.간.다.

뚝뚝 끊어지는 목소리가 기괴했다. 새끼곰이라서 그런지 다가오는 남자들이 너무나도 컸다.

안 돼, 안 돼!

헉 하며 눈을 떴다. 방 안은 환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뛰는 심장을 부여잡자 폭신한 털이 느껴졌다. 설기인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아래를 보기 두려워졌다.

설마. 설마.

눈을 내리깔자 가장 먼저 보인 건 봉긋하게 솟은 주둥이와 그 끝에 놓인 촉촉한 코였다.

“…그응? 그응!”

꿈일거야, 아직 꿈이라고. 깨기 위해 앞발로 얼굴을 내리쳤더니 아팠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악몽도 내 마음대로 못 꿔? 어?

“쀼…이잉... 쀼잉!”

기어코 입에서 수치스러운 울음소리가 터지고 말았다.

로보의 영주인 데니스 백작은 검 한 자루로 평기사에서 황실 기사단장 자리까지 올라갔다. 타고난 신분의 한계와 대놓고 어느 파벌에도 들어가지 않겠노라 선언하는 바람에 금세 변방의 로보로 좌천됐지만 말이다.

물론 당사자인 백작은 쫓겨난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수도 사교계에서 신경쇠약에 걸렸던 아내 역시 로보에 온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을 되찾았다.

부부사이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 넘겨내고 나니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적적하긴 해도 그조차 나이가 드니 아쉬움 정도로만 남았다.

부부의 일상은 평온했다. 젊은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할 만큼 말이다. 그런데 어제 밤 집사가 잔잔한 일상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재밌는 얘기를 전해왔다.

검은머리의 레이디가 황태자에게 반말을 하며 화를 냈고, 황태자는 그걸 다 받아줬다는 거였다.

데니스 백작은 대놓고 중립을 외쳤던 만큼 황실에서 조사단을 보내니 협조하라 했을 때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관을 내주고 별관으로 가버렸다.

말로는 자기 집이다 생각하며 편하게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정말은 호스트가 게스트를 방치한 것이니 귀족 예법으로 따졌을 때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다.

다만 예상했던 것처럼 황태자는 묵인했다. 그러니 조사단이 떠날 때까지는 별관에 박혀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는데.

‘재밌을 거 같네요. 그렇죠?’

옆에서 같이 집사의 얘기를 듣던 부인이 눈을 반짝였다. 평온한 일상이 싫은 건 아니지만 이따금 날아오는 돌멩이가 반갑긴 했다. 백작의 눈 역시 자신의 부인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백작부부는 아침식사 자리에 은근슬쩍 끼었다. 백작부부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권력의 자리인 상석은 황태자의 것이었다. 부부의 자리는 상석의 오른쪽이었고 맞은편인 왼쪽이 ‘레이디’의 자리라고 했다.

백작을 마지막으로 해로인과 레이디를 제외한 모든 자리가 찼다. 어제 밤 해로인과 레이디가 싸웠다는 건 저택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아닌 척 빈자리를 힐끔거리는 중이었다.

집사 역시 빈자리를 보며 속으로 고민 중이었다.

‘올라가서 식사준비 다 됐다고 말씀드리면 되나? 아니면 사람들 다 왔다고? …너무 재촉하는 말 같지는 않겠지?’

주인이 별관으로 튀는 바람에 애먼 집사만 하루가 다르게 마음고생으로 늙어가는 중이었다.

두런두런 조용하게 이어지던 얘기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쾅!

위층에서 커다란 소리가 나는 순간 식당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기사들이 의자를 박차며 일어나 위로 달려갔고, 데니스 백작은 반사적으로 부인의 어깨를 감쌌다.

“무, 무슨 소리죠?”

“모르겠어요. 우리도 올라가 봅시다.”

집사는 은근슬쩍 주인 부부의 뒤에 붙었다. 원래라면 기사들처럼 뛰어가 상황파악을 해야 하지만.

‘주인님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집사한테는 언제나 주인님이 1순위여야 했다.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2층으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레이디의 방 앞이었다. 문짝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사람들은 당황스러움 숨기지 못한 채 방안을 보는 중이었다.

60이 다 된 할아버지이지만 여전히 기골이 장대한 데니스 백작이 부인을 감싸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맨 앞까지 왔을 때 부인이 입가를 손으로 가리며 감탄인지 신음인지 모를 애매한 소리를 흘렸다.

“어머…?”

쀼잉! 쀼이잉! 쀼이이…

백작 부부의 눈에 들어온 건 침대 위에서 빽빽 울고 있는 새카만 아기 곰 한 마리였다.

며칠 가까이 쉬지 못하고 혹사당했던 몸은 실이 끊긴 인형처럼 잠깐 무너져 내렸다. 무방비하게 잠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었기에 막 잠에서 깬 해로인의 기분은 가라앉아 있었다.

“...?”

설상가상 이림이 보이지 않았다. 이림 대신 머리맡에 달랑 놓인 성수를 보는 순간 찬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표정을 굳히고 바로 줄을 당겼다. 부름을 받고 온 하인에게 이림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릅니다”였다.

하인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집사는 다행히 하인보다 길게 대답했다.

‘잠깐 나갔다 오신다면서 외출하셨습니다’

나갔다가 온다고 했다. 도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표정은 좀처럼 풀리질 않았다.

그는 즉시 사람들을 모았다. 이림의 말을 전했다는 하녀도 불렀고, 정문을 지키고 있던 기사들도 불렀다.

‘조용히 나갔다오고 싶다고 하셔서’

‘기사 분과 함께 나가셔야 한다고 했지만 거듭 싫다고 하셨어요’

‘장난감이 담을 넘는 바람에 지랄, 아니 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이디께서 자신이 데려오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개만 데리고 혼자 나갔다고. 들을수록 가관이었다. 해로인의 벽안이 진짜 도깨비불이라도 된 것 마냥 사납게 타올랐다. 사람들 전부가 쥐약을 삼킨 쥐처럼 살벌한 공기에 짓눌려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음? 무슨 일입니까?’

오닉 클라리아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눈을 깜박였다. 그리고 곧 급한 건 그게 아니라는 듯 입을 열었다.

‘전하. 이림님 어디 계십니까?’

‘...이림은 왜’

‘조금 전에 경비대에 게밍교 신도 넷이 잡혀왔는데, 보니까 납치조를 맡은 놈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놈들 몸에 난 상처도 그렇고, 데려온 게 평범한 여자들이라 진짜로 본인들이 잡은 게 맞냐고 물었더니’

‘...’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잡아서 자신들한테 넘겨 준거라는데, 말하는 인상착의가 딱 이림님이었습니다’

오닉은 거기까지 말한 후 방안을 둘러보며 대형폭탄을 터트렸다.

‘환락가에서 놈들한테 쫓기고 있었다는데 왜 거기에 가 계신 겁니까?’

여기저기서 헛숨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화를 참듯 깊게 숨을 들이킨 해로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다른 말은? 이림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아는 눈치이긴 했습니다만, 이상한 곳은 아니니까 상관 말라면서 대답을 안 해주던데요’

이림한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따로 명령까지 받았던 몬드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슨배님 제발 눈치 좀!

‘오닉 클라리아’

‘네’

‘당장 가서,’

이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오라고 시키려던 찰나였다. 밖에서 가슴 졸이며 있던 집사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레이디께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로인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뒤를 오닉과 몬드가 쫓았다. 나머지도 우르르 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호위대장인 아메트가 눈짓으로 막았다.

저택 사용인들은 물론 측근들까지 문틈 사이로 눈만 내놓고 상황을 살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해로인이 레이디를 직접 안아들고 들어왔을 때 한 번 놀랐고, 그 레이디가 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을 때는 식겁했다.

이림을 안고 있던 해로인 역시 당황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다.

이림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됐다. 강제하려 그러면 반발심이 커지니 ‘옆에 있을 거라고 했잖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다시는 못 그러도록 구슬려야 했다. 그런데 이림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어졌다.

‘말 걸지 마’

울 것 같은 얼굴에 뒤늦게 행동의 고삐를 잡았지만 늦었다. 이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해로인의 고개가 몬드 쪽으로 돌아갔다. 오닉한테 맞고서 끙끙 앓던 몬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중을 받으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밖에 있던 하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해로인은 볼 것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 앞에는 하녀 셋이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다.

“무, 문이 잠겨 있어서...”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문고리를 흔들었다. 덜컥거리며 흔들리기만 할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열쇠는.”

“그게, 지금 열쇠를 별관에 계신 시녀장님이 가지고 계셔서요. 하인이 받으러 갔어요.”

혀를 차는 것과 동시에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났다.

“이, 이 소리에요. 방에서 계속 이소리가 나요!”

시끄럽게 구는 하녀들을 조용히 시키며 문에 귀를 댔다. 그 역시 귀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

…쀼…

마침내 소리가 정확하게 귀에 들어온 순간 해로인이 문에서 몸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발에 힘을 주고 문을 걷어차는 순간 나무문이 움푹 파이며 문짝이 뜯겨져 나갔다.

쀼잉! 쀼이이잉!

문이 사라지자 막혀있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자신의 강아지를 껴안고 서럽게 우는 이림의 모습에 어쩐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험하게 문을 열었던 것과는 다르게 침대 앞으로 가는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왜 우는 것이냐.”

목소리 역시 저절로 부드러워졌으나 말하는 본인은 몰랐다.

크아앙! 쀼이이…

안아 달래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이림이 질색하며 몸을 피했다. 그 모습에 다시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다.

“전하!”

“괜찮으!”

“무슨 일입!”

사람들이 차례로 방으로 뛰어 들어왔고, 온 순서대로 굳어갔다. 서럽게 울던 이림은 방안에 사람이 순식간에 늘자 더 서럽게 울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소리를 참으려는 듯 끅끅 거렸고, 그럴 때마다 작고 동그란 이불뭉치가 들썩였다. 지랄개는 이불 밖으로 엉덩이만 빼고 꼬리를 흔드는 중이었다.

심각해야할 분위기인데.

“귀여, 헙.”

누군가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소리 내 중얼거렸다. 몇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일 뻔 했다.

묘하게 숨 막히고, 충격적이게 귀여웠던 상황은 해로인의 말로 정리됐다.

“다들 나가.”

나가라고는 했지만, 어차피 문이 없어진 방이었다. 사람들은 1층으로 내려가는 대신 복도를 서성였다. 해로인이 이불 채로 새끼곰을 안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마지못해 계단으로 향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자는 어디가고 새끼곰이 있어?”

“곰이었어요?”

“곰 맞아. 털이 새카맣긴 했지만... 처음 보는 종인데.”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닉만 표정이 달랐다.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 있던 짐승의 정체를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옆에서 그녀의 눈치만 살피던 몬드가 슬쩍 말을 붙였다.

“슨배님은 저게 뭔지 아심까?”

돌아보는 오닉의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다. 어제 몬드가 말실수를 한 이후부터 쭉 그랬다.

“알아.”

“안다고요!?”

되묻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오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하의 소중한 보따리.”

“…네?”

“그러니까 넌 죽었다.”

“네?”

“잘 해라. 살고 싶으면.”

모두가 특히 몬드가 무슨 헛소리냐는 표정이었지만, 오닉은 진심으로 한 얘기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해로인이 보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안고 다녔는지 말이다.

한바탕 울고 났더니 창피하긴 한데 확실히 기분은 풀렸다. 어제 기분이‘이건 답도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끝’이었다면 지금은‘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였다.

코를 훌쩍이며 이불 밖으로 머리를 빼자 바로 하늘색 눈동자가 보였다. 멋쩍기도 하고 화도 덜 풀렸고 해서 가만히 시선을 돌리려하자 해로인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갑자기 같아진 시선높이 몸을 뒤로 빼도 해로인은 가만히 있었다.

이상하다. 평소 같으면 바로 붙잡았을 텐데?

심지어 말도 안하고 계속 쳐다만 봤다. 부담스러운 상황에 눈치만 보다가 근처에 온 설기를 껴안으려 했을 때였다.

왈!

해로인이 설기의 뒷덜미를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려놔버렸다. 뚱하게 쳐다보자 꽉 다물어져 있던 입술이 열렸다.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다.”

“...”

“일어났더니 네가 없었는데, 그 때부터 화가 났어.”

“그응”

“안다. 네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초조했다.”

초조했다는 말에 뻔히 쳐다보자 해로인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넌 혼자 나갔고, 아무도 네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그 와중에 오닉이 와서는 네가 환락가에서 쫒기고 있었다고 하더군.”

으응? 그걸 오닉 경이 어떻게 알았지? 반사적으로 움찔하고 떨자 해로인의 눈매가 조금 더 일그러졌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였다.”

“...”

“물론 내 태도가 나빴다. 하지만 어제 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걱정할 것 같은데.”

해로인이 말을 흐리며 나를 뻔히 쳐다봤다. 걱정했다는 말에 꽁하던 기분이 풀렸다.

“이렇게 울면서 내 손을 피하면... 이건 불공평하다.”

“...”

“다음에는 화가 나도 무조건 참겠다. 참아 볼 테니까, 너도 날 피하지 마라.”

참기는 뭘 참아. 하지를 말라고! 머리 한구석에서 이론만 빠삭한 이성이 봐주지 말고 말했다. 이럴 때 버릇을 잡아놔야 한다고 말이다.

“그으응”

나도 모르게 목울음 내자 해로인이 손을 내밀었다. 차갑고 무섭게 생긴 남자인데 지금은 꼭 "기다려"를 하는 대형견 같았다.

머리 아프다. 그냥 화해해! 속삭이던 이성에 배로 큰 목소리가 머릿속을 지배했다. 내 주제에 기 싸움은 무슨. 작게 한숨을 쉬며 내밀어진 손에 앞발을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안아들었다.

해로인은 줄을 잡아당겨 사람을 불렀다. 따뜻한 물과 수건을 준비해 달라고 한 후 직접 내 얼굴을 씻겼다.

얼굴의 물기를 훔쳐내는 수건은 여전히 어설프고 억셌다. 캉캉 짖으며 도리질을 치자 문 앞에 있던 하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전하.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하고 싶냐?”

“그으응”

고개를 젓자 굳었던 해로인의 표정이 다시 펴졌다. 참나. 이럴 때만 잘 읽히는 남자의 속내가 웃겨서 콧방귀를 끼고, 앞발을 내밀었다.

“...?”

“그으응”

수건 내놔. 내가 할 거야.

곰의 앞발로는 사람처럼 수건을 움켜쥘 수가 없어서 얼굴에 올리고 톡톡 두들겼다. 해로인이 날 씻기면서 젖은 셔츠를 갈아입는 사이, 사용인들이 집요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 사람들도 내가 우는 거 봤겠지?

시선을 피하기 위해 뒤돌아 앉는데 흐읍, 하고 숨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정찬은?”

그 사이 옷을 다 갈아입은 해로인이 날 안아들며 물었다. 나 같으면 정찬, 뭐 하면서 당황했을 거 같은데 바로 대답이 나왔다.

“전하께서 내려오시길 기다리다가 조금 전 식전 빵과 수프가 나갔습니다.”

해로인이 말없이 날 쳐다봤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 같았다. 우는 모습 보여줘서 같이 밥 먹기 싫은데, 해로인을 기다리다가 이제 막 식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신경 쓰였다.

“그으응. 그응”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쪽은 가서 먹고 와. 열심히 손짓 해보이며 말하는데 또 어디선가 흡, 하고 숨을 참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해로인이 날 고쳐 안으며 말했다.

“밑에서 먹기 싫은 건가? 그러면 식사를 위로 올리라고 하겠다.”

“그으응”

“됐다. 여기서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야 상관없지. 아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야. 속으로 진짜 싫다는 말을 열 번 쯤 중얼거리며 문밖을 가리켰다.

가자. 가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설기가 짖었다. 고개를 빼고 뒤를 보자 설기가 내려가기에는 계단이 너무 높았다. 사람일 때는 모르다가 몸이 작아지니까 그게 보였다.

해로인을 쳐다보자 싫다는 듯 표정을 굳히면서도 설기를 들었다. 뒷덜미만 잡고 달랑 드는 모습에 내가 안겠다고 앞발을 뻗었지만, 무시당했다.

“그으응!”

“개털 묻잖아. 밥 먹고 나서 놀아.”

“그응”

이씨. 내가 겉모습만 이런 거지 진짜 애야? 어? 불만스럽게 쳐다봤지만, 해로인은 계단을 다 내려오자 보란 듯이 설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인이 열어준 문 안으로 들어가자 엄청나게 긴 테이블이 나왔다. 앉아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다. 부담스러움에 해로인의 가슴에 얼굴을 박자 커다란 손이 괜찮다는 듯 등을 쓸어내렸다.

해로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쏟아졌다.

“모두 조용.”

“...”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것.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다.”

“…설마?”

“소개하지. 김 이림이다.”

해로인의 입만 쳐다보던 눈동자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사람들 모르게 해로인의 셔츠 앞자락을 쥐어뜯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으응”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린 사람들을 보며 해로인이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이림은 수인족이고, 이쪽 대륙의 주민도 아니다. 산맥 너머에서 온 존재이지.”

“그 말씀은 웨스트윙의…?”

해로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그러들었던 질문이 다시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이림과는 슬레인 안에서 만났고, 중요한 건 이림도 자신이 어떻게 이스트윙으로 넘어온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괜한 질문으로 이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머리 위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은 노부부는 해로인이 아니라 계속 날 보고 있었는지 바로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노부부 말고도 날 보고 있던 사람이 꽤 많았다.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조엘 자작과 바로 그 옆에서 동공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몬드.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바로 무시해버렸다.

‘안녕하십니까’

오닉 경은 눈이 마주치자 입을 벙긋거리며 손을 흔들었다. 같이 앞발을 흔들자 여기저기서 흠칫하며 몸을 떨었다.

“...?”

고개를 기울이는데 해로인이 내 앞발을 붙잡아 내렸다.

“이림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 그 애기가, 아, 죄송합니다. 레이디 김이요?”

“이림이 없었으면 난 슬레인에서 크게 다쳤을 거다. 이림 덕분에 지금 무사한 모습으로 그대들 앞에 있는 거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다들 알아들었겠지.”

“...”

“이림에게 실수하는 일 없도록 조심해줬으면 좋겠군.”

말만 부탁이지 누가 들어도 협박이었다. 해로인의 얘기에 더 뜨거워진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보려 했지만 더는 무리였다.

몸을 뒤틀자 해로인이 순순히 팔에서 힘을 뺐다. 완전히 몸을 돌려 해로인의 목에 매달리자 옆에 있던 노부인이 아휴, 하며 입을 열었다.

“귀여워라.”

“...”

“레이디는 몇 살 인건가요? 듣기로는 인간일 때는 다 큰 모습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스물 두 살입니다.”

해로인의 말에 다른 쪽에서 “스물 두 살이요?”하면서 되물었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요.”

“아, 저 뭔지 압니다. 수인족은 인간 쪽이 훨씬 성장이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군.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을텐데.”

싸늘한 목소리에 테이블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해로인은 분위기를 싸하게 얼려놓은 후 내게 말했다.

“밥 먹자.”

…하아.

아침은 꿀을 탄 우유와 사과 반쪽으로 해결했다. 해로인 뿐만 아니라 노부부까지 자꾸 뭘 더 먹이려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만큼 먹은 것도 많이 먹은 거였다.

아침식사가 끝나자 해로인은 사람을 시켜 화이트 쪽 조사단에게 슬레인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전했다.

“전하께서 일을 보고 오시는 동안 레이디는 제가 돌볼게요.”

“이림도 같이 갈 거라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가 가기에 슬레인은 너무 위험해요.”

“이림은 슬레인에 익숙합니다. 걱정은 감사합니다.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로인은 모두한테 반말을 썼지만 그래도 노부인한테는 말을 높였다. 나중에 알았는데 귀부인한테는 정중하게 행동하는 게 귀족 간의 예법이라나 뭐라나.

기사들 중에는 갑옷을 갖춰 입는 사람도 있고 무기만 드는 사람도 있었다. 오닉 경이 갑옷을 입었다면 몬드는 반대로 더 편해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꾸만 눈앞에 알짱대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그응, 하고 울었다.

“왜?”

“그으응”

바로 고개를 내려 쳐다 보길래 가방을 메는 시늉을 해보였다. 어제 침대 위에 팽개쳐 둔 거 같은데 깜박하고 있었다.

해로인이 내 몸짓을 이해한 건지 고개를 끄덕였다. 사용인들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손가방을 들고 왔다. 해로인의 도움을 받아 가방을 메고 고개를 드는데 어쩐지 주변이 조용했다.

“…그응?”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하녀 몇이 입을 틀어막은 채 발을 굴렀다. 나머지 사람들도 행동만 얌전할 뿐 반짝이는 눈은 하녀들과 다를 게 없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돼서 일단 해로인 어깨에 얼굴을 처박았다.

…‘2lim’이 진짜 귀엽긴 하지. 내가 그 ‘2lim’이 되는 바람에 잠깐 잊고 살았지만, 설기랑 내 캐릭터의 투샷은 이 세상 귀여움이 아니었다.

으흐흥. 뿌듯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해서 꼼지락 거리고만 있는 사이 화이트 쪽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걸 누군가 말해주기도 전에 알 수 있었던 건 묘하게 숨 쉬는 게 버거워졌기 때문이었다.

끄으응. 몸을 뒤척이자 해로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교수님이나 국무원장, 베른디노트랑 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는데 조사단이 오자 알약을 잘못 삼킨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다.

신성력을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러나? 고민하는 사이에도 끙끙 앓고 있으니 해로인도 내 상황을 눈치 챈 건지 작게 혀를 찼다.

“많이 힘든가?”

“그으응”

힘들기보단 껄끄러웠다. 저주인지 분노인지 어쨌든 해결되기 전까지는 익숙해져야 하는 불편함이기도 했다. 고개를 젓고 품에 파고들자 해로인이 아예 자켓을 들어 나를 덮었다.

크게 숨을 쉬며 괜찮아질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하. 이림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른디노트 카를이었다.

베른디노트의 질문에 해로인은 대답대신 자켓을 들췄다. 하늘을 닮은 벽안과 달리 깊은 바다처럼 짙푸른 청안과 바로 눈이 마주쳤다.

내 쪽을 스치듯 보고 말았던 시선은 금세 휙 돌아왔다. 습관적으로 짓던 미소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웃는 듯 마는 얼굴로 뚫어져라 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해로인의 가슴을 툭툭 쳤다. 시간 끌지 말고 말 하라는 거였다.

“그러고 보니, 깜박했군.”

“무엇을, 말이십니까?”

“이림이 수인족이란 얘기. 대신해 소개하지. 곰 수인족 김이림이다.”

마침내 베른디노트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뿐이랴. 당황한 게 눈에 훤히 보였다.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앞발을 그러쥐고 조용히 기뻐했다.

“그응, 그응”

반갑다? 이 모습으로는 우리 처음이지?

내가 수인족인 걸 밝힐지 말지에 대해서는 화이트에 있을 때 얘기를 끝냈다. 처음부터 밝혀야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수인족인 걸 밝히자고? 싫어

새끼곰은 귀엽지만 딱 그 뿐이었다. 게임을 할 때도 그랬다. 레벨을 올리면 자동으로 HP도 늘었지만, 곰으로 변했을 때는 99 고정이었다.

심지어 곰일 때는 사냥도 못했다. 몬스터를 때리면 무조건 miss였다. 게임할 때는 버튼 하나로 인간과 곰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으니 상관없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내가 캐릭터를 아꼈던 거랑 별개로 예쁜 쓰레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변신을 조절할 수도 없는데 약하기까지 하고. 그런 내 약점을 굳이 떠벌릴 필요가 있을까?

모두에게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다. 신전에만 밝히면 된다

...?

교황은 너를 성녀로 만들려하고, 카를은 정치싸움에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인간일 때 얘기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기울이자 해로인은 설명을 덧붙였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지명에 반 이상을 흘려들었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대강 파악했다.

요컨대 신전은 좋게 말하면 인류애가 넘쳤고 나쁘게 말하면 종족차별주의자라는 거였다.

사람이 사람을 우선시하는 게, 왜 나쁜 거지? 설명을 듣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로인은 마치 직접 질문을 들은 것처럼 대답했다.

화이트에서조차 수인족은 합법적인 거래품목이다

...?

다만, 여신의 가르침이 있다 보니 노예시장을 불법으로 금했을 뿐이다

아?

제국은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대낮에 길가에서도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다

"언아더"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오히려 프롤로그만 보자면 We are the world나 손에 손잡고 였다고!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조심하면서 지내야겠지. 물론 나와 같이 간다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말이다. 수인족인 걸 밝힐 필요도 없고, 밝히더라도 그 역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수인족인 나는 신전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

위험부담이 생각 이상으로 크긴 하지만, 대신 완전체인 신전을 떨쳐낼 수 있다. 게다가 여기에는 TV나 인터넷도 없다. 어딜 가든 지나가는 행인1의 정체 같은 거 사람들이 궁금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오히려 이 세계의 셀럽인 해로인 옆에 있다가 원치 않는 관심을 살 확률이 훨씬 컸다.

속으로 열심히 재고 따진 후 말을 번복했다. 그래, 말할래. 그때의 해로인은 어딘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거 맞나?

응. 그리고 만약에라도 내가 위험해졌을 때 그쪽이 마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렇긴 하지만, 그날부로 내 성으로 잡아 갈 건데

절대 조심해야겠네

일부러 빙긋 웃으며 말했더니 도깨비불이 잠깐 번쩍였다. 입으로는 내 어린 것은 재밌기도 하다고 중얼거리면서 눈은 형형했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신전에 얘기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축제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들이 뭘 준비했던 그 모든 걸 헛수고로 만들어주려고 말이다.

…악몽 한 번 꿨다고 곰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기운이 쭉 빠졌다. 방석 위로 푹 쓰러지자 서류를 읽고 있던 해로인이 날 쳐다봤다.

우리는 지금 마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원래는 말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응거리기도 전에 베른디노트가 막아줬다.

‘이림님께서는 말을 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가 마차가 출발하고 한 10분 동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추궁 당했다.

‘캉캉캉캉캉캉! 캉캉캉캉캉캉’

설명할 수 있으면 했겠지! 내가 그응그응 말하면 이해할 수 있냐고! 분노의 짖기를 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고 말이다.

조용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정적이 흘렀다. 설기는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밥을 먹더니 마차에 타자마자 곯아 떨어졌다. 사람과 다르게 밭은 숨소리도 계속 듣다보니 졸렸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과 동시에 깜박 잠들었었다.

“…그응?”

잠깐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자 일행은 산을 타는 중이었다. 내가 눈 뜨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해로인의 옆구리에 끼어있던 설기가 멍멍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일어났나? 밥 먹어라.”

“그으응”

“싫어도 먹어.”

내려다보는 눈빛이 단호했다. 입을 꾹 다물고 버티자 날 좀 더 높게 안아 들더니 달래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기절하고 싶나?”

…협박을 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뚱하게 쳐다보자 해로인이 한숨을 쉬었다.

“너 지금까지 기절해 있었다.”

“파하”

“흔들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났다고.”

“…그응”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 의심부터 들었다. 밥 먹이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신성력 때문인가? 아니면 몸 상태가 나쁜 것이냐?”

하지만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얼굴에서 걱정과 초조함이 읽혔다.

…진짜 기절해 있었다고? 푹 잔 게 아니고?

덩달아 심각해져서 몸 상태를 살폈다. 특정해서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갔다. 자다 깨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신성력 때문인가? 게임으로 치면 상태이상에 걸렸다거나? 그런데 피통은 너무 코딱지만 하고?

충분히 그럴싸한 가정이었다. 여기에 화룡점정은 체력포션을 못 먹는 거겠지.

“퓨하…”

“아파?”

“그으응”

힘없이 고개를 젓고 오물거리는 시늉을 해보였다. 밥을 먹겠다는 뜻이었다. 해로인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기를 바닥에 내려놨다. 그런데 신나서 주변을 구경할 줄 알았던 설기가 끙끙 대며 울기 시작했다.

해로인이 걸음을 멈추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던 사람들의 걸음도 멈췄다. 설기는 해로인의 발등에 앞발을 올리고 서럽게 울었다.

끼잉 끼이잉 끼잉

뜻밖의 모습에 그응, 하고 설기를 부르자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전하. 우리에 넣어둘까요?”

“그응!”

우리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짖고 보자 또 몬드였다. 밉다, 밉다 했더니 미운 소리만 골라서 했다.

“캉캉캉!”

“…아니, 그게 아니라,”

“캉캉캉캉캉캉!”

야멸차게 노려보며 짖자 몬드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해로인이 괜한 데 기운빼지 말라며, 설기를 다시 들어 올릴 때까지 말이다.

해로인은 설기를 내가 안 게 하고, 남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먹였다. 느끼한 게 싫어서 최근에는 채소랑 과일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물리는지 한입크기로 주는 과일조각조차 한참을 씹어야 넘길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네가 없는 동안 이 개가 어땠는지는 말한 적이 없군.”

“그으응?”

“궁금해?”

“그응”

“열 입만 더 먹으면 말해 주겠다.”

열 입은 너무하지 않아?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도 소용없었다. 자꾸만 품으로 파고들려는 설기를 쓰다듬으며 꾸역꾸역 음식을 삼켰다.

“네가 없는 동안 나를 포함해 저놈 옆에 갔던 사람은 전부 한 번씩 물렸다.”

“새끼라고 무시했다가 피를 본 놈들도 있지.”

“한 번 물면 억지로 떼놓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놔. 독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게 말이야.”

근황이 아니라 흉보는 거 같은데?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설기를 끌어안았다.

밥은 안 굶고 있을까 정도만 걱정했지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미안해. 누나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울컥울컥 차오르는 감정에 이를 악물었다. 그르르 사람이었으면 나지 않았을 소리가 목구멍에서 울렸다.

해로인은 별다른 말없이 내 머리를 쓸어내렸다.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환기시킨 건 불쑥 곁으로 다가온 오닉 경이었다.

“이림님.”

“...?”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됩니까?”

묻기는 나한테 물었는데 대답은 해로인이 먼저 했다.

“안 돼.”

“저는 이림님께 여쭤본건데요.”

“오닉 클라리아.”

“네, 전하.”

대답은 세상 공손했지만, 눈은 여전히 날 향해있었다. 조금은 날카로운 인상에 바짝 자른 머리와 곧고 기다란 목. 어깨는 넓고 허리는 얇으면서 팔다리는 길쭉했다. 여기가 만약 지구였다면 열에 아홉은 오닉 경을 보며 모델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멋진 사람이었다. 진짜 언니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들썩였다. 설기를 안고 있느라 앞발을 내밀 수가 없었다.

“이림.”

“그으응”

잠깐만 갔다 올게, 어? 그응그응 울자 대번에 표정이 나빠졌다. 해로인은 얼굴근육이 굳은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표정이 적었다. 그런데도 슬슬 해로인의 기분을 알 수 있게 된 건 지금처럼 아무 말이 뿜어대는 기세 덕분이었다.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서운해 하는데, 정작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게 참을 수 없이 웃겨서 결국 그윽, 그윽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남들은 ‘도대체 그게 왜 웃겨?’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해로인이기 때문에 웃긴 거였다.

아닌 척 삐진 해로인을 달래고, 설기를 끌어안으며 우쭈쭈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착실하게 걸음을 옮겼다. 몇 번이나 왔던 곳이고 생각해보니 한 번도 내 발로는 직접 걸어 올라간 적이 없다.

그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닌가. 이런 산도 가뿐하게 잘 타려나? 내 힘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는데. 뭐하나 쉬운 게 없다.

인생이 나한테 민폐를 끼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남이 그러면 인연을 끊는데 내 자신이 민폐니 속만 터지고 답은 없고.

“세상에, 맙소사!”

속앓이를 하다가 놀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험하게 이어지던 산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있는 산장과 커다란 공터가 보였다.

가시덤불이 사라진 가시정원, 슬레인의 초입이었다. 웅성거림이 커지고 사람들의 걸음이 차츰 느려졌다.

제일 뒤쪽에 있던 화이트의 조사단까지 멈춰 섰을 때, 누군가 “여신이시여”하며 중얼거렸다. 놀라움은 감탄이 됐고, 감탄은 곧 벅찬 감동이 됐다.

놀라하는 건 제국 쪽이었고 격양된 것은 화이트 쪽 사람들이었다.

너른 공터 군데군데가 초록색으로 칠해졌다. 풀밭이라고 하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중요한 건 거기가 슬레인이라는 거였다.

어둡고, 음침하고 짙은 색밖에 없던 슬레인. 하지만 공터를 물들이기 시작한 풀밭은 선명한 초록색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푸른 이파리들과 함께 노란 꽃이 흔들렸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아니 확실하게 민들레가 맞는 거 같았다.

‘나중에 혹시 힐타 온다? 오면 민들레 한 송이 이 자리 심어다오. 노랗고 예쁜 꽃 안다?’

흙으로 화해 흩어져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감격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슬픈 건 나 혼자 뿐이었다.

슬레인은 냉탕과 온탕의 차이만큼이나 확연하게 달라졌다. 숨 쉬는 공기부터가 그랬다.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무겁고, 옷을 적실만큼 습하며, 손발 끝을 얼릴 정도로 차갑던 느낌이 사라졌다. 평범해졌다. 그 말이 딱 어울렸다.

그리고 공터도 내 기억과는 좀 다르게 변했다. 공간 한쪽에는 커다란 천막이 쳐졌고, 로니의 공격 때문에 엉망으로 파였던 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평평해진 땅 위에는 깃발이 꼽혀있고 줄을 쳐놨고 말이다.

일행이 공터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 중 유일하게 망토의 색이 다른 중년인이 다가왔다. 로보의 경비대 대장이라고 했다.

“산장을 조금 손봐 지휘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나?”

“네.”

“그러면 보고부터 받고 현장을 보겠다.”

여전히 질릴 정도로 커다란 산장나무문 아래쪽에는 나무판자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내가 부수고 들어갔던 위치였다. 그때는 마음이 급하니 몸부터 날리고 봤는데 지금 보니 신기했다. 무기도 아니고 몸으로 문을 부쉈다.

“전하. 이 산장은 도대체…? 슬레인에 이런 산장이 있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나도 이번에 알았다. 힐타의 숲지기가 쓰던 곳이더군.”

“힐타요? 아, 그렇죠. 슬레인의 옛 지명이 힐타였죠.”

화이트 조사단 쪽 대표라는 고위사제가 눈을 빛냈다. 이름이 테른이라고 했던가. 그보다는 뒤에서 묵묵한 표정으로 따라오는 성기사가 더 책임자처럼 보였지만, 만약 신성력 순으로 정해진 거라면 이해할 수 있다.

끄으응…

왜나하면 테른이 가까이 올 때마다 급격하게 몸이 아팠다.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천장이 높다 해도 밀폐된 공간에 수십 명이 있는 거였다. 심지어 거기에 반이 화이트 사람들이었다. 죽을 맛이었다. 나름 예상하고, 각오를 했는데도 그랬다.

나를 자신의 시야 밖에 두는 걸 싫어하는 해로인 조차도 잠깐 밖에 있으라고 했지만, 싫다며 억지로 따라 들어왔다. 내가 발견했던 시체들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해서 남은 작업량은 앞으로 7%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발굴해낸 시체는 총 113구입니다. 남아있던 의복 상태나 소지품 등을 이용해 시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추세로 본다면 남은 미 발굴 지역에서 6, 7구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100구가 넘는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원래라면 막연하기만 했을 숫자인데 내가 직접 봤던 게 있다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시체들 상태는 전부 똑같소? 심장은 없고, 시체는 썩지 않고?”

“전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뼈만 남은 시체도 있었습니다. 총 14구인데 기장 깊숙한 곳에 묻혀 있던 시체들입니다.”

“한둘이면 어쩌다 묻힌 사람이겠거니 하겠는데 14구면...”

“혹시 화이트 사제님들 중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이,”

웅성대며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해로인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기 때문이었다.

“회의는 보고를 끝까지 듣고, 현장을 살핀 후 하겠다. 경비대장. 마저 말해라.”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인간시체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외에 발견한 사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시체에 대한…? 그 외의 사체?

“현재까지 발굴해낸 유사인종은 총 30구입니다. 엘프 셋, 드워프 둘 나머지는 수인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온 사체가 전부 짐승의 태를 하고 있어서 평범한 제물인지 수인족인지 확실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수인족을 데려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경비대장 말에 제국 쪽 사람들의 눈이 스르륵 내게로 향했다. 사람들이 짜기라도 한 것처럼 날 쳐다보자 의아한 눈빛을 보내던 화이트 조사단과 이내 뭘 깨달은 것처럼 입을 벌렸다.

“전하의 그 애완동물, 수인족이었군요!”

그러면서 삿대질까지 해왔다. 테른의 옆에 있던 또 다른 고위사제였다. 해로인은 대답대신 사제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봤고 뒤에 서있던 성기사가 그 손을 내리게 했다.

“아아... 죄, 죄송합니다. 놀라는 바람에... 어쩐지 털색도 그렇고 가슴 무늬도 그렇고 희귀동물인가 했는데... 황태자 전하께서 데리고 다는 짐승이 평범할 리가 없겠죠.”

아부하는 것처럼 하하 웃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다. 여기서 최고 권력이 높은 해로인이 정색을 하고 있는데 저 사제를 따라 웃을 수 있을 리가.

나는 어깨를 움츠리는 사제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불현 듯 찾아오는 현타에 좌절했다. 그렇지. 지금 나는 누가 봐도 곰이지. 하...

상대가 무안하다 못해 겁에 질릴 때까지 침묵하던 해로인이 몸에 푹 기댄 날 고쳐 안으며 말했다.

“더 보고할 내용은 없나?”

“나머지는 현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천막이었다. 무슨 천막인가 했더니 여기에 시체를 모아두고 있었던 모양이다. 해로인은 스치듯 작은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냐고 물었고, 나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천막 안의 광경은 생각했던 것 보단 괜찮았다. 시체 위에 천을 덮어놨기 때문이었다. 안에 들어오자마자 토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그냥 현실감이 사라져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겉으로 드러난 낙인은 없는데...”

“하지만 oo지역에서 있었던 사료 역시...”

“어쨌든 마왕의 제물인 건 확실하네.”

천막 안에 들어오자 내내 눈치만 살피며 기가 죽어있던 고위사제들이 활발해졌다. 천을 들추고 그로도 모자라 시체를 앞뒤로 뒤집어보며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를 나눴다.

천막의 가장 안쪽에는 백골이 있었다. 상처부위조차 그대로인 다른 시체들에 비해 뼈들은 금방이라도 삭아 부서질 것처럼 잔뜩 금이 간 상태였다.

“실력이 있되 수도 쪽 기관에는 소속되지 않은 학자를 구해라. 적어도 셋 이상.”

“그럼 더 구할 수 있다면 더 구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각각 다른 소속이어야 한다.”

“신전 쪽에도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도 될까요?”

머리 위로 오가는 대화를 반은 듣고 반은 흘리며 주변을 봤다. 이건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

죽은 사람들. 백 명도 넘는다. 자연사가 아니다. 억울한 죽음. 피해자. 제물. 마왕, 끔찍해...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설기도 묘하게 기운이 없는 것 같았다. 아. 설기는 밖에 있으라고 할 걸.

해로인의 가슴도, 팔도 전부 단단했지만 어쩌니 발밑이 휑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멍하게 있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건 커다랗게 펼쳐진 천이었다. 그 위로 볼록볼록 드러난 윤관은 아무리 잘 봐줘도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으응”

“왜 그러느냐.”

“그응”

나도 모르게 해로인의 손을 흔들었다. 커다란 천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아. 말씀드렸던 수인족들 사체를 모아둔 곳입니다.”

“저것들도 전부 심장이 없소?”

“네. 심장이 있을 거라고 추측된 자리에 다 구멍이 뚫려있었습니다.”

묻기는 해로인이 물었는데 먼저 우르르 간 건 고위사제들이었다. 견습사제를 시켜 천을 걷게 하자 소형종부터 대형종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거기에 있었다.

“으음, 확실히 이렇게만 봐서는 제물인지 수인족 인지 알 수가 없군요.”

“아. 여기 매, 이거 스파인 산맥에 산다는 조인족이야!”

“이게요?”

“그래. 내 한 번 본적 있네. 머리는 하얗고 가슴에는 줄무늬가 있고 무엇보다…, 보게! 눈이 빨간색이거든.”

저 사제들은 사람의 시체도 이리저리 뒤집어보며 살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칠게 다루진 않았다. 사제 하나가 힘을 줘 매의 눈꺼풀을 벌리는 순간 가슴에 울컥 뜨거운 게 차올랐다.

“…캉! 캉캉캉캉! 캉캉캉!”

몸까지 앞으로 내밀며 사납게 짖었다. 이럴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던 설기도 기다렸다는 듯 짖기 시작했다.

이목이 모여들자 사제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들고 있던 매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서로 시선을 나누더니 테른이 앞으로 다가왔다.

“전하.”

“...”

“아무래도 같은 수인족이고 하다 보니 전하의 애완동물이 계속 보기에는 썩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캉캉…? 짖다가 어이가 없어져서 입을 닫았다.

“특히나 이 아이처럼 어린 새끼한테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아, 그러니 아무래도 일을 보실 잠깐 밖에 두시는 것이...”

“그대 눈에는 내가 곰 인형을 들고 있는 어린애로 보이나?”

“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옵고!”

뭐라 변명을 이으려했지만 해로인이 말을 막았다.

“이 산장과 시체를 발견한 것이 그대가 어린 새끼라 말한 이 곰이다.”

“예? 아아.”

“그리고 애완동물 따위 소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거고. 알겠나?”

해로인의 협박에 사제가 희게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기분은 그대로 곤두박질쳤다. 몇 번이고 경험해본 적 있는 답답함이었다. 화는 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속 터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천막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래로 내려달라는 시늉을 했다. 그 과정에서 몬드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로브를 풀러 바닥에 펼쳤지만, 본 척도 안했다.

해로인이 오닉 경한테 날 지켜보라 하는 걸 들으며 네 발로 일어섰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족보행을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도 쌓이고 있는 데미지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렸다.

옆에는 설기를, 뒤에는 오닉 경을 달고 간 곳은 초록색 풀이 자란 곳이었다. 내가 알던 민들레보다 꽃이 훨씬 크긴 했지만 노랗고 예쁘다는 건 변함없었다.

이제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다. 오크족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응”

오크족장은 꽃을 심어달라고 했다. 하얀색 홀씨가 달렸다면 씨만 모아 갔을 텐데 꽃은 싱그럽고 촉촉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땅을 파자 설기가 달려들었다. 꽃까지 파헤칠 기세라 스윽 밀어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을 파게 했다.

물렁해서 있으나마나한 발톱을 감추고 열심히 땅을 팠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뿌리가 엄청났고, 개미도…!

“크아앙!”

기겁하며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몸을 들어 올리는 손이 있었다. 커다란 손바닥에 당연히 해로인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들자 보이는 건 햇빛에 녹아내릴 듯 반짝이는 은발이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응?”

“몸에 개미가,”

“그으응!”

앞발을 버둥대자 베른디노트가 좀 더 단단히 가슴을 받치며 몸을 털어줬다. 다 됐습니다, 라는 말에 고개를 들자 어느새 표정을 회복해 예의상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림님. 저 강아지처럼 땅을 팔고 놀던 것은 아니셨지요?”

“그으응”

“그렇다면 역시 꽃을 파내려고 하시던 겁니까?”

“그응”

“민들레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삽 없이 파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의미가 있을 거 같긴 한데... 힐끗 본 땅바닥에는 내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개미가 떼로 나와 우글대고 있었다.

미안해. 다음에는 사람일 때 와서 꼭 직접 할게.

속으로 오크족장에게 사과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베른디노트는 어느새 옆에 와 있는 오닉 경에게 날 넘겨주려다가 잠깐 행동을 멈췄다.

아닌 척 옆구리를 붙잡고 있던 손이 꼼지락거린 것도 같지만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자 빙긋 웃기만 할 뿐이었다.

베른디노트는 삽질 두어 번 만에 민들레를 파내더니 부드럽게 흙을 털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머리 위로 깊은 한숨이 떨어졌다.

“하아아...”

“그응?”

의아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자 오닉 경이 봤던 것 중 가장 크게 웃으며 말했다.

“뱃살 말랑거리는 거 정말 좋군요.”

오닉 경의 말에 흙을 털던 베른디노트의 손이 멈칫했다. 나로 말 할 것 같으면 시원하게 곡선을 그리는 입매에 이도저도 못하게 됐을 뿐이었다.

“크기도, 무게도 전부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그응”

“체온은…, 좀 높은 거 같은데 원래도 이러십니까?”

오닉 경 말에 일단 앞발을 들어 몸 여기저기를 눌러봤다. 감각이 살짝 둔한 걸 보니 열이 있는 것도 같,

“귀여워요.”

그러다가 그윽하게 내려다보며 툭 내뱉는 말에 눈을 질끈 감을 뻔했다. 언니, 깜박이 좀 켜시고 들어와 주세요.

오닉 경은 나한테 안기겠다며 끙끙 우는 설기까지 품에 안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쌍꺼풀 없이 길쭉하던 눈이 가늘게 접히며 나른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바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굳건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이게 바로 갭 모에?

“이림님. 꽃은 제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닉 경 얼굴에 홀려 있는데 베른디노트 목소리가 들렸다.

“…의 취향이...알 수가...

혼자 뭐라고 하는 거야?

슬레인의 중심부로 가는 길은 여러모로 색달랐다. 까맣고 울창하던 숲에 빼꼼 고개를 내민 새싹들도 그랬고, 발목을 휘감는 대신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넝쿨들도 그랬다.

전에 왔을 때 비하면 정말 몰라보게 좋아진 것 같은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또 아니었는지 수군거림도 들렸다.

“이거 참, 신비롭다 못해 기괴하네.”

“도대체 왜 여기 나무들만 이렇게 큰 거지?”

“저거 봐. 나무껍데기가 허물처럼 벗겨지고 있어.”

“아무리 봐도 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썩고 있는 거 같은데.”

계속 품에 붙어있으려던 설기는 오히려 슬레인 안으로 들어오자 버둥대기 시작했다. 해로인이 내려놓자마자 쏜살같이 앞으로 박차고 나가 숲을 뒤지고 다녔다.

“몬드.”

“네.”

“저 개 따라다녀라. 안 잃어버리게.”

몬드는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입을 다물고는 설기를 따라갔다.

풍

“…콧방귀냐?”

말 시키지 마. 그쪽이 말 시킬 때마다 사방에서 쳐다본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손만 몇 번 툭툭 치고 고개를 돌렸다.

해로인이랑 둘이 있을 때는 해로인이 하루 종일 쳐다봐도 불편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달랐다. 하다못해 호의를 품은 눈마저도 거북했다.

이쪽에서 아무리 불편함을 표현해도 저쪽에서는 그마저도 귀엽다는 듯 보는 거였다.

역시 해로인이랑은 같이 못 다니겠다. 어딜 가든 센터에 있을 인간이야.

속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로인이 문득 한숨을 내쉬며 날 높게 안아들었다. 영문도 모르고 해로인의 목을 껴안자, 그가 자유로워진 양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혹시 몰라 준비하긴 했지만 진짜로 열이 날 줄이야.”

“그응?”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것이냐.”

해로인은 금세 나를 안정적으로 받쳐 들고, 입가에 익숙한 풀뿌리를 가져다댔다. 처음 로보에 왔을 때 몇 번 먹었던 약초였다.

“전하. 혹시 애, 수인족이 어디가 아픈 것이옵니까?”

“열이 좀 나서.”

“저런.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였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오나 제가 신성력으로 치료해주면 더 빠르게 날 텐데요.”

사제의 말이 맞다. 내 특수상황만 아니었다면 아무리 HP99의 곰돌이라도 무서울 게 없었다. 체력포션이 넘쳐났으니 말이다. 결국은 특수상황 때문에 모든 게 무용지물인 상태지만.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던 해로인의 몸에서 슬금슬금 짜증이 새나왔다.

저쪽 사제들은 대체로 눈치가 없는 것 같다. 오면서 이미 몇 번이나 데여봤으니 이쯤 되면 ‘괜찮다’라는 말이 ‘이제 그만’이란 뜻도 된다는 걸 알법한데 꼭 저렇게 한 발씩 더 내딛었다.

“전하. 생각해보니 아까 힐타의 숲지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치 없는 사제들을 구한 건 제국 쪽 사람이었다. 의도치 않게 끼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덕분에 고위사제 뒤에서 앞으로 나서려던 성기사가 주춤 행동을 멈추는 게 보였다. 가만보니 하루종일 뒷수습 하느라 고생이었다.

“그런데 산장이 그렇게 컸던 걸 보면 숲지기가 인간이 아니었나봅니다.”

“오크였다.”

“오크라... 숲에 있던 오크병사들이 원래는 이곳의 관리인이었던 걸까요?”

“말 하지 않았었나?”

“안하셨는데요. 마왕이랑 인간제물 얘기만 하셨잖아요.”

해로인이 음, 하며 눈을 깜박였다. 태연한 얼굴이었다. 가만히 약초를 씹다가 문득 든 생각에 허리를 세웠다. 위를 올려다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로인이 고개를 내렸다.

“그으응?”

손가방을 툭툭 치고 무언가 마시는 시늉을 했다. 체력 포션 마신 거 맞아? 그런 뜻을 담아 쳐다보자 말없이 귀만 만지작거리고 말았다.

왜 지금까지 눈치 못 챘을까 싶을 정도로 눈 밑이 거뭇했다.

“그응”

“...”

“그으응!”

“조용히 해.”

“그응, 그으응”

깜박했다면 가방에서 새로 꺼내면 그만이었다. 분명 알아들었을 텐데 해로인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안 돼. 그리고 그대는 왜? 할 말이 더 남았나?”

스읍. 옆을 보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던 사람이 침을 삼켰다. 생각해보니 얘기 중간에 끼어들었다.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꾸벅이자 바로 헤벌쭉 웃기까지 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말.”

“저도 레이디를 한 번만 안아보면,”

“물러나라.”

“숲지기요. 오크가 숲지기인 것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로인은 주변을 한 번 살피고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웠다. 모두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마왕의 힘에 오염된 홉고블린, 죽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오크, 마계의 소환수인 초록 슬라임. 프로필을 읊듯 짧막한 설명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입을 벌리며 놀라워했다.

“전하께서 해주신 말씀은 성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몬스터가 숲지기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놀란 것은 아니었다. 화이트의 고위사제 셋을 비롯해 견습사제와 성기사들 중에도 반 이상이 애매한 표정이었다.

해로인이 말없이 쳐다보자 테른이 침을 삼키면서도 천천히 자신이 아는 것을 얘기했다.

“사실 '힐타'는 고대어로 성스러운 오른쪽 기둥이란 뜻입니다. 여신의 오른쪽 다리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죠.”

‘나는 '힐타'의 숲지기.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 지킨 위대한 우차라의 마지막 전사 으라차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다. 학살자 준다. 받아다오’

유언을 남기기 전 보답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받아 달라했던 오크족장의 말이 떠올랐다.

“암흑기 때 첫 번째 종 성 안토니오는 자신의 열두제자와 함께 여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신께서 깊은 바다 아래 잠드신 후 비탄에 빠진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지만 용맹했던 전사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뜸을 들이 듯 잠깐 사이를 뒀던 사제가 입을 여는 것과 동시에 해로인 역시 입을 열었다.

“우차라.”

“우차, 네, 맞습니다. 우차라입니다. 화이트에 남은 다섯 제자 중 감마님의 일기에서 언급됐던 이름이지요. 전하께서 신학에 조예가 깊으시군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 힐타에 숲지기가 있다면 그건 전사 우차라님의 성을 물려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해로인은 으음, 하며 소리만 낼 뿐 아무런 말도 없었다. 나는 조금 전부터 해로인의 멱살을 그러쥐고 열심히 당기는 중이었다. 말해! 으라차가 그렇다고 말하라고!

“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여신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으니, 한낱 몬스터라 할지라도 창조주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로 몬스터가 힐타의 숲지기였을까요?”

되묻는 얼굴에서 보이는 건 불신과 반감이었다.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된다는 얼굴이었다.

해로인은 몸을 흔들려는 날 붙잡아 품 깊숙이 껴안으며 대답했다.

“일단, 내가 그 전사의 이름을 안 건 여기 슬레인에서였다.”

“그렇다하시면, 이곳에 우차라님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지. 내가 만난 오크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으니까. 위대한 전사 우차라들의 으라차라고 말이야.”

“예?”

“내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설명한 게 누구라고 생각한 거지?”

사제가 당황한 얼굴로 “그야 마왕의 사도를 통해서”라고 웅얼거렸지만 해로인은 바람 빠지듯 웃는 소리를 냈다.

“그 노인네가 한 거라곤 나를 속여 숲지기를 죽이려던 것밖에 없었다.”

“그런...”

“못 믿는 얼굴인데 상대는 저주를 받아 언데드가 된 몬스터였다. 언데드는 마왕의 충실한 병사일텐데 마왕의 사도가 내게 그런 오크를 죽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그 흑마법사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전하를 해하려 계책을 꾸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찾아간 오크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고 여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우차라를 아는 것은?”

“전하. 몬스터란 이 땅위에서 태어났음에도 마계의 사악함에 넘어갔기 때문에 배척받는 생물입니다.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하게 나오던 목소리는 말을 마치기 직전 간신히 고삐를 붙잡은 것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을 비장함이 넘쳤다. 여태껏 해로인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하거나 기죽어 있던 모습과는 달랐다.

나는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집 근처에 있는 줄도 몰랐던 센터에서였다. 일반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른 간판을 달고 있던 그곳에 한무리의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내 딸 내놔!’

처절하게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었다. 건물 입구는 쳐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사람들의 대치가 한창이었다.

쳐들어온 사람들은 각각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돌려 달라 악을 썼다. 막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다며 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워낙 조용한 동네다보니 나처럼 하나둘 머리를 내미는 사람이 늘었다. 센터에서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안에서 사람을 더 불렀다.

그리고 나온 이들 중에는 쳐들어온 사람들이 찾던 가족도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울음기 섞인 목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이름을 불린 남자는 표정을 굳히고 말했다. 4층에 사는 내 귀에도 들릴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돌아가.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이 아니야. 내 신부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그,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신께서 정하시고, 교주님께서 연결시켜준 인연이야. 세상의 종이쪼가리로 엮인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개소리인데 그걸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얼굴이 궁금해졌다. 귀찮음도 무릅쓰고 1층으로 내려갔을 때 하필이면 경찰도 같이 도착해서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졌지만, 센터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은 바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모두가 저 사제처럼 굳건한 신념을 품은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붙잡고 충분히 대화를 했어야지. 어림도 없는 얘기였다. 사람이 뭐든 몸으로 겪어야 안다고 그때 깨달았다. 절대 대화가 가능할 얼굴이 아니다.

내가 교황한테 시달리면서 복수는 꿈꿔도 대화할 생각이 안 드는 건 그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해로인은 어떨까? 해로인 눈에도 바늘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한 표정이 보일 텐데.

물끄러미 올려다 본 해로인의 표정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찬기가 올라오고,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이란 뜻이었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지는 잘 안다.”

“감사합,”

“하지만 저길 봐라. 사악한 몬스터가 지켜낸 여신의 신물을 말이다.”

해로인의 눈이 향한 곳에 있는 나무 한그루였다. 대체로 검은빛을 띄는 숲의 나무들과 다르게 색이 연하고, 잎은 연두색인 커다랗고 평범한 나무.

여신의 곡괭이 말이다.

여기가 슬레인이라 그렇지 밖에서 봤으면 평범한 나무 중 한 그루였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여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화이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국인들 중에도 무릎을 꿇고 가슴에 엑스자로 손을 모았다. 눈을 감고 쉴 새 없이 중얼거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기도를 올리는 거였다.

경건한 분위기라 입을 꾹 다물고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보다 야트막하게 동산을 이룬 곳이 없다.

오크족장의 무덤은 바람에 다 날라 갔나? 정말로? 왈칵 눈물이 차오를 때 기적처럼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응!”

오크족장의 목걸이였다. 땅에 반쯤 파묻힌 채 있는 모습에 흥분해서 해로인의 팔을 흔들었다.

땅에 내려가자마자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 뒤를 쫓아온 해로인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목걸이의 알 부분을 툭툭 쳤다.

“그 목걸이군. 그놈은 여기서 죽은 거냐?”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주변을 살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릎 꿇고 기도 중인 베른디노트가 보였다.

쉴 새 없이 기도문을 읊는 사람들과 다르게 아무 말도 없었지만 괴로워보였다. 수려한 얼굴에서 희미하게 내비치는 고통이 너무 깊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다.

사연이 없는 인간은 없다. 그 말이 머리를 스치고 간 건 왜인지 모르겠다.

“...”

“...”

다른 사람들보다 이르게 눈을 뜬 베른디노트의 정면에 서 있다가 그대로 시선이 부딪혔다. 언제 괴로운 표정을 지었냐는 듯 표정을 바꾸는 얼굴을 보다가 나도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앞발을 내밀었다.

“혹시 꽃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응”

고개를 끄덕이자 베른디노트는 순순히 민들레를 넘겼다. 그런데 받고 나니 문제가 생겼다. 꽃을 들면 두발로 걸어야 하는데 다리가 떨려서 그게 불가능했다.

우두커니 꽃을 보고만 있자 베른디노트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해로인이 말하는 게 더 빨랐다.

“왜 그러고 있어.”

“그응”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말하라니까.”

해로인이 내 몸을 달랑 들어 목걸이가 있는 자리에 내려줬다. 매번 어떻게 내 속을 읽어내는 걸까. 사람은 몰라도 곰은 표정이랄 게 없는데 말이다.

꽃을 옆에 두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던 설기도 불러서 같이 파게 했다.

“이림님. 뭐하시는 건가요?”

“레이디. 뭐 하십니까?”

“전하. 수인족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끝낸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와 관심을 보였다. 물론 대답을 바라는 질문은 아니었다. 조금 지켜보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귀엽다는 듯 웃으며 자리를 비켜줬다.

등 뒤에서 나무를 살피며 대화를 나누는 게 들렸다. 누군가 해로인을 몇 번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해로인은 손을 들어 기다리라는 듯 흔들기만 하고 내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도와준다니까.”

“그으응”

“그러면 차라리 저 개보고 파라고 해라. 저놈이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아니, 설기가 판 구덩이에는 목걸이를 묻을 거였다. 고개를 젓자 해로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타박했다.

“너 지금 열나서 약까지 먹었다.”

“...”

“또 얼마나 아프려고 이러느냐.”

멈칫하고 해로인을 올려다봤다. 그건... 우물쭈물하다가 아까 도와주려고 하길래 바로 처냈던 손에 슬그머니 앞발을 올렸다.

“그응”

“오크가 너보고 꼭 혼자서 꽃을 심어 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냐.”

“그응…”

“그래도 혼자 하고 싶다고?”

“그응”

눈치를 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자 해로인이 표정을 굳혔다. 그런데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걸. 고개를 아래로 떨어트리자 커다란 손이 귀를 아프지않게 잡아당겼다.

“이번만이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물러나 주는 거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벌레가 나와도 무시하고 팔 수 있도록 굵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팠다. 사람 손처럼 쥘 수는 없지만 앞발을 모으면 단단하게 붙잡는 건 가능했다.

해로인이 돌멩이가 나오면 옆으로 치워줬기 때문에 열심히 파기만 하면 됐다. 마침내 꽃을 심을 수 있을 만큼이 되자 해로인처럼 옆에서 같이 쪼그리고 앉아있던 베른디노트가 꽃을 건네줬다.

땅을 파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꽃을 심는 건 금방이었다. 꽃을 심고 흙으로 다시 덮은 후 앞발로 꾹꾹 눌러주자 조금 시들해졌던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목걸이를 묻기 위해 조금 앞으로 갔다. 매고 있던 주인만큼이나 길고 커다란 목걸이였다. 땅에서 뽑아내기 위해 호박처럼 노란색을 띄는 알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머리가 핑 돌았다.

“…그, 응?”

뭔가 어떻게 버텨볼 사이도 없었다. 순식간에 시야가 까맣게 내려앉았다.

몸이 움찔하고 떨렸다. 그와 동시에 부릅 눈을 뜨자 1인가구용 원룸 방에 비해 과하게 큰 LED등이 보였다.

하얀색이고, 직사각형이고 길쭉하고... 등을 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내 방이다!”

정신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다급하게 침대 아래로 몸을 숙였다. 예상대로 핸드폰이 방바닥에 엎어진 채 있었다.

“제발!”

핸드폰을 켰지만 화면이 까맸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나? 아주 오래 전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소름끼쳐서 고개를 흔들며 충전기를 꼽았다.

0%. 텅 빈 건전지 모양에 초조함이 몰려왔다. 빨리, 빨리, 빨리!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막 시켰던 게 문제였다. 당연히 고속충전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핸드폰을 들고 달달 흔들다가 책상으로 달려갔다. 노트북 전원을 켜고 암막커튼을 걷었다. 밖은 환했다. 노트북을 보자 시간은 오후 3시가 좀 넘은 상태였다. 내가 몇 시에 잤더라? 해가 뜨고 자기는 했는데...

의자에 앉아서도 양다리가 덜덜 떨렸다. 꼭 곰이었을 때처럼?

“꿈에서! 꿈에서 말이야!”

민망해. 지금 혼자서 뭐하는 거야? 머리를 벅벅 긁다가 또 다시 흠칫 몸을 떨었다. 매끄럽고 숱이 적은 머리가 어색했다. 꼭 구불거리고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부풀어있어야 할 거 같았다.

꿈에서 깼는데도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닐까봐 무서워서 확인을 못하겠다. 팔뚝을 꼬집어보고 싶은 마음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마음이 정확히 반반이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들어간 건 "언아더"의 공식카페였다. 정문에 박혀있는 건 이 게임을 SNS에서 유명하게 만든 일러스트였다.

얼굴이 머리카락에 가려진 여신. 하지만 커다랗게 펼쳐진 날개와 효과처럼 따라붙은 반짝이는 배경은 “금손이 영혼을 갈아 넣으면 생기는 일”이란 말과 어울릴 정도로 화려했다.

예전에는 존예의 느낌이 낭낭한 여신의 자태와 날개밖에 안 보였다. 그런데 꿈의 여파인지 우연인지 스크롤을 내리다말고 여신의 발밑이 눈에 들어왔다.

전부 새카맣게 그려졌지만 꼭 머리통 같기도 하고…? 머리통들 중 유난히 커다란 덩치를 보는 순간 오크족장이 떠오를 게 뭐야.

입술을 꾹 깨물다가 검색창에 바로 ‘오크족장’을 쳤다. 튜토리얼 공식 가이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와 유저들이 올린 글들이 우수수 떠올랐다.

공략법, 드랍 되는 아이템, 어떻게 깨나요, 난이도 잣같네...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내가 겪었던 내용은 없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꿈이야? 응?

마지막 페이지까지 갔다. 아무리 마우스를 눌러도 없는 페이지가 생겨날 리가 없다. 신경질적으로 새로고침을 누르고 다시 스크롤을 내리는데 공지사항 옆에 new가 떠 있는 게 보였다.

안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왜 안 아픈 건데? 아파야하는데? 왜 안 아프지?

그 사이 핸드폰 화면도 도로 꺼졌다. 까만 화면에 비친 건 나였다. 코 끝에 패치를 붙인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추고 그마저도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내 얼굴을 없애고 불쑥 튀어나온 손이 공포영화처럼 화면을 뚫고 나와 날 붙잡고 끌어당겼다.

…림. 이림. 김이림!

머릿속을 흔드는 커다란 목소리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허억!”

숨을 들이키며 또 다시 눈을 떴다. 코앞에 보이는 금발과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은발. 아까와 달리 망설이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머리를 때리기도 전에 해로인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정신 차리자마자 뭐 하는 거냐!”

해로인의 언성을 높이며 손에 힘을 줬다. 저릿한 감각에 인상을 찌푸리자 손아귀는 금방 헐겁게 변했다.

“…아파.”

아프다는 말에 해로인이 혀를 차며 내 소매를 걷었다. 검은색 티 안에 가려져있던 피부는 새하얗기만 했다. 그래도 아팠다.

“꿈 아니지?”

“뭐? 어지럽나? 내 목소리 들려?”

“어? 어어?”

해로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잡히지 않은 손을 내려 몸을 더듬었다. 활짝 펼친 손가락 다섯 개가 내가 생각한대로 움직였다.

“사람이 됐네?”

“김이림!”

“어? 괜찮아. 나 괜찮아.”

“말만 하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봐.”

채도가 옅은 하늘색 눈동자는 해를 등졌는데도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투명해졌다. 온전히 내게 쏟아져 내리는 시선을 받아내다가 눈동자를 굴렸다.

베른디노트 뒤로 나무와 하늘이 보였다. 놀란 얼굴로 이쪽을 보는 사람들 표정도 점점 눈에 들어왔다.

“나 또 기절했어?”

“그래. 땅에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사람으로 변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어?”

“아주 잠깐인데, 빌어먹을. 지금 그게 중요해? 몸 상태부터 말해.”

설기한테 개새끼라 할 때 말고는 욕하는 걸 못 들어봤는데. 짓씹듯 뱉는 말에 뇌를 거치지도 않고 말이 먼저 나왔다.

“미안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미안했다. 자기 사람들부터 화이트 조사단까지 십수명의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틈틈이 내 상태를 확인하고 걱정하던 남자였다.

“많이 놀랐지? 아파서 기절한 건 아닌 거 같은데... 진짜 미안해.”

“그럼 왜 기절한 건데.”

“나도 모르겠어. 목걸이를 잡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가...”

쓰러졌다. 해로인의 말대로라면 아주 잠깐 정신을 놓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되고, 꿈을 꿨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말도 끝까지 맺지 못했다. 시선을 아래로 떨어트리자 해로인은 뭐라 더 말하는 대신 그대로 날 안아들었다. 평생 상상도 못해봤던 공주님 안기였다.

“러지. 목걸이를 조사해.”

“하지만 저건...”

유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건 정말로 저 목걸이 때문에 기절했을 지도 모른다고 나 역시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네?”

“그게 제가 아는, 제 친구 유품이거든요. 조, 심히 다뤄주실 수, 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원형을 망가트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로인은 작게“친구?”하고 중얼거리며 못마땅한 기색을 그대로 내보였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얼굴을 뚫을 것 같은 시선들은 여전했다.

정말은 해로인의 품에 숨고 싶다. 어쨌든 권력도 세고, 얼굴도 차가우니 그 뒤에 숨으면 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지금 당장은 말이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인생경험은 이럴 때마다 괴로웠다. 뭐가 됐든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선택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느냐 아니면 조금 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었다.

“소난을, 흠흠.”

입을 열었다가 바로 삑사리가 나는 바람에 잠깐 인상을 찌푸렸다.

“그,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으니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쳐다보는 시선에 일일이 눈을 마주치자, 금세 쏠렸던 눈들이 흩어졌다.

“네가 왜 사과를 해.”

의도적으로 시선을 흩트려놨는데 해로인이 초를 치려했다. 다시 시선을 끌까봐 무시하고 말을 돌렸다.

“내려줘.”

“...”

“혼자 서봐야 몸 상태를 알 거 같아서 그래.”

“그냥 있어라.”

“내려... 우리 어제 왜 싸웠을까? 아침에 한 말 벌써 까먹었어?”

동요가 적던 남자가 내 쪽에서 느껴질 정도로 흠칫 놀랐다. 덩달아 놀라서 쳐다봤다가 푸흡 웃고 말았다.

“왜 그렇게까지 놀라.”

“…하.”

내가 계속 웃자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다. 입술을 꾹 깨물고 참자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날 바닥에 내려놨다. 내가 가볍게 몸을 푸는 동안에도 등에 닿아있는 손의 느낌이 묘했다.

“…이상하다.”

“어디가?”

“어? 아니, 몸 말고. 있어.”

“얼버무리지 마. 똑바로 말해.”

“아니라니까. 그냥... 확실히 내가 곰일 때 계속 안겨 다녀서 그런가봐.”

맥락 없이 튀어나온 말에 해로인이 무슨 소리냐는 듯 쳐다봤다. 사람은 적응의 생물이라는데 조금만 방심해도 나만 보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원래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쪽이랑 하도 붙어있어서 그런지 아무 생각도 없다가 의식되면 그때 부끄러워.”

“부끄럽다고? 왜?”

“그쪽이야 나를 내가 설기 안듯이 안는 거겠지만 나는 아니잖아.”

“...?”

“그냥 그렇다고.”

팔을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다. 머리는 멍하고, 팔다리는 무거웠다. 감기기운이 있을 때의 느낌이지만 확실히 곰일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팔팔해진 기분이었다.

“해로인.”

“...”

“정말로, 안 줘도 돼?”

손가방을 툭툭 치며 물었다. 해로인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 이다음에 로…, 흑마법사 집으로 갈 거지?”

“그래. 힘든가? 먼저 지휘본부에 가 있어도 돼.”

“아냐, 그래서 물어본 건 아니고... 나 먼저 가서 살펴보고 있어도 될까? 베른디노트씨랑 같이.”

갑작스러운 지목에 뒤에 있던 베른디노트가 멈칫했다. 해로인 역시 잠깐 말이 없다가 곧 표정을 굳혔다.

“왜?”

“할 얘기가 있어.”

“나한테도 비밀로 할?”

“나도 아직 잘 몰라.”

“그럼 저자가 너한테 접근했었단 말이군.”

서로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이는 중이었다. 고개를 들어 베른디노트를 노려보는 걸 막았다.

“베를디, 베른디이, 아, 이름 진짜 너무 어렵다. 어쨌든 저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만 아니라면 다 얘기해줄게.”

“이름을 왜 불러. 카를 경이라고 해.”

“국무원장 생각나서 싫어.”

“넌 너무 네 멋대로 한다.”

“응, 반사.”

성의 없게 대꾸하며 허리에 매고 있던 검집을 풀었다.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곰일 때는 발가벗고 있다가도 사람이 될 때는 옷이며 무기까지 다 차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움직이고 싶은데 해로인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있었다. 덩치 차이가 심하게 나다보니 해로인은 그저 고개를 좀 숙인 것뿐인데도 팔을 들어 막은 것처럼 그림자에 잡아먹히는 기분이었다.

‘아니,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다 지 허락받고 다녀야 돼?’ 하고 마음이 울컥했다가도 ‘근데 얘기하겠다는 상대가…, 게다가 하루종일 아픈 모습만 보였고…’하면서 마음이 약해졌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머리만 긁적이자 해로인이 혀를 찼다.

“머리 난리 났다.”

“아. 맞다.”

“금방 넘어 갈 테니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고마워.”

인사를 하고 들고 있던 검집을 땅에 박았다. 정확히는 목걸이가 있던 곳이었다. 다음에 와서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위치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게다가 이 무기를 준 게 다름 아닌 오크족장이었다.

"엄청 튼튼한 한손검". 초보자가 슬레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 최종보스를 잡기 전 중간보스인 오크족장에게 꼭 얻어야 하는 무기. 그게 이런 식으로 오크족장과 연결될 줄은 몰랐다.

검 채로 땅에 박았기 때문인지 해로인이 자신의 무기를 쥐어주려고 했다. 다른 무기가 있다는 손가방을 한 번 흔들어주고 베른디노트에게 가자는 눈짓을 했다.

이미 수차례 다녔던 길이고, 길 자체도 단순했다. 쪼르르 따라온 설기가 너무 멀리 갈 것 같을 때만 부르며 걷다보니 어느새 메말라 죽은 땅이 나왔다. 숲속은 그래도 조금씩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눈앞의 공간은 여전했다. 경계를 넘어가기 전 휙 뒤를 돌아 입술을 뗐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흑마법사 집이에요.”

베른디노트는 자신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을 보며 말하는 날 보고도 놀라는 대신 묘한 표정만 지었다.

“보시다시피 무사히 도착했으니 돌아가세요.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건가요, 몬드 경?”

이름을 콕 집어 말하자 커다란 나무 뒤에서 몬드가 멋쩍은 얼굴로 나왔다.

“어떻게 아셨슴까?”

“설기도 알았을 걸요.”

“음.”

이름을 불린 설기가 뒤를 돌아봤다. 땡그란 눈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치? 설기도 알았지?

“이대로 돌아가면 주인님께 혼납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따가 해로인 보면 뭐라고 할 거거든요.”

“…으음. 왜 그러신지 여쭤도 됨까?”

“제 허락도 안 받고 사람을 붙였잖아요.”

물론 붙은 사람이 오닉 경이라면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말했을 지도 모르겠다. 시킨 해로인이 죄지, 오닉 경이 무슨 잘못이겠어. 하지만 몬드라면 말이 다르다.

“따라오지 마세요.”

“주인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제 말 무시하고 따라오시겠다고요?”

“한 번만 봐주심 안됨까? 제가 잘못했슴다.”

잘못했다 말하는 목소리가 한없이 가벼웠다.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대충 파악했지만 안다고 해서 봐줘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었다.

“왜 사과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얼굴에 다 알고 있다고 써져있슴다만.”

“글쎄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더 따라오시면 도망갈 거예요.”

몬드는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어깨를 늘어트리며 돌아갔다.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베른디노트 질문에 어깨만 으쓱했다. 침착하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알겠다 해놓고 사람을 붙인 해로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마침내 도착한 로니의 집은 구멍이를 타고 올라온 그을음으로 엉망이 된 상태였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 오면 들어가 볼 텐데. 먼저 살펴볼 마음을 깔끔하게 접고 뒤돌아섰다.

“베른디노트씨.”

이름을 부르다가 실수할까봐 천천히 또박또박 불렀다. 남자는 내 부름에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은발이 사르륵 흩어져 순간 화보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어제 뭘 확인하셨던 거예요? 저랑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는 왜 그 잠깐 사이에 그런 꿈을 꾼 걸까. 아니, 애초에 그게 진짜 꿈이 맞나?

아무도 깨지 못한 화이트. 공략이 없는 화이트. 세계관도 뭣도 없다던 "언아더".

“아. 이렇게까지 바로 본론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사람들 금방 올 거 같지 않아요?”

“네. 특히 전하께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

“그럼 저도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림님이 아무리 수인족이라해도 성하께는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원하고 바라시는 건 전부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뭔데?